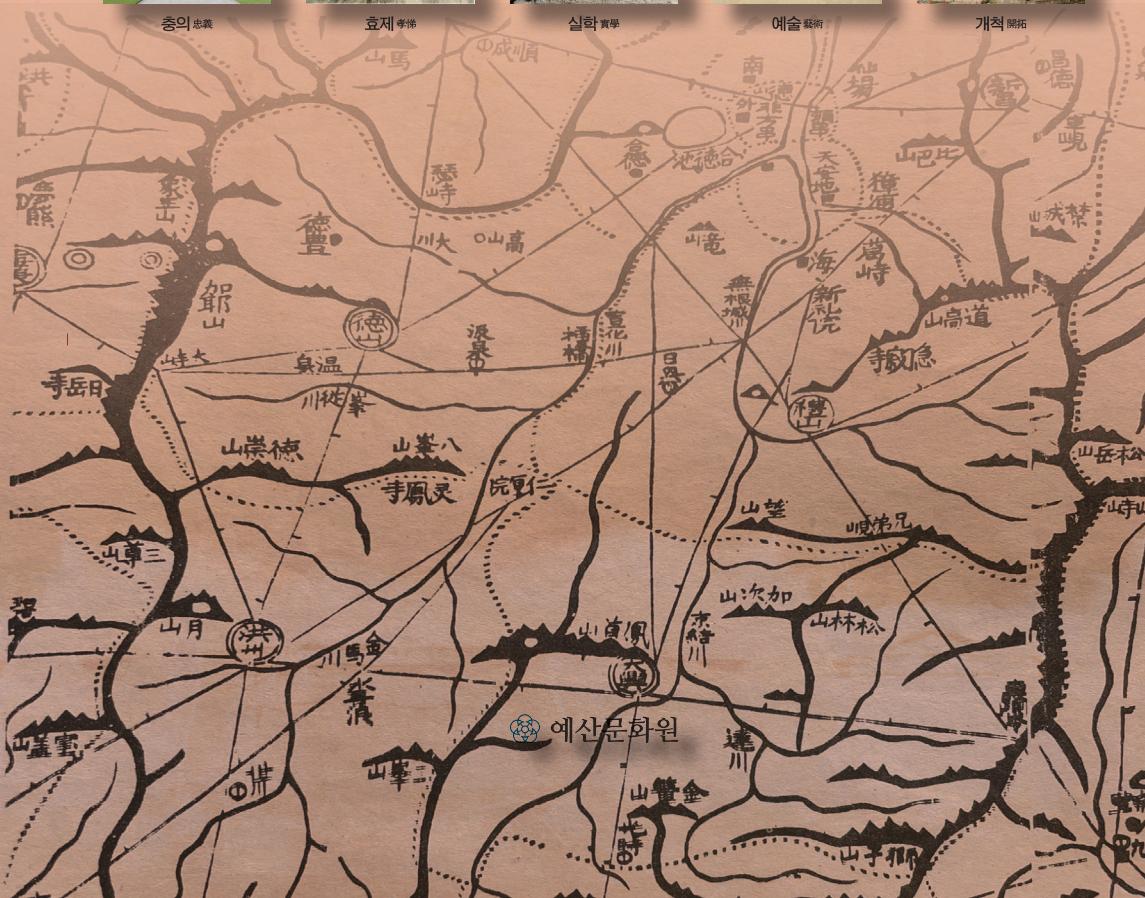


# 인물로 본 예산의 정신

한기범 지음



인물로 본  
예산의 정신

예산문화원



## 발간사

예산은 유구한 역사, 특히 지명 1100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입니다.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예산이 발전되어 오는 동안, 다른 지역과 달리 예산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쌓여졌고 그 기초 위에 현재 예산의 모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예산에 흐르는 ‘예산의 예산다움’, ‘예산인의 예산인다움’ 즉, 타 지역과 다른 예산과 예산인만이 갖는 예산의 정체성을 찾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정체성은 인물, 자연, 기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쌓여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인들의 삶에서 형성되어 온 예산의 정신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예산의 정신을 충의정신, 효제정신, 실학정신, 예술정신, 개척정신으로 분류하여 예산의 5대 정신으로 설정하고, 이와 같이 설정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를 각 주제별로 예산 인물들의 삶에서 찾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5대 정신마다 예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정리함으로써 예산의 정체성을 확실히 정립하였습니다. 예산의 인물들이 남기신 정신과 실천상을 빙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책은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앞으로 예산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동안 건강이 나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를 분석하여 험축된 결론을 내리셔서 집필해주신 한기범 한남대학교 명예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님, 최재구 예산군수님, 이상우 예산군의회 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일  
예산문화원장 김종옥

# 차 례

발간사	3
책머리에 예산학과 예산 정신	9
서설序說 예산 정신 주제의 연원적 검토	15
<b>1 예산의 충의忠義정신</b>	
1. 국난극복에 앞장선 인물들의 충의정신	46
최초의 의병, 임존성의 백제부흥운동 - 흑치상지, 복신과 도침, 지수신 거란 침입을 막아낸 고려 장군 강민첨 임란·호란의 극복 - 정현룡, 한순, 이의배, 신계영 한말 의병운동 - 최익현, 이남규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 김현종, 윤봉길, 신현상, 박인호, 조인원, 정정화	
2. 불사이군의 충절과 사화기 선비들의 절의정신	147
불사이군의 충절 정신 - 박인우, 도옹, 신숙서 사화기의 선비들의 절의정신 - 김구, 민회현, 이약수, 이담	
3. 예산 여성들의 열행과 절개	171
공신옹주와 화순옹주, 그리고 우봉이씨	
4. 예산 충의정신의 특성	181

## 2 예산의 효제孝悌정신

1. 의좋은 형제, 이성만 · 이순 형제의 효제	186
설화 버전의 <의좋은 형제>	
『세종실록』으로 보는 이성만 · 이순 형제의 효제	
<이성만 형제 효제비>에 새겨진 효제 실천과 포상	
2. 예산 선비의 돋보이는 효행	197
사화기 예산 명현의 효행	
문효공 조익과 효교리 조극선의 효행	
3. 정려를 받은 효자 · 효녀의 유형별 효행	208
4. 예산 효제정신의 특성	212

## 3 예산의 실학實學정신

1. 예산 실학의 사상적 배경 – 육경론과 인물성동론	216
2. 예산 세거 여주이씨가의 실학	222
예산세거 여주이씨의 가계	
성호가학으로서의 예산실학	
3. 김정희의 실사구시설과 고증학적 실학	243
김정희의 생애	
실사구시설로 본 구시적 실학정신	
금석문 연구로 본 고증학적 실학정신	
4. 예산 실학정신의 특성	267

## 4 예산의 예술藝術정신

1. 묵향의 본향, 예산의 서예가들	270
김구(金綉)의 인수체	
이산해의 글씨와 이서의 동국진체	
김정희의 추사체와 세한도	
2. 문향의 고장, 예산의 문인들	319
예산문학의 문을 연 사람들 - 도옹, 김구, 성호, 이산해, 신계영	
조극선의 일기 문학과 박두세의 고소설	
진경시대 이용휴의 실학적 시풍	
김정희의 「예산」 시, 그리고 가족 편지와 제문	
이남규의 고문풍과 남정일현의 한시	
3. 근현대 예산의 미술과 문학	363
근대 미술 - 이응노, 고봉주, 김두한	
근대 문학 - 성진호, 이해문, 이희철, 박창식	
4. 예산 예술정신의 특성	373

## 5 예산의 개척開拓정신

1. 근대적 종교 운동	378
천도교 4대 교주 박인호	
천주교 내포의 사도 이준창	
한국선불교의 재건, 경허와 만공	
2. 근대 교육과 근대 과학	403
숙명여대 초대총장 임숙재	
예산에 근대 학교를 세운 사람들	
예산에 근대 병원을 세운 사람들	
한국 최초의 화학박사 이태규	

3. 근대 상업과 산업	414
호서은행의 설립·경영과 예산의 지주들	
충남제사(주)의 설립·경영과 성낙규 성낙현 형제	
4. 예산 개척정신의 특성	426
맺음말 예산정신의 현대적 시사점과 비전	428

## 책머리에

### 예산학과 예산 정신

지역학으로서의 예산학은 지난 2016년 예산군과 예산문화원이 『내포의 뿌리 예산학』을 간행하고, 이 교재를 중심으로 예산군민들에게 예산학 강의의 문을 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예산학은 예산학 세미나와 예산학 총서의 간행 및 예산학 강의 등을 통하여 선진적 지역학의 하나의 모델을 형성해 왔다.

『내포의 뿌리 예산학』에서는 먼저 지역학의 기반으로서 예산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고, 예산학의 과제로 몇 가지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첫 번째 과제가 곧 예산의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을 정립하는 문제였다. 정체성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존재의 본질, 또는 그것을 규명하는 성질’이다. 그것은 자기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간단히 ‘동일성의 원리’로 풀이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예산에 있어서 동일성, 그것은 예산의 본질적인 특질을 찾는 것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즉 예산의 예산다움과 예산인의 예산인다움을 찾는 일이 곧 예산의 정체성을 밝히는 길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것의 출발은 예산과 예산인이며, 나아가서 예산의 본질이고, 예산인의 본질일 것이다. 우리는 앞의 예산학 교재에서 예산팔경을 통해 예산의 자연적 본질의 윤곽을 살핀 바 있다. 이제 예산인의 본질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러면 예산인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그것은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한 대답은 단번에 쉽게 가려지거나 설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그 하나의 분명한 기준은 곧 ‘예산 정신’을 발굴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리고 예산정신을 발굴하는 지름길은 곧 예산 인물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예산정신을 만들어 낸 주역은 바로 예산인들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산 인물의 범주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것은 예산에서 태어났거나, 예산에서 살았거나, 예산에 뼈를 묻은 사람을 예산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예산에 산 적이 없더라도 후손들에 의해서 또는 어떤 사유로 그 묘소가 예산에 있거나 초장지가 예산일 경우는 예산인의 범주에 포함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후 그것이 예산정신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의 시기적 하한은 1945년 광복까지로 하였다. 그것은 예산정신의 핵심 주제의 하나인 충의정신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을 포괄하여야 할 것인 바, 광복은 그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 검토대상의 인물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생존자는 모두 제외하였다. 서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때문이다.

예산의 인물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군과 예산문화원에서 『예산의 인물』(2002년)을 간행하였고, 또 그것의 중보편(2010)까지 간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예산정신의 벌금을 위한 기초 작업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퀘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간행된 『예산의 인물』에서는 주요 인물을 시대 순으로 서술하고 가나다순으로 찾아보게 하고 있을 뿐, 아직 그것을 그 성격에 따라 유형적으로 분류한다거나 역사적인 해석이나 현대적 시사점을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 그 인물들을 ‘예산정신’이라는 차원에서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연구사적 차원에서 재정립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그렇다면 전자가 인물지적(人物志的) 성격을 갖는다면, 후자는 인물사적(人物史的)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학의 측면에서 보면, 예산정신은 하나의 지역정신이다. 그런데 지역 정신으로서의 ‘예산정신’을 정립하고자 하는 예산인들의 소망은 역사적으로 ‘충남정

신'의 정립운동과 유사한 데가 있다. '충남정신'은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지역학 정립 운동(우리나라의 지자체 단위 중심의 지역학은 1993년 서울학으로부터 출범하였다)이 아직 본격화하기 전인 1989년 충청남도에 의하여 선도적으로 정립되었다. 그것은 당시의 도백인 심대평 전 지사가 선도적으로 내세웠던 '충남 정신 정립운동'의 첫 번째 결실이었다.

그러면 그때 충남정신의 정립이 요청되었던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먼저 1987년에 6.29선언이 있었다. 그것은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도록 한 군부 정권의 잘못된 헌법을 고쳐 국민의 직접선거로 바꾸라는 국민의 여망(이른바 '호헌철폐')에 따라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집권당의 선언이었다. 그리고 연이은 1988년의 지방자치법 공포는 직접민주주의의 정신을 지방정치에도 반영하기 위해 지역의 대표를 지역민이 직접선거로 뽑는다는 풀뿌리민주주의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의식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 곧 1989년에 시작된 '충남정신 정립운동'이었다. 지방화시대로의 이행 단계에서 지역정신의 정립이 우선과제였다고 본 것이다.

이후 이 운동은 2010년대 초까지도 다른 시도들에서는 '○○○ 지역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방안을 찾고 있을 때, 충남에서는 변함없이 꾸준히 지역정신운동으로 대응하여 갔다. 그것은 지자체의 발전도 지역정신이 바로 서고 난 후에야 효과적일 것이라는 인식의 소산이거나, 또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난무하고 있는 시대상황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도덕 정신운동이고, 따라서 인간의 가치와 도리를 중시하는 문화운동을 선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 결과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충남이 그랬고, 그 영향을 받은 당시 충청남도의 도청소재지 대전이 그랬다 (대전은 1991년 대전정신을 발표하였다).

이후 충청남도 도청은 2012년에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충청남도도 결국은 2013년에 타 지역들과 보조를 맞춰 지역학으로서의 충남학을 정립하

기 시작하였고, 기존의 충남정신은 충남학의 범위 안에서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 지역학과 지역정신을 병행하여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경향은 예산의 역사에서도 찾아진다. 즉, 예산군과 예산문화원이 2002년 『예산의 인물』을 간행한 이후, 이어서 추사 김정희, 춘암 박인호 등 인물 연구서와 인물지 증보편을 거듭 간행하고, 『예산의 실학』 간행 등 그 정신사적 지평을 넓혀 나간 사실이나, 또 2016년 지역학으로서의 『예산학』을 간행한 사실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충청남도와 예산에서의 지역정신 정립운동은 비록 시기적 차이와 광협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깊은 정신문화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다.

본서에서는 예산의 5대정신을 충의정신, 효제정신, 실학정신, 예술정신, 개척정신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예산의 인물』 등 그간의 예산 지역 관련 책자들의 그 정신사적 궤적을 추적하고, 최근의 『내포의 뿌리 예산학』에 수록된 분야별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서, 예산 인물들의 역사와 정신을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얻어진 그 정신사적 유형의 틀이라 할 수 있다.

본서의 저술 목적은 예산의 정체성 정립에 있고, 따라서 본서의 서술에서는 ‘예산인의 예산인다움’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서에서는 책머리에 먼저 예산학과 예산정신의 연계성을 밝히고, 또 제시된 예산 5대 정신의 주제에 대한 연원적 탐구와 필자의 해석을 덧붙인 개관적 검토를 하였다. 그것은 다음 장들에서 서술될 예산정신이 지닌 특질을 구명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예산정신을 따라 다섯 개의장을 나누고, 각 장마다 그 정신이 돋보이는 예산인들의 구체적인 실천상과 그 정신, 그리고 그것이 지니는 특성 등을 차례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책의 말미에는 맷음말을 두어, 예산정신의 현대적 시사점과 비전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책자의 대중성을 고려하여 알기 쉽게 풀어 쓰고자 하였고, 일일이 각주를 달지 않고 참고문헌만 책 뒤에 첨가하였으며,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는 괄호를 붙여서

그 출처를 밝혔다. 본 연구에 필요한 예산지역의 여러 참고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신 예산문화원 김종옥 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인물로 보는 예산정신의 탐구는 이제 그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 자료가 더 발굴되고, 또 보는 이의 참신한 시각이 더 개발되는 대로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나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2016년 『예산학』의 제작을 위임받아 그 기본 틀을 기획하고 여러 전문가와 문화원의 도움을 받아 예산학을 출범시킨 그 책임의 연장으로, 이 일을 거절하지 못하여 중책을 맡았지만 어깨가 무겁다. 다만 우리 문화를 아끼고 예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정신을 발굴하려고 애썼지만 시간에 쫓겨 아쉬움이 없지 않다. 강호제현의 질정을 부탁드린다.

2022년 12월 일  
저자 한기범 서





## 서설

예산정신의 주제에 대한  
연원적 검토

## 1 충의忠義 정신

역사적으로 충청도는 대개 ‘충절(忠節)의 고장’이라고 칭해져 왔다. 그것은 출중한 충절의 인물들이 유독 충청도에서 많이 배출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충절(忠節)’의 사전적 의미는 ‘충성과 절개’, 또는 ‘충성스런 절개’이다. 그런데 그것은 본고에서 예산정신으로 설정한 충의정신의 ‘충의(忠義)’와 유사하다. ‘충의’의 사전적 의미도 ‘충성과 절의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다만 충절이 충성과 함께 절개에 주목한 것이라면, 충의는 충성·절개와 함께 의리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뉘앙스의 차이가 엿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말 이후의 역사에서 돋보이는 예산의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의 의리정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예산 출신의 대표적인 독립투사 윤봉길의사의 사당이 ‘충의사(忠義祠)’로 명명된 사실도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러면 충의정신에서 충(忠)이란 무엇인가? 충은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 도(道)의 핵심이 되는 덕목이다. 공자는 일찍이 “나의 도(道)는 하나로 관통된다(吾道一以貫之)”고 하였고, 증자는 그것을 충(忠)과 서(恕)라고 풀이했다. 충(忠：中+心)은 인간의 내면적 양심이니 곧 성실한 마음이고, 서(恕：如+心)는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서 남을 헤아리는 뜻이니 곧 남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공자의 도(道)는 한마디로 자신에 대해서는 성실을 다하고, 남에 대해서는 배려를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충서(忠恕)이다. 뒤에 주자가 ‘충(忠)이란 자기 자신을 다하는 것’이라고 풀이한 것도, 결국은 자기의 성실한 마음을 다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충(忠)’은 ‘성실하게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니, 그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 자체이고, 또 그것을 임금이나 나라에까지 확충하면 그것이 곧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신민의 도리로서의 충(忠)이 되는 것이다. 충의정신의 충(忠)은 대개 후자에 방점을 둔 개념으로 쓰이며, 대개 국가에 대한 충성(忠誠)의 의미로 풀이 된다. 그런데

국가의 전쟁과 같은 극한적 상황에서는 공적인 충(忠)과 사적인 효(孝)가 선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다음은 임진왜란 초에 동래부사 송상현이 적군에게 성이 포위되었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동래성을 끝까지 수호하려고 결단을 내린 후, 그 아버지께 보내는 글에 붙인 유언 같은 시 한 구절이다.

외로운 성에 달무리 져 있는데/ 여러 진영들은 높은 베개만 베고 있네.  
임금과 신하의 의(義)는 무겁고/ 부모의 은혜(恩惠)는 가볍네.

이것은 송상현이 국난을 당한 지금으로서는 효(孝) 아닌 충(忠)을 택할 수밖에 없음을 그 아버지에게 고하여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이다. 충으로써 효를 이룬 경우이다. 이 영결의 시는 또 친구인 정산현감 김장생에게도 보내졌고, 김장생은 그 시를 벽에 걸어놓고 현민의 전쟁 결의를 독려했다고 전해진다. 예산의 경우 국난을 당해 사를 버리고 공을 택한 한순의 절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느낌을 받고 공감하게 된다.

다음으로 충의정신에서의 ‘의(義)’란 무엇인가? 그것은 절의(節義)를 말한 것이라 했다. 절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절개와 의리이다. 옳다고 믿는 것을 굳게 지켜 뜻을 굽하지 않는 것을 절개라 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의리라 한다. 그런데 절개나 의리의 공통되는 키워드는 역시 ‘옳을 의(義)’자, 즉 올바름이다. 그렇다면 의(義)란 무엇인가? ‘의(義)’는 인(仁)과 함께 유교의 기본 정신으로 제시되는 큰 덕목이다. 유가의 종주인 공맹의 사상을 말할 때 우리는 혼히 인의(仁義)라 한다.

유교경전에는 의(義)의 뜻을 깨닫게 하는 좋은 사례가 있다. 『맹자』를 보면, 중국 전국시대에 맹자가 유교적 왕도를 폐기 위하여 양(梁)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 양혜왕은 “노인께서 천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 장차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방도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맹자는 “왜 하필

리(利, 이익·이로움)를 말하십니까? 인의(仁義)가 있을 때입니다”라 했다. 유교에서의 왕도정치의 요체가 곧 인의였음을 알게 한다. 주자는 이에 대한 주해에서, ‘인(仁)은 마음의 덕이요, 사랑의 이치이며(仁者 心之德 愛之理), ‘의(義)는 마음의 제재요 일의 마땅함이라(義者 心之制 事之宜也)’ 했다. 즉 인이 어진 마음이고 사랑의 이치인 데 반해, 의는 ‘사사로운 욕심을 분별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일의 시비(是非)를 가려 올바름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의(義)에는 분별과 시비 판정이 요청되는 예리함과 날카로움이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의리정신의 본성이다. 특히 조선의 선비들은 이 의리정신을 중시했고, 그것의 실천을 강조해 왔다. 그것은 조선 도학(道學)의 특성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의리를 저버리면 도학자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고려 말 조선 초에 정몽주와 정도전은 출중한 성리학자였고 대표적인 신진사대부였다. 그런데 후일 정몽주는 도학의 정통으로 추앙되었지만, 정도전은 도학자도 도통도 어느 하나도 얻지를 못했다. 조국 고려에 대한 충(忠)의 의리를 저버렸기 때문이었다.

예산정신의 하나로 충의정신을 설정한 것도 이러한 조선의 선비문화적 정서와 무관하지가 않다. 또 전통시대의 의리정신은 여성의 절개를 뜻하기도 했다. 물론 남편이 죽으면 따라서 죽는 이른바 종부절사(從夫節死)는 타당성과 시의성을 잊은 논리로 오늘날 따로 주목할 필요가 없지만, 그 시비가 논해진 사실이나, 어려운 여건을 딛고 꿋꿋이 살아서 절개를 지키며 생을 개척해 간 장한 여인상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결국 충의정신은 성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옳은 것을 꿋꿋이 잘 지키고 실천하는 정신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을 국가에 대한 충성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현대에 적합하게 다시 한 줄로 요약해 보면, 곧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대의(大義)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절개를 굳게 지키는 정신’이라 하겠다.

## 2 효제孝悌 정신

효제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를 말한 것이다. 전통시대에는 대개 충효(忠孝)가 유교 윤리의 근간을 이루었다. 임금[나라] 섬기는 도리를 충(忠)이라 하고, 부모 섬기는 도리를 효(孝)라 했다. 그러나 중국 고대의 덕목으로는 충효보다는 사실상 효제(孝悌)가 더 먼저 강조되었다. 예컨대 맹자가 “요순의 도(道)는 효제(孝悌)일 뿐이다”라 한 데서 이를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유교의 이상향인 요순시대, 그 요순의 도가 다만 효제일 뿐이라는 것이니, 효제의 가치와 효용성이 참으로 지대한 것임을 알게 된다. 또 효제와 함께 자주 쓰이는 말로 ‘효제충신(孝悌忠信)’이 있는데, 이것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가 서로 우애하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친구에게 미덥게 하라’는 말이다. 효제충신이 한 단어로 보이는 것은 『맹자』의 양혜왕장에서, 그리고 논어집주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서의 효제의 제(悌)도 형제의 우애를 포괄하여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 이제 효와 효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먼저 유교 윤리에서의 효(孝)란 무엇인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효는 백행(百行)의 근본’이라 했다. 효가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효(孝)가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충분히 짐작해 낼 수가 있다.

그러면 효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논어』 「위정편」에는 제자들이 공자에게 직설적으로 ‘효(孝)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문효(問孝)의 사례 네 가지가 나온다. 이때 공자는 4제자(맹의자, 맹무백, 자유, 자하)의 이 동일한 물음에 대하여 각각 다른 네 가지의 답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이때 공자가 답한 효(孝)의 주제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① 【무위(無違)】 ‘어김이 없어야 한다’

부모 살아계실 때는 예(禮)로써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써 장례(葬禮)를 모시며,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써 제사(祭祀)를 모시는 일이다.

② 【질우(疾憂)】 ‘자식의 질병을 걱정하신다’

부모는 자식의 질병을 가장 염려하시니 건강에 주의하여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

③ 【불경(不敬)】 ‘공경이 부족하다’

공자는 “요즈음의 효는 능히 음식으로 잘 공양하는 것을 이르는데, 개와 말에게도 모두 길러줌이 있으니 공경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구별 하겠는가?”라 하였다. 이 말은 물질적인 것으로만 봉양하는 것이 효가 아니요, 마음으로부터 공경해야 진정한 효라는 뜻이다.

④ 【색난(色難)】 ‘얼굴색을 가지런히 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어버이 섬길 때에 얼굴색을 가지런히 하여 온화한 안색을 유지하기가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효자로 깊은 사랑이 있는 자는 반드시 온화한 기운이 있고, 온화한 기운이 있는 자는 반드시 부드러운 얼굴빛이 있고, 부드러운 얼굴빛이 있는 자는 반드시 유순한 용모가 있게 된다.

이것이 『논어』 위정편에 보이는 ‘공자의 4효(四孝)’이다. 그런데 공자는 효를 묻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각기 다른 답을 한 것일까? 그것은 공자가 질문한 사람에 따라서 각각 그에게 필요하거나 주의를 주고 싶은 것으로 답을 하신 때문으로 보인다. 요컨대 공자가 말한 효도의 요점은 ‘자식으로서의 기본 도리(위의 무위의 3가지)를 예로써 실천해야 하고, 부모의 근심거리를 덜어드리고, 부모를 공경으로 모시고, 특히 얼굴색을 가지런히 하여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효제의 ‘제(悌)’는 무엇인가? 그것은 화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다.

『논어』 원문에는 효제가 ‘孝弟’로 표기되고 있다. ‘弟’는 아우의 뜻도 있지만, 순하다·공경하다의 뜻이 있고, 또 ‘형을 공경하여 잘 섬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집안에서 아우가 형을 공경하면 형제간에 우의가 돈독해진다. 그리하여 효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여기서의 제(悌)는 또한 밖에 나가서는 윗사람과 어른에 대한 공경으로 확장되는 개념이기도 했다. 그래서 공자도 ‘제자는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경한다(弟子入則孝出則弟)’라 했다. 그러므로 공자는 “학문을 하기 전에 먼저 효제하고 행동을 삼가고 말에 신실하며 널리 대중을 사랑하되 어진 이를 친히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행하고 여력이 있거든 학문을 배우라”고 했다. 그 중 가장 먼저 제시하여 강조한 것이 곧 효제였다.

그러면 이러한 효제는 유교사상의 구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공자는 효제를 인(仁)과 관련하여 설명하기도 했다. 인(仁)은 유가의 최고이념이고 기본 사상이다. 그것은 ‘마음의 덕이고 사랑의 이치(心之德, 愛之理)’이다. 그런데 그 인의 구현과 효제의 관계에 대해서 공자는 ‘효제가 인(仁)이 되는 근본(孝悌也者其爲仁之本也)’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곧 효제 실천이 인(仁)을 행하는 기본이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효제의 가치와 효용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곧 효제로써 인(仁)이 구현된 도덕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맹자가 ‘요순의 덕은 효제일 뿐이라고 설파한 그 숨은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상적인 도덕국가는 도덕사회에 그 기반을 두고, 도덕사회는 또한 효제가 돈독한 가정이 그 뿌리가 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예산정신의 정립에서 우리가 효제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효제(孝悌)의 성공적인 실천사례를 찾기는 그리 쉽지 않다. 그것은 충효의 실천사례가 월등히 많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마도 그것은 충효가 당시의 사회가 선호하는 수직적 윤리의식에 더 부합하고, 효제가 상대적으로 덜 수직적이고 수평적 윤리로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때문인 듯하다.

이 점에서 예산의 이성만 · 이순 형제의 효제는 독특한 가치와 위상을 가질 수 있다. 옛 초등학교 교과서(1956-2000년)에 실린 <의좋은 형제>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예산의 실존인물 이성만과 이순 형제이다. 이들의 수평적이고 상호호혜적인 우애는 전통시대의 효제정신에 비해 산뜻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 3 실학實學 정신

#### 실학 개념의 형성과 추이

‘실학(實學)’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소용되는 학문’, 즉 실용(實用)의 학문이라는 뜻이다. 그 용례적 연원은 『한서(漢書)』 하간현왕전(河間獻王傳)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실제의 일에서 진리를 구한다)’에까지 소급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실학(實學)’의 초기적 용례는 고려 말 정도전이 그의 불씨잡변(佛氏雜辨)에서 불교를 허학(虛學)으로 규정하면서, 불교와는 대립각을 보이는 ‘유학 또는 신유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에서 확인된다.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의 ‘실학(實學)’의 용례를 검토해 보면, 이미 국초부터 실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후기까지도 꾸준히 나타나는데, 그것은 대개 유교 경전, 경학, 강경(講經)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때로는 수기치인, 성리학, 경세학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실록에서의 ‘실학’(용례 60여 건 중 80% 이상이 영조 이전 기사임)은 대개 유교 경전이나 경전을 익히는 것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곧 ‘수기치인의 실학’이라는 수양적 도덕적 의미가 강하였다.

한편, 조선후기의 실학시대에 실학을 대표하는 이름들, 즉 경세치용(經世致

用)(0건), 이용후생(利用厚生)(14건), 실사구시(實事求是)(8건), 고증학(考證學)(0건) 등의 용례는 의외로 아예 없거나 적게 사용되고 있었다. ‘이용후생’의 용례는 주로 정조 이후에 나타났고, ‘실사구시’는 영조와 현종이 이것을 벽에 크게 써서 붙여 놓고 경계와 반성의 자료로 삼았다는 기사가 인상적이다. 그러나 한 시대의 사조를 풍미했다는 실학(實學)의 핵심 용어들이 국가기록인 실록에 쓰인 용례가 이렇게 적은 것은 이 시기의 실학이 국가적으로 적극 수용되지 못하고 대개 재야의 학문이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우리가 조선시대의 실학 연구에서 ‘재야의 실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예산의 경우 예산세거 여주이씨가 의 성호학풍의 가학이 전형적인 재야의 실학이었다.

조선사회는 유교주의, 특히 성리학적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였다. 조선 초기에는 주자 성리학이 주조를 이루면서 대개 정치적으로 응용되었고, 16세기에는 퇴계와 윤곡을 중심으로 조선성리학(朝鮮性理學)이 형성되면서 학문적 성리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성품을 연계하여 연구하는 성리학적 연구가 성숙되었고, 그것은 사단칠정론이나 인심도심론 등에서 그 절정을 보였다. 이 시기에 윤곡 이이는 성리학이 지나치게 공론(空論)으로 흐르는 것을 우려하며 중쇠기(中衰期, 중간 쇠퇴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제도적 개혁을 주장하였고, 그의 만언소(萬言疏)로 대표되는 무실적 경장론이 제시되었지만, 국론으로 수용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16세기 말 이후 연이은 국난으로 이러한 성리학적 위상은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 즉 임진왜란(1592-1598)으로 온 나라가 7년간이나 도탄에 빠졌고, 또 연이은 병자호란(1636)으로 조선이 청의 무력 침략에 힘없이 무너지자, 그동안 정치 사회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성리학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대응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더구나 전후에 농업생산력이 점차 회복되고 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상업이 발달하여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이념이 요구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17세기에는 이전 율곡의 경장론을 계승한 유형원(1622-1673)의 제도 개혁론이 대두하여 초기 실학적 기풍을 드러냈으나 학문 연구에 그쳤다. 또 주관적 실천적 유학체계로써, 주기론의 입장에서 사회개혁을 추구하려는 양명학(陽明學)이 도입되어 조화로운 보완적 대응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또한 이때는 학문에 있어서도 주자를 절대시하는 기존 성리학의 학문 풍조에 비판이 일기 시작하여, 경전해석에서의 주자의 권위에 도전한 윤휴(1607-1680) · 박세당(1629-1703) 같은 인물이 나왔으나 이것을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규정하는 보수적 정치세력에 의해 배척되어 빛을 보지 못했다. 시대의식이 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조선 초기 아래 간헐적으로 쓰여 온 실학(實學)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허식을 경계한다는 명분적 용어로 쓰였을 뿐, 실생활이나 제도적 개혁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17세기 중엽, 효종과 서인계 산림이 연대한 북벌운동(北伐運動)에서는 청나라에 대한 복수설치와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내정개혁을 표방하면서 무실적 개혁이 제시되었다. 그들은 북벌이 가능하도록 조정에서의 정치세력의 교체, 사회 경제면에서의 적극적인 제도개혁론의 수립 등으로 단계적 준비를 갖춰갔지만, 효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때 북벌을 위한 만전지책으로 제시된 2만언에 달하는 이유태의 『기해봉사』(1650)는 윤곡의 『만언봉사』에 영향을 받은 무실적(務實的) 개혁안으로서, 당시의 정책으로 수용되지는 못했지만, 후일 실학시대의 제도개혁론이 등장하는 서곡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사실상 조선 후기의 실학시대는 역시 18세기에 와서야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살피기 위해서는 특히 '근기 남인(近畿 南人)'의 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남사람은 대개 16세기 말부터 중앙에서 벼슬하면서 점차 생활근거지를 근기지방(서울에서 가까운 지방)으로 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680년 경신 환국으로 남인이 한차례 실각하고, 또 1694년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다시 실권하

게 되었는데, 그들의 당색은 대개 동인에서 분파를 보인 남인과 북인이었다. 특히 이들 중 소북의 일부를 포함한 근기지방의 남인들이 곧 근기남인이다. 이들 중 17세기 후반 산림으로서 벼슬길에 나선 미수 허목(1595-1682)은 주자주(朱子註) 중심의 사서체제(四書體制)를 부정하고 육경(六經) 중심의 학풍을 수립하였는데, 그것은 육경 고학(古學)에 근거하여 경학과 경제학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갑술환국(1694년)으로 남인이 정권에서 도태되자, 그들의 학문은 재야의 비판학문의 성격을 뚜렷이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학풍은 18세기 전반 성호 이익(1681-1763)에 이르러 안산을 중심으로 가학(家學)으로 발전하면서 근기 남인 실학파(實學派)가 형성되었다.

한편, 18세기 후반에는 집권세력인 노론계 내부에서도 정책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변수가 작동하였다. 하나는 인물성이동 논쟁이다. 18세기 초에 송시열의 적통 문인인 권상하의 문하에서 인물성이동(人物性異同) 논쟁이 전개되었는데 인물성동론(同論)을 주장하는 편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화이론(華夷論)이 무색해졌으므로, 그렇다면 논리상 그동안 오랑캐로 치부하였던 청(淸)이 더 이상 배척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론계 소장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된 북학론(北學論)이다. 그것은 인물성동론의 결과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보다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은 그들의 발전된 중국에 대한 답사 체험이었다. 이들은 대개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부형의 자제군관으로 연경(燕京, 지금의 북경)을 가서, 청(淸)의 발전되고 변화된 선진 문물을 목격하고, 이제는 조선이 청을 오랑캐라고 배척만 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청을 통해서 새로운 문물을 배우고 수입해 들여와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홍대용(1731-1783) 박지원(1737-1805) 박제가(1750-1805) 등 노론계의 북학파(北學派)의 중심인물들이었다. 그동안 의리 명분을 내세웠던 17세기의 북벌론(北伐論)이 이들에 의해 실용 실질 실증을 위주로 하는 북학론(北學論)으로 교체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조선 역사에서 '실학'이라는 용어는 이미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지만, 그것이 학문과 학파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였다. 그리하여 특히 18세기로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약 150여 년간은 실질과 실용, 실증을 중시하는 실학과 실학풍이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학문과 사상과 문화 예술 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하였다. 대개 18세기 전반은 성호 이익(1681-1764)을 중심으로 토지제도 및 행정기구 기타 제도상의 개혁에 치중한 경세치용적 실학이 대두하였고, 18세기 후반에는 연암 박지원(1737-1805) 초정 박제기를 중심으로 상공업의 유통 및 생산기구, 일반 기술면의 혁신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적 실학이 등장하였다. 또한 그것은 곧이어 다산 정약용(1762-1836)에 의하여 종체적으로 체계화되고 집대성되었다. 그리고 19세기 전반에는 추사 김정희(1786-1856)를 중심으로 경학(經學) 및 금석전고(金石典攷)의 고증을 위주로 하는 실사구시적 실학이 대두하였고, 그것은 찬란한 예술의 발달로 꽂고위지면서 실학시대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 추사 이전 조선 선비의 구시론(求是論)

#### - 만회 권득기의 사례

예산의 실학정신은 추사 김정희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으로 대표된다. 그런데 그 이전에 조선에는 만회 권득기(權得己, 1570-1622)의 구시론(求是論)<sup>o</sup>이 있었다.

만회 권득기의 구시론은 비록 짧은 경구로 요약된 것이지만, 그 의미가 분명하고 뉘앙스가 강하여 실사구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회는 조선의 실학태동기를 살았던 무실적 인물이다. 그는 광해군 때 문과에 장원하였지만 광해군의 살제폐모의 패륜에 반항하여 일체의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평생 을 채야에 묻혀 살면서 학문에만 정진하였던 숨은 엘리트 선비였다.

만회 학술 사상의 기초가 된 것은 그의 구시(求是) 정신이다. 구시정신은 그가

평생토록 학문과 사상 및 그의 선비적 삶의 기본정신으로 삼았던 것으로, 만회를 상징하는 대표 정신이다. 구시정신의 ‘구시(求是)’는 다음의 그의 잠언(箴言)에서 따온 것인데, 후일 ‘만회의 십자훈(十字訓)’으로 칭해지는 이 잠언에는 그 정신이 간단명료하게 잘 집약되어져 있다.

매사에 반드시 옳은 것을 구하고, 제2의에 떨어지지 말라.  
(매사필구시 무락제이의, 每事必求是, 毋落第二義)

만회의 이 말에서 ‘옳은 것을 구하라는 것은 이 잠언이 만회의 도덕적 경구(警句)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매사(每事)에 반드시’라고 전제하고, 또 ‘제2의(第二義)’에 떨어지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그것이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단순히 선언적인 차원에서의 도덕적 경구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역행(力行)’하라는 강력한 실천적 요구를 내포하는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구시(求是)’의 개념

만회 정신의 핵심이 되는 ‘구시(求是)’는 곧 “모든 일에 반드시 올바른 것을 구하고 제2의에 떨어지지 말라(凡事必求是 毋落第二義)”는 그의 십자훈(十字訓)의 키워드(keyword, 핵심 단어)이다. 그러면 만회가 뜻하는 구시(求是, 옳은 것을 구함)의 시(是, 옳은 것)란 과연 어떤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역시 만회가 직접 언급한 말이나 글에서 찾아진다. 그 핵심만을 정리해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 시(是)는 선(善)이고, 지선(至善)이다.
- 시(是)는 의리(義理)이고, 당연지리(當然之理)이다.
- 시(是)는 진중(珍重)이며, 중용(中庸)이다.

이렇게 만회는 구시의 시(是)가 ‘선(善)’이고, ‘의리(義理)’이며, 진중(珍重)이고, 중용(中庸)이라 한다. 즉 착하고 지극히 착한 것이 시(是)이고, 옳고 당연한 이치가 시(是)이며, 진중한 것이 시(是)이고, 중용이 시(是)라는 것이다. 그것이 진중이고 중용이라는 것은 그가 사위 심지원(후일 효종대의 영의정)에게 준 다음의 글귀에서도 확인된다.

이른바 진중(珍重)이라는 것은 한낱 ‘시(是)’자에 지나지 않으니  
매사에 반드시 옳은 것을 구하고, 제2의에 떨어지지 말게.  
고금 천지에 다만 하나의 도리(道理)가 있을 뿐이니  
중용(中庸)을 떠나면 이것이 바로 사악(邪惡)한 것이고  
제이의[次善]에 떨어지면 이것은 의리(義理)가 아니라네.

만회는 진중을 당부하고, 그 경지가 중용이라고 전제한다. 중용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멋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를 이르는 말이다. 과불급은 넘침이나 모자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만회의 이상적 인간상(人間像)을 알게 한다. 중용의 인간상이 그것이다. 또한 이것은 앞에서의 그의 진중론(珍重論)과 함께 만회의 구시가 다만 이치상의 의리나 도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방법의 문제까지를 포괄하는 것임을 곧 알게 한다.

### 구시의 방법과 목적

그러면 ‘구시(求是)’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만회는 ‘일에 처하고 사물에 접할 때 시비(是非, 옳고 그름)를 정밀하게 살피는 것’이라 하고, 또 그 정찰(精察)의 방법은 ‘오직 마음을 비우고 기운을 평안하게 하여 서서히 의리를 살펴서 그 올바른 것을 구하는 것’이라 했다. 곧 마음을 비워서 텅 비게 하고, 기운을

평안히 해서 사색할 수 있게 한 후, 서서히 의리(義理)를 살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의리를 살피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시비(是非)를 바르게 가리라는 말이다. 그런데 시비의 분별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 것인가? 그는 “마음이 도(道)에 통한 이후에야 옳고 그름[是非]을 분별할 수 있다. 마음이 어폐해야 장차 도에 통할 것인가? 역시 격물치지(格物致知)일 뿐이다”라 했다. 결국은 격물치지가 구시의 구체적인 방법인 것이다. 사물을 연구하여 그 궁극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구시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중도(中道)의 체득에 있다. ‘구시’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중(中)’이다. 만회는 “사사물물마다 각기 십분 적당한 도리가 있는데, 이것이 중(中)이다”(권득기, 『근사록 참의』)고 말한다. 이 중은 바로 천하의 대본(大本)이다. 그러기에 다시 “매사에 십분 합당한 것을 구하고 차선에 떨어지지 말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구시’는 바로 ‘십분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 즉 ‘중(中)’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만회의 구시정신은 후일 추사의 실사구시정신과는 어떤 연관성이나 변별성을 가지는 것일까? 조선실학의 대미를 장식한 추사의 실사구시 정신의 재정립에 대해서는 추사의 ‘실사구시설’에 대한 검토에서 재론하기로 한다.

## 4 예술藝術 정신

우리에게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예술’이란 단어는 우리의 전통시대의 용어로는 낯설고 생경한 감이 없지 않다.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 보아도 오백 년의 역사 기록에서 그 용례(用例)는 두어 곳에 그치고, 그것도 근대에 와서야 분명하게 ‘예술’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전통시대 중국과 조선에서의 ‘예술(藝術)’의 용례

대개 ‘예술’은 서양의 ‘아트(Art)’를 번역한 말이라 한다. 서구에서 아트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모든 방면에 있어서의 ‘기술 일반’을 뜻하는 말이었다. 따라서 아트가 오늘날과 같은 근대적 의미의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미적인(fine)’ 혹은 ‘우아하고 즐거운(elegant and pleasant)’ 것 같은 자질이 덧붙여지거나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동양의 ‘예술’은 연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단어인가? 먼저 예술(藝術)의 한자적 구성을 보자. 그것은 ‘재주 예(藝), ‘재주 술(術)’의 합성 어이다. 한마디로 예술은 곧 ‘재주[才]’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자에서의 예(藝)는 ‘재주’ 말고도 또 ‘심는다’는 개념의 종(種), 수(樹)의 뜻이 있으니 이로써 보면 그것은 또한 ‘기능’ · ‘기술’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동양에서의 예술의 연원이나 서양에서의 아트(Art)의 연원이 다같이 ‘기술’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자의(字義)로 본 예술’이라는 단어는 곧 ‘재주이고 기술이며, 재주 있는 기술’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근대적 개념의 ‘예술’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동양에서의 예술의 시원적 용례는 멀리 후한대까지 소급된다. 『후한서』 안제기(安帝紀)에서 ‘예술(藝術)’의 문자적 용례를 찾을 수가 있다.

후한 때 낙양의 남궁 안에 동관(東觀)이 있었는데, 영초(永初) 연간(107-113) 초에 등태후(鄧太后)가 알자(謁者) 유진(劉珍), 유도도(劉驥駟), 마융(馬融) 및 오경박사(五經博士) 등에게 조서를 내려 동관의 오경(五經), 제자(諸子), 전기(傳記), 백가예술(百家藝術)을 교감하여 빼지거나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 『후한서』 효안제기, 문원열전 유진 조

이것은 『후한서』 안제기의 기록이다. 주인공 등태후(鄧太后), 81-121)는 후한 화제(和帝)의 황후이고, 안제(安帝)의 모후가 된다. 화제가 죽은 후 섭정에 오른 등태후는 후일 외척정치를 했다고 비난을 받았지만, 문화사적으로는 문인을 우대하고 문화발전에 노력한 측면도 있었다. 윗 글에서의 동관(東觀)은 중국 한 나라 때 궁중에서의 저작(著作)과 장서(藏書)의 일을 맡아보던 기관이다. 예술이라는 최초의 용례가 궁중관련 기사에서 나온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여기서의 백가예술(百家藝術)은 무엇인가? 백가는 ‘여러 학자’ 또는 ‘여러 가지’ 를 뜻하고, 백가예술을 오경이나 제자백가와 구분하는 것으로 보아, 이때 예술은 경전이나 학문은 아니고, 그 외의 재주와 기술의 저작물을 통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선의 역사기록에서는 ‘예술’의 용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위의 중국 후한서에서의 백가예술의 내용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는 『조선왕조실록』의 재예(才藝, 재능과 기예)를 들 수 있는데, 대개 기술 재능의 뜻으로 쓰인 용례가 500여 건이 넘는다. 물론 『성종실록』에는 이것을 ‘예술’로 번역한 사례도 발견된다. 그러나 원문에는 다만 ‘재예(才藝)’로 되어 있다.

날마다 경연(經筵)에 납시어 때때로 경전을 토론하셨습니다. 낮에는 세 번 접견하시고, 밤에는 밤중까지도 이르렀나이다. 깊게 지극한 이치를 밝히시고, 이단(異端)을 헤쳐 물리치셨나이다. 여가에 하시는 예술(藝術)도 신묘한 지경에 이르렀나이다(日御經筵, 時論典墳. 畫而三接, 夜或至分. 幽闇至理, 洞闢異端. 餘事才藝, 窮神盡妙).

– 『(국역)연산군일기』 4권, 연산 1년(1495) 4월 2일 을묘

이것은 성종이 죽은 후 백관이 들어와 곡하고 집사(執事)가 빈전에서 애책(哀冊, 애도하는 글, 애책문)을 읽었는데, 그 애책의 일부분이다. 눈에 띄는 것은 원문의 재예(才藝)를 ‘여가에 하시는 예술(藝術)’이라고 번역한 대목이다. 예술로

해석될 수 있는 재예, 그런데 그것을 경연 공부하고 남은 여가에 하는 것이라 하여, 예술활동의 시간성을 시사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왕조실록에 의하면 순종 대에 유길준(1856-1914)<sup>i)</sup> 그 상소에서 ‘예술(藝術)’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왕조실록』 원본에서 발견되는 최초의 ‘예술의 표기’이고, 실제로 그 내용도 아마도 근대적 개념의 예술을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

신(臣)은 일본에 오래도록 머물러있는 동안 학문(學問)을 닦은 것이 없고 예술(藝術)도 연구한 것이 없었습니다만. (하략)

여기서 유길준이 자신은 일본에서 학문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술을 한 것도 아니라 했다. 이로써 보면 당시로서 예술은 일단 학문의 범주는 아니지만, 학문 못지않게 예술도 공부할 만한 별도의 분야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유길준이 태어난 1856년은 추사 김정희가 별세한 바로 그해이다. 이 무렵에 추사의 예술론과 그 작품들이 근현대의 예술적 관념을 선도해 갔을 것도 같지만, 표기상으로는 ‘예술’이라는 단어가 잘 보이지는 않는다.

또 『조선왕조실록』에는 1924년 고종이 예술을 관람했다는 기사도 보인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조선(朝鮮) 예술(藝術)을 관람하였다. 일금 300원과 은제 물품(銀製物品)을 하사하였다.

– 『순종실록』 부록 15권, 순종 17년(1924) 10월 24일 3번째 기사

이때의 예술은 확실히 관람의 대상이 된, 그래서 미적 요소가 핵심이 된 근대적 ‘예술’을 표현한 실례라 할 것이다.

## 문예(文藝) · 무예(武藝)의 용례와 예술적 내용

조선시대에 ‘예술’이라는 용어가 없었다 해서 오늘의 우리가 말하는 예술세계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화서나 화원(畫員) 등의 드러난 이름 말고도 다른 식의 표현이 있었을 것인데, 예술과 유사한 용어로서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문예(文藝) · 무예(武藝) 등의 용어이다.

원래 문예와 무예는 조선시대 조정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문관과 무관을 나누어 선발하는 기준의 하나로 칭해졌던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연산군 때 종친 이자 등의 상소 중 다음의 기사에서 그 대장을 엿볼 수 있다.

인재(人才)는 천만 가지여서 저것에 능한 사람은 이것에 모자라고, 이것에 능한 사람은 혹 저것에 모자랍니다. 그러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뽑을 때, 장점(長點)만 취하고 단점(短點)을 얹지로 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성조(聖朝)에서 문무(文武)의 기예(技藝)를 시험 보인 본의입니다.

여기서는 인재(人才)의 재능적 한계와 함께 지도자의 인재 활용의 방법을 설득력 있게 잘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선의 역대 조정에서 문무의 기예(技藝), 즉 문(文)의 기술(재주)과 무(武)의 기술(재주)을 따라 나누어서 관리를 선발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예술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문예, 즉 문(文)의 기술(재주)이라 할 것인데, 태조대의 기록에서는 “(후한의) 광무제가 창을 던지고 문예(文藝)를 강론하였으며, 말 타기를 멈추고 도(道)를 논하였다. 이같이 문예를 서둘렀으므로, 그 성덕을 칭송하였다”라 했다. 그런데 태조대의 또 다른 기록에는 “문예는 반드시 10년 후에 성공이 있는 것인데 식년(3년)마다 33인을 취하니(중략)”라 했다. 10년 걸리는 문예라면, 그것은 곧 유가 경전에 대한 경전공부가 포함된

문예일 것이다. 그런데 문예에는 경전공부 외에도 문장과 글씨가 포함되기도 했다. 즉 세종대의 기록에 “문예는 문과에 장원했으니 족히 문장의 아름다움을 보았도다”라 한 것이나, 예종대의 기록에 “전날 문예를 시험할 때, 제술을 잘 한 자가 적었습니다”라는 기사에서 이를 알 수가 있다. 또한 그것은 성종대의 기록에 (과거를) ‘제술(製述) 시(詩) 부(賦) 등의 문예(文藝)로 시취하는 것’이라는 기사나, 선조수정실록의 <홍문관 부제학 이해수 출기>에서 “시(詩)를 잘하고 예서(隸書)를 잘 써서 문예(文藝)가 높았으나 절행(節行)에 가리어 사람들이 그를 일컫지 않았다” 라 한 것을 보듯, 문예는 경전을 바탕으로 학문과 그것을 표현하는 문장과 글씨를 통칭한 것이 아니었나 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 오늘의 예술의 범주가 되는 것은 곧 시와 문학이며, 또 그것을 표출하는 글씨(書藝)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것은 문학과 서예가 포함된 미술이라 하겠다.

### 육예(六藝)의 용례와 그 예술(藝術)적 내용

또 하나 근현대의 ‘예술’ 의식에 보다 근접하는 단어로서는 ‘육예(六藝)’가 주목 된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육예(六藝)’라 하여 여섯 가지 기예를 중시하였다. 그것은 본래 중국 주(周) 나라 때 행해진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의 6가지 교육 과목을 말하는데, 그것은 각각 예절 지키기, 노래하기, 활쏘기, 말 타기, 글씨쓰기, 숫자 계산하기 등 여섯 가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예였다. 그런데 또한 6예(六藝)는 유교의 기본 경전인 시경(詩經) 서경(書經) 역경(易經) 예기(禮記) 춘추(春秋) 악경(樂經)의 6경(六經)을 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했다. 전자가 일반적인 교양수준의 초급 육예라면 후자는 전문적 유학 수준의 고급 육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후일의 예술과 보다 가깝게 관련지을 수 있는 것은 일단 교양수준의 초급 육예인 예악시어사수라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육예는 실제로 조선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었을까? 17세기의 산림 초려 이유태(1607-1684)는 효종 때 무실적 정책 대안으로 『기해봉사』(1650

년)를 저술하여 현종초에 조정에 봉진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향약(鄉約)」의 실천 덕목으로 육예(六藝)가 제시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禮)** : 반드시 『주자가례』를 읽는다. 능통하지 못한 사람은 벌한다.

**악(樂)** : 채서산의 율려서(律呂書, 채원정의 율려신서)가 있다.

**사(射)** : 무릇 모임을 가질 때는 반드시 활을 쏜다.

**어(御)** : -

**서(書)** : 글씨를 쓸 때는 반드시 해서(楷書)로 바르게 쓴다.

**수(數)** : 암산이나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는 사람은 벌한다.

여기서 『주자가례』는 당시 조선사회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주자의 가례(家禮 : 가정에서의 예법)를 말하고, 채서산(蔡西山)의 율려서는 송나라 채원정(蔡元定)의 음악론인 『율려신서(律呂新書)』를 말한다. 율려란 국악에서의 음악이나 음성의 기락을 말한다. 그리고 특히 서(書)는 ‘글씨쓰기’로 ‘반드시 해서(楷書)로 바르게 쓴다’라 한 점이 주목된다. 해서는 예서(隸書)에서 발달한 것으로 글자 모양이 가장 반듯한 것, 곧 정서(正書)를 칭하는 서체이다. 또 ‘반드시 해서로 써야 한다’라 한 것을 보면 아마도 당시에 해서 아닌 다른 글씨체도 상당히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이로써 보면 결국 전통시대의 육예 중, 오늘의 예술과 관련 지어 볼 수 있는 것은 음악(音樂)과 서예(書藝)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예는 곧 서화(書畫)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육예의 범주에 그림까지를 포함해도 무방할 듯하다. 그리고 고급 육예에는 육경의 문장과 함께 시경(詩經)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오늘의 ‘문학’의 범주는 여기 고급 육예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사실상 오늘의 주된 예술의 범주인 문학 음악 미술은 이미 전통시대의 육예(六藝) 구조 속에 모두 존재해 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 서예(書藝) · 서화(書畫) · 시서(詩書)의 용례

『조선왕조실록』에는 서예의 용례는 단 2건, 서화의 용례는 43건, 시서의 용례는 138건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서예가 적은 것은 그것이 서화나 시서에 포함되어 쓰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시서는 ‘시와 글씨’를 뜻한 경우와 ‘시경과 서경’을 뜻한 경우가 섞여 있다. 시서화(詩書畫)가 있을 법 하지만 용례가 보이지 않는 않는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서화(書畫)의 용례다. 조선시대에 서화에 대한 기본 인식은 대개 두 가지였던 것 같다. 하나는 군주(君主)의 서화이고 다른 하나는 사대부(士大夫)의 서화이다. 전자는 억제해야 하는 기예이고, 후자는 장려해야 하는 기예였다.

성종대의 기록에 “옛날의 제왕은 서화(書畫)나 사장(詞章, 시가와 문장)을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할 여가도 없었던 것입니다”라 했고, 또 “대저 덕행이 근본이고, 문예(文藝)는 말단입니다. … 고려의 공민왕에 이르러서는 서화(書畫)와 산력(算曆)에 정통하지 못한 바가 없었으나, 덕(德)이 없었으므로 망한 것입니다. 제왕은 오로지 덕행을 숭상해야 하고, 문예는 그 밖의 일입니다”라 했다. 또 인조대에 대사헌 조경은 “당 현종과 송 휘종이 국가를 난망에 빠지게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서화(書畫)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 먼저 마음을 방탕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 두 임금을 경계로 삼지 않으시고 달가운 마음으로 그들을 본받으신단 말입니까?”라 한 데서 저간의 사정을 대강 읽을 수가 있다.

한편 사대부의 서화(書畫)는 자랑할 만한 기예의 하나였고, 그래서 장려의 대상이었다. 문종실록의 기록에 윤봉이 임금에게 “태종 황제(명나라 성조) 때 태감(太監, 명의 환관) 한 사람이 있어 나에게 말하기를, ‘조선 사람은 달자(達子, 달단족 즉 타타르족)와 다름없다고 하므로, 내가 마음속에 노한 생각을 품고서 말하기를, ‘달달(達達, 몽고의 한 부족)도 또한 금기(琴碁, 거문고와 바둑)와 서화

(書畫, 글씨와 그림)를 아는가?’ 하니,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얼굴을 붉히면서 말하기를, ‘내가 실언(失言)하였다고 했습니다’라 했다. 금기와 함께 서화를 민족 문화적 자부심으로 자랑스럽게 표출한 사례이다. 단종실록에 “처음 이용은 시문과 서화를 좋아하고, 문장을 잘하고 소예(小藝)에 능한 것이 많았다”라 하였고, 연산군대의 노사신 졸기에는 “옛 사람의 서화를 모아 그것으로써 스스로 즐겼다”라 했다. 또 중종은 전교를 통해, “세종 때에는 비록 백공의 기예라도 권장하지 않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온갖 장인(匠人)들이 지극히 정교해졌다. 서화(書畫) 같은 소소한 기예에 있어서도 조금 유능하다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면 포장(褒獎)하고 권면하지 않는 일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모두 본받으려고 생각하여 각기 힘을 다하였다. 때문에 글씨에 능하고 그림에 능한 사람들을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지난번에 사신이 그림을 청했을 적에 하나도 그림에 정교한 사람이 없으므로 제때에 그려 주지 못했었다. 백공의 기예가 대체로 모두 이러하니 보통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했다. 또 현종개수실록의 조속 졸기에서도 “조속은 서화에 모두 절묘하여 세상에 많이 전해진다”고 특기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서 실학기 이전 조선인들의 서화에 대한 인식의 경향을 대강 읽을 수 있다 하겠다. 특히 위의 내용 중 승문천예(崇文賤藝)의식은 추사의 학예일치(學藝一致) 또는 예문일치(藝文一致)의 사상과는 대조적인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예술의 사전적 의미와 미학적 해석

전통시대의 예술적 경향이나 추세가 근대적 개념으로서의 예술과 어떻게 접맥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추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예술에 대한 사전적 의미 분석이나 근대를 살았던 연구자들의 예술론 등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다.

먼저 표준 국어사전에서는 ‘예술은 기예와 학술을 이울리 이르는 말이며, 특별

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美]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을 이르는 말이라 했다. 이 경우 예술은 공간예술, 시간예술, 종합예술로 대분 할 수 있다. 공간예술은 회화 조각 건축 등과 같이 각종 재료를 사용하여 공간에 형태를 만드는 예술이고, 시간예술은 음악 무용 영화 따위와 같이 시간이 경과하는 가운데 표현되는 예술이다. 그리고 종합예술은 분야를 달리 하는 모든 예술적 요소를 종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음악 회화 문학 건축 무용 등 여러 분야의 예술을 혼합하여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전통시대의 문예론이나 육예론 및 서화론에서 근대적 예술과 연계될 수 있는 범주는 서예 문학 음악 미술 등이었다. 이 점을 고려하면서 근대 조선의 문단을 이끈 춘원 이광수의 예술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광수는 ‘예술이란 문학 음악 미술을 포괄하면서, 정(情)과 미(美)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그것을 ‘정(情)의 만족을 구하는 활동’이라고도 했다. 이광수의 예술론에서도 역시 예술의 주된 대상의 범주가 문학 음악 미술임을 알 수가 있다. (단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예산의 음악에 관한 자료가 미흡하여 논술대상에서 일단 제외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에 대한 미학적(美學的) 견해들에 대한 검토이다. 이것은 본장에서 검토한 대표적인 서예 그림 문학들에 대한 그 성격과 특색의 추출작업에서 긴요한 단서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 류종열(柳宗悅 : 야나기 무네요시, 1889–1961)

류종열은 한국의 민화나 민예품 등 한국문화를 평생 연구한 일본인 학자이다. 그런데 그는 기본적으로 반도사관적 문학관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예술과 미에 대해서 연구한 그는 한국의 지형적 환경이 반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반도라는 환경이 한국 운명의 방향을 정하는 요인이고 그것이 한국인의 문학

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인은 3면이 바다이고, 또 대륙의 무거운 압력에 짓눌려서 평안을 얻지 못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생겨난 예술은 비애(悲哀)의 미(美)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중국의 예술은 의지(意志 : 어떤 일을 이루려는 마음)의 예술이고, 일본의 예술은 정취(情趣 : 깊은 정서를 자아내는 흥취)의 예술인데, 그 사이에서 혼자 비애(悲哀 : 슬픔과 설움)의 운명을 져야 했던 것이 한국의 예술의 특성이라 한다.

이런 심정의 샘에서 넘쳐난 예술은 어떤 방향을 선택했을까? 모든 미는 비애의 미였다. 그들은 그 쓸쓸함을 털어놓을 벗을 미의 세계에서 구했다. 그들은 이 때문에 그들에게 어울리는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필연적으로 그 민족은 표현의 제3의 길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했다. 線이야 말로 요구되는 선이었다. 불안하고 쓸쓸한 마음을 전하는 데 저 눈물겨운 선 보다 더 잘 어울리는 길은 없을 것이다. 선에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끝없는 밀의가 있었다. 민족의 일체의 것을 선으로 미화했다. (류종열, 『조선의 예술』, 박재희 역, 문공사, 1982)

이렇게 류종열은 한국의 미를 비애의 미로 규정짓고, 이러한 비애를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 양식은 선(線)이므로 한국인은 선을 통해서 비애의 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이 발표된 1920년대에는 한국의 지성인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기도 했으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대한 비판과 반론이 제기되었다.

### ○ 조지훈(趙芝薰, 1920–1968)

조지훈은 박목월 박두진과 함께 청록파 시인으로 활동한 시인이자 수필가이다. 그는 한국예술의 특성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즉 힘의 예술, 꿈의 예술,

슬픔의 예술, 멎의 예술이 그것이다. 그리고 꿈의 예술이 그 정신에 내포한 힘을 상실하게 되면 그로부터 슬픔의 예술이 싹트기 시작한다고 보았다. 비애를 강조한 유종열의 견해와 부분적으로 상통하는 데가 있다. 그의 '멋의 예술론'은 예산의 예술 정신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 ○ 김원룡(金元龍, 1922–1993)

김원룡은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불모상태의 한국고고학을 이끌었으며, 미술사학에도 상당한 업적을 남겼다. 그는 한국의 미(美)에 대한 많은 논의에서 공통 분모로 집약될 수 있는 것은 '자연(自然)의 미(美)'라고 본다. 우리의 전통적인 미의식은 인공(人共)을 배제한 자연(自然)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는 자연스러움의 선호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자연의 미라고 할 것이다. 자연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한국적 자연으로 한국에서의 예술활동의 무대가 된 바로 그 한국의 자연이다.(김원룡, 『한국미의 탐구』, 열화당, 1978)

한국의 미에 대한 김원룡의 자연의 미 예찬은 대개 공감하는 바다. 그러나 자연 그대로에서 떠나 이미 인공이 가해진 예술에서는 자연그대로의 자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작품이 그 실재성 실용성을 넘어서 예술적 가치를 가질 때 미는 복합성을 가진다. 결국 이처럼 자연미에서 확대 융합된 문학적 요소나 미술적 요소를 예술적인 경지로 승화시킨 데에서 예술 정신이 찾아질 것이다.

### ○ 고유섭(高裕燮, 1905–1944)

고유섭은 한국 최초의 미학 및 미술사학자이다. 그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철학과에서 미학과 미술사를 전공하고 개성박물관장 등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식견으로 한국의 미술사와 미술품 등을 분류 정리하였다. 고유섭은 우리의 전통 미를 ‘구수한 큰 맛’에 ‘적조(寂照 : 고요하게 비추임)’와 ‘유모어가 합치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유섭, 한국미술사 급 미학논고, 통문관, 1963) 한국 문화 예술에서 그가 제시한 구수한 큰 맛과 적조된 형상, 그리고 유머의 이완인 해학 미를 찾아내는 것은 한국예술정신의 큰 맥을 찾는 과제일 수 있다.

### ○ 조요한(趙要翰, 1926–2002)

조요한은 예술 종교 철학 등으로 연구의 폭을 확장하면서, 서양학문으로서의 미학을 수용하여 한국미술에 접맥시키고 한국예술의 정신을 밝히는 일에 기여하였다. 그는 인위(人爲)를 거부하는 것이 한국미이며,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의지결여형(意志缺如性)을 한국의 소박미(素朴美)라고 전제하고, 한국미의 특징은 해학적인 데 있으며, 한국의 예술가는 현실을 적료(寂廖 : 고요하고 공허함)한 유모어로 굴절시킨다고 했다. (조요한, 『예술철학』, 법문사, 1973)

이상 한국문화의 특성에 대한 미학 담론은 류종열의 편향된 반도사관적 문학론을 제외하면 대개 상당한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미학 담론들이 전통시대 예산의 예술문화를 이해하고 예산의 예술정신을 정립하는 데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 5 개척開拓 정신

개척(開拓) 정신은 새로운 분야나 단계에 처음으로 도전하여 발전적으로 새 길을 열고 밟는 정신이다. ‘개척은 새로운 영역이나 운명 · 진로 따위가 처음으로

열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거친 땅을 일구어서 논밭과 같이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개척정신에는 다양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벼려둔 것을 일깨워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 내고자 하는 개혁적 욕구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정신에서 방점이 두어지는 것은 역시 새로운 분야나 단계에 처음으로 새 길을 열고 닦는 정신이다.

예산의 역사와 예산인의 활동상을 보면 예산인들은 개척정신이 출중하였다. 예산군 봉산면 화전리에 세워진 백제시대의 사면석불은 돌기둥 네 면에 각각 불상을 새긴 백제 유일의 사면불이다. 이 사면석불은 백제의 불교 수용기에 태안·서산의 마애석불로 이어진 불교의 유입로에 세워진 것이라는 점에서 백제 불교 수용기의 개척적 불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척정신으로 주목되는 고려시대 인물로는 17세기에 예산의 삽교읍에 세워진 누산영당의 주인공 목은 이색이다. 이색은 송대의 성리학을 수용하여 정몽주 정도전 등 신진사대부를 육성한 선도적 성리학자였다. 특히 그는 주자가 전문용어로 주로 사용하였던 천인합일(天人合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시종일관 천인무간(天人無間)·천아무간(天我無間)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성리학의 경향을 대별함으로써, 후일 주자학에 충실했던 영남학파(퇴계학파)와 개방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수용한 기호학파(율곡학파)의 학문경향을 변별할 수 있는 단서를 열고, 또 한말 인내천 사상의 조선적 연원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18세기 이후에 전개된 인물성이동논쟁(人物性異同論爭)에는 예산인 현상벽, 윤봉구, 한홍구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그것은 16세기의 인성을 천착한 사단칠정논쟁이나 17세기의 예송논쟁에 뒤이은 한국유학 3대논쟁의 하나로서, 특히 인성연구를 넘어 인성과 물성의 이동을 규명하는 개척적 측면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그 중 인물성동성동론은 이제까지의 화이론적 구별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청에 대해서 복별론을 대신하여 복학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상적 출구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18세기 이후 예산에

서 형성된 조선후기 실학풍 역시 개척정신과 깊게 연관된다. 예산세가 여주이씨 가의 다양한 실학풍과 추사 김정희의 실사구시적 실학풍과 그 결실로서의 찬란한 예술풍은 모두 개척적인 노력의 결과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척적 노력과 사고들은 대개 관련 인물을 중심으로 충의정신이나 실학정신, 또는 예술정신에서 각각의 그 정신에 방점을 두고 검토되었으므로, 그 바탕에 개척정신이 가미되었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고, 편제상 여기 제5장의 개척정신에서는 특히 한말이후 근대 예산의 역사에서 확인되는 예산인의 개척정신에 주목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예산인의 근대적 개척사업으로 주목되는 것은 특히 새로운 종교의 창도나 중흥적 개혁, 근대 교육과 근대 과학, 그리고 근대 산업·상업의 면에서의 다양한 개척사업들이 돋보인다. 근대 종교분야에서는 새로운 자생적 종교로서의 동학의 출현과 기독교의 파상적 보급과 선불교의 중흥적 시도가 돋보인다. 또 근대교육, 근대적 서양의학 수학과 지역 보급, 근대 과학의 수학과 대학 보급, 그리고 호서은행의 창립과 충남제사주의 건설과 운영 등은 모두 전통적 방법에 대비하여 개척적 측면이 뚜렷하다는 의미에서 그 개척정신이 선명히 드러난다.

이와 같이 예산의 개척정신은 예산의 여러 파트별 정신사에 그 동반적 기틀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한말 이후 근대에 있어서는 새로운 근대 지향적 사업들에서 그 기반이 되는 정신적 지주로 기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 1 장

## 예산의 충의 愛義 정신

1. 국난극복에 앞장선 인물들의 충의정신
2. 불사이군의 충절과 사화기 선비들의 절의정신
3. 예산 여성들의 열행과 절개
4. 예산 충의정신의 특성

## 1. 국난극복에 앞장 선 인물들의 충의정신

### 최초의 의병, 임존성의 백제부흥운동

#### - 흑치상지, 복신과 도침, 지수신

민족 사학자 단재 신채호(1880-1936)는 그의 『조선상고사』에서 백제부흥운동을 의병운동으로 규정하고, 의병의 발생 지점이 3곳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유독 서부 의병대장 부여복신(扶餘福信)과 그 아성인 대홍의 임존성(任存城 : 일명 대홍 산성, 현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산 28)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복신을 중심으로 한 백제부흥운동의 의병적 성격과 이 부흥운동에서의 대홍·임존성의 역할과 위상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일부 글들에서 단재가 ‘대홍·임존성의 백제부흥운동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어난 최초의 의병운동이라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를 두고 한 말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삼국사기』 백제 의자왕조에서도 백제부흥군의 기사를 기록한 말미에서 “처음 흑치상지는 망국으로 인하여 군사를 모으니 귀부하는 무리가 3만이나 되므로 소정방이 군사를 파견하여…”라 하여 소정방이 아직 귀국하기 전 흑치상지의 거병이 부흥군 최초의 거사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백제부흥운동은 백제가 나당연합군에게 침략을 받아 수도 사비가 점령된 660년 7월로부터 시작하여 임존성(任存城)의 부흥운동군이 저들에 의해 완전히 진압되는 663년 말까지의 3년여 간 계속된 백제민의 구국운동이다. 그것은 외세의 침략자들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는 백제민들의 애국적 무력 투쟁이었고, 나당연합군을 대상으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외롭고 힘겨운 백제인의 최후의 항쟁이었다. 이 점에서 백제부흥운동은 그 성패를 넘어 그 정신적 가치와 의미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임존성 전경

지금의 예산(禮山) 땅에 위치한 임존성(任存城),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350여 년 전에 그 성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일에 앞장섰던 부흥군의 지도자들과 참여 의병들의 애국심과 구국정신은 그 역사와 함께 그들을 이어 이 땅에 살아온 예산인들에게는 지역의 자랑이 되고 예산인의 자부심이 되어 왔다. 따라서 그것은 분명히 예산인의 정체성(正體性)의 한 축을 형성하는 요소로서, 임존성은 예산의 하나의 상징이 되고, 부흥운동에 몸 바친 의병들의 구국정신은 예산인의 원조 충의(忠義) 정신이라고 칭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백제부흥운동은 예산 땅에서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대표적 인물들은 흑치상지, 복신과 도침, 그리고 지수신 등이다. 이들의 활동상을 중심으로 이 시기의 백제부흥운동과 거기에 담긴 백제인의 충의정신을 짐검해 보자.

## 백제부흥운동의 불을 지핀 임존성의 흑치상지

『삼국사기』에 의하면, 660년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어 신라군은 탄현을 넘고 당나라군은 기벌포를 통해 함께 부여로 쳐들어오자, 의자왕은 충신 성충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을 한탄하며, 태자 효(孝)와 함께 옛 수도 웅진(지금의 공주)으로 피난하였다. 그리고 사비성(부여성)은 제2왕자인 태(泰)가 남아서 지켰으나 오래 버티지 못하였고, 의자왕과 태자 효도 마침내 적에게 투항하였다. 그리하여 660년 7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던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게 폐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이것은 백제의 수도와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봉괴에 불과할 뿐 백제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당나라는 사비성을 함락시킨 후 백제의 옛 땅에 공주의 웅진도독부 등 5도독부를 두어 지배권역을 지배하고자 했으나, 일부 지역 외에는 통제력이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백제 부흥군 및 그 지지 세력이 전국에 포진하고 있었다.

임존성에서 출발한 초기 백제 부흥운동의 지도자는 달솔(達率) 흑치상지(黑齒常之 : 630-689)였다. 『삼국사기』 열전과 1929년 중국 북망산에서 발견된 그의 「묘지(墓誌)」(현재 중국 남경박물관에 보존 중) 등에 의하면, 660년 당시 흑치상지는 31세의 청년 장군이었다. 그는 7척 거구의 용감하고 지략이 뛰어난 전형적인 군인으로서, 풍달군장(風達郡將)을 겸하고 있었다. 그는 백제 서부 출신의 귀족으로 중조부로부터 달솔이었고, 그 직위는 할아버지-아버지로 이어졌으며, 그가 아직 약관(弱冠 : 20세 이전)일 때 이 직을 승계하였다고 한다. 달솔은 백제의 16관등 중 2번째에 해당하는 높은 지위였다. 이로써 보아 그의 가계는 백제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귀족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성씨로 적힌 '흑치(黑齒)'는 그가 받은 봉지(封地)의 이름이라 하였는데, 그가 봉지로 받은 땅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예산군 덕산면 금물향의 금물(今勿)을 흑치(黑齒, 검은

이 또는 검은 내)로 보는 국내설과 양서(梁書)에 나오는 흑치국(黑齒國)으로 추정하는 국외설이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다. 위의 그의 「묘지」에는 그가 왕족으로서 부여씨(扶餘氏)였는데, 후에 당으로부터 봉지를 받게 됨으로써 흑치라는 성씨를 얻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처음 660년(의자왕 20) 7월, 사비성이 나당 연합군에 의해 함락되고 의자왕이 항복하여 백제가 망하자, 백제의 지도자들은 대개 항복하였다. 이때 흑치상지의 부하들은 항복했으나 그는 굴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당나라 소정방이 의자왕과 태자 효(孝)를 비롯해 여러 왕자를 사로잡고 당나라 군사를 풀어서 제멋대로 약탈하자, 이에 분개하여 가까운 부장[좌우추장(左右酋長)] 10여 명과 탈출하여 임존산성(任存山城)을 근거지로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흑치상지가 백제부흥의 기치를 들고 나서자 단 10일 만에 그를 따라 모여든 부흥군이 3만 명에 이르렀다. 흑치상지의 부흥군은 일치단결하여 결국은 당나라 군사의 침공을 물리쳤고, 연이은 신라의 침공군까지 거의 궤멸시켰다. 이렇게 부흥군이 승승장구하자 사태를 관망하고 있던 남방의 200여 성(城)이 이들 부흥군에 속속 합류하면서 부흥군은 더욱 기세를 떨쳤다. 삼국사기 의자왕 조에 “흑치상지는 별부장(別部長) 사타상여(沙咤相如)와 함께 험한 요지(『삼국사기』의 그의 열전 기사에 의하면 여기가 바로 임존산성이다)에 의거하여 복신에게 응하였으니 결국은 드디어 모든 성이 항복하였다” 한 것으로 보아 아마 이 무렵 흑치상지는 복신의 세력과도 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본격적인 백제부흥운동, 복신과 도침

한편 백제 유신들의 부흥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부여를 점령하고 있던 당나라 소정방의 주력부대가 사비성에서 철수(660년 9월)한 뒤로부터였다. 의자왕의 종형제인 왕족 복신(福信 : 무왕의 조카)과 승려 도침(道琛)은 대개 주류성(周留城,

현재의 충남 한산·혹은 전북 부안)을 중심으로 웅거하면서 임존성의 흑치상지군과 연대하고 있었다. 이들은 당시 일본에 가 있던 백제 왕자 풍을 왕으로 영입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백제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가 661년 정월 무렵이었다.

복신의 성명은 귀실복신(鬼室福信, ?-663)이고, 별칭은 부여복신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귀실복신(鬼室福信)이 무왕의 조카라고 기록하고 있고,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도 귀실복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찬성씨록』에 귀실은 원래 부여씨(扶餘氏)였으나 귀신의 감화를 받아 성을 귀실(鬼室)로 고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복신의 가계는 원래 왕족이었고, 어느 시점부터 부여씨가 되고, 부여씨에서 갈라져 나와 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복신의 이름이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구당서』 백제전이다. 여기에는 복신이 627년(무왕 28) 8월 무왕의 사절로 당에 파견되었는데, 그때의 관위는 달솔이었으며, 이때 당 태종은 복신과 고구려의 사신을 불러 신라 공격을 그만두라는 조서를 내렸지만 백제가 바로 이듬해인 628년 2월 다시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면 복신과 함께 거병한 승려 도침(道琛, ?-661)은 또 어떤 인물이었는가? 도침은 백제의 승려이다. 승려가 되기 이전의 그의 출생지나 신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예산 봉수산 기슭에 있는 대련사를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또 그가 임존성과 주류성에서 의병활동을 주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아마도 그는 당시 상당히 높은 신분계층이었을 것 같고, 또 임존성과 주류성 부근의 사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로 추정된다.

복신과 도침은 주류성을 근거로 하여 백제부흥운동을 전개하면서, 왕자 부여풍(扶餘豐)을 왕으로 추대하여 독립된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때 도침은 스스로 영군장군(領軍將軍)으로, 또 복신은 상감장군(霜岑將軍)이라 칭하고 백제의 유민들을 모아 기세를 떨쳤다. 661년 2월 북서부의 많은 성들이 백제

부흥군에 호응하자, 복신은 모집된 군 병력을 재정비하여 661년 3월 사비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당시 사비성에는 유인원의 당군과 김인태의 신라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흥군의 침입이 거세지자 각기 본국에 원병을 요청하였고, 이때 신라에서는 태종무열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후원해왔다. 전세가 불리해진 복신의 부흥군은 일단 임존성으로 후퇴하였다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주류성으로 돌아와 백강(白江) 입구를 막아 당군의 상륙을 저지함과 동시에 사비성을 다시 공격하였다. 그러나 사비성의 유인원 부대에 대한 당장(唐將) 유인궤의 지원으로 인해 아군에게는 전세가 불리했으므로 사비성을 공격하던 백제부흥군은 다시 임존성으로 후퇴하였다.

이 무렵 이들의 세력은 상당했던 것 같다. 이들은 당나라 장군 유인궤에게 보낸 글에서 “듣건대 당(唐)이 신라와 약속하기를, ‘백제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죽인 뒤에 나라를 신라에 넘겨주려 한다’고 하였다 하니,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어찌 싸워 죽는 것과 같으랴. 이에 우리는 더욱 단결하여 스스로 굳게 사수할 따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세가 넘쳤다.

이에 대해 당나라 장수 유인궤는 글로써 화와 복을 갖추어 가지고 사자(使者)를 보내 이들을 설득하려 하였다. 그러나 도침은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가 많음을 믿고서 교만해져서 유인궤의 사자를 외관(外館)에 가두고 당나라 진영에 알리기를, “지체가 낮은 관리를 사자로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일국의 대장들인데 그대가 직접 오지 않으니 답서하지 않겠다”라 하고 사자를 처단하여 보냈다. 당시 백제부흥군은 한때 수도 사비성(四比城)을 포위할 정도로 크고 작은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 **백제 부흥군의 옹산성(계족산성) 전투**

이때 복신의 백제부흥군은 지금의 대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라성(支羅城) · 사정성(沙井城) · 옹산성(甕山城) · 진현성(眞峴城) 등에 웅거하면서 신라군이

금강을 통해서 웅진(熊津 : 지금의 공주)과 사비(泗沘 : 지금의 부여)로 운송하는 양로(糧路)를 끊어 나당연합군을 괴롭혔다.



옹산성(지금의 계족산성)

삼국시대에 대전의 옹산성(계족산성) 인근은 백제와 신라의 접경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양국 간의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요충으로, 백제가 망한 후에도 백제부흥운동의 거점 지역의 하나였다. 『삼국사기』에 수록된 백제부흥운동의 대전지역의 거점 중에는 옹산성, 우술성 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성들은 각각 현재 대전시 대덕구의 계족산성과 연축동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때 김유신 장군의 신라군이 옹산성을 공격하여 수천 명을 참살하였고, 또 신라의 품일(品日) 장군 등이 군사를 이끌고 우술성을 공격해 와서 부흥군 1천여 명이 죽음을 당하였다고 적고 있다.

661년 6월 당고종은 소정방 장군 등을 파견하여 고구려를 정벌하게 하였다. 이때 당나라는 고구려 원정을 시도하면서 신라에게 군량 공급을 요청하였는데, 부흥군은 금강 동쪽으로 진격해서 신라의 북상로(北上路)를 점령하여 신라의

군량 공급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부흥군은 지금의 대전(大田)에 위치한 여러 성들을 통하여 투쟁을 계속하면서 신라군의 북상로를 차단하였다. 이들 전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옹산성전투였다. 옹산성은 지금의 대전 계족산성(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 정상부에 위치)으로 비정된다.

이때 신라의 유사가 김유신 장군에게 알리기를, “앞길에는 백제의 잔적이 모여 있어 옹산성(翁山城, 회덕. 곧 지금의 대전에 위치한 계족산성)에 주둔하며 길을 가로막으므로 능히 앞으로 진군할 수가 없다”라 하였다. 이에 김유신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옹산성을 포위하고, 사자를 성 아래 가까이까지 보내어 말하기를, “지금 너희들이 홀로 외로운 성을 지켜본댔자 어찌 될 것인가? 뒤에는 필연코 피를 땅에 칠할 것이니 나와서 항복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는 오로지 목숨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귀도 가히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이때 옹산성의 백제 진영에서는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비록 작은 성이지만 병기와 식량이 넉넉하고 군사들은 의롭고 용감하다.  
차라리 죽기로 싸울지언정 맹세코 살아서 항복하지는 않겠다.

– 『삼국사기』「열전」 김유신 조

여기서 “차라리 죽기로 싸울지언정 맹세코 살아서 항복하지는 않겠다”는 옹산성 백제 의병들의 외침은 실로 나라를 구하려는 백제인의 사생결단의 결기의 표출이다. 이 전투는 3일간 계속되었고 수천 명의 희생이 있은 후 신라의 승리로 끝났다. 신채호는 이때 복신이 (대전 지역에) 부흥군의 장군을 파견하여 성을 지키게 했다고 적고 있다. 이렇게 옹산성 전투에서 보여 준 백제부흥군의 불굴의 저항 정신은 곧 백제인의 충의정신(忠義精神)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 부흥군의 내분과 지원 왜군의 몰락

661년 9월에는 왕으로 추대된 부여 풍이 일본의 원군을 태운 선박 170척을 거느리고 돌아와 백제왕으로 즉위하고 부흥군에 합세하였다. 이에 복신 등은 풍을 왕으로 추대한 뒤 신라와 당나리를 상대로 싸워 한때 나당연합군을 위기에 빠지게 하였다.

그러나 이때를 전후하여 백제 부흥군의 내부에서는 주도권을 둘러싸고 지도충의 내분이 발생하였다. 왕족 복신과 승려 도침이 극적으로 대립하여, 결국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661년 3월), 휘하 군사를 거의 장악하여 부여 풍과 대립하였는데, 결국 그 역시 부여 풍에게 살해당하였다.(662년 7월) 일설에는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병을 평계로 주류성 울근바위 아래로 은신했는데, 부여 풍이 병문안을 평계로 찾아와서 그를 죽이고 전권을 장악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부여 풍은 고구려와 왜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또 이듬해(663년) 2월에도 달솔 김수(金受)를 일본에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3월, 백제를 돋기 위한 일본의 구원부대가 출발하였다.

한편 당군은 백제부흥군의 내분의 기미를 미리 알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부흥군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당시 백제 부흥군은 400척의 배에 27,000명력으로 지원 나온 왜와 연합하여 제왜연합군(濟倭聯合軍)을 편성하고 있었다. 파견된 왜군은 당시 왜가 동원할 수 있는 전체 군사력에 해당되는 규모였다. 663년 8월 17일, 드디어 백강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는 수륙 양면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때 왜와 연합한 백제부흥군은 나당연합군을 상대로 4차례의 접전을 했으나 끝내 패배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왜의 응원부대는 거의 전멸하였고, 이로 인해 부흥군의 사기는 사정없이 추락하였다. 결국 9월 1일 주류성이 함락되었고, 추대된 백제왕 부여 풍은 고구려로 달아나고 말았다.

당시의 백강 전투는 사실상 동아시아의 국제전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신라와 당이 결합한 나당(羅唐)연합군 세력과 백제와 왜가 결합한 제왜(濟倭)연합군 세력 간의 결전이었다. 그 결과는 동아시아 역사를 바꿔놓았다. 그것은 7세기 동아시아의 질서를 재편하는 결정적 사건이었다.

### 임존성의 마지막 지킴이 지수신

한편, 북부의 거점인 임존성은 아직 백제 부흥운동의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었다. 성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던 인물은 백제의 무장 지수신(遲受信)과 그의 병사들이었다.

663년 백제 부흥군의 지도층에 연이은 내분이 발생하여 살육전이 벌어졌고, 또 그해 9월 나당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두릉이성과 주류성 등이 모두 함락되자, 추대왕 부여 풍은 고구려로 망명하였고, 부여충승 부여충지 등 백제의 왕자들은 그 무리를 이끌고 왜인들과 함께 당에 항복하였다. 그러나 지수신 만은 북부의 임존성에 응거하여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였다. 원래 임존성은 지세가 험준하고 성이 견고하며 식수 또한 풍부하여 많은 군사들이 기거할 수 있었고, 또 대홍벌 곡창에서 생산된 양곡으로 식량도 넉넉하였다.

그해 10월 21일부터 신라군대가 임존성을 공격해 왔고, 종국에는 명장 김유신의 군대가 한 달 남짓 공격하였지만 임존성의 부흥군은 동요하지 않고 잘 버텨냈다. 그러나 이제 초겨울이 닥쳐와서 말에 먹일 풀은 말라가고 추위 속에서 식량도 바닥이 나서 군사들이 굶주리니 신라군은 할 수 없어 11월 4일 회군하고 말았다.

신라군이 물러난 후 이번에는 당군이 재차 임존성을 공격하였다. 지수신은 부흥군을 잘 통솔하여 이들을 번번이 격퇴하였다. 이렇게 임존성 공격이 벽에 부딪치자 당나라 유인궤는 항복한 백제 장군 흑치상지와 사타상여를 이용할 계책을 쓴다. 이른바 이이제이(以夷制夷 : 오랑캐로 오랑캐를 친다는 뜻으로,

한 세력을 이용하여 다른 세력을 제어한다는 말) 정책인데, 이것은 중국이 이방 민족의 침략과 제압의 방책으로 즐겨 써 오던 책략이었다. 이것은 옛 백제장군 세력으로 하여금 지금의 백제장군 세력을 치라는 것으로 백제세력에 대한 이간 책이었고, 또 임존성을 잘 아는 흑치상지를 선봉장으로 삼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 계산이 작동한 것이었다.

흑치상지는 지난날 바로 여기 임존성의 리더였다. 그는 처음으로 백제부흥운동을 시작한 주역이며, 이 임존성을 모성으로 하여 3만여 명의 군대로 당군과 신라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고, 또 남쪽의 200여 개의 백제 성들이 감동하여 속속 임존성으로 향하게 했던 큰 지도자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그가 사세가 불리해지자 모국의 부흥운동군에 등을 돌리고 당에 투항하더니, 이제는 (663년 11월에는) 당군의 선도자가 되어 임존성 공격의 선두에 서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성을 사수하고 있던 임존성의 병사들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다. 그들은 역부족이었고, 또한 전의를 상실하여 제대로 싸울 수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임존성도 663년 말 나당군에게 함락됨으로써 3년여 동안 지속되었던 백제부흥운동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그것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백제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안타까운 시점이기도 했다.

임존성의 마지막 성주 지수신은 끝까지 싸웠으나 역부족이었다. 결국 그는 처자식을 적지에 남겨두고 임존성의 북벽을 넘어 황망히 탈출하여 해로를 통해 고구려로 망명하였다. 그가 처자식을 적지에 남겨두고 홀로 탈출하였다는 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전투에 진력하였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그의 처신은 당시의 참담한 실상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그가 적군인 나당에 투항하지 않고, 아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고구려로 망명한 사실은 의리정신의 면에서 우리가 지수신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해야 할 대목이다.

663년 대홍 임존성에서 백제부흥운동의 마지막을 장식한 두 장군, 지수신과

흑치상지의 최후는 극적으로 대비된다. 백제부흥운동에서의 흑치상지의 처신에 대해서는 그 공과(功過)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흑치상지도 처음에는 백제부흥운동의 꽃이었고 영웅이었다. 부흥운동의 초반에 그가 보인 결기 넘치는 구국적 처신과 활동은 마땅히 충의정신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여지도서』의 부여 인물조에서는 그를 충의조(忠義條)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이와는 너무 대조적인 꼴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지수신은 끝까지 싸우다 적이 아닌 고구려로 망명했지만, 흑치상지는 먼저 주적인 당에 투항했고, 더구나 자신의 나라 임존성을 공격하는 데 선봉장이 되어 임존성 함락에 일등 공신이 되었다. 이 점에서는 초기의 그의 충의정신을 상실한 배신으로 비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수신을 재평가해야 할 대목이기도 한 것이다.

### **백제부흥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평가**

그러면 이상에서 살펴본 3년여 간의 백제부흥운동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660년 백제의 중앙정부와 수도는 나당 연합군에 이미 망해버렸지만, 백제의 유민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의병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부당한 침략에 대해 의연히 저항한 백제인들의 애국적 결기의 충의정신을 만나게 되고,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는 그들의 자주적 국방의식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국방정신과 ‘멘토 충의정신’의 한 가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백제부흥군이 당나라와 싸운 3년여의 전쟁 경험은 이후 당나라가 우리민족을 향한 더 이상의 침략 의지를 꺾는 데에도 일조했을 것이다. 그들이 옛 삼국의 고토를 모두 정복하려는 침략적 야심을 드러냈을 때 이것을 방어하는 무력의 한 축을 형성하였다. 또 옛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유민들은 힘을 합쳐서 외세인 당을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여 적극 대처함으로써 아쉽기는 하지만 그나마 대동강에서 원산만이라는 국경의 강토를 지켜낼 수가 있었다. 전쟁이 여기서

마무리 된 데에는 당의 침략에 대한 백제부흥군의 3년여의 치열한 항쟁 기억이 당나라의 남은 침략야욕을 저지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백제부흥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것이 보여준 백제민의 애국심과 자주적 구국정신은 그 자체로서 충분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고, 국방정신과 멘토 충의정신의 하나의 모델로서 영원한 생명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 거란 침입을 막아낸 고려 장군 강민첨

고려시대에 북방족으로서 우리나라를 침입하여 국권을 위협했던 큰 세력은 거란과 몽골이었다. 대개 거란은 고려전기에, 그리고 몽골은 고려후기에 침략을 일삼아서 온 나라가 평안하지를 못하였다. 강민첨(963-1021)은 고려 전기인으로서, 여진과 거란, 특히 거란의 고려 침입을 격퇴하여 나라를 지킨 이름난 장군이다. 그는 귀주대첩(1018년)으로 유명한 강감찬 장군의 부장으로 활약하여 이 시기(몽고의 3차 침입 시기)의 흥화진 전투와 자주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나라를 구하였다.

### 문무 겸전의 인재

강민첨은 963년(광종 14) 경남 진주의 옥봉산 아래 개경(開慶) 마을(현재 은열사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 강보능(姜甫能)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15세까지는 진주 향교에서 학문을 익혔고, 16세 때는 선조의 사적지가 있는 하동의 우방산 아래에 터를 잡아 원당(願堂)을 짓고 주경야독하며 무예를 연마하였다. 43세인 1005년(목종 8)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장사랑(將仕郎)으로 출사한 후 문무관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나, 지기(志氣)가 있고 강하고 과감하여 주로 전공(戰功)을

세워 크게 출세하였다.

993년 북방족 거란은 남쪽의 송나라를 치기 위해 먼저 한반도의 고려를 침공하였다. 고려가 송과 동맹을 맺고 있어 그 배후세력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속셈이었다. 이때 소손녕이 80만 대군으로 쳐들어와서 압록강 유역을 선점했으나 서희 장군은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로서 영토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강동 6주를 돌려받고 화친을 맺었다. 그러나 1010년(현종 1) 11월 거란은 고려가 화친 조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겁박하고, 또 서경유수 강조가 목종을 살해하고 현종을 즉위시킨 것을 빌미로 이를 문책한다는 명분으로 4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고려에 대한 2차 침입을 강행하였다.

이때 강감찬 장군이 등장하여 철저한 항전을 주장하며 전선을 총 지휘하기 시작하였다. 순무사 양규가 괴주에서 거란을 섬멸했으나 거란은 수도 개성을 향하여 진군을 계속하였다.

### **자주에서 대승하고, 귀주에서 강감찬을 도와 거란을 격퇴하다**

당시 함경도 애수진장(隘守鎮將)으로 있던 강민첨 장군(48세)은 휘하의 장졸을 거느리고 적이 공격해오는 평양성으로 달려와 성안의 장병들과 함께 9일간 성을 사수하였고, 현종은 이 틈을 이용하여 개경을 빠져나와 전라도 나주로 봉진하였다. 나라의 수도가 위태롭고 임금이 적에게 포위될 수 있는 위기적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선제적으로 전투 중인 평양성에 달려 나가 힘을 합쳐 성을 사수하여, 위기로부터 나라와 임금을 구하는 데 일조한 것이었다. 거란군은 1011년 1월 개경에 무혈입성한 뒤 철군하면서 고려 현종이 친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강민첨은 또한 여진세력의 침략을 저지하는 데도 나서야 했다. 이듬해 5월에는 또 동여진(東女眞)이 청하현(지금의 경상북도 흥해군) · 영일현(지금의 경상북도 포항시) · 장기현(지금의 경상북도 포항시)에 침입하자, 강민첨은 문연

· 이인택 · 조자기와 함께 도부서(都部署 : 총지휘부)로 임명되어 주군의 군사를  
독려해 그들을 격퇴했다.

한편, 거란은 고려의 강화사 하공진을 살해하고(1011년 12월), 이듬해 4월에는 고려 국왕의 거란 입조를 요청하였으나 고려는 이것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거란은 강동6주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8월에는 강동6주를 취해갔다. 그리고 1013년에는 다시 청천강 이북의 6성을 요구하였다. 1015년 고려는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 거란의 침략을 알리고 반거란동맹을 맺자고 제안하였으나 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고려로서는 단독으로 이 침략세력인 거란과의 일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018년(현종 9) 고려는 사신을 거란에 보내 강화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거란은 그해 12월 소배압의 10만 대군을 보내 고려에 대한 3차 침입을 강행하였다. 강민첨이 56세가 되던 해였다. 이에 현종은 강감찬(948-1031) 장군(당시 71세)을 상원수(上元帥)로 삼고, 강민첨(963-1021) 장군을 원수(元帥, 대장군)로 삼아 국경을 방어케 하였다. 고려군은 흥화진(興化鎮)에 진을 치면서 계곡에 기병 1만 명을 매복시키는 한편, 성 동쪽 삽교천에 소가죽(牛皮)에 모래를 담아서 물길을 막고 있다가 적이 이르자 막은 물을 한꺼번에 털어서 적을 수장시키는 이른바 우피작전(牛皮作戰)과 함께 매복한 기병으로 협공하여 적의 예봉을 꺾었다. 그리고 일부 남진하는 거란군에 대해서는 강민첨 장군이 뒤쫓아 가서 공격하여 자주(慈州)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이때 고려 현종이 있는 개경으로 진격하던 거란군은 아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철군하기로 하고 회군하던 중 1019년 2월에 귀주(龜州)의 반령 뜰에서 고려군과 최후의 일전을 벌였다. 이때 개경을 사수하던 김중현의 1만 부대가 합류하고 때마침 강력한 남풍의 비바람이 부는 틈을 이용해 고려군이 맹렬히 공격하자 거란군은 대파(大破)되고 수천 명만이 목숨을 부지하여 압록강을 건너 도주했다. 이것이 고려와 거란 간 27년에 걸친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동북아

최대 전투 중 하나인 귀주대첩(龜州大捷)이다. 그 후 거란은 국력이 쇠퇴일로를 걷다가 여진(금)에 의해 멸망하였다.

## 포상과 치적

거란군을 물리치고 개선한 강감찬 강민첨 두 장군에게 국가는 ‘천수현개국남(天水縣開國男) 식읍삼백호(食邑三百戶)’라는 작호를 내렸다. 그런데 강민첨은 이 때 나라로부터 받은 식읍(食邑, 임금이 공신에게 조세를 개인으로부터 받아쓰게 한 고을)을 세금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향(진주) 사람들을 위해 진주목에 기부했다.



강민첨 초상

이후 강민첨은 58세 때인 1020년(현종 11) 3월 16일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임명 받았다. 그 무렵 고려 현종은 부왕(안종)의 유지를 받들어 1016년부터 직산현(현

재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에 봉선 홍경사(奉先弘慶寺)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는데, 강민첨이 그 일을 감독하게 되었다. 홍경사가 완공되던 해인 1021년(현종 12년) 11월 12일에 그는 공사 건축을 감독하던 그곳의 별감사에서 향년 59세로 생애를 마쳤다.

### 후대인의 평가와 추승

『고려사』 「열전」의 강민첨 조에서는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전략) 강민첨은 서생(書生)에서 벼슬에 오른 사람으로, 무예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기개가 굳고 과단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드디어 현달하게 되었다. 뒤에 교서를 내려 공을 기록하고 그의 아들 강단(姜旦)에게는 녹봉을 올려주었다.

문종이 즉위하자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대중상부(大中祥符 : 북송眞宗의 연호) 11년(1018) 거란이 무단히 침입했을 때, 병부상서(兵部尙書·지 중추원사(知中樞院事) 강민첨이 힘껏 싸워 반령(盤嶺)의 들에서 크게 승리했다. 거란이 패주하면서 버리고 간 무기와 갑옷들로 다니는 길이 막힐 지경이었으며, 이 전투에서 1만 명을 사로잡거나 목 베었다. 그 전공을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표창을 함이 마땅하거니와 공신각에 초상을 걸어서 후세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 하라”

강민첨은 실로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인물이었다. 학술로는 문과에 급제했으나 공적으로는 무공을 세워 이름을 빛내고 나아가 나라를 구했다. 특히 그의 공적은 거란의 3차 침입 때 적을 무찌른 공적(반령들에서의 대승)이니, 적군 1만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고, 그들에게서 뺏은 무기가 길이 막힐 정도였다는 것이다. 나라에서 그의 공을 기려 공신각에 초상을 걸어서 길이 후세에 모범을

삼도록 했다는 것이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충신을 기리는 나라의 정성이 고맙다. 고려 조정이 찬양한 강민첨의 훌륭한 충의정신을 기리고, 더불어서 나라에 헌신한 충신을 기리는 조정의 배려도 눈여겨보아 둘 일이다.

강민첨 장군의 묘는 오랫동안 실전(失傳)되었었다. 그러다가 후손 강로의 노력으로 1875년 예산군 대술면 이티리에서 어렵게 찾아내어 중건하였다. 강민첨 장군의 묘소 아래에는 장군의 마부 총(塚)을 만들고 그 아래에 마(馬) 총까지 만들어 이들을 기리고 있다. 강민첨 장군이 서거하자 장군의 마부(馬夫)는 말의 목을 치고 자신도 자결하였으므로 그 의리를 기리고자 한 것이다.

## 임란 · 호란의 극복 – 정현룡, 한순, 이의배, 신계영

### 임란 때 호남을 지키려다

### 금산전투에서 순절한 남평현감 한순

한순은 조선 선조 대의 무신이다. 그는 1590년(선조 23) 남평 현감이 되어 신당을 불태워 미신을 타파하고 풍속을 순화하였고, 또 성(城)을 수축하고 군량을 준비하는 등 치적을 쌓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사를 이끌고 금산(錦山)으로 진격하다가 중간에 적과 대치하며 힘써 싸우다가 전사했다. 후에 정문(旌門)이 세워졌고, 병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국난극복에 앞장섰던 예산의 자랑스런 충의의 인물이다.

한순(韓樞, 1555-1593)의 자는 사한(士閑), 시호는 의장(毅壯),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아버지는 충훈부 도사를 지낸 한극심(韓克謙)이고, 어머니는 양천 허씨이다. 태어날 때부터 네모난 얼굴에 넓은 이마의 용모가 보통 아이와 달랐다. 약관(弱冠)의 나이에 진사(進士) 황정길(黃廷吉)에게 나아가 글을 배웠는데, 학문에 힘쓰면서도 읽매이지 않고 호방하여, 황진사가 기이하게 여기고 사위로 삼았다.

한순은 1583년(선조 16) 붓을 내던지고 무과(武科) 시험에 응시하여 알성과(謁聖科)에 급제했고, 얼마 안 되어 선전관(宣傳官)으로 선발되었다가 평양 판관(平壤判官)으로 승진되었다. 평양은 부유한 고을이지만 법도에 맞는 몸가짐으로 봉직을 하고 호의호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불이 해지고 더러워져서 부인이 새것으로 바꾸기를 청하자, 공이 이것도 충분하니 터진 곳이나 기우면 된다고 하고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다. 하루는 구들이 내려앉아서 연기가 올라와 침구가 그을리자 집안사람들이 희롱하며 말하기를, “조화옹(造化翁)이 그의 고집이 미워서 이 해진 이불을 태웠다”고 하였다. 이때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은 송장이 들판에 가득하였는데, 그가 심력을 다하여 무마하여 주고, 대책을 잘 세워 구호하여 백성을 자식처럼 여기므로 정치와 교화가 크게 행하였고, 그가 고을을 떠날 때 주민들이 그 은혜를 추모하여 빗돌을 세워 칭송하였다.

1584년(선조 17)에 어머니 허씨의 상(喪)을 당하였는데, 예법을 벗어나서 몸이 수척하도록 슬퍼하고 상복을 벗지 않았으며, 삼년상을 마치고 심제(心制)를 하면서도 오히려 거적을 깔고 여막에 거처하며 이를 드러내어 웃은 적이 없었다. 한순의 지극한 효성을 가히 알 수가 있다.

1590년(선조 23년)에 나라에서 일본이 장차 분쟁을 일으킬 것을 걱정하여 담력이 있고 병법(兵法)에 익숙한 사람을 선발하여 양남(兩南)의 수령을 제수(除授)하였는데, 이에 그를 남평(南平, 지금의 나주시 남평읍) 현감으로 삼았다. 이때 고을 풍속이 귀신을 숭상하여 날마다 산속에 무당을 모아 놓고 신당(神堂)에 기도하며 남녀가 뒤섞이어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이에 한순은 “사도(邪道, 사악한 도)가 백성을 혼혹하고 풍속을 파괴하는 것은 작은 사고가 아니다” 하고, 드디어 신당에 나아가 불을 놓아 태워버렸으므로 무당을 믿는 풍속이 고쳐졌다.

당시의 조선에는 머지않아 왜가 쳐들어와 양남(兩南)이 크게 환란을 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한순은 그 사전 대비를 늦출 수 없다고 하며, 높고 험한 지대를 택하여 성을 쌓고 양식을 비축하고 무기를 정비하여 두었다.

1592년(선조 25년) 4월 13일, 과연 왜(倭)가 대대적으로 침입하여 와서 수많은 진(鎮)이 와해되고 어가(御駕)는 의주로 파천하였다. 7월에 왜군이 군대를 나누어 전라도의 무주(茂朱) · 용담(龍潭) 등지로 진격하여 승승장구하므로 인심이 흥흉하며 두려워서 짐을 챙기어 집을 나섰다. 이에 한순은 즉시 분연히 일어나 이르기를,

지금 모든 도가 붕괴되어 믿을 만한 곳이 없으나, 오직 호남(湖南) 한 도만은  
조금 완전하여 국가를 중흥시킬 계책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만약 힘을 합쳐  
서 왜군을 차단하지 못하고 한 번이라도 실패한다면 이는 국가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 하였다. 이에 한순은 전 군수(郡守) 윤열(尹悅)과 약속을 하고 그달 16일에 출전하기로 하고 떠나려 하는데, 그의 아내와 청이 앞 다투어 옷자락을 잡고 울며 “위로는 늙으신 아버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처자식이 있는데, 공은 어찌하여 함부로 사지(死地)에 뛰어드시오”라 하며 만류하였다. 이에 한순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나의 아우 네 사람이면 우리 아버이는 봉양할 것이고, 나는 이미 국가에  
몸을 허락하였으니 나라를 위하여 한 번 죽는 것은 직분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군신(君臣)의 의리와 부자(父子)의 은혜를 둘 다 온전히 할 수는 없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국난을 당해 나라를 위하여 한 번 죽는 것은 나의 직분이니, 지금은 군신의 의(義)와 부자의 은(恩)을 둘 다 같이 이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자는 충을 말한 것이고, 후자는 효를 말한 것이니, 곧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는 굳은 결의였다. 국난극복의 과정에서 공적인 충(忠)과 사적인 효(孝)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집안 여인들이 울부짖으며 붙잡은 옷자락을 뿌리치고 나가서, 아우 한기선(韓機善)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늙으신 어버이를 잘 봉양하라. 나는 기어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차고 있는 이 인근으로 증거를 삼아 이것으로 나의 시신을 찾아라.

이렇게 한순은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터로 나갔다. 먼저 한순은 조방장(助防將)과 군대를 연합하여 복병을 설치하여 중로(中路)에서 적군을 습격하기로 하였는데, 적군이 이미 금산(錦山)을 함락하고 험지(險地)를 점령하고 있으면서 나오지 않아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한순은 드디어 금산으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이때 금산의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적이 금산성을 차지하고 있었고, 고경명(高敬命)은 1차 금산전투(음력 7월 9일-10일)에서 이미 이를 전에 패전하여 죽고, 적병은 전쟁에서 갓 이기고 나서 성세(聲勢)가 한창 고조되어 있었다.

한순은 윤열(尹悅) 및 창평(昌平, 지금의 담양) 현감과 합세하여 용담과 금산의 경계인 송현(松峴) 밑에 진군하여 진을 치고 서로 힘을 합쳐 협공의 형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적병이 먼저 창평의 군대를 침범하여 창평의 군대가 붕괴되었다. 이에 한순이 분노하여 즉시 말을 달려 적진으로 돌진하여 탄환과 창칼을 무릅쓰고 종일 역전한 결과 적군의 살상이 매우 많았다.

이때 윤열이 뒤를 따라 진군하다가 말을 돌려 먼저 도망쳤는데, 공이 고함을 질러 꾸짖기를, “윤열아, 남아가 죽을지언정 어찌 남과 같이 일을 하다가 위기를 당하여 도망쳐서 구차히 살려고 하는가?” 하고, 혼자서 진격하여 날이 어두울 때까지 줄곧 싸웠다. 그러던 중 왜군 한 명이 시체더미 속에 잠복하여 있다가 갑자기 말 앞에서 일어나 칼을 휘두르고 나와서 멈춰 서 있는 말안장 위의 한순을 공격하였고, 한순은 칼을 맞아 순국하였다. 바로 8월 9일이었다. 집안사람이 그의 시체를 찾으니 허리춤에 과연 아직까지 인끈을 차고 있었다. 남평에 임시로 매장하였다가, 16년이 지나서 윤열이 전라도 병사(兵使)로 나가서 공의 충의에 감동하여 심혈을 기울여 계획을 세워서 양주(楊州) 서산(西山)의 선영 곁으로

이장하여 부인과 합장하였다.

남평 관노(官奴) 석승(石崇)은 그를 따라 금산(錦山)에 함께 갔는데, 한순의 제삿날을 만날 적마다 고기를 먹지 않으며 “오늘이 우리 원님이 전사한 날이다” 하고는, 문득 눈물을 흘리고 오랫동안 슬퍼하였으니, 이는 한순의 충의(忠義)가 사람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한순이 전사하였을 때에 본도의 순찰사가 행조(行朝)에 장례를 올렸으나, 그것을 가지고 가던 자가 중도에서 적군을 만나 마침내 상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정에서 오랫동안 포상하지 못하다가, 효종 때에 와서 비로소 병조 참의가 추증되고 현종 때에 또 정려(旌閭)를 명하였다. 1712년(숙종 38)은 그가 세상을 마친 지 1백 20년인데, 대신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한순(韓柵)은 해남 현감 변옹정과 관위(官位)와 의열(義烈)이 다를 것이 없으므로, 변옹정의 선례에 의하여 추가로 시호를 내려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여 이에 자현대부 병조 판서 겸 지의금부사를 추증하고 서성군(西城君)에 봉하였다.

한순의 역사적 기록은 『여지도서』의 덕산현 인물조에 나오고 있고, 또 『국조 인물고』에도 수록되어져 있다. 그는 예산인이면서도 예산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다. 한순은 임진왜란 중 국난극복에 앞장섰다가 순국한 충의(忠義)의 인물이었고, 기억해야 할 예산의 무인(武人)이었다.

## 임진왜란 중 북관대첩으로 함북 땅을 되찾은 정현룡 장군

임진왜란 초기 함북지역 의병(義兵)의 전승 기록인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 1707년)가 일군(日軍)에 의해 약탈된 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되어 남북의 하늘 아래에 각각 다시 복원(2006년)되었다. 북관대첩의 잘 알려지지 않은 수훈자(殊勳者, 뛰어난 공을 세운 자)가 바로 예산인 정현룡(鄭見龍) 장군이다. 그는

평생을 무장으로서 국토방위에 헌신한 전형적인 무인이며, 충직한 충의(忠義)의 인물이다.

정현룡(鄭見龍, 1547-1600)의 자는 운경(雲卿)이고 본관은 동래이다. 그는 1547년(명종 2) 지금의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성지동에서 아버지 중 좌찬성 정인수(鄭仁壽)와 어머니 한양조씨(장사랑 조승걸의 妃)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골(氣骨)이 장대하여 비범한 기상으로 촉망을 받았다. 그러나 늦게 31세가 되던 1577년(선조 10)에 알성시 무과에 급제하여 무관으로서의 벼슬길을 시작한다. 이후 1579년 선전관을 거쳐 강계 판관(종 5품)이 되었고, 1585년 경흥부사(종 3품), 1591년 통정대부로 종성부사 겸 방어사가 되었다. 이것이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까지 그의 경력의 대강이다. 그의 본격적인 왜(倭)와의 전투는 북관대첩(北關大捷, 1592.7-1593.1)에서 비롯되었는데, ‘북관’은 관북지방의 땅으로 함경도를 지칭하고, ‘대첩(大捷)’은 전쟁에서 크게 이긴 것을 이르는 말이다.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자.

1592년 4월 13일 부산포에 쳐들어온 왜군은 단 20일 만인 5월 3일 한양 도성을 점령하고, 북으로 피난하는 선조의 어가를 추격해 5월 18일 임진강을 건넜다. 이후 왜적은 크게 1군과 2군으로 나누어 북진했는데, 고니시 유기나기(소서행장)의 1군은 평안도 방면으로 진격했고, 가토 기요마사(가등청정)의 2군은 함경도 방면으로 진격하였다. 이 중 2만 여 병력을 거느린 가토는 황해도 곡산을 거쳐 관동과 관북의 경계인 철령(鐵嶺)을 넘어 5월 27일 함경도 감영이 있는 함흥부에 무혈입성했다.

이때, 북병사 한극함은 함경도의 관문인 마천령(磨天嶺, 함남 단천시와 함북 김책시의 경계에 있는 709미터의 고개)을 선점하여 북상하는 왜군을 막으려 했으나, 적은 이미 마천령을 넘어와 버렸으므로, 차선으로 해정창에 방어선을 치고 싸우게 되었다. 그러나 그해 7월 17-18일 벌어진 해정창 전투에서 북병사가 이끄는 조선군은 궤멸하여 경성(鏡城)으로 퇴각하였고, 왜장 가토는 경성-부령

을 지나 회령 인근까지 급속도로 진격하여 조선 왕자들을 추격하였다. 원래 왕자 임해군(선조의 장자)과 순화군(선조의 6자)은 임란직후 근왕병의 모병을 위하여 각각 함경도와 강원도에 파견되었는데, 이때는 함께 회령에 피신해 있었다. 7월 23일 가토군이 회령진을 공격하려하자 회령의 아전 국경인(鞠景仁)이 임해군과 순화군 두 왕자의 평소의 악행과 자신이 회령에 유배된 것에 원한을 품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조선 조정에 반기를 들었다. 또한 그는 숙부 국세필(鞠世弼)과 명천의 아전 정밀수 등과 함께 왕자들과 호종하는 신하들을 모두 포박하여 가토에게 바치고 그들도 항복하였다. 가토는 이들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회령진의 통치권을 주는 등 후한 포상을 하였다. 당시 함경도를 점령한 가토는 왜군부대를 길주(吉州) 남쪽에 배치한 후, 경성부는 적당의 국세필을, 회령부는 국경인(鞠景仁)을 각각 수장으로 삼아 지역의 군민을 통괄토록 하였다.

전쟁 상황이 이렇게 왜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부화한 반적(叛賊) 자기 나라를 배반한 역적)들의 행패는 더욱 극심해졌다. 그들은 왜군의 기세가 강성한 것을 보고 지역의 수령(守令)들을 잡아 왜군에게 넘겨주고, 보상을 취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 살육과 약탈을 일삼았다. 전란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상황을 자신들의 이익에 활용한 반국가적인 세력들의 이기적 만행이었다.

함경도 전역이 가토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함경도의 남부는 왜적이 점령하고, 북부는 반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함경도 지역의 뜻있는 유림들과 무장과 무사들이 힘을 합쳐 의병을 일으켜서 왜와 싸워 대승을 거둔 것이 곧 북관대첩(北關大捷)이었다.

『선조수정실록』에서는 당시의 북관대첩에 나선 의병진의 형성 배경을 다음과 같이 비교적 소상하게 전하고 있다.

- 당시 북계(北界)의 수장(守將)들이 모두 토인(土人)에게 잡혀 왜장에게 넘겨졌는데, 도망하여 나온 자는 10명에 1~2명도 안 되었다. 평사 정문부는 막관(幕官)으로서 난전 무사했을 때 형장(刑杖)을 쓰지 않았고 또 항상

교생(校生)들에게 글을 가르쳤기 때문에 변란이 일어난 뒤에 제자 몇 사람이 비호하여 빠져나올 수 있었다. (중략)

- 이때에 이르러 서북보(西北堡) 만호 고경민이 행조(行朝)에서 와서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 군사가 곧 오게 되는데, 조정에서는 이미 북계(北界)를 역적의 소굴로 판단하고 있으니, 왜적을 평정한 뒤에는 맨 먼저 토벌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민(土民)들이 서로 전하며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였다. 『선조수정실록』, 1592년 9월 1일자 기록)

이로써 보면 왜란 초기 함경도에서는 토착민들이 자기 지역 관리들을 포박하여 왜군에 넘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당시 조정에서는 함경도 전 지역이 적에게 부역을 한 '역적의 소굴'로 인식하고 있어서, 앞으로 명군(明軍)의 지원으로 정부군이 여기를 평정한 후에는 이 지역 사람들이 모두 처단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함경도의 의병 봉기는 크게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국토 수복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바로 그들 자신들의 생존을 건 긴급한 사안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지역의 의병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 긍정적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인지도 했다. 문제는 누구를 의병대장으로 추대할 것인가였다. 이에 대한 실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지달원이 동지 최배천 등과 함께 몰래 교생(校生)들과 식견이 있는 무사(武士)를 서로 불러 모으니 그들이 정문부가 있는 곳을 알고 모두 그에게 나아가 마침내 정문부를 추대하여 의병장으로 삼고 토병과 장사 수백 명을 모았는데, 경성(鏡城) 사람인 전 만호 강문우(姜文佑)가 선두에서 거느리고 즉시 부성(府城)에 이르렀다.

- 마침내 남북의 주보(州堡)에 격문을 전하니 종성 무사 김사주와 경성인

오박 등이 정병을 거느리고 모집에 응하였다. 종성 부사 정현룡(鄭見龍), 경원 부사 오옹태, 경홍 부사 나정언, 고령 침사 유경천, 군관 오대남 역시 당초에 포로됨을 모면하고 산외(山外)에 숨어 있다가 소문을 듣고 와서 모였다.

○ 정문부가 정현룡에게 대장되는 것을 사양하였으나 정현룡이 두려워하며 감히 맡지 못하고, 유생들도 말하기를 ‘본래 의병으로 이름을 삼은 이상 평사의 벼슬이 낫다고는 해도 병사의 아관(亞官)으로 많은 사람이 마음 속으로 따르고 있으니, 의병 대장이라고 칭하여 통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므로 정문부가 애써 따랐다.(상동)

이로써 보면 북관대첩의 의병 규합은 처음 교생(校生)들에 의하여 정문부가 의병장으로 추대된 상황에서 토병과 군사 수백을 규합하는 형태로 출발하였고, 남북의 주보(州堡)에 격문을 낸 이후로는 그동안 반적의 난동을 피하여 산외에 숨어있던 부사 및 침사 등이 적극 참여하여 조직이 확대된 상황에서 의병장 추대가 다시 논의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물론 그 사이에 정현룡과 정문부 등 지도자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있었을 것이지만, 일단 정현룡(鄭見龍)은 대개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확대 의병의 의병장 선임에 있어서도 처음 정문부가 상급자인 정현룡에게 대장 자리 를 사양하였으나 정현룡이 이를 사양하였고, 또 유생들이 정문부가 비록 벼슬은 낫지만, 많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따르고 있고, 또 이 일이 관부의 일이 아니라 의병의 일이라 하여 정문부를 의병 대장으로 추대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사실상 당시의 직급으로 보면 정현룡은 부사(府使, 종3품)였고, 정문부는 평사(評使, 정6품)에 불과했고, 나이도 거의 20세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도 정문부가 의병장에 추대된 것은 정문부가 문과출신으로 평소 지역의 교생들과 강학을 계속하여 학연이 깊었다는 데서 그 하나의 배경을 찾을 수가 있다. 또한

그것은 정문부의 사람됨이나 재주와 지도력이 그만큼 인정받고 있었다는 증좌 일 수도 있다. 하지만 또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정현룡이 한참 상급자이고, 또 나이도 20세 정도가 위인에도 그가 기꺼이 의병대장을 양보하고, 후배 의병장을 세우고 자신은 그 부하인 중위장을 맡았다는 자체가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가 국가적 위기를 당하여 구국의 일념으로, 또 의병진의 화합을 위해서, 자존심이나 권위의식을 다 내려놓고 종군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인물됨이 크고 지혜로운 덕장이었음을 알게 한다. 그것은 당시 이들의 의병진에 3천여 명이 모였다는 사실이나, 또 이후 북관대첩에서의 주된 공적은 대개 정현룡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따라서 국가로부터의 포상과 승진이 그에게 이어지고 있었던 데에서도 알 수가 있다.

다음은 북관대첩 및 이후 오랑캐들과의 전투에서 세운 정현룡의 공적과 포상에 대한 실록 기록들이다. 먼저 이들 의병진의 일본과의 전투에 대해서는 함경 평사 정문부가 길주성 전투에 대해 올린 다음의 치계(馳啓)가 주목된다.

길주(吉州)에 머무르고 있는 적은 한 번 패한 뒤에는 견고한 성안에 들어가서 머리를 웁츠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종성 부사(鍾城府使) 정현룡(鄭見龍), 경원 부사(慶源府使) 오응태(吳應台), 고령 첨사(高嶺僉使) 유경천(柳擎天)은 각자가 거느린 소속 도합 3천여 명을 거느리고 두 차례 성을 포위하고 종일토록 접전했는데 왜적 4백여 명이 성머리에 벌여 서서 죽기로써 방어하니 철환과 화살과 피아간 다 같이 다쳐 형세가 쉽사리 함락시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 밖 수백 보쯤 되는 곳 45개 처에 군사를 나누어 매복하고 밤낮으로 망을 보다가 적이 나오면 토벌하여 잡았습니다. 3위장(衛將)들은 군사를 영동(嶺東)으로 이동하여 먼저 성책(城柵, 성에 둘러 친 울짱)에 있는 적을 섬멸하고 다음에 성안의 도적을 토벌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군사를 이동하던 날 영동의 왜적 2백여 명이 나와 바닷가의 민가에 불을 지르고 약탈을 했습니다. 좌위장(左衛將) 유경천이 복병장(伏兵將) 길주 토병(吉州土兵) 김국신(金國

信)을 뽑아 보내 먼저 접전케 하는 한편, 대군에게 치보하여 3위(三衛)의 장졸들이 일시에 내달아 돌격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육진(六鎭)의 정병이 선병이 되어 접전하니 왜적이 패하여 달아났습니다. 3위가 쏘이 죽인 자 및 성중의 적으로 출몰시 잡아 죽인 것이 도합 1백여 급 된다고 합니다.(『선조수정실록』 1593년 2월 16일 기사)

이로써 보면 북관대첩의 의병장은 정문부였지만, 실제로 길주 전투에 나가 싸운 것은 그 휘하의 3위장들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즉 중위장 정현룡(종성부사), 좌위장 유경천(고령 첨사), 우위장 오옹태(경원부사)가 그 핵심들로 이른 바 삼위장들이다. 이들은 그들 휘하의 병사 도합 3천을 동원하여 수차례 상호 협력하면서 힘써 싸운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직위로 보아 아마도 중위장 정현룡이 그 중심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기사는 북관대첩(1592.7-1593.1)에서의 정현룡의 활약상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연이어 전개된 의병진과 왜군과의 전투는 왜의 2만병력과 의병진 3천병력과의 비교도 안 되는 열세에서 의 전투였지만, 의병진은 접전에서 번번히 승리하여 왜군을 함경도 땅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다. 정부군도 아닌 의병들이었고, 명군의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닌 순수한 자력에 의한 의병들의 대첩이었다.

실록 기사에 의하면, 이 의병전쟁에 대한 포상을 두고 조정과 지방에서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결국 조정은 주된 전공(戰功)을 중위장 정현룡(鄭見龍)에게 돌려 그를 함경도의 병사(兵使)에 올려 제수하고, 정문부에게는 단지 반민(叛民)들을 주살한 공으로써 당상관(堂上官)에 올려 길주 부사(吉州府使)에 제수하였다. 결국 북관대첩에서 최고의 전공을 세운 주인공은 바로 정현룡장군으로 귀결이 난 것이었다.

이후 정현룡은 북병사(北兵使)로서 육진 지역을 노략질하는 번호(藩胡) 세력들을 연이어 쳐서 멸하였다. 임진년 이후로 번호(藩胡)가 방자하게 굴면서 영건보(永建堡)를 노략질하였다. 역수부락의 노략질이 더욱 심하여 종성과 온성의 지경

이 그 피해를 받았다. 정현룡이 비밀히 육진(六鎮)의 병마(兵馬)를 출동시키면서 투항한 왜인을 선봉으로 삼아 출지에 소굴을 습격하였다. 호인(胡人)이 산을 의거하여 보루를 삼고 종일 항전 하였는데 투항한 왜인이 방패를 하고 먼저 올라가고 관군(官軍)이 잇따라 올라가 성을 드디어 함락시키고 모두 섬멸하였다. 실록에서는 오랑캐 죽속으로서 노소간에 죽은 자가 7,8백 인이나 되었다고 했다.(『선조수정실록』 1594년 3월 1일 기사)

또 정현룡의 치계에 의하면 그해 10월에도 그는 육진 오랑캐의 반란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하고 있다.

세 부락의 오랑캐를 일시에 섬멸하여 한 놈도 남은 자가 없고, 아군은 한 명도 죽은 자가 없이 2백 66명의 수급을 베어 전군이 개선하였습니다. 지나는 부락마다 목을 움츠리고 바라보는 자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으며, 승리의 소리가 미치는 곳이면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의 수치를 크게 씻고 아울러 변방 백성의 원한을 모두 풀었으니, 이번 거사의 승첩은 모두가 묘산(廟算, 조정의 계략)에서 나온 것입니다. 북비(北鄙)의 안정이 이로부터 시작된다면 풍파(豐沛) 옛 고을의 왕령(王靈)이 진작됨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니 변방의 백성의 다행함이 한이 없습니다. (1594년 10월 11일 기사)

이에 대해 비변사는 “육진(六鎮)의 변방(藩方) 오랑캐들이 국가가 일이 많은 때를 이용하여 사나운 세력을 믿고 서로 연계하여 침범하니 매우 기습 아픕니다. 정현룡(鄭見龍)은 적절한 시기에 계략을 시행하여 잔폐한 병졸을 수습하여 일거에 죄를 다스려 전후하여 베어 온 수급이 4백 70여 급에 이르러 국가의 위엄을 약간은 떨쳤고, 아울러 역절(逆節)의 짜을 막았으니, 그 공이 실로 가상합니다”라고 했고, 선조는 비망기를 내려 그에게 가자로 포상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정현룡은 1595년 병사직을 수행하는 중에 중풍이 생겨 더 이상 병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선조는 승정원에 전교하여 “체직된 북병사(北兵

使)에게 상당한 약제(藥劑)를 보내주고 외사(外司)의 의원으로 병을 간호하게 하라”고 명했다. 이때 조정에서는 “육진(六陣)의 강에 얼음이 얼고 있는데, 원근 부락의 사나운 자들이 정현룡이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또 다른 마음을 낼 것이니 이것이 바로 조석의 근심입니다. 그러니 즉시 병사를 차출하여 범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라 하여 정현룡이 없는 북방방어를 근심하였다. 북관방어에서의 정현룡의 위상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병으로 인해 북병사의 직에서 물러났지만, 정현룡은 그 이후에도 북방의 일을 묻는 정부의 질문에 대해 “새로 부임해 온 북방사 이일이 맡은 일을 잘하여 안정되어가고 있다”고 답하는 등 북방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계속했다. 실록에서는 그 이후의 기록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1600년(선조 33) 다시 여진족이 침입하니 마지막으로 전쟁에 나가 오랑캐와 일전을 벌이다가 전장에서 순절하였고, 이때 그의 평생의 애마가 그의 두안(頭顏)을 챙겨서 왔다고 전해진다. 현재 그의 고향인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에는 그의 무덤과 함께 그 아래에 그의 애마의 무덤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때의 실상을 전해주고 있다.

이후 임진왜란 초 함경도 의병들의 찬란한 북관대첩은 잊혀지는 듯했다. 그러나 60여 년 후인 현종 조에 관찰사 민정중(閔鼎重)과 북병사 이단하(李端夏)의 조사로 진상이 밝혀지고 정문부, 정현룡을 선무 일등공신에 봉록하고 함경도 경성에 사당을 세우고 창렬사(彰烈祠)라고 사액을 내리고 치제하였다. 그리고 1707년에는 당시의 의병들이 난관을 뚫고 전승한 기록을 상세히 적어 함경도 길주군 임명 남측에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를 세웠다. 그런데 1905년 러일전쟁 중에 그 비에 담긴 일본군의 어처구니없는 패전 사실에 수치심을 느낀 일본군 장교가 이 비를 일본으로 반출하여 야스쿠니신사의 한 귀퉁이에 방치했다. 그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 측의 적극적인 반환 노력으로 북관대첩비는 2005년 서울로 반환되었고, 남북 협상에 의하여 원비는 북으로 보내져 제자리(함경도 길주군 임명면 원자리, 현 북한 함경북도 김책시 임명동)에 복원하고 그 복제비

가 독립기념관과 중앙박물관 앞에 각각 세워졌다. 이로써 정현룡을 비롯한 당시 북관지역 의병들의 그 드높은 구국정신을 남북이 함께 영구히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은 단순한 문화재 반환이 아니라 우리의 의병정신과 독립정신의 반환이고, 그것의 현대적 계승이며, 또한 남북한공조에 의한 민족적 쾌거의 하나로 길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또 정현룡의 부인 정부인(貞夫人) 우봉이씨(牛峯李氏)의 열행(烈行)도 특기할 만한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예산여성의 열행과 절개>에서 별도로 서술하였다.

### 병자호란 때 쌍령전투에서 순국한 충신 이의배



이의배 신도비

이의배(李義培, 1576-1637)는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병자호란 때 쌍령전투에서 순절한 충신이다. 1636년 청나라가 서울 가까이 침범하여 오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는데, 이의배는 공청도절도사로서 전장에 나가면서 행전을 바지 속 양 다리에 푸른 끈으로 묶어 자신의 시신을 찾을 징표로 삼으라 했다. 순국을 각오한 비장한 출전이었다. 그의 충의정신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의배의 자는 의백(宜伯)이고, 본관은 한산이다. 목은 이색(李穡)의 후손이다. 그는 1576년(선조 9) 사헌부 장령 이흡(李洽)과 어머니 여홍이씨(예조 판서 이우직의 네) 사이에서 태어났다.

## **무신으로서 광해군의 패륜에 항거, 인조반정에 참여하다**

이의배는 24세가 되던 1599년(선조32)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에 제수되었고, 곧 이어 감찰(監察)로 옮겼다. 이때 왜구가 겨우 철수하였으므로 연해의 수령을 새로 선발할 때여서 보령 현감에 제수되었으나, 대간들이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문제 삼아서 체직되었다.

33세(1608)에 아버지의상을 당하여 3년 복제를 마쳤으나, 그는 더 벼슬에 나가려고 생각하지를 않았다. 광해군의 살계폐모(殺弟廢母 :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를 폐비한 사건) 등 당시 북인 정권의 시사(時事)가 날로 글러 가는 것을 보고 실망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서인계의 반정(反正)의 밀모(密謀)에 참여하게 된다.

1623년(인조원년) 인조반정으로 통정대부에 오르고 명천 부사(明川府使)에 제수되었다. 그런데 이듬해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들 이목(李穆)이 외숙부인 부원수 완풍 부원군 이서(李曙)를 따라 송도(松都)에서 적을 막았으나 패하여 서울이 함락되었다. 이에 아들 이목이 정세를 탐지하려고 몰래 도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점령군에게 붙잡혀 죽었다. 시국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 이의배는 조정에 장례를 부탁하고 자신은 자신의 직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시국이 안정되면서 차례로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인동 부사(仁同府使)에 제수되었다.

55세가 되던 1630년(인조 8) 이의배는 한천군(韓川君)에 봉해졌고, 이후 59세 까지 공청도 병마절도사, 김해 부사, 전라도 병마절도사, 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 횡해도 병마절도사, 평안도 병마절도사를 차례로 역임하였다.

## **명주 행전을 푸른 비단 끈으로 다리에 묶고, 청나라와 싸우려 전장에 나서다**

이의배가 60세가 되던 해(1635년, 인조13), 그는 다시 공청도 절도사에 제수되었다. 공청도는 지금의 충청도이고 절도사는 곧 병마절도사(종2품)로 충청지역

의 수군 사령관이었다. 이때 그는 청나라의 침입을 예감하고, 이서에게 “저들의 기병과 우리 보병은 형세가 서로 대적할 수 없으니, 예비할 방도로 미리 마군(馬軍)을 길러야 하겠습니다”고 하여 양정(良丁)을 뽑아 기병으로 삼아서 기예를 시험하고 진법(陣法)을 연습하여 사변에 대비하였다.

1636년 12월, 예상한 대로 청나라의 침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동안 훈련된 기마병을 활용할 때가 왔다. 그러나 감사가 새로 뽑은 마군(馬軍)을 빼앗아 갔고, 또 갑작스런 동원이라 면 고을의 군사는 미처 와서 모이지 못하여 그에게는 운영해갈 군사가 제대로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근방의 속오군(東伍軍)를 급히 수습하여 겨우 수천 명의 군사를 모았을 뿐이었다.

이제 전장으로 나가야 할 때였다. 이의배는 집안일을 아우에게 부탁하고 가족을 시켜 흰 명주 행전을 만들어 푸른 비단 끈으로 바지 안 피부 닿는 데에 매어 붙였다. 그것은 뒷날 자신이 전사하여 시신이 언덕이나 습지에서 나뒹굴 때에 이것을 표지로 삼게 하고자 한 것이었다. 순국을 각오한 비장한 출전이었다. 그의 평소의 충의정신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

### 쌍령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다

1636년(인조14) 12월, 청나라 태종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파죽지세로 공격해 내려와 조정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왕실의 왕자들과 세자빈은 종묘의 위폐를 모시고 먼저 강화로 피신하였으나, 인조와 조정은 가는 길이 막혀서 강화로 들어가지 못하고 방향을 바꾸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공청도 절도사 이의배는 군사를 이끌고 죽산 산성(竹山山城)에 들어가 행조(行朝)에 알리고 남한산성을 향해 출발하고자 했다. 그러나 중간에 적병을 만나 선봉장 이차형 등이 모두 전사하고 적의 기병이 가득하여 전진할 수 없었다. 영남의 근왕병(勤王兵)이 장차 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기다려 출전하기 위해 다시 죽산으로 돌아가 성을 지켰다.

이후 영남의 군사가 죽산에 이르자 경상좌도 절도사 허완(許完)과 경상우도 절도사 민영(閔棟)과 함께 (경기도) 광주 쌍령(雙嶺)으로 나가 세 곳으로 나뉘어 진을 쳤다. 적이 먼저 좌군(左軍)을 범하므로 군중(軍中)의 화포(火炮)를 일제히 쏘자 적이 조금 꺾였으나, 군사가 실화(失火)하여 수십 수백 인이 한꺼번에 타죽어서 세 진(陣)이 다 놀라 동요하고 패하여 흘어지자 적이 기세를 타고 다가왔다.

이때 이의배의 비장 안삼오의 하인 귀복(貴福)이 말을 바치면서 타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이의배는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죽음이 있을 뿐인데, 말은 타고 어딜 가겠는가?”고 꾸짖었다. 그리고는 호랑이 갖옷을 입고 진 앞에 버티고 서서 적을 향해 화살을 쏘는데, 지위가 높은 무관은 다 달아나고 비장 이억(李億)과 영노(營奴) 조축생(曹丑生)만이 남아서 조축생이 화살을 바쳤다. 이후고 힘이 다하여 땅에 쓰러져 드디어 전사하였고, 이억과 조축생이 따라 죽고, 두 절도사도 함께 죽었다. 이때가 1637년(인조 15) 정월 3일이었다.

이때 그의 손자 이여발(李汝發)은 나이 16세의 소년이었다. 병란을 피하여 섬에 가 있다가 할아버지가 패전한 소식을 듣고 서숙(庶叔) 이간(李稈) · 당숙 이육(李櫟)과 함께 샛길로 쌍령의 싸움터로 가서 그 시신을 찾았으나 찾지를 못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조축생의 아내가 싸움터에 가서 지아비(님편)의 주검을 찾아냈는데, 우연히 장군 이의배의 시신이 두어 걸음 사이에 있는 것을 보고, 쪽을 끌어다 덮고 목패(木牌)에 써서 그곳을 표시한 다음 돌아와 이여발에게 알렸다.

이여발이 친척 두어 사람과 함께 가서 보니, 얼굴과 수염, 머리털은 손상된 데가 없고 오직 왼쪽 복부 밑과 겨드랑이 사이에 각각 화살 하나씩을 맞았는데, 옷과 갖옷은 다 벗겨가고 다리 아래에 흰 명주 행전(行纏)과 푸른 비단 끈만이 아직 그대로 있었다. 이에 시신을 수습한 후 지금의 예산군 덕산면 봉명동(鳳鳴洞)의 해좌(亥坐)에 장사하였다.

### 영의정에 증직되고, 부자가 충신정려를 받다

그런데 이의배의 이 같은 장렬한 죽음이 당시로서는 세상에서 그냥 잊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65년 뒤인 1701년(숙종27) 5월, 그의 충의로운 죽음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해에 최석정이 “병자호란 당시 쌍령의 싸움에서 허완·민영·이의배, 세 절도사가 함께 순절(殉節)하였는데, 허완과 민영 두 사람은 이미 증직하고 자손을 녹용(錄用)하였으나 이의배만은 아직 포상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숙종임금에게 아뢰고, 또 “이의배에게는 공신에 대한 관례로 증직한 것이 있었더라도 따로 포상하여 증직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임금의 윤허를 얻어낸 것이었다. 이때 숙종은 “부자가 사절(死節)한 일은 세상에 드문 것이니, 이의배는 의정(議政)에 추증하고 사제(賜祭)하며 자손을 녹용하라. 이의배 부자와 허완·민영·조축생은 모두 마찬가지로 정려(旌閭)하라”고 명하였다.

이로써 예산의 덕산인 이의배와 그의 아들 이목은 모두 ‘충신(忠臣) 정려’를 받았고, ‘부자(父子) 충신’이라는 특별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의배는 처음에 병조 판서에 추증되었다가 이 때에 이르러 의정부 영의정, 한천 부원군(韓川府院君)으로 높여 추증하였다. 국가에서 보낸 예관(禮官)이 와서 제사를 모시고, 유사(有司)가 의물(儀物)과 정문(旌門)을 갖추어 그 글에 쓰기를, ‘충신 모관(某官) 이의배와 충신 모관 이목의 문(門)’이라 하였다.

### 가는 곳마다 청렴하고 재능이 있어 비석을 세워서 사모하다

이의배는 평소 잘 입는 의복이 가난한 선비와 같았다. 그리고 그가 비록 무과로 벼슬하였을지라도 또한 서사(書史)를 좋아하여, 여기에 『논어(論語)』를 5백 번이나 읽었다 한다. 그가 전라도 절도사로 있을 때에 군무(軍務)에 관하여 서장으로 아뢸 일이 있으면 조목조목 들어서 아뢴 것이 매우 많았는데, 하리(下吏)를 시켜 집필하게 하고서 입으로 전달하되 말을 끊지 않았으며 말의 조리가 해박

통달하였다.

당시 전주 부윤이었던 윤황(尹煌)은 “무장(武將)이면서 글에 능통하리라 생각지 못했고, 술 마시기를 좋아하되 술에 취해 실수하는 일이 없었다” 하였다. 여섯 번 절도사를 맡고 세 번 주군(州郡)을 맡았는데, 가는 곳마다 청렴하고 재능이 있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다 비석을 세워서 덕을 사모하였다. 그의 드높은 충의정신 못지않게, 문무를 겸비한 출중한 지식인이었음을 알게 한다.

### 임란·호란의 포로 740여 명을 귀환시킨 외교관 신계영



신계영신도비

월선현 십육경가

조선중기, 특히 16세기 말과 17세기 초반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연이어 일어나, 국토가 초토화되고, 국가 사회의 기강과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의 정체성이 크게 손상을 입은 국가적 수난기였다. 따라서 전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난극복 차원에서의 과제가 산적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전란 중 무고하게 잡혀가거나 끌려간 전쟁 포로들을 국내로 귀환시키는 일이었다. 이러한 국난극복의 과제 해결에 두 차례나 나서서 큰 성과를 이루어 낸 사람이 곧 예산인 신계영이었다.

신계영(辛啓榮, 1577-1669)은 조선 중기 때의 문신으로 자는 영길(英吉), 호는 선석(仙石), 시호는 정현(靖憲)이며, 본관은 영산이다.

### **벼슬살이를 버리고 예산으로 낙향하다**

신계영은 1577년(선조 18) 서울 낙산에서 아버지 호조좌랑 신종원과 어머니 남양 홍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25세가 되던 1601년(선조 34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27세 때인 1603년(선조 36년) 예산군 신암면 오산리 선영 아래로 낙향하여 오직 부모를 봉양하며 학문에 전념하였다. 몇 년 뒤 부모상을 당하여서 3년 상사를 모두 마쳤지만, 그는 광해군의 난정에 혐오를 느껴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43세(1619년, 광해군 11)에 가서 야 늦게 알성문과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이후 검열을 거쳐 병조좌랑, 예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신계영이 외교활동을 통하여 국난극복에 나서게 된 것은 그의 나이 48세가 되던 해로부터였다. 그는 1624년(인조 2년) 통신사 정립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일본에 건너가 도쿠가와의 사립(嗣立)을 축하하고 이듬해 귀국하였는데, 이때 그는 이전 임진왜란 때 포로가 되어 잡혀간 조선인 포로 146명을 데리고 함께 돌아왔다. 이때 그는 당시 일본 사행에서 겪은 여러 가지 감회를 시(詩)로 남겼는데, 그때 지은 기행시가 그의 시문집인 『선석유고(仙石遺稿)』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계영은 1634년 동부승지가 되었고, 1637년에는 병자호란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귀환시키는 속환사(贖還使)가 되어 심양에 다녀왔는데, 이때 그가 구하여 데리고 온 귀환인은 6백여 명에 이른다. 그 뒤 나주목사, 강화유수 등을 거쳐 전주부윤을 역임하였다.

신계영은 또한 63세가 되던 1639년(인조 17)에는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昭顯世子)를 맞으려 부빈객(副賓客)의 자격으로 청나라 심양에 갔었고, 또 1652년(효종 3년)에는 사은사(謝恩使)의 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655년 사직하고

고향 예산으로 돌아온 신계영은 여생을 한가하게 자연을 벗 삼으며 보냈다.

1665년(현종 6년) 지중추부사의 직을 받아 기로소(耆老所, 70세 이상 정2품 이상의 문관을 예우하기 위하여 만든 기구로 임금도 참여하였다)에 들어갔고, 1667년에는 판중추부사에 특제되었으며, 1669년(현종 10) 고향에서 93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그의 묘소는 대술면 송석리(솟골)에 있으며 신도비는 대술에서 온양 가는 길가 산 아래에 세워져 있다.

## 한말 의병운동 – 최익현, 이남규

### 위정척사 정신으로 무장한 한말 의병장 최익현

최익현(1833-1907)이 살다간 시기는 제국주의적 모순이 극심했던 동아시아적 격변기 나아가서 세계적 격변기였다. 따라서 동아시아를 천하로 알고 살아 온 조선으로서는 이중 삼중의 혼란과 갈등과 위협을 감내해야 했고, 그 와중에 조선의 정체성은 크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익현은 이러한 와중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시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지식층의 리더로서 의리정신과 위정척사상으로 무장하여 국가에 대한 충의(忠義)를 단계적으로 실천해 보인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다. 그는 흥선대원군에 맞서 10년 세도를 정지시켰고, 정론을 펴는 상소운동을 계속하였으며, 마침내는 74세의 최고령 의병장으로 나섰다가 적국 땅에서 장렬하게 절사하기까지 흐트러짐 없이 선비정신을 지켜 낸 조선선비의 표상이었다.

## 이항로의 문인이 되어 위정척사를 배우다



면암 최익현



최익현 생가터

최익현(崔益鉉)은 자가 찬겸(贊謙), 호는 면암(勉庵)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그는 1833년(순조 33) 12월 5일 경기도 포천(현재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가채리)에서 아버지 최대(崔岱)와 어머니 경주 이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네 살 되던 해에 그의 집안은 충청도 단양 금수산 골짜기로 이주했는데, 여기서 그는 9세가 되던 1841년 부터 김기현(金琦鉉)에게서 유학의 기초를 공부 하였고, 1843년 11세 때 그의 집이 경기도 양근 후곡(현재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서후리)으로 이주하여, 그로부터 3년 뒤에 인근의 벽계(현재의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에서 강학하는 이항로를 찾아가 그 문인이 되었다. 이항로는 위정척사 사상을 고수하는 재야 학자로서 중부지방 유림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이때 면암과 동문수학한 인물 중에는 중암 김평묵, 성재 유중교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항로는 최익현에게 존심명리(存心明理, 마음을 간직하고 이치를 밝힌다) 등의 경구를 써 주면서 격려했고, 15세 해에는 ‘면암(勉庵)’이란 두 글자를 써 주었는데 이것이 최익현의 아호가 되었다.

최익현은 이항로 문하에서 10년 가까이 수학하였다. 여기서 최익현은 격몽요

결, 대학장구 논어집주 등 경전 공부와 함께, 또한 ‘정학과 정도(正道)를 지키고 사학(邪學)과 이단을 물리치라’는 위정척사(衛正斥邪)의 정신이나, ‘임금 사랑을 아비 사랑과 같이하고 나라 걱정을 내 집 걱정과 같이 하라(愛君如父 憂國如家)’는 애군우국의 정신도 배워 익혔다. 최익현은 20세 때 청주 한씨를 부인으로 맞았고, 22세 때에는 다시 고향인 가채리로 돌아와 과거 준비에 몰두하였다.

### 문과 급제로 출사하여 직언(直言)하는 관리가 되다

최익현이 문과에 급제한 것은 그의 나이 23세 때인 1855년 3월이었다. 그는 승문원 부정자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30세 때 신창 현감이 되었는데, 이때 그는 백성을 대변하여 충청감사에게 항의하다가 벼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다시 32세에 벼슬에 나아가 예조좌랑 사헌부 지평을 역임 하다가 어머니상을 당하여 사직하였고, 상을 마친 후에 1868년(고종5) 36세에는 사헌부 장령이 되었다.

그런데 이해 9월 그가 올린 시폐(時弊) 상소는 당시 최고 권력가이자 임금의 아버지인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을 비판하고 그 시정을 건의하였는데, 그는 이 상소에서 경복궁 복원 공사를 중단하고, 수탈 행정을 금지하며, 당백전과 사대문 문제의 징수를 혁파할 것을 촉구하였다. 원래 사헌부 장령(정4품)이 감찰직이라서 최익현의 직언(直言)은 자기 직에 충실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흥선대원군에게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서 자기 주장을 펴는 일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이 상소로 인해 최익현의 명성은 전국에 퍼지게 되었으나 이 상소로 그는 삭탈관직 되었다.

### 계유상소로 10년 세도 흥선대원군을 하야시키다

이후 41세가 되는 계유년(1873, 고종 10)에 최익현은 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최익현은 곧바로 사직 상소인 사동부승지소(辭同副承旨疏)를 올렸는데, 여기서 그는 흥선대원군을 정면으로 공격하였다. 즉 흥선대원군 집정의 정사가 옛 법도에서 크게 어긋나고 정부는 흥선에게 아부하는 무리로 가득해서 정의(正義)가 소멸되었으며, 과중한 세금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고 비판하였다. 그러자 흥선을 추종하는 대신들이 면암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지만 고종은 오히려 그를 응호하고 벼슬을 더욱 높혀서 호조참판에 임명했다.

이에 최익현은 다시 사직 상소인 사호조참판겸진소회소(辭戶曹參判兼進所懷疏)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지난번 사직 상소의 비판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신랄하게 흥선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었다.

이 상소에서 그는 만동묘의 혼탁과 서원혁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나라 돈을 사용하는 것은 중화와 이적의 분별을 어지럽히는 것이니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복궁 중건사업을 위해 거두어들인 여러 명목의 세금은 백성과 국가의 재앙이라고 지적했고, 흥선군을 겨냥하여 ‘친친의 반열에 속한 사람은 지위와 녹을 높여줄망정 정사에 간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곧 군신의 윤리를 무너뜨리고 사제의 의리를 끊어놓고 충신과 역적의 분별을 혼동시키고 중화와 이적의 분별을 어지럽히고 백성과 국가의 재앙을 초래한 흥선은 섭정을 거두고 하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대신들이 반발도 극심하였다. 그들은 고종의 부자 사이를 이간하는 최익현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곧 10년 집권 흥선대원군의 세도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렸다고 평가되는 것이 최익현의 계유상소이다. 이 상소로 흥선 대원군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으나, 최익현 또한 부자간을 이간시켰다는 이유로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에 고종은 최익현이 요구한 청나라의 화폐 사용 금지와 만동묘의 복원을 지시하였다. 최익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최익현의 제주 유배생활은 이후 1875년까지 약 1년 반 정도 이어졌다. 유배가

풀려 제주에서 돌아오는 길에 최익현은 전라도 장성 하사에 있는 노사 기정진(1798-1879)을 예방했다. 기정진은 1866년(고종 3)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6조목의 방비책을 제시한 병인소를 올린 인물로, 그것은 이후 위정척사상의 이론적 기초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때 최익현의 가정진 방문은 이후 최익현의 행로를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이후 최익현의 활동을 지배한 사상적 기조는 대개 위정척사사상으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위정척사로 무장하고, 도끼 든 상소로 일본 침략 의도에 맞서다

고종 13년(1876) 2월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되자 최익현은 분노하였다. 그의 위정척사의 관점으로 볼 때, 조선은 결코 왜(倭)와 수호조약 따위를 체결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었다. 그해 2월 17일(양력 1월 13일) 그는 상소를 올리기 위해 도끼를 들고 광화문 앞으로 나아갔다. 조약을 강요한 일본 사신 구로다 교타카의 목을 베라는 뜻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그 유명한 최익현의 지부상소(持斧上疏)이다. 정확하게는 지부복궐척화의소(持斧伏闕斥和議疏)이다. ‘도끼를 들고 궐 앞에 엎드려서 화의를 배척하는 상소’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것은 임진왜란 직전에 중봉 조현이 옥천에서 상경하여 도끼를 들고 나타나 상소하여 정명가도를 강요한 일본의 사신 겐소의 목을 베라고 했던 사실과도 흡사했다.

이때 그가 이 조약을 반대하는 주장은 대개 다섯 가지였다.

- ① 이 강화는 우리가 일본을 두려워하여 체결하려는 것이어서, 일본은 앞으로 계속 탐욕을 나타낼 것인바 우리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 ② 저들의 문화는 사치품이고 우리의 것은 생활필수품이니 양국의 교역이 시작되면 몇 년 못 가서 우리는 난망하게 될 것이다(즉 우리의 농산물 생산은 유한한 데 저들의 공산품 생산은 무한할 것이니 서로 교역하면 우리 경제가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임).

- ③ 저들과 강화를 하게 되면, 저들은 이미 서양 오랑캐와 일치가 되어 있으니 이들을 통하여 사학(邪學, 천주교)이 전국에 만연하게 될 것이다.
- ④ 저들은 우리의 재산과 부녀자들을 겁탈할 것이다.
- ⑤ 저들은 재물과 여성만 탐하고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금수이므로 저들과 접촉하면 금수처럼 될 것이다.

사실상 그의 이러한 주장은 철저히 위정척사적 입장에 선 주장이어서, 일본뿐만 아니라 서양의 문화 전반에 걸친 배타적 성향까지 보이는 한계가 있지만, ①②④는 논리정연하고, 후일의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 거의 그가 말한 대로 되고 밀았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의 상소는 조정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였다. 그 형식이나 내용이 너무 과격하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에게 유배령이 떨어졌고, 그는 흑산도에 위리 안치되었다.

최익현은 유배 3년 만인 1879년 흑산도 유배에서 풀려 날 수 있었다. 그의 나이 47세 때였다. 이후 최익현은 1881년(고종 18) 신사직사운동이 일어나 위정척사 사상이 고조될 때 잠시 선봉에 서는 등 약간의 활동을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은둔하는 입장이었고, 화서학파 문인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아들과 함께 화서문집을 필사하면서 스승 이항로의 학풍을 계승하는 일에만 전념했다. 그 사이에 부친상을 당해 3년 거상을 했다. 그리고 1894년 갑오경장 초기에 흥선대원군이 잠시 재집권 할 때 공조판서에 제수되었지만 그는 출사하지 않았다.

### 다시 상소로써 위정척사운동의 선봉에 나서다

이후 1895년 국모를 시해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또 연이어 단발령이 내려지자 일본의 만행에 분노한 최익현은 다시 상소로써 위정척사운동의 선봉에 나섰다. 이에 일본과 김홍집 개화정부는 상징적으로 최익현의 상투를 잘라 항일척사 세력의 기를 꺾으려고 온갖 협박과 회유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최익

현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때마침 1896년 고종이 아관파천을 하면서 김홍집 정부의 해산을 선포함으로써 더 이상의 위기적 상황은 오지 않았다.

이후 고종은 최익현에게 호조판서 경기도관찰사 의정부 찬정 궁내부특진관 등의 벼슬을 지속적으로 내렸으나 그는 매양 사직소를 내는 것으로 응대하였고, 그 내용은 잘못된 시정의 개혁과 일본을 배격하라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다.

1905년 일제는 무력적 강압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그들이 우리의 국권(외교권)을 약탈하여 이제 조선은 대외적으로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에 최익현은 청토오적소(請討五賊疏)를 올려, ‘을사조약의 무효를 국내외에 선포하고 망국조약에 찬동한 을사오적(박제순·이지용·이근택·이완용·권중현)을 처단하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일본의 한국주차군사령부에 구금되어 심문을 받고 사흘 만에 경기도 포천의 고향집으로 압송되었다. 그러나 최익현은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상소를 준비하다가 일본 현병대에 체포되었고, 이번에는 그가 1900년부터 이주해 살던 충청도 정산(지금의 충남 청양군 목면 송암동)으로 보내졌다.

### **최고령 의병장 최익현, 태인에서 거병하다**

1906년 1월 19일 최익현은 충남 논산 궐리사에서 고종에게 올릴 집단 상소를 결의했다. 그리고 3월 15일 당시 그가 살고 있었던 충남 청양 정산(현 충남 청양군 목면)에서 거병을 결의하고 호남으로 출발했다. 그의 연보 기사에 의하면 이때 그는 “내 나이 80에 가깝지만 사생(死生)은 깊이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 했다. 당시 74세이던 그가 목숨을 돌보지 않고 구국에 나설 각오를 확고하게 한 것이었다.

최익현은 먼저 고종에게 창의토적소(倡義討賊疏)를 올려 창의(倡義)의 사실을 고하고, 또 포고팔도사민(布告八道土民)을 통해 전국 유림을 대표하여 전 국민의 궐기 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그해 윤 4월(양력 6월 14일) 전라도 태인(전북 정읍시 태인면)에서 항일 의병운동을 일으켰다. 민족식의병에 뒤이어 에 뒤이어 최익현이 그 문인

임병찬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의 나이 이미 74세, 최고령의 의병장이었다. 그리고 그해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해였다. 그는 여기서 일본의 16가지 죄목을 적은 문서를 작성한 뒤 처음 전주에 진출하려고 하였으나 중과부적이어서 방향을 바꾸어 순창으로 갔는데, 그때 모인 병력은 수백 명에 불과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때 최익현 부대를 공격해 온 것은 일본군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관군이었다. 당시 대한제국의 정부는 일본 통감부의 지휘를 받고 있었으므로, 정부는 전라남도 관찰사를 통하여 의병해산을 명령하는 칙서를 전달하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전라북도 관찰사 한진창으로 하여금 진위대를 이끌고 가서 의병진을 공격하게 했던 것이다. 이들이 와서 순창의 의병진을 포위하자, 최익현은 이 전투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말하기를, “저들이 만약 일본군이라면 마땅히 죽을 각오로 전쟁을 하여 결판을 지을 것이지만, 저들이 이 나라의 진위대인 즉,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치게 하는 것이니 어찌 차마 할 수 있겠는가?”라 하고 임병찬 등 의병장들에게 항전을 중지하게 하고, 또한 진위대에 대해서도 동족상잔의 토벌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진위대는 의병을 향하여 선제공격을 하였다. 의병 중에 전사자가 나오자 최익현은 전원에게 퇴각을 명하고 스스로 나아가서 포로가 되었다. (그의 『연보』에는 이때 무리가 흩어지자 남은 제자 21명과 함께 의관을 정제하고 앉아 ‘맹자를 읽다가 체포됐다고 했다’ 이때 임병찬 등 13명의 부하들은 퇴각의 명을 거부하고 그들도 스스로 포로가 되었다. 최익현은 일본군에 의하여 서울로 압송되어 한국주차군사령부에 구금되었다가 일본 대마도 이즈하라 위술영 경비대에 이감되었다.

### 대마도 감옥에서 절사하여 돌아온 유해, 논산을 거쳐 예산에 묻히다

최익현은 3년 금고형을 받고 일본 대마도로 강제 이송되었다. 임병찬 등 그의 문인들도 함께 옥고를 치렀다. 이때 최익현은 74세의 고령에다가 풍토병까지 겹쳐 고생이 심했던 것 같다. 그가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간 날은 1906년 8월

27일이었고, 그가 풍토병에 걸려 12월 4일, 그리고 그가 적지의 감옥에서 절사한 날은 1907년 1월 1일(양력)이었다.



최익현의 대마도 입송시 모습

이후 그의 유해를 태운 배가 부산에 도착한 것은 1907년 1월 5일이었다. 그의 관은 보름 만에 청양 정산 본가에 도착했다.

돌아온 최익현의 유해는 전에 그가 거병의 결의를 밝혔던 논산 노성면 지경리 궐리사 부근 무동산 기슭에 묻혔다. 그러나 이후 많은 우국지사들의 묘소 참배가 줄을 잇자, 1910년 일제에 의해 그의 무덤은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로 옮겨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예산 광시면은 역사적으로 의기(義氣, 의리적 기개)가 높은 곳이다. 광시의 임존성에서는 우리역사에서 최초의 의병이라 할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또 광시장터는 1906년 홍주의병의 최초 봉기가 있었던 곳이었다. 최익현의 묘소가 예산 광시로 정해진 것은 이러한 광시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충남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에 위치한 최익현 선생 묘

사후에 최익현은 충청남도 청양의 모덕사에 배향되었고, 또 포천 해주 고창곡성 회순 무안 함평 광산 구례 등지에서도 봉향되어 그의 높은 지조와 절의를 기리고 있으며, 또 그를 기리는 춘추대의비가 충남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 그의 묘소 옆에 세워져 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중장이 수여되었다.



춘추대의비



최익현선생재실

최익현은 올곧은 선비로서 의리를 목숨보다 중시했고, 또 그것을 몸소 실천한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다. 그는 흥선대원군(고종의 생부)의 10년 세도가 빚은 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하여 흥선을 정권에서 하야시켰고, 일제의 침략 의도에 대해 위정척사 사상으로 맞서며 지부상소(指斧上疏)로 나라를 지키려 했다. 또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이 약탈당하자 74세의 노구를 이끌고 의병전쟁을 수행했으며, 일본에 잡혀가서는 일인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절사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일생은 한마디로 충의(忠義)로 일관한 올곧은 공직자의 삶이었다. 타협과 굴절을 외면하고 의리와 지성으로 투쟁한 그의 선비적 삶은 실로 조선선비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며, 그것은 현실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오늘의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 **선비정신으로 저항하다 순국한 우국지사, 이남규**



수당 이남규와 유재 이충구 부자의 영정 \_수당기념관

수당 이남규는 한말 예산(禮山) 출신의 고급 관인 유자이다. 성균관 교수로서 신채호 등 인재들을 양성했고, 기호남인 성호 계열의 문학을 계승하여 근대 한문학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이남규는 화이론적 입장에서 위정척사사상에

충실하여 반왜사상이 투철했고, 같은 논지로 반동학·반개화의 입장도 분명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하여 내포의 선비들이 홍주의병(1906)을 일으켰을 때 전후로 이에 참여하며 선봉장이 되었고, 이후 일제의 회유와 강압에 대해 일관된 선비정신으로 대응하다 순국한 충의의 선비였고 우국지사였다.

### **이산해의 후손으로, 허전에게 글을 배워 문과에 급제하다**

이남규(李南珪, 1855-1907)의 자는 원팔(元八), 호는 수당(修堂), 본관은 한산이다. 선조 때 영상을 지낸 이산해의 12대손이다. 한산이씨가 예산에 입향하게 된 것도 이산해의 묘소가 예산에 정해진 데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이산해의 묘는 대술면 방산리 양지말 산자락에 있고, 이 일원에 한산이씨들이 세거하여 동족 마을을 이루고 있다.

이남규는 1855년 11월, 아버지 이호직과 어머니 청송 심씨 사이의 장남으로 서울 미동(尾洞)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가학(家學)을 거쳐 남인계 학자인 성재(性齋) 허전(許傳)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21세(1875년, 고종 12)에 사마시에 급제하였고, 28세(1882년, 고종 19)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문과에 급제한 후 이남규는 승문원 부정자를 시작으로 홍문관 교리, 성균관 교수, 사간원 정언, 공조참의, 동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성균관의 교수로 있을 때에 신채호(申采浩), 변영만(卞榮晚) 등에게 강학한 것으로 전해진다.

### **위정척사 사상으로 무장하여 일관된 주장을 폈다**

벼슬에 나간 후 이남규는 한결같이 위정척사론(衛正斥邪論)을 견지하였다. 위정척사란 조선후기에 정학(正學)인 성리학과 정도(正道)인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고,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사학(邪學)으로 보아서 배격하는 입장으로, 그 연원은 17세기의 북벌론과 그 뿌리가 된 춘추대의의 화이사상에서

찾아진다. 화이론은 18세기에 인물성동론의 주장과 함께 복학론이 대두하면서 잠적하는 듯 하였으나 한말 이민족의 무력적 침탈이 노골화됨에 따라 구국과 민족문화 수호의 차원에서 다시 재연되면서, 반성리학적 외세 모두를 배척의 대상으로 삼았고, 나아가 의병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이때 이남규는 이러한 위정척사 사상으로 무장하여 반동학, 반개화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하여 1893년 동학의 교조신원운동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그 상소를 올린 우두머리를 엄히 조사하여 그 근거를 소탕하고 불彘는 자를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다. 또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국적으로 봉기하자 해당 지역의 관리에게 책임을 묻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마찬가지의 논리로 그는 개화파의 이른바 개화를 ‘왜화(倭化)’로 보아 반대하고, 개화파의 정책으로 조선은 결국 일제에게 종속될 것을 경계하였다. 특히 1894년 이후 일제의 조선 침략이 노골화되자 척사의 대상을 ‘왜(倭)’로 바꾸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한 대일결전론을 펼쳤다. 그리하여 갑오변란 이틀 후인 6월 23일 상소를 올려 동학군 진압과 일본군의 궁궐 점령 후의 정부의 시책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일본군에 의한 경복궁 점령사건에 대하여는 당초에 중국에 구원을 청했던 것이 현명한 계책이 아니었다면서 병기를 손질하여 일본군의 침략에 대비할 것을 주청하였다. 또 1895년 그가 영홍부사로 있을 때, 을미사변의 비보를 접하고는 극히 분노하여 관찰사에게 ‘토적복수(討賊復讐)’ 할 것을 청하였고, 또 명성황후의 비보에 이어 폐후(廢后)의 조칙이 내리자 그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따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 **벼슬을 받으면 소신을 밝히고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직했다**

1895년 을미사변 직후, 이남규는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해 있었다. 일국의 국모가 일제에 의해 시해당하는 이 비극적 상황에서 벼슬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그런 그에게 조정에서는 1896년 3월 안동관찰

사의 직을 제수하였다. 안동의병에 의해 안동부가 점령당한 상황에서 그를 후임 관찰사로 임명한 것이다. 이남규는 조정의 명을 거역하기 미안하여 안동에 이르렀으나 안동의 민가 1천여 호가 일본군에 의해 불태워진 것을 보고 일본군의 만행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리고 관찰사의 직을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이후에도 조정에서는 그에게 중추원의관, 궁내부특진관(종2품), 함경남북도 안렴사, 비서원승 등 여러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관직에 나갈 때면 자신의 소견을 분명히 밝히고 그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장 사직하였다.

그가 중추원의관이 되어서는 만민공동회 개최를 반대하고 거기에 참석한 관리들을 탄핵하였고, 함경남북도 안렴사로 있을 때는 덕원부윤 윤치호(尹致昊)가 소요를 불러일으킨 죄와 영흥군수 이윤재(李允在)가 재물을 긁어모아 원성을 산 죄를 조사하여 이들을 탄핵하였다. 이 상소를 올린 후 그는 비서원승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1900년 7월 예산의 집으로 낙향하였으며 이후 일체의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출처(出處)가 분명하여 선비기상이 넘쳤다.

### 관직을 버리고 상소로써 진언하며 흥주의병운동에 나서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다. 이때 그는 병중이었으나 생애 마지막의 상소인 「청토적소(請討賊疏)」를 올렸다. 여기에서 그는 일본을 우리의 '대대의 원수'라고 분명히 규정하였다. 이어서 '의(義)'의 관점에서 국가를 이끌어 국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하였다.

(가) 아! 비통합니다. 대대로 우리의 원수인 저 일본이 반드시 우리 강토를 점령하고 우리 신하와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야 말리라는 것은 우리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만국이 다 같이 아는 바입니다. 나라가 작고 병력이 약하다고 해서 끝없이 얹어쨌으니 피 끓는 원한과 뼈에 사무친

원수를 어찌 잠시인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중략)

- (나) 지금 나라를 보존할 만한 계책이 없고 백성들을 보전할 만한 가망이 없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중략)
- (다) (그러나) 의롭지 못하게 존속하는 것은 의롭게 망하는 것만 못하며, 의롭지 못하게 사는 것은 의롭게 죽는 것만 못합니다. 더구나 의롭다고 해서 꼭 다 망하거나 죽는 것도 아니고 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꼭 다 보존하거나 사는 것도 아닌 경우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중략)
- (라)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빨리 박제순의 무리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죄를 바로잡으소서. 그리고 저 나라가 맹약을 더럽힌 죄를 각국에 공포하고, 군신 상하가 모두가 한 번 결사전을 벌여 성패를 계산하지 않고 의로운 데로 돌아간다면, 나라는 비록 망한다 하더라도 보전한 것이 되고 사람들은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산 것이 될 것이므로 천하 후세에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고종실록』 46권, 고종 42년(1905) 11월 30일 기사)

여기서 수당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지금 우리는 나라가 작고 약하여 일제의 무력 침략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나라는 보존할 계획이 없고 백성은 보전할 가망이 없지만, 그러나 이대로 앓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이 난국을 의리(義理)로 이겨내자고 외치고 있다. 즉 “의롭지 못하게 존속하는 것은 의롭게 망하는 것만 못하며, 의롭지 못하게 사는 것은 의롭게 죽는 것만 못하다” 하고, 또 “의롭다고 해서 꼭 다 망하거나 죽는 것도 아니고, 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꼭 다 보존하거나 사는 것도 아니라”고 분석한다. 그것은 곧 의(義)의 편에 서서 죽기를 무릅쓰고 싸워야 살 길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그리하여 그는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들을 다 처단하고, 군신 상하가 결사 단결하여 성패 여부를 넘어 의로운 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러면 “비록 나라가 망한다 하더라도 보전한 것이 되고, 사람들이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산 것이 될 것이므로, 천하 후세에 할 말이

있을 것"이라 했다. 의리를 목숨보다 더 중시하는 칼날 같이 매섭고 번뜩거리는 올곧은 선비의 맑은 정신이 읽힌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참 선비의 정신이 그랬고, 참 충의(忠義)의 정신이 그랬다.

한편 충남 서부지역의 유생들은 을사조약의 소식을 듣고 적극적인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정산에 거주하고 있는 전 참판 민종식을 총수로 추대하고 1906년 3월 15일 예산(禮山)의 광시장터에서 봉기의 첫 깃발을 들었다. 이들은 이튿날 홍주의 동문 밖 하우령에 진을 치고 홍주성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관군의 저항에 오히려 대장소마저 위태롭게 되어 예산(禮山)의 광시장터로 회군하였다. 그러나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 청양의 합천전투에서 패하고 안병찬을 비롯한 23명이 체포되어 공주감옥에 갇혔다.

### 홍주의병운동에 선봉장으로 참여한 이남규

당시 예산의 향제에서 은거하고 있던 이남규는 홍주의병의 핵심인물인 안병찬의 구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남규의 홍주의병 참여는 사실상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공주군의 검관(檢官)인 곽찬(郭粲)에게 공주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안병찬의 구명을 위한 간절한 서신을 보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안병찬이 을미의병에 참여한 후 감옥에서 자결을 기도하기까지 했던 의리 있는 선비임을 강조하고, 그를 죽게 버려두는 것은 우리의 수치라고 까지 하였다. 이러한 이남규의 노력으로 안병찬은 석방되어 민종식 의진의 참모사로서 다시 종군할 수 있었다.

의병장 민종식은 처남인 이용규와 함께 1906년 5월 9일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에서 의병을 다시 일으켰다. 민종식은 부대를 정비하고 홍산을 점령한 뒤 서천·비인·광천을 거쳐 결성으로 진군하여 하루를 지내고 5월 19일 홍주로 들어왔다. 홍주의병 1천여 명은 구식 화포 2문을 선두에 내세워 홍주성을 포위 공격하여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홍주성을 함락시키자 인근의 유력 인사들이 차례로

의군에 합세하였다.

이때 이남규는 홍주의병에서 선봉장의 직임을 맡았다. 그러나 5월 31일 새벽,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명령으로 파견된 일본군의 대공격이 있었다. 의병은 결사항전했지만 디수의 희생자를 내고 홍주성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사망자가 300여 명, 체포된 이가 145명이며 그중에 중죄인으로 취급된 유준근(柳濬根) 등 78명이 서울로 압송되었다.

살아남은 의병들은 예산(禮山) 이남규의 집에서 의병 재기를 준비하였다. 그의 집에 이용규를 비롯하여 곽한일·박윤식·김덕진·이석락 등이 집결하였다. 이들은 민종식을 다시 대장에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만일을 위하여 민종식을 은신시켜 놓고 이남규 집에서 예산(禮山) 공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들은 예산관아를 공격하여 활동의 근거지로 삼기로 결정하고 공격 일을 11월 20일로 정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일진회원의 밀고로 그해 11월 17일 새벽에 습격을 당하여 관련 인물들이 체포되었다. 이때 이남규는 아들 이충구와 함께 체포되어 공주 감옥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였다.

### 마지막까지 선비의 기상을 지키다 순국하다 충의의 아들과 의로운 노비가 그 길을 따르다

일제는 이와 같은 의병의 재기 움직임에 불안을 느끼자 1907년 9월 26일(음 8. 19) 일본 기마대 1백여 명을 보내 예산의 이남규 집을 급습하였다. 공주감옥에서 석방된 지 10여일도 안 된 그를 다시 체포하러 온 것이다. 이남규는 사당에 들어가 조상에게 예를 올리고 가족에게도 영결을 고했다. 일본병이 그를 포박하려 하자 그는 “선비는 죽일 수는 있어도 욕보일 수는 없다(土可殺 不可辱)”라고 말하며 굴하지 않고 가마에 올라 집을 나섰다. 그를 서울로 압송해 가던 일본군은 그에게 단발할 것과 귀순할 것을 강요했으나, 수당은 이를 강하게 거부하였고, 결국 이들은 아산시 송악면 평촌 냇가에서 이남규를 무참하게 학살하였다.

충청남도에서는 1987년 4월 3일 수당이 피살된 곳에 '수당이남규선생순절비'를 세워 그의 충절을 기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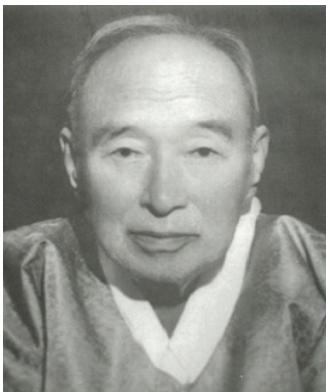


수당이남규선생순절비

이때 이남규를 수행하던 장자 충구(忠求, 1874-1907)는 아버지를 향하여 일본 병이 휘두른 칼을 자신의 몸으로 막다가 숨졌다. 이어 수행하던 두 종이 가마의 봉으로 그들에게 대항하다가 그 중 김웅길은 현장에서 숨졌다. 이남규의 후손들은 주인을 위해 순사한 그를 후하게 장례하였으며,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인 가수복(賈壽福)은 김웅길과 함께 이남규를 방어하다가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이러한 이남규의 피살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당시의 대표적 항일민족 지였던 『대한매일신보』에서 이 사실을 2회에 걸쳐 게재하여 민족적 분노와 적개심을 고취하였다. 또 당시 전라도에서 은거하고 있던 황현은 그의 『매천야록』에서 이 사실을 상세하게 적어 역사적 자료로 남겼다.

## 이남규의 충의(忠義) 정신을 계승한 그의 후손들



이남규의 손자 이승복과  
증손 이장원 중위 \_수당기념관

\*4대에 걸쳐 나라를 위해 힘쓰고 순국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문이다

이남규의 후손들은 그의 충의정신을 충실히 이어갔다. 아들 이충구(李忠求, 1874-1907)는 1906년 홍주의병장 민종식을 숨겨 주었다 하여 부친과 함께 공주 감옥에 수감되어 악형을 당하였으며, 1907년 9월 부친을 내리치는 기마대의 칼날을 막다가 일본병에 의해 피살되었다. 또 손자인 이승복(李昇馥, 1895-1978)은 1915년 러시아로 망명하여 박은식 등과 함께 『청구신문』을 발행한 일로 6개 월간 옥고를 치렀다. 또 그는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하였고, 1923년에는 김상옥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기도 하였고, 신간회의 창립을 주도하여 간부로 활약하였다. 또한 이남규의 증손자 이장원은 해병대 장교(중위)로 6.25전쟁 중 전사하였다. 이들의 충절은 이들이 모두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사실로도 확인된다. 국립현충원원에 4대가 안장된 경우는 아마도 이들 수당가 가문이 유일한 가문일 거사이다. 또 수당의 증손자 이문원 교수(중앙대 명예교수)는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수당 고택 옆에 건립된 수당기념관의 관장으로서 애국 충절 교육을 통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이남규가의 4대 충절은 충의정신의 가계적 계승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서, 예산(禮山) 충의정신의 한 특색을 이루는 것이며, 한국 충의정신의 멘토가 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oblige)의 한 표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수당 이남규 고택



수당기념관

##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 김한종, 윤봉길, 신현상, 박인호, 조인원, 정정화

### 대한광복회 운동으로 순국한 독립운동가, 김한종

김한종은 조선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위기적 상황에서, 아버지와 함께 홍주 의병(1906년)에 참여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대한광복회의 충청도지부장 (1917-1921)이 되어 대한광복회의 지휘부의 일원으로서 김좌진 장군을 만주에 파견하여 무관학교를 세우게 하고, 친일적 부호배들을 처단하며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독립자금 형성에 애쓰다가 일경에게 붙잡혀 39세로 절사한 독립 운동가이다.



독립운동가 김한종



김한종 의사 순국기념비

### 충효의 가정에 자라 홍주 의병에 참여하다

김한종(金漢鍾, 1883-1921)의 자는 경애(敬愛), 호는 일우(一宇), 본관은 김녕이다. 그는 1883년 1월 14일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에서 김재정(金在貞)의 독자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학행이 뛰어나고 충효의 전통을 지닌 전형적인 사대부 집안이었다. 아버지 김재정은 가학(家學)을 이어 성리학을 공부한 유생으로 집안의 아이들과 인근의 학동들을 교육하는 훈장(訓長)이었다. 김한종은 이러한 가정적 분위기 속에서 어려서부터 충효(忠孝)를 익히며 아버지와 숙부 김재풍에게 한문과 유학(儒學)을 공부하였다.

그의 청년기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이었다. 1904년 러일전쟁으로 일제는 대규모 군대를 한반도에 주둔시켰고, 1905년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을 무력으로 강압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했다. 이때부터는 외교권이 그들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대외적으로 조선은 이미 망한 나라와 다름이 없게 되었다.

이에 뜻있는 지사들이 곳곳에서 의병(義兵)을 일으켰다. 1906년 전 참판 민종식이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 김재정은 성달영과 함께 소모장(召募將)이 되어 의병에 가담하였는데, 이때 김한종도 부친을 따라 홍주 의병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홍주의 병이 일본군에 패하자, 김재정 김한종 부자는 의병장들을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 자신의 집에 피신시키고 재기를 도모하였다. 이때 의병 총대장 민종식은 따로 예산읍의 이남규 집으로 피신하였다.

### 일제 강점기 대한광복회에 가입하여 충청도지부장이 되다

그러나 의병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910년 조선은 일제에 강제적으로 병합되고 말았다. 이후 김한종은 충청도 지역에서 사방으로 동지들을 찾아 규합하였는데, 이것이 후일 대한광복회 충청도 지부의 주요한 인적 지원이 되었다. 그러던 중 그는 조선총독이 부여지방을 시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916년 7월 김경태·김재창과 함께 부여의 이철영 집에서 조선총독 척단 계획을 모의하고 추진하여 갔다. 그러나 불시에 들이닥친 일경의 가택 수색으로 계획을 충도에서 접고 각기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김한종은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 총사령 박상진(朴尙鎮 : 1884-1921)<sup>1)</sup> 동지들을 널리 구한다는 말을 듣고, 1917년 6월경 채기중의 소개로 박상진을 찾아가 만났다. 이들은 서로 의기 상통하여 그는 바로 대한광복회에 가입하였고, 또 가입하면서 곧바로 충청도지부장의 중책을 맡았다. 대한광복회는 1915년 7월 15일 대구에서 한말의병전쟁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하여 조직한 비밀결사였다. 이들은 자금을 모으고 군대를 양성하여 독립전쟁을 벌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김한종은 의병전쟁 계열로써 당당히 참여하였고, 그때 의병운동으로 이루지 못한 한을 독립전쟁으로 이루어 내리라는 결심을 다졌다.

처음 대한광복회는 활동자금과 군자금을 부호들의 의연금과 일제의 세금 탈

취로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일제의 우편마차를 습격하여 세금을 탈취하게 하거나, 일본인이 경영하는 금광 습격을 계획하기도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한광복회는 군자금을 주로 자산가들의 의연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조차 부호들의 비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심지어 일부 친일 부호들은 군자금 현납 권유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내막을 일경에 밀고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김한종은 대한광복회의 이런 어려운 시기에 본격 합류한 것이었다.

### **광복회 정비와 부사령(김좌진) 파견, 그리고 군자금 확보**

김한종은 홍주로 돌아온 후, 대한광복회 충청도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부의 조직과 세력 확대에 진력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친분이 있던 장두환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에게 천안·아산 지역의 자산가를 조사하고, 또 광복회원을 모집해 가도록 당부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예산·홍성·청양 지역을 중심으로 친분 있는 인물들과 김녕 김씨 문중 사람들을 상대로 광복회 가입을 권유하여 갔다. 그 결과 대한광복회 충청도지부는 홍성·예산·아산·청양·천안을 중심으로 설치되었고, 그 참여 인원은 60여 명에 달하였다. 참여 인물은 그의 아버지와 삼촌을 비롯하여 김녕 김씨 문중의 사람들이 많았고, 또 전에 홍주의병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었다. 또 참여 인물의 직업도 농업·미곡상·서당 훈장·개부·면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한광복회가 '공화정치(共和政治)'의 실현을 그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음에도, 위정척사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군주정을 옹호하였던 홍주 의병의 출신들이 많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김한종을 비롯한 당시의 위정척사적 유림들이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미 위정척사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바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한광복회는 투쟁방략에 있어서는 의병운동을 계승하고 있었지만, 그 운동의 이념만은 전

근대적인 위정척사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공화정치 이념을 내포하는 근대적 민족주의를 수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한종은 박상진 채기중 우재룡 이관구 등과 광복회 지휘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대한광복회의 독립전쟁 준비전략을 실행하여 갔다. 이들 대한광복회 지휘부는 김좌진을 부사령으로 만주에 파견하여 국내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독립군을 양성하게 하였다. 후일 청산리 전투로 유명한 김좌진 장군이었다. 또 충청도 일대에 고시문을 발송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우선 충청도와 경기도에 연락 거점을 마련하였다. 즉 예산·연기·인천에 곡물상을 개설하여 이를 광복회 본부 및 지부와의 연락 및 활동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었다.

김한종은 군자금 모집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그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충청도지부의 군자금 모금 활동은 먼저 배당금 통고문이나 고시문·경고문을 발송한 뒤, 찾아가 의연금을 받아오는 형식이었다. 당시의 일제측 문서에 따르면, 김한종의 주관 아래 충청도 지부에서 발송한 고시문은 160여 통에 이르고, 군자금 모금액 또한 170만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당시 책 한 권이 1원이었으니 실로 막대한 자금이었다.

### **친일 부호배와 악질 면장을 처단,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하다**

그러나 독립전쟁 수행을 위한 군자금은 여전히 모자랐다. 그런데도 단순한 위협이나 협박에 의한 군자금 모집은 여의치 않았다. 따라서 김한종은 지도부와 상의하여 극단적 처방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것은 군자금 강제 모집을 결행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친일 부호배들을 처단하는 강경책이었다. 이들은 먼저 자산가들에게 광복회 명의의 포고문과 배당금 통고문을 발송하고, 이를 일경에 밀고하거나 납부를 거부하는 친일 부호배들은 처단하도록 지령하였다.

다음은 이 무렵 김한종이 주도한 대한광복회의 포고문(布告文)이다.

### 포고문(布告文)

우리 4천년 종사는 회진(灰塵 : 재가 되고 먼지가 됨)되고 우리 2천만 민족은 노예가 되었다. 섬 오랑캐(島夷: 일본)의 악정과 폭행은 일가월증(日加月增)하니 이것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끓어올라 조국을 회복하고자 하는 염(念,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이 본회가 성립된 소이(所以)이니, 각 동포는 그 지닌바 능력을 다해 이것을 돋고, 앞으로 본회의 의기(義旗)가 동쪽에 오를 것을 기대 하라. 그리고 각 자산가는 예축(豫蓄)하여 본회의 요구에 응하여 출금하기 바란다. 만일 본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자체 정규(定規)가 있어 이에 따라 징계할 것이다.

#### -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

이로써 보면 대한광복회의 건립 이유는 우리가 일제의 노예가 된 상태이고 또 왜적의 악정과 폭행이 날로 가중되니 피눈물이 끓어올라 조국을 회복하고자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는 까닭에서라 했다. 따라서 각 동포는 능력을 다해 도와야 할 것이니, 자산가는 요구에 응해 출금해 줄 것이요, 만일 광복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요구에 불응하면 규정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김한종은 박상진의 명령을 받아, 악덕지주로 지탄의 대상이었던 경북 칠곡(漆谷)의 부호 장승원(張承遠)을 1917년 11월 10일 채기중 · 유창순 · 강순필 · 임봉주 등으로 하여금 처단케 하였다. 다음으로 충청도지부에서는 처단 대상으로 도고면장 박용하(朴容夏)를 지목하였는데, 도고면장 그의 비행(非行)은 대개 다음과 같았다.

도고면장 박용하는 통고문을 받고 이것을 현명에게 건네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하 면서기 가족을 거지와 같이 만들고, 전 면장을 옥사시킨 악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한광복회를 찬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연금을 낼 리 없으므로 이 자를 살해하여 그 밖의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 (중략)

동 면장이 악인인 증거는 첫째, 면장으로서 면민을 가혹하게 취급한 것, 또 하나는 면서기의 사택을 몰수하여 자기의 사택으로 하고 둘째, 전 면장의 공금 소비를 교묘하게 꾸며서 옥사케 한 것이다.

김한종은 이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천안 읍내에서 박용하의 처단을 장두환에게 지령하였고, 장두환이 다시 김경태와 임세규에게 실행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18년 1월 24일 김경태와 임세규가 그 집으로 찾아가 박용하를 처단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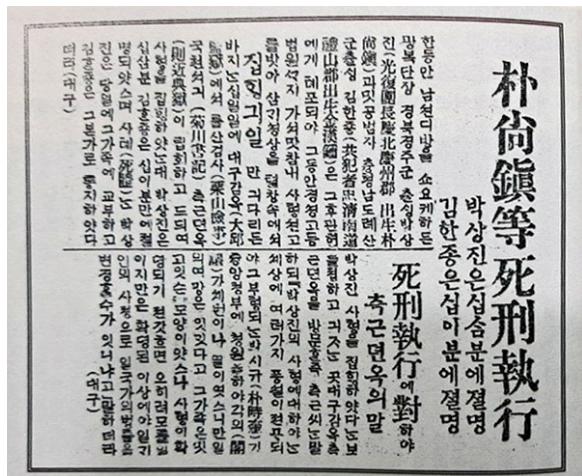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직후인 1월 27일 사건의 전말이 탄로 나서 김한종은 대한광복회 충청도지부의 동지들과 함께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후 그는 1919년 2월 2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사형을 받은 뒤, 경성복심법원과 대구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4년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1921년 음력 7월 8일, 대한광복회 회장 박상진과 함께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이때 이들의 나이는 각각 38세(박상진), 39세(김한종)였다. 그들의 짧음은 물론 인생 모두를 오로지 충의정신으로 조국 광복에 바친 것이었다. 충의정신이 얼마나 매서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일이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 지난한 일이었는지 새삼 역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 김한종 의사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돌이켜 보면 김한종은 한말에는 위정척사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의병운동에 투신하여 국권회복운동을 펼쳤고, 1910년 이후의 일제의 무단통치기에는 공화정치의 이념을 표방하는 대한광복회에 참여하여 그 근대적 민족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특히 그가 충청도지부장으로서 지휘부의 일원으로 활약했던 대한광복회는 현병경찰제에 의한 일제의 무단정치가 자행되는 암울했던 시기에 독립을 위한 폭력혁명적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나라 잃은 국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다. 또 일제의 조선토

지조사사업으로 인해 대다수 민중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부귀와 안일만을 추구하던 친일 부호배들에게 민족성을 깨우치고 불옹자에게는 철퇴를 가함으로써 민족정기가 살아있음을 확인해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대한 광복회의 이러한 대일 투쟁 방략은 이후 한편으로는 김좌진장군의 청산리 전투 승리와 같은 전승 소식을 낳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열단·한인애국단 등의 대일 투쟁 방략으로 발전되어 큰 성과들을 거두게 되었으니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김한종의 독립운동에 바친 공을 기리어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현재 예산에는 광시면 신흥리에 그의 묘가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생가지는 1996년에 ‘김한종의사 생가지’라는 이름으로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353호로 지정되었고, 가까이에는 그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다. 또 생가지 근처에는 김한종의사 기념관이 건립(2007년)되어 있고, 2008년부터는 매년 김한종문화제가 개최되고 있다.



김한종의사 사형집행기사

## 대한 독립에 몸 바친 청년 독립운동가 윤봉길

윤봉길은 일제 강점기에 구국에 몸 바친 조선의 청년 독립운동가이다. 비록 25년의 짧은 생애였지만, 국내에서의 그의 애국적 농촌계몽운동은 깊지고 귀한 것이었고, 국외에서의 그의 홍구공원 거사는 일제의 침략과 불의를 폭탄으로 응징하여, 일제에 대한 한민족의 원한과 독립의지를 유감없이 나타내고, 자유와 정의가 살아 있음과 조선독립의 염원을 행동으로 천명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장대한 쾌거였다. 그 주인공 청년 독립운동가가 바로 자랑스런 예산의 아들 윤봉길 의사이다.

### 소년 윤봉길의 항일의식과 정신 무장

윤봉길(1908-1932)은 조선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던 1908년(순종 2) 6월,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랑리에서 아버지 윤흥과 어머니 경주김씨[김원상(金元祥)]의 사이에서 5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평범한 농부였고 어머니는 친정에서 『소학』 등의 한학을 배웠다고 한다. 윤봉길의 자는 용기(鏞起)이고, 본명은 우의(禹儀), 별명은 봉길(奉吉)이며, 호는 매헌(梅軒)이다. 본관은 파평윤씨로 고려 시대 도원수를 지낸 윤관의 28대손이다. 윤관은 고려 예종 때 여진의 기병에 대항할 별무반을 창설하여 여진을 정벌하고 그 자리에 동북 9성(城)을 축조하는 등 국토 수호에 공을 세운 인물이다.

윤봉길은 어려서 큰아버지의 서당에 가서 천자문을 공부하였는데, 일찍부터 재동(才童)으로 소문이 났었다. 11세가 되던 1918년에는 집에서 2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덕산공립보통학교(현재의 예산 덕산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배워야 했고, 또 일본인 교사의 부당한 지도도 받아야 했으니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그로서는 불만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는 3·1독립운동이 일어나서 덕산읍내에서도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윤봉길은 그

만세운동을 보고 더욱 자극을 받아 일제의 노예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학교를 자퇴하였다. 12세 소년의 남다른 투철한 항일의식과 실천은 그 또래의 보통 아이들에게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아마도 이때부터 그의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항쟁운동의 싹이 웃텄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후 윤봉길은 최병대의 문하에서 동생 윤성의와 함께 한학을 공부하였고, 14세가 되던 1921년부터는 인근 마을의 유학자 성주록(成周錄)의 오치서숙(烏峙書塾)에 들어가서 사서삼경 등 중국 고전을 익혔다. 또 15세에는 친정에 갔던 어머니의 동네사람의 중매로 인근 마을의 성주 배씨(배용순)와 혼인하였다. 이듬해 그는 오치서숙의 시회에서 장원을 하였다. 그러나 윤봉길은 한학을 공부하면서도 또한 여러 가지 신문 잡지와 현대적인 신학문도 익혔다, 그는 돈이 생기면 곧 예산읍내로 나가 책을 사다 보았으며, 『일어속성독본』을 사다가 일본어를 자습하기도 하였다. 주위에서 의아해하고 반대하기도 했지만, 그는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하고, 적을 아는 방법은 곧 그 나라의 말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 어느 정도 회화가 가능할 수준이 되었다, 그것은 후일 그의 중국에서의 활동에 요긴하게 활용된다.

이때 윤봉길은 또한 성경도 읽었고, 특히 『개벽(開闢)』은 한 권도 빼지 않고 모두 읽었다. 『개벽』은 1920년 천도교청년회에서 조선인의 계몽을 위하여 창간한 잡지로, 세계사상을 소개하면서 천도교사상과 함께 민족사상을 양양하고, 민족자결주의를 고취하며, 사회개조와 정신적 물질적 개벽을 추구하였다. 이무렵 예산의 독립운동가이자 천도교 간부인 마기상(동학농민군 지도자 마준상의 장남)이 윤봉길에게 농촌계몽지를 제공하여 애국독립사상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했는데, 그 중에는 마땅히 『개벽』이 우선 순위를 차지했을 것이다. 이 책의 혁신적 사고는 윤봉길의 『농민독본』 저술과 이후의 그의 독립사상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925년 그가 18세가 되었을 때, 스승 성주록은 윤봉길에게 더 가르칠 것이 없다면서, 자신의 호 매당(梅堂)의 매(梅)자와 성삼문의 호 매죽현(梅竹軒)의 현(軒)자를 따서 ‘매현(梅軒)’이라는 호를 만들어 졸업 선물로 주었다. 그것은 성주록 자신도 닮고자 했던 매화(梅花)의 고고한 기품과 성삼문의 충의정신을 멘토로 삼으라는 당부가 담긴 것이었다. 한편 이 무렵 그는 한시 300여 편을 써서 「명추」「옥타」「임추」 등의 제목을 붙여 작품집을 책으로 엮어냈다. 청년 윤봉길의 문학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그 중에는 그의 애국·독립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도 보인다. 이 책자들은 현재 매현 기념관에 보존되어 있다.

### 청년 윤봉길의 농촌계몽운동

#### – 애학에서의 문맹퇴치운동

윤봉길은 19세가 되던 1926년 가을부터 문맹퇴치를 위하여 자기 집 사랑채에 애학당을 열고 농촌계몽운동을 준비하였다. 이보다 먼저 그는 문맹의 아픔을 뼈저리게 체험한 하나의 사건과 만나게 된다. 어느 날 동네 어떤 어른이 공동묘지에 있는 묘표를 한 아름 들고 와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묘표를 찾아달라고 하였다. 묘표에 적힌 글을 그의 아버지의 묘표는 바로 찾아 주었지만, 무덤에 표시를 해 둔 게 없어서 정작 그의 아버지의 묘를 찾을 수는 없게 되었다. 또한 그가 뽑아온 묘표 탓으로 다른 사람들의 무덤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다. 이 사건은 윤봉길이 우리에게 문맹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또 그를 스스로 문맹퇴치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게 한 기막힌 사건이었다.

그리하여 윤봉길은 이듬해 마을 청년들과 함께 애학당에서 문맹퇴치와 신문화 보급을 위한 애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경야독의 학생을 모집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는 먼저 동지들과 온 마을을 돌며 주민들에게 애학에 나올 것을

설득하고 또 권유하였다. 그리고 모여진 학생들을 갑, 을 2개 반으로 나누어 갑반은 한글을 가르치고, 을반은 역사, 산술, 과학, 그리고 농사 지식을 가르쳤다. 그해 그는 학생들을 가르칠 교재인 『농민독본』(전3권)을 편찬하였는데, 현재 1권은 유실되고 2권과 3권 일부만 전해진다. 2권은 계몽편으로 일반상식인데 현재 8과까지만 보존되어 있다. 3권은 '농민의 앞길'이라는 제목으로 농촌개혁의 방향과 농민의 장면과제가 제시되어 있으며, 7과까지만 보존되어 있다. 2권을 기초 학습 자료라 한다면 3권은 일종이 사상독본이라 할 수 있다. 농민의 지식과 생각을 각성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었다.

한편 윤봉길은 이 무렵 홍성의 유교부식회(儒教扶植會)에 가입하였다. 스승 성주록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유교부식회는 1927년 5월 홍주의병장 김복한의 제자들이 홍성에서 설립한 유교진흥 단체로 유교의 진흥을 통해 대동(大同)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여기서는 수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유교의 진흥을 강조하면서 또한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내용이 많았다. 그리하여 일본 경찰에 의해 집회가 금지되곤 하였지만, 윤봉길은 이를 통해서 민족정신과 독립운동사상을 조금씩 더 신장시켜 나갔다.

21세가 되던 1928년 2월 5일에는 농촌부흥을 목표로 한 부흥원을 설립한다. 야학당의 참여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간이 부족하였으므로, 마을 윤주봉 소유의 뒷 동산 1정보의 귀퉁이 땅을 희사받아 건물을 짓고 부흥원이라 하였다. 부흥원의 실천 목표는 중산운동 마을 공동구매조합 만들기 토신품애용(일본 물건 배척 운동)부업 장려 생활 개선 등이었다. 온 마을이 이에 호응하였고 일치단결했다.

그의 야학에서는 또한 학예회도 실시했다. 그런데 1929년 3월 28일 야학에서 개최한 학예회가 문제가 생겼다. 이날 학예회는 '토끼와 여우'라는 우화를 각색 한 것으로, 연약한 토끼와 거북이가 자신들의 먹이를 여우에게 빼앗기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일제는 그것을 문제로 삼았다. 윤봉길은 다음 날 이 일로 덕산주재소에 불려갔다. 윤봉길은 순사의 경고와 훈계를 받았고, 이 일을 경험하면서

그는 농촌계몽운동도 민족의 독립이 있은 후에 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 경제자립운동 – 농민회와 월진회 조직

윤봉길은 야학을 운영하면서 한편으로 농민의 경제 자립을 위하여 농민회를 조직하는 등 농촌부흥운동을 펼쳤다. 1927년 3월에 조직한 목계농민회에서는 중 산운동을 추진하였다. 농업 방법을 개선하고 특용 작물을 재배하여 생산량을 늘리 고자 하였다. 고구마의 재배법을 개선하고 양잠 및 축산을 권장하여 농가의 소득 을 증대시켰다. 그는 가난한 농민의 소득 증가의 방법으로 수내제도를 도입하였다. 그것은 돈이 없어 돼지를 살 수 없는 농민에게 돼지를 사주고 기르게 하여 새끼를 낳으면 그 절반은 기른 농민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또 다시 다른 농민에게 한 마리씩 주는 방식으로서,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매우 반갑고 유익한 제도였다. 윤봉길은 서울에 있는 친지들을 통해 축산에 관한 전문 서적들을 구입해 탐독하는 등, 그야말로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서 예산의 농민회를 이끌어 갔다.

22세가 되던 1929년 윤봉길은 정초(2월 10일)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였다. 이 일기는 다음 해 1월 19일까지 계속된다. 이 일기에 의하면 그는 4월 23일에 월진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추대되었다. 월진회란 명칭은 은 '날로 앞으로 나아 가고 달로 전진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다. 월진회의 원은 남녀 40여명에 이르렀다. 달마다 회비 10전씩을 걷었는데, 단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돈으로 제한했다. 윤봉길은 월진회 취지서, 월진회 금언, 월진회가 등을 직접 지어 주민 들에게 보급했다. 또 그는 월진회의 깃발을 제작하였는데, 흰색 바탕에 3줄의 청색, 그리고 가운데에 무궁화 꽃을 넣어 흰색은 백의민족을, 세 줄의 청색은 삼천리금수강산, 무궁화는 무궁하게 발전한다는 뜻을 담았다. 이때 월진회가 벌인 사업으로는 농가부업 장려, 산림녹화와 유실수 재배 학예회나 토론회 등을 통한 교양 증진 및 정서 함양 사업 등이었다. 월진회는 자활적인 농촌진흥 을 목적으로 야학을 운영하면서 독서회를 조직하고 월례강연회도 개최하는 등

보급의 방법도 늘여갔다.

### 야학에서의 시국강연

1929년 광주학생운동 직후, 윤봉길은 야학에서 학생들에게 항일정신을 불어 넣어 주고 투쟁에 나설 것을 권하였다. 그는 강연에서 “여러분, 만약 당신들에게 아직도 흐르는 피가 뛰고 있고, 아직도 순환하는 기운이 흐르고 있다면, 일본제국주의의 참혹한 압제 하에 있는 2천만 동포의 통곡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오”라면서 일제의 칼날 아래 민족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학생들의 원한 맷힌 참상을 볼 것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그의 민족교육을 알게 된 일제는 결국 야학을 강제로 폐쇄하고 윤봉길을 구속하고 말았다. 그는 체포되어 3주 동안 옥고를 치렀다.

그는 야학의 학생들에게 “뜨거운 피로 적과 싸우고 횡포한 왜적을 모두 죽이고 승리의 깃발을 손에 들고 우리나라 만세를 크게 외칩니다”라는 이별사를 하고 고향을 떠나 혁명운동을 위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향했다.

### 독립운동을 위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23세가 되던 1930년의 봄, 윤봉길은 드디어 출가를 단행한다. 불가에서는 자신의 구도를 위하여 출가하지만, 그로서는 빼앗긴 국가의 독립을 위하여 감시와 제약이 심한 국내를 떠나 해외에서 그 뜻을 펴기로 작심한 것이다. 다시 상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서 있었고, 그가 평소 존경하고 닮고자 했던 백범 김구 주석이 그 운동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해 3월 6일, 윤봉길은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이란 일곱 글자를 써서 유서처럼 남겨놓고, 홀연히 상하이를 향해 집을 나왔다. 천안 독립기념관 울안에 세워진 <윤봉길 의사의 어록비>에는 그때 그가 쓴 일곱 글자와 함께 그 뜻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여 돌비에 새겨 두고 있다.



윤봉길의사 어록비

丈夫出家生不還

梅軒 尹奉吉

사나이 뜻을 세워 집을 나가면

공을 이루지 않고서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으리

일천구백삼십년 삼월 윤봉길

이것은 그가 농촌계몽가에서 혁명가로의 변신을 시사하는 글이다. 그는 이미 스승인 성주록의 뜻에 따라 유교부식회에 입회하여 민족의식을 깨우치고 있었다. 유교부식회는 기본적으로 홍주의병의 정신을 계승한 단체였고, 또 유교부식회의 활동이나 그 강연회 등을 통하여 상하이 임시정부의 존재와 그 활동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1930년 초에 그가 출가의 결심을 굳힌 것은 1929년 12월 전국에 울려 퍼진 광주학생운동의 소식에 충격을 받고 내린 결심이 아니었나 한다. 즉 그는

12월 5일 일기에서 “광주고보 민족총돌 사건의 소식을 듣고 끓는 피를 감출 수 없다”라고 적고 있고, 또 12월 10일(양력)에는, “경성 보성고보 학생들이 만세를 부르다. 이들은 만세 3창을 했는데, 1은 “일본제국주의 타도 만세”, 2는 “약소 민족해방 만세”, 3은 “노예적 교육철폐 만세”였다라고 적고 있다. 또 12월 16일(양력)에는, 함흥수리조합 일본인들이 선인 3명을 타살하였다. 아아! 가엾어라 분통할 일이로구나! 이 압박, 어느 날 갚을 것이나!(『기사년일기』, 1929년 12월 16일 『매현윤봉길전집』)라고 하여 일제의 탄압과 그 잔인성에 대한 민족적 원한을 갚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데서 이를 짐작해 낼 수가 있다.

집을 떠나 윤봉길은 서울역으로 갔고, 거기서 신의주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중간에 기차에서 월진회 동지(황종진)에게 쓴 편지가 발각이 나서 선천 경찰서에 끌려가 여러 날 고초를 당하기도 했다. 그 글 중에 “민주벌판에 자유롭게 뛰어놀려 한다”란 표현이 단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해 3월말 선천경찰서에서 나온 윤봉길은 압록강을 건너 청타오[청도]로 갔다. 어비가 떨어져 유랑생활을 하다가 송죽당(松竹堂)이라는 한국인 음식점의 소개로 한 일본인이 경영하는 세탁소의 점원으로 취업하였다. 그가 일찍이 고향 예산에서 일본어를 익힌 덕으로 쉽게 취직할 수가 있었다. 이때 그는 월급을 모아 고향에서 가지고 온 월진회 자금도 보냈다. 세탁소 직원 생활을 1년 쯤 하였을 때 이제 상하이로 갈 여비가 마련되었다. 생활이 안정되어가는 듯 했고, 또 주인이 급여를 올려준다는 제의도 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홀연히 칭따오를 떠나 상하이행 배를 타게 된다.

### **상하이에서의 노동운동**

24세가 되던 1931년 5월 8일, 윤봉길은 드디어 상하이에 도착하였다. 대한 독립운동의 요람으로 알려진 상하이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고,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쟁쟁한 민족지도자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윤봉길은 우선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삼 행상을 해보았으나 쉽지 않아서 곧 프랑스 조계에 있는 종품공사의 직공으로 취직하였다. 말털로 모자를 만드는 공장이었다. 이 공장은 한국인 박진과 중국인의 합자로 출발한 회시였는데 서로 간의 이익 배분 문제로 자주 충돌이 일어나서, 모자 제작에 필요한 원료의 공급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직공들이 자주 일을 쉬게 되어 급료가 들쭉날쭉해지는 등 생활이 불안정했다.

윤봉길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친목회를 조직하였다. 그는 이미 고향 예산에서 월진회 활동을 통해 농민의 의식 개발을 이끌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농민이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만이 농촌이 부흥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그의 신념은 상하이에서의 노동 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친목회가 만들어 져서 서로 배려하고 상부상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 지자 생산량도 상당히 증대하였다.

그런데 공장주는 오히려 직공들의 임금을 낮추기 위해 모자 한 개당 제조비용을 낮추면서 부당 이익을 취하였다. 그러나 직공들은 자신들이 자본가와 공장장의 착취를 당하는지를 몰랐다. 또한 어떻게 단결해야 자신들을 착취하는 이들과 싸워야 하는지를 몰랐다. 이에 윤봉길은 친목회 간부들과 공장주를 찾아가 모자 제조하는 데 드는 원료 가격과 판매가격 등을 수치로 보여주면서 직공들의 임금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 일로 공장주는 윤봉길을 해고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윤봉길의 노동운동가로서의 면모를 확인하게 된다.

### 상하이 홍커우공원 의거, 백범 김구를 만나 독립운동의 길을 찾다

이후 윤봉길은 1932년 초부터 프랑스 조계 마랑로 보경리에 기숙하면서 홍구 시장에서 가게 하나를 빌려 밀가루와 채소 장사를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윤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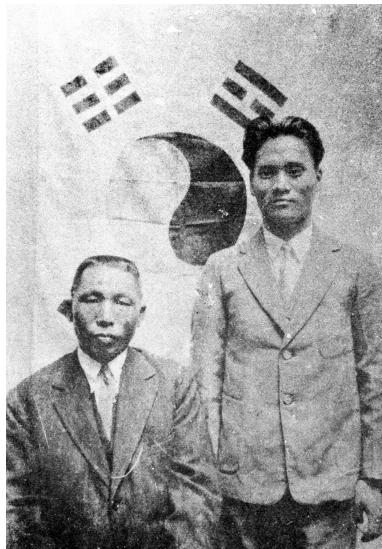
길은 신문을 통해 이봉창의사가 일본 황제에게 폭탄을 투척했다가 실패한 사실을 접하게 된다. 그는 곧 바로 임시정부의 백범 김구를 찾아갔다. 이 전에 그는 시장에서 김구를 만났을 때, 자신이 독립운동의 본부가 상하이에 있다고 하여 상해에 왔다고 말한 바가 있었다. 이날 김구를 만난 윤봉길은 이봉창의사처럼 자신에게도 죽을 자리를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동안 윤봉길을 지켜 보아왔던 김구는 윤봉길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이날 자신을 찾아와서 고백한 그의 애국적 충정을 보고 그에 대한 확신이 더 분명해졌다.

그런데 그때 마침 김구는 4월 29일 있을 예정인 일본군의 천장절 경축식을 특공작전을 감행할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날의 경축식에는 상하이 주둔 일본군 사령관 이하 군대와 정치계 수뇌부들이 모두 참석할 것이고, 만일 이 특공 작전이 성공한다면 중국군 30만 명이 막대한 희생을 하고서도 이기지 못한 일본군을 단 한 번의 거사로 패배시키는 전과를 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김구는 윤봉길에게 이번 거사를 맡기기로 결정하고, 준비금으로 중국 돈 200원을 주었다. 이 돈은 미주 동포들이 임시정부에 성금으로 보내준 지원금이었다. 이로부터 드디어 윤봉길의 흥거우거사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

### 대한애국단에 입단하여 선서문을 작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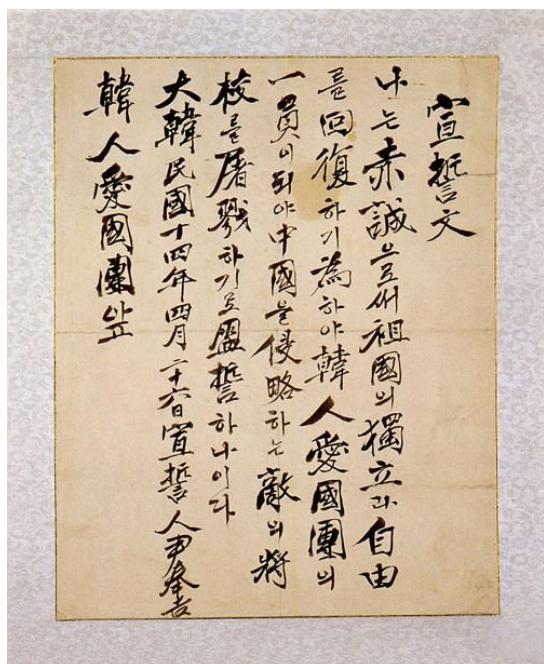
윤봉길은 1932년 4월 26일 한인애국단에 가입하였다. 한인애국단은



백범 김구와 함께

1931년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항일 독립운동 단체로, 일본의 주요 인물을 암살 하려는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이미 그해 1월 8일 이 단체의 단원인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진 이봉창의 거가 있었다. 이 거사는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것이 국내외에 미친 영향은 대단했다. 이는 신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윤봉길이 곧 바로 백범 김구를 찾아가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해서 왔으니 자신에게도 이봉창과 같은 일을 맡겨달라고 간청하였던 데서 도 알 수가 있다.

다음은 홍구공원 거사가 있기 3일 전인 4월 26일, 윤봉길이 그 자신이 한인애국단에 가입한 이유와, 계획된 이번 거사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밝히고, 그 사실을 한인애국단 앞으로 제출한 선서문(宣誓文)이다.



윤봉길의사의 선서문

### 윤봉길 의사 선서문(宣誓文)

나는 적성(赤誠 :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충성)으로써  
 조국(祖國)의 독립(獨立)과 자유(自由)를 회복(回復)하기 위(爲)하여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의 일원(一員)이 되야  
 중국(中國)을 침략(侵略)하는 적(敵)의 장교(將校)를 도륙(屠戮)하기로  
 맹세[盟誓] 하나이다.

대한민국(大韓民國) 14년(年) 4월(月) 26일(日)  
 선서인(宣誓人) 윤봉길(尹奉吉)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 앞

윤봉길은 이 선서문에서 그 첫마디에 ‘나의 적성(赤誠)으로써’라고 했다. 적성은 ‘뜨거운 충성심’이다. 곧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충성으로써 이 선서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라 했고, 또 “중국을 침략한 적의 장교들을 도륙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인 듯하면서도 사실은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다. 우리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중국도 일제의 침략을 당해 주권이 흔들리고 영토가 급속도로 잠식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제는 한·중 양국의 공동의 적이었고, 양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부당한 침략자였으며, 따라서 마땅히 나서서 타도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윤봉길이 중국을 침략한 적[日帝]의 장교들을 도륙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이 거사가 당시의 일제에 대한 우리 한민족의 불타오르는 민족적 분노와 독립의지를 대변하는 것이고, 동시에 공동의 적 일제[日帝]에 대한 중국과 우리의 강한 연대투쟁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윤봉길은 이 선언문의 작성일자를 쓰면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있다. 윤봉길이 이 선서문을 쓴 날은 1932년 4월 26일이고 계획된

거사일은 그 달 29일이다. 대한민국 14년의 뜻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의 출범을 기념으로 삼아 쓴 것이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서거하고, 고종의 독살설이 우리 민족의 항일감정을 극도로 자극하여 국장일(3월3일)을 계기로 3·1독립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영향으로 그해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었다. 윤봉길은 이 선서문에 자신이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의 이 결사적인 항일투쟁이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에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고 또 기대했을 것이다.

#### 4월 27일(거사 이틀 전), 고향의 아들들에게 유서를 남기다

윤봉길은 4월 27일, 경축식이 있을 홍구공원을 사전 답사하였다. 그리고 나서 일본인 상점에 가서 일본 보자기 1장을 구입하고 숙소를 옮겼다. 이어서 김구와 함께 안공근(안중근의 동생)의 집으로 가서 양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독사진 1장과 가슴에 선언문을 펴 붙이고 왼손에 폭탄을 오른손에는 권총을 들고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사진, 그리고 김구와 함께 찍은 사진 등 모두 3장의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거사를 이틀 앞둔 이 날, 그는 고향에 두고 온 두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장한 유서를 남겼다.

강보에 싸인 두 명정에게 -모순, 담-

너이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야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에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암해 차져와  
 한잔 술을 부어 노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업슴을  
 슬퍼하지 말어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잇스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동서양 역사를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가 맹가가 잇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푸레옹이 잇고  
 미국에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의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윤봉길은 아직 강보에 싸인 아들들에게 먼저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라고 주문한다.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는 데에는 어른과 아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피가 있고 뼈가 있는 자는 모두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 대일 무장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저 무도한 일제에 대한 청년 윤봉길의 피맺힌 한과 저항감이 용솟음친다. 그는 또한 아들들에게 “태극기를 높이 휘날리고, 자신의 무덤에 찾아와 한잔 술을 부어 놓으라”고 당부한다. 그래도 그는 독립이 되는 날, 태극기 휘날리며 자신의 무덤을 찾아와 술 한잔을 올려 줄 아들들을 기대해 본다. 그리하여 그는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아 세계적인 명인이 되고, 어머니의 훌륭한 아들이 되라고 당부한다. 간절한 염원이었을 것이다.

이분이 넘쳐 두 아들에게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라고 해놓고서도, 투사가 되더라도 제발 살아 남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그리하여 살아남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보게 되는 투사가 되고, 나아가서 세계적 명인이 되고, 그 어머니에게 훌륭한 아들이 될 것을 주문한다. 이것은 이틀 후 조국을 위해 몸 바치기로

되어 있는 25세 청년 가장으로서 남은 가족에 대해 그가 기대할 수 있는 한 가닥 실낱같은 소망이었을 것이다.

### 4월 28일(거사 전 날)의 윤봉길

거사 전 날인 4월 28일, 윤봉길은 김구를 만나 술과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일본인 상점에 가서 시라카와 대장과 우에다 중장의 사진과 일장기도 구입해서 숙소로 돌아 왔다. 저녁에 김구가 다시 찾아와서 뒷날을 위하여 이력서와 유서를 써달라고 했다. 윤봉길은 자신의 악력에 가족 사항을 쓰면서 ‘유족이라고 표현 했다. 이것은 그가 내일 거사에서 죽게 될 것을 스스로에게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어서 두 아들과 조국의 청년들에게 남기는 유서를 썼다?? 마지막으로 백범 선생에게도 유서를 남겼다.

김구는 상하이의 일본 신문에서 일본 영사관이 행사 당일 행사장에 오는 일본인들은 도시락과 물병을 지참하고 입장할 것이 씌여진 광고를 보았다. 따라서 김구는 폭탄 제작을 부탁할 때 이 두 가지 폭탄을 주문해 두었다. 이 폭탄은 중국군 병기창 주임으로 복무하고 있던 김홍일에게 부탁하여 중국인 기술자가 특별히 제조한 고성능 폭탄이었다. 김구는 윤봉길을 김해산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도시락 폭탄과 멜빵이 달린 수통형 폭탄의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 운명의 날(4월 29일)

운명의 날 아침, 윤봉길은 김해산의 집에서 김구와 함께 식사를 했다. 식후에 그는 자신의 시계를 벗어 김구에게 주면서 기념으로 시계를 바꾸자고 하였다. 그리고 윤봉길은 김구로부터 도시락과 수통형의 폭탄을 건네받고, 마지막 이별 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꺼내 김구의 손에 쥐어 주었다. 김구는 자동차를 탄 윤봉길에게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라고 목멘 소리로 전송하고

헤어졌다.

윤봉길은 홍구공원 입구에서 차를 내렸다. 아직 8시 이전의 이른 아침이었다. 그가 이렇게 일찍 공원에 온 것은 이른 시간에는 중국인 수위가 경비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입장권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인처럼 보이게 하여 쉽게 입장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양복과 스프링코트를 입고 있었고, 또 일본 보자기로 싼 도시락과 일본 수통을 메고 있었다. 중국인 경비가 입장권을 제시하라고 하였지만,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나는 일본인이다. 입장권 따위가 왜 필요한가’라고 일축하고 그대로 공원으로 들어갔다. 1차 관문은 통과한 것이다. 그는 식단의 뒤편으로 자리 잡고 기회를 노리기로 하였다.

이날 홍구공원의 행사는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천장절과 일본의 상하이 사변 승리를 축하하는 전승축하식을 겸한 것이었다. 행사장은 화려하게 꾸민 장식들과 일본 군기와 국기, 그리고 축하 현수막이 널렸고, 상하이 거주 일본인 1만 명, 상해 주둔 일본군 1만 2천 명, 그 외에 각국 사절과 각계 초청자를 합하여 3만여 명의 군중이 집결해 있었다.

기념식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부는 열병식이었다. 행사를 위하여 특수부대가 무기를 앞세우고 도열하였고, 행사장 사방에는 무장한 순경들이 삼엄한 경비망을 펼쳤다. 시라카와 대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줄지어 사령대에 올라 일자형으로 도열하고는 차례로 축하 인사도 하였다. 이어서 분열식을 한 후 11시 20분께 1부 행사는 모두 끝났다. 행사장 상공에는 18대의 비행기가 저공으로 곡예비행을 하면서 분위기를 달구었다.

곧이어 제2부 축하식이 거행되었다. 시라카와, 우에다, 노무라 등은 다시 사령대에 올랐다. 식단의 전면에 일본군 장교들이 도열하고, 그 전면 중앙부에는 일본인 재향군인과 의용대와 소학교 학생들을 배열하였다. 식단의 좌우에는 일본 육해군이 무장을 갖추고 정렬하여 있었다. 그리고 식단의 뒤쪽에는 고관

들의 신변 호위를 위하여 기마병 6명이 식장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 뒤 약 5, 6미터쯤 되는 곳에 헌병 및 보조헌병 몇 명이 경계를 섰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일반 군중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후면의 일반 관람석은 식단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윤봉길은 그 앞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단상 위에는 앞쪽의 원편부터 주중총영사무라이 쿠라마츠가 자리 잡고, 그 옆으로 제9사단장 우에다 겐키치 중장, 상하이 파견군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 해군사령관 노무라 요시사부로 중장, 주중공사 시게미쓰 마모루, 거류민단 행정위원장 가와바타 사다쓰구, 그리고 민단서기장 토모노 시게루 등 모두 7명이 도열하고 있었다. 윤봉길이 폭탄 투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일제의 주요 인사들이었다.

### **폭탄 투척으로 시라카와 대장 등 일제 수뇌부를 처단하다**

곧이어 제2부 축하식이 시작되었다. 마침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단상에는 시라카와, 우에다, 노무라 등 주요인사들이 도열하고 있었다. 그들의 연이은 축사가 끝나고 참석자 모두가 일어서서 엄숙하게 기미가요를 합창하였다. 이들이 기미가요 2절의 마지막 소절을 부르며 그 들뜬 시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다.

윤봉길은 식단을 향하여 2칸 정도 앞으로 전진하였다. 그리고서는 도시락형 폭탄을 땅에 내려놓고, 수통형 폭탄을 어깨에서 내려 오른손에 폭탄을 들고 왼손으로 안전핀을 잡아당긴 후, 식단을 향하여 폭탄을 힘껏 투척하였다. 오전 11시 50분경이었다. 그가 투척한 폭탄은 정확하게 단상 위의 가와바타와 시게미쓰 사이에 떨어졌다. 대성공이었다.

커다란 폭음과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날았다. 단상에 있던 상하이파견군사령관 시라카와(白川義則) 대장을 비롯하여 7명은 모두 쓰러졌고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라카와 대장은 얼굴에 부상을, 시게미쓰 공사는 발에 중상을 입었

으며, 무라이 총영사는 얼굴과 왼쪽 발에 부상, 노무라 사령장관은 머리와 빌에 중상을 입었다. 시라카와는 얼굴과 복부에 부상을 입었을 뿐 중상은 아니었으나 이후 혈변, 패혈증세 등으로 악화되어 결국 5월 26일 사망했다. 이 거사로 상하이 일본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과 거류민단장이 사망하고, 해군 중장 노무라는 실명했으며, 나머지 주요 인사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거사가 성공된 후 윤봉길은 군중들에 의해 둘러싸여 잠시 기절할 정도로 뜻매를 맞았다. 옷이 찢겨지고 얼굴도 피투성이가 되었다. 일본 현병대가 군중들 사이에서 윤봉길을 끌어냈다. 얼굴부터 허리까지 선혈이 낭자한 모습이었다. 옷소매 사이로도 연신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비록 중상을 입었지만, 태연하게 냉소를 지으며 현병대로 끌려갔다.

### 세계를 놀라게 한 홍커우 공원 거사 소식



의거 직후 체포되어 가는 윤봉길

윤봉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곧바로 홍구공원 맞은편의 상하이 제1 현병 분대에 유치되어 조사를 받았다. 윤봉길은 현병대에서 10시간이나 심문을 받았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고문으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기까지 하였다.

한편, 임시정부 요인들과 가족들은 서둘러 상하이를 탈출하였다. 이날 이후 임시정부가 충칭(重慶)에 자리 잡을 때까지 8년에 걸쳐 5천 킬로에 달하는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때 김구는 항저우로 피신하였다가 안공근 등과 함께 상하이 프랑스 조계로 잠입하여 미국인 피치 박사의 집에 20일간 머물면서 사건의 뒷수습을 하였다. 그는 5월 9일 상하이 의거의 전모를 밝힌 성명서를 작성하여 피치박사의 부인에게 영문으로 번역하게 하여 'The Truth of the Hongkeu Park (홍구공원의 진상)'이란 제목으로 로이터 통신과 중국신문사에 발송하였다. 김구는 이 글에서 홍구공원 폭탄 의거에 대해 정의와 인도의 이름으로 진상을 발표한다고 천명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이봉창의 일왕폭살 기도와 윤봉길의 홍구공원 의거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추진한 것임을 밝히고, 홍구공원의 거사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당부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이는 의열투쟁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주목된다. 의열투쟁은 타격해야 할 대상과 행위자의 주체를 당당히 밝힌다. 이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와는 구분된다. 윤봉길이 타격한 대상은 단상 위에 있는 일제의 요인들이었다. 의열투쟁은 한민족의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추진한 정정당당한 독립운동이었다.

### 순국(殉國)과 유해의 귀환

1932년 5월 25일, 윤봉길은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그해 11월 18일 일본 우편수송선에 실려 상하이를 출발하여 고베(神戸)항을 거쳐 오사카 육군위수형무소로 이감되었다. 그리고 12월 18일 오사카현병대의 감시를 받으며 오사카 발 기차를 타고 오후에 모리모토(森本)역에 도착하였고, 수갑을 찬 채로 군용차에 실려 제9사단 위수구금소에 수감되었다. 윤봉길은 다음날

12월 19일 아침 6시, 교외에 있는 육군작업장으로 끌려가 7시 40분 경 총살형을 당했다. 25세 청년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적에게 폭탄을 투척하고, 적지에 잡혀 와서 순국한 것이었다.

윤봉길의 유해는 육군 묘지 아래에 일반인이 왕래하는 통로에 암장되었다. 윤봉길의 유해는 그로부터 13년 후 발굴되기 전까지 지나는 사람들에 의해 밟히고 또 밟혔다. 이는 일본군의 의도적인 소행으로 보인다.

윤봉길의 유해 발굴은 해방 된 이듬해인 1946년 3월에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서상한 대표를 비롯한 4명의 '임시정부 유해발굴단'이 가나자와에 도착한 것은 3월 2일이었다. 3월 3일부터 위치를 고증받기 시작하여 육군 묘지 구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나자와에 거주하던 청장년들은 책임을 분담하고 작업 도구를 챙기는 등 발굴을 준비하였다. 본격적인 발굴 작업은 3월 4일부터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하였고, 3월 6일에야 매장할 때 독경을 했다는 여승이 육군묘지 관리소에서 가까운 통로를 가리키면서 그곳에 북침(北枕)으로 매장했다고 알려 주었다.

발굴단은 수습한 유골을 모시고 1946년 3월 8일 가나자와 역을 떠나 5월 5일 이봉창과 백정기 의사의 유해와 함께 부산에 환국하였으며, 7월 6일 임시정부 주최로 사회장을 개최하고 효창공원에 안장되었다.

### **윤봉길의 충절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윤봉길은 선각적 청년이었다.
- 윤봉길은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 윤봉길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 바친 충의의 전사였다.
- 윤봉길은 영원한 충의(忠義)의 멘토이다.

### **민족독립을 위해 투쟁·헌신한, 독립운동가 신현상**

신현상은 청년기에 중국 상해로 가서 아나키즘적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독립 자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귀국하여 미곡상 최석영과 연대하여 호서은행사건으로 5만8000원 자금을 인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북경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무산되었다. 그러나 일부 자금은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결성에 기여했다. 또 광복 후 그는 백범 김구의 비서실장이 되어 활동하며, 해외에 방치되어 있던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의 유해를 수습하여 송환하였고, 또 1949년에는 반민특위 검찰관으로 활동하면서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 데도 기여했다. 실제로 신현상은 조국독립과 광복 후의 자유 대한의 수립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다.

### **민족의식이 강하고 성격이 활발하고 박력을 지닌 청년**

신현상은 1905년 2월 12일(음력 1월 20일) 예산군 예산읍 용곡리에서 유학자 신학균(申學均, 1880-1922)과 청주 곽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일연 신현상

이 무렵 조선은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국가 운명이 위태로웠다. 그가 태어난 해인 1905년 조선은 일제와의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상실당하여 대외적으로는 이미 망한 나라의 처지가 되었고, 1907년의 군대해산을 거쳐 1910년에는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이후 일제의 통감부에 의한 무단정치가 펼쳐지면서 조선인의 고통과 일제에 대한 울분은 날로 점증되고 있었다.

신현상은 어려서부터 성격이 민첩하고 두뇌가 총명하였으며, 어려운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의협심이 강했다고 한다. 그는 일찍부터 부친 신학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그의 부친은 어려서부터 간재 전우(田愚)를 찾아가서 그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신학균이 열네살에 백리를 멀다 않고 나를 찾아왔기에 내가 그를 위하여 주자 말씀을 적어주어 그의 의지를 북돋아 준다 -간재”라고 써주고 사랑했다 한다.

신현상은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수준 있는 한학과 서예 공부를 한 것으로 보인다. 후일 유기석(신현상이 상해에서 만난 친구)의 회고에 의하면 신현상의 아버지는 척사 유림 출신으로 서양학문을 무시하고 일본을 업신여겼으므로 아들의 신식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오직 집에서 한학을 배우게 했다 한다. 그렇다면 신현상의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은 이러한 아버지로부터의 교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후 10대에 신현상은 또한 신학문을 접하는 기회를 만났다고도 한다. 그의 약전(略傳, 약식 연보, 1975)에 그가 사학자이면서 한글학자인 권덕규(1890-1950)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기사가 보이는 때문이다. 권덕규는 휘문·중앙중학교 등에서 국사와 국어교사를 역임하였고, 『한글큰사전』, 『을지문덕』 등의 저서를 남긴 학자였다. 그러나 신현상이 그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한편, 20세를 전후하여 신현상은 당진 출신의 미곡상인 최석영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점차 친숙하게 지내게 되었다. 이때 그가 최석영을 만난 것은 그의 생애

에서 매우 획기적인 만남이었다. 후일 작성된 최석영의 회고담에 의하면, 청년기의 신현상은 평소 한복차림에 고무신을 신고 민족주체의식이 강하였으며, 성격이 과격하고 활발하고 박력을 지닌 청년으로서, 왜놈 치하의 당시 사회로서는 아까운 청년이었다 한다. 그리하여 그는 신현상에게 상해 망명을 적극 권유하였다. 신현상은 이러한 권유를 받고서 느낀 바 있어 드디어 독립운동의 뜻을 품고, 1926년 3월 중국 상해로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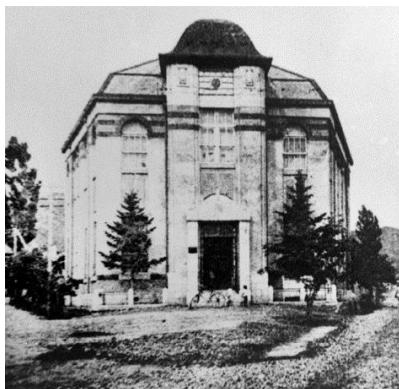
### **상해에서 아카니즘으로 무장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하다**

상해로 들어간 신현상은 대개 거기서 만난 한인 동지들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중국에서의 그의 생활은 그리 녹녹치 않았던 것 같다. 정식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로서는 사실상 살길이 막막했을 것이다. 때로는 아이스크림 장사도 했다. 그러나 그는 다행히 아버지로부터 배운 한학과 서예의 실력을 기반으로 하여 상해에서 글씨를 써서 팔아 자신은 물론 동지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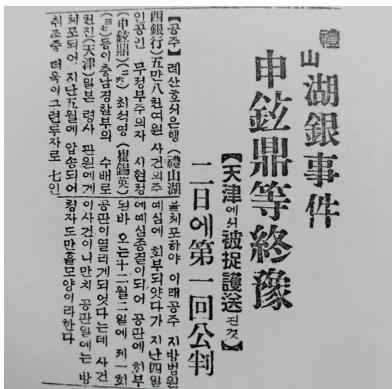
1928년 경 신현상은 당시 상해에서 활동하던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 백정기 · 유기석 · 이을규 · 이정규 · 정회암 등과 교유하며 그들의 사상을 점차 이해하여 갔다. 아나키즘, 즉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는 개인을 지배하는 국가 권력 등 모든 사회적 권력을 부정하고 절대 자유가 행해지는 사회를 추구하는, 압박받고 지배당하는 자들의 자기해방운동이었다.

그의 상해 생활은 이러한 아나키즘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이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조국의 독립운동의 필요성과 독립운동자금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문제는 역시 냉엄한 현실이었다. 신현상은 독립운동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29년 봄 국내로 돌아왔다.

## 세상을 놀라게 한 호서은행 사건으로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하다



호서은행



호서은행 사건 기사

이때 신현상에게 귀국의 동기를 제공한 것은 사실상 상해의 동지 유기석이었다. 유기석은 신현상에게 국내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 독립운동은 고사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당시 해외 독립지사들의 처참한 실정과 갈등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신현상은 국내로 돌아온 후 동지들을 규합하며 자금모집을 추진했다. 그러던 중 상해 망명 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또 그에게 상해 망명을 권유했던 최석영(崔錫榮)을 찾아가 상의하다가 결국은 예산의 호서은행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해 낼 계획을 수립했다.

호서은행은 1913년 충남 예산에서 설립된 민족계 은행으로, 당진·예산 일대에서 미곡상을 대상으로 신용거래를 하고 있었다. 마침 이때 최석영은 합덕·삽교·선장 등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호서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은 호서은행의 신용거래 관행과 그동안 축적해 온 최석영의 거래실적이나 신용도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먼저 인천기선주식회사의

인장과 선하증권을 위조해 어음을 발행했다.

그리하여 1930년 2월 호서은행에서 어음을 할인 받아 호서은행 예산지점과 천안본점에서 15회에 걸쳐 자금을 꺼내 58,000원을 인출하는 데 성공하여 다시 상해로 출발하여 무사히 국경을 넘을 수 있었다.

### **일본영사관 폭파 계획 실패로 체포되어 국내로 강제 송환된다**

신현상은 1929년 처음 국내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북경의 유기석과 연락을 취하며 활동했었다. 따라서 1930년 국내에서 독립운동자금을 획득한 후에도 당시 북경에서 활동하고 있던 유기석을 먼저 찾아갔다. 신현상과 유기석은 탈취한 자금을 독립을 위한 의열투쟁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신현상은 준비된 자금의 일부로 천진에 있는 일본영사관을 공격하기 위해 무기를 구입했고, 또 유기석은 상해에서 남화한인청년연맹(南華韓人青年聯盟)을 조직했다. 신현상과 유기석은 의열투쟁을 준비하면서 무정부주의자대표자회의도 개최했다. 아나키스트들을 소집해 탈취한 자금으로 새로운 투쟁방략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대표자회의는 만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족해방운동기지 건설지원과 중국 관내에서 분과별로 활동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던 중에 천진의 일본영사관과 결탁한 중국 경찰의 습격을 받아 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체포되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은 모두 중국 학생들이고 또 유기석이 북경시에 근무하여 애써준 덕으로 모두 풀려났다. 하지만 신현상과 최석영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어, 공주지방법원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1929년 5월부터 1933년 12월까지 옥고를 치러야 했다. 어렵게 구한 독립운동 자금을 사용하기 일보직전에 밟각이 되어 큰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전달한 자금의 일부는 아나키즘 운동자금으로 활용되어, 유자명·

장도선(張道善)-정해리(鄭海理) 등이 1930년 4월 20일 상해 법계(法界)에서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결성식을 거행하고 선언 및 강령과 규약을 발표했다. 구해온 독립자금의 일부가 무정부주의 독립운동 단체인 남화한인청년연맹(南華韓人青年聯盟)을 결성하는 데 활용되었던 것이다. 남화한인청년연맹은 1930년대 재중국 조선인 아나키즘운동의 대표적 단체가 되었으며 중국 관내에서 전개된 의열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다.

### 아산 지역 개발사업을 하며 이어간 숨은 독립운동(1934-1945)

1933년 12월, 신현상은 공주형무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다. 1929년 5월로부터 약 4년 반만에 자유의 몸이 된 것이었다. 그는 충남 아산군 선장면에서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숨은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1940년에 그는 공주에서 독립의지가 강한 김동명, 김택 동지와 만나서 친숙한 교분으로 우국적 활동을 나누기도 하고, 또 후학으로서 동지가 될 만한 젊은이를 골라 민족사상과 항일정신을 고취시키기도 하였다. 김동명은 3.1운동 참여는 물론, 신간회 중앙위원으로 항일운동에 적극 나섰던 인물이었고, 김택은 저명한 유학자로 특히 도통한 예언가였다.

또 신현상은 그동안 사숙해오던 유림의 대표 김창숙, 김진우 방응모 등을 두루 방문하여 심회를 털어놓고 후일을 기약하기도 했다. 특히 김창숙은 조선 최고의 유림대표로서 제1차유림단 사건(파리장서사건), 제2차유림단사건(군자금 모집), 나석주 사건(동양척식회사폭탄투척사건) 등 독립운동들을 관계하고 주도해 온 실질적 주역이었다.

또한 이 시기의 일로써 신현상이 석방된 후 당시 일본경찰의 고등계에서는 늘 신현상을 감시하는 고인석(高寅石)이라는 사람을 붙였는데, 신현상은 오히려 그를 감화 설득하여 동지로 포섭했다는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독립운동가 선우진, 안미생, 신현상, 안낙생

### 백범 김구의 비서실장으로 시작한 광복 후의 활동(1945- )

1945년 광복이 되자 그해 11월 23일 상해 임시정부의 백범 김구 선생 일행이 귀국하였다. 이후 신현상은 유림의 대표인 김창숙의 천거로 김구(金九)선생의 판공실장(비서실장)으로 취임하여 새로운 위상으로 활기찬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그는 3의사 봉안 위원회를 결성하여 해외에 방치되어 있던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의 유해를 수습하여 효창원에 안장하였다.

그리고 김구 선생의 권유로 철기 이범석(李範錫)의 조선민족청년단에 참여했으며, 1949년에는 반민특위(反民特委) 검찰관으로서 친일파를 색출하여 옥석을 가려 응징하는 일에 힘써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 일에도 적극 나섰다.

마지막으로 1950년 5월 그는 대한청년단 공주군 단장으로 제2대 민의원 총선거에 출마했으나 '남북 협상파는 공산당'이라는 중상모략으로 낙선하였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달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한국전쟁이 나자 공주지방에서 공산당에 체포당하여 그해 8월 13일 46세로 대전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 후 백범 선생의 후손 김신을 위원장으로 하여 일연선생 기념사업회를 설립하고 1975년 6월에 향리인 신례원 용곡산 자락에 추모비와 일연각을 건립하여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한 그의 생전의 뜻을 기리고 있다.

### 한국전쟁이 앗아간 아까운 죽음, 신례원의 추모비 일연각

신현상의 향리에는 그를 추모하는 비(碑)가 일연각(一鷲閣)이라고 명명된 비각 안에 보존되어 있는데 비문의 글은 이은상이 짓고 김충현이 써서 1975년 6월에 예산읍 신례원에 세웠다. 1990년 대한민국 정부는 신현상의 공적을 기려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비록 1950년의 6.25동란으로 공산군에게 피살당하며 그 뜻을 더 이상 이루지 못했지만 한평생 독립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살아온 신현상의 일생은 대한민국에서나 예산에서나 큰 귀감이 될 것이다.



신현상 추모비



일연각

### 신현상과 호서은행 사건에 대한 회고(1975) – 최석영

나의 일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의의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호서은행 사건을 말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왜정 치하에서 민족적인 설움과 탄압을

받아 구국 지사들은 해외로 망명하여 애국운동을 전개하고 국내에서는 애국 지사들이 산간 또는 빈촌으로 숨어들어 곳곳에서 반일 운동이 가시지 않고 있을 때였다.

일연 신현상 동지(20대 약관)를 만나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평소 한복차림에 고무신을 신고 민족주체의식이 강한 점과 성격상 과격하고 활발하고 박력을 지닌 청년으로서 왜놈치하의 당시 사회로서는 아까운 청년으로 인식되어 상해 망명을 권유한 바 있었다.

원래 수완이 비상한 지라 도중에 성공하고 2·3년 후에 귀국하여 나를 다시 찾아왔다. 그때 나는 당진 합덕 삽교 예산 신례원 선장 등 각지에서 정미업을 하고 있었으나 왜놈들이 우리 지역을 육성하여 둘리가 없었다. 즉 공동판매제도가 됨에 따라 (정미업자들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머지않아 손을 들게 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였다. 이때 일연(一鳴, 신현상)이 상해에서 구국운동가들의 자금부족과 활동 부진의 내용을 밝히면서, 민족적 조각을 촉구하고, 자금 조달에 대한 의사를 표하였다. 이에 염출방법을 연구 끝에 절대로 우리 국민에게는 피해를 입히지 않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을 염출하자는 원칙을 세우고, 우선 천안 예산 광천 등 은행을 상대로 자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먼저 지역별로 10만원(당시 쌀 한 가마니 8원) 해당의 환증(換證)을 위조하여 인출키로 하여 천안의 유명한 인장 조각가 석 모씨를 매수, 인장 위조 후에 서울에서 2개월에 걸쳐 원본과 꼭 같은 환증을 석판 인쇄하여 이것을 예산 호서은행에서 인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은행 총 보유액이 7만원 밖에 없어 이 금액 전액을 인출하고 잔액은 천안 호서은행에서 인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1930년 3월 5일 신현상과 정완희와 함께 서울 청량리역을 출발하여, 함흥에서 차고동 동지와 합류하여 북경에 도착, 유기석 동지와 접선해서 자금의 일부를 전달하고 6연발식 권총 2상자를 구입하였다.

그때 나 자신은 따라만 갔었으나 이미 치밀한 계획 하에 국경선에 동지의 배치와 유기석 동지와의 북경 접선 작전 등도 일연(신현상) 동지가 계획한 사실임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다.

그 후 몇 개월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동안 민주 복건 상해 국내 동지들이

모여들어 독립운동자 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천진 일본 영사관 폭파와 우리 민족이 살아 있음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 등 계획을 수립 단계에서 왜경의 끈질긴 추적으로 차고동, 정화암, 오남기, 정내동, 김지강, 이을규, 김종진 신현상 유수인 국순엽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어 나와 일연 동지만은 국내에 압송되고 나머지 동지들은 중국 학생이라는 이유로 석방된 일이 있다.

그리하여 그 후 5년간의 옥고를 치루고, 나는 해방 후 성균관에 재산을 바치고 유림의 사업을 도와 오다가, 이도 여의치 않아 공주 갑사에서 여생을 즐기기로 결심하였다가, 동지들의 권유로 지금 장위동 판잣집에 몸을 담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과거를 생각하면 일연(신현상) 동지의 대단한 성격, 불타오르듯 하던 애국지심의 발로가 잊혀지지 않는다. (『일연일기』, 예산문화원, 2014)

## 천도교의 4대 교주로서

### 3.1운동과 멸왜기도운동을 주도한 박인호

박인호(朴寅浩, 1855-1940)는 덕산 지역의 평민 출신으로 봉건적 신분 차별이 없는 만민평등의 사회 건설을 추구하였고, 동학과 천도교의 지도자가 되어서 평생 그 뜻을 펴기 위해 진력한 개척정신이 출중한 인물이었다. 또한 그는 국권 상실과 식민지배라는 현실적 모순을 타개하기 위하여 또 3.1운동을 비롯한 민족 독립운동과 멸왜기도운동을 전개하였다. 그의 적극적인 교육문화운동은 이 모두를 해결할 바탕을 교육 보급을 통해 육성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는 종교를 통해 만민평등을 추구한 선도적 개척운동가였고, 종교와 종교적 방법을 통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특별한 독립운동가였다.

박인호의 호는 춘암(春庵)이고, 본관은 밀양이다. 1855년 2월 충청도 덕산군 장촌면 막동리(현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에서 박명구(朴命九)와 온양방씨(溫陽方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집안이 가난하여 11살이 되어서야 한학교육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열심히 공부하여 4, 5년이 되지 않아 풍수지리와 한의학 관련 서적을 읽을 정도가 되었다. 그는 신분 귀천의 차별이 없는 만민평등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동학의 이념에 매료되어, 29세 때(1883년) 동학에 입도(入道)하였고, 이어서 그 후신인 천도교(天道教)에 몸을 담아 평생을 동학과 천도교의 신봉자로 살았다. 그리고 당시의 시국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동학이 해야 할 과제와 천도교가 해야 할 과제의 해결에 항상 앞장서서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평생토록 평온할 겨를이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한말의 반봉건투쟁기에는 정부군·일본군과 대항하여 동학농민전쟁을 해야 했고, 1908년 천도교의 4대 교주가 된 후로는 교단 조직의 정비와 함께 계몽적인 교육문화 운동도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1910년 일제에게 국권을 상실당한 후에는 교육문화운동을 더욱 확장했으며, 특히 1919년 3.1운동에서는 손병희를 도와 천도교의 교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다가 투옥되기도 했다. 그리고 1938년에는 84세의 노령임에도 저 '멸왜(滅倭) 기도운동'을 통해 종교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박인호의 삶은 평민의 신분으로 출발하여 동학의 지도자가 되고, 천도교의 교주가 되기까지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여 얻어낸 개척적인 삶의 연속이었고,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이들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선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5장 <예산의 개척정신>에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그런데 특히 여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장>에서 박인호를 중복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그를 포함한 동학의 동학농민전쟁과 3.1 운동으로 대표되는 민족 독립운동, 그리고 그의 만년에 전개된 종교적 민족운동으로서의 '멸왜(滅倭) 기도운동' 등을 같은 맥락, 즉 도기립운동의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동학농민전쟁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항일 무장투쟁의 실제와, 여기에 참가한 동학농민군이 뒤에 항일 의병항쟁의 중심세력이

되었고, 그 맥락은 3.1독립운동으로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천도교 중심의 3.1운동과 그의 ‘멸왜(滅倭) 기도운동’이 분명한 독립운동이 되고, 지속성을 가지고 전개된 돋보이는 독립운동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만 본 장에서는 중복을 피하여 박인호와 그의 동학[천도교]이 보여준 독립운동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성격에 대해서만 먼저 기술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5장<개척의 정신>에서 그의 종교적 개척운동 및 교육문화운동 등과 함께 일관해서 상술하기로 한다.

### 고덕의 한내장 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 조인원

조인원(趙仁元, 1875~1950)은 일제강점기 예산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1919년 3월 3일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한내장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으며, 대한독립단 충청도지단 등에서 활동하였다. 그의 독립운동은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아 묘소가 현재 대전현충원에 자리하고 있다.

조인원의 자는 백효(伯孝), 호는 야운(冶雲), 본관은 한양(漢陽)이다. 효종대에 사헌부 장령을 지냈고, 또 효교리에 효자정려가 남아 있는 야곡 조극선이 그의 9대조이다. 아버지는 사헌부 감찰을 지낸 조종호인데, 1907년 국채보상운동 당시 덕산지소장을 지내며 구국운동에 앞장 선 인물이다.

조인원은 1875년(고종 12) 덕산현 내야면 시묘동에서 아버지 조종호와 어머니 평산신씨(해공 신익희 선생 집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의 문하에서 가전의 충효정신을 배우며 성장하였다. 1895년에 조정대신 어윤중이 일본에서 국채 3백만 원을 들여오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왔는데, 다음 해에 조정에서 재정을 정비하고 백성의 성금을 모아 일본에서 빌려온 부채를 해결하고자 하자, 이에 조인원은 백미 5백여 석을 모금 각출하여 도왔고, 그 보상운동은 1년 만에 해결될 수 있었다.

순종 조에는 중추원 의관으로 중앙정부에 출사하였다. 중추원은 1894년에

설립되어 일제강점기까지 존속하였는데, 한일합병 전에는 초기 의회와 같은 역할을 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총독의 자문역할을 하였는데, 물론 조인원의 활동은 전자에 해당한다. 이 무렵 조인원은 독립운동을 위한 애국지사들과의 효과적인 접선을 위하여 외가 성인 신씨를 따서 이름을 신흐균으로 바꾸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1910년 일제의 무력에 의한 한일합병으로 나라가 망하자 그는 귀향하여 외가인 신익희선생댁과 연락을 취하면서 국권회복에 진력하였다.

그러던 중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3·1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때의 삼일 운동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는데, 그 불길은 그가 사는 덕산에도 곧 퍼져왔다. 조인원은 3월 3일 고덕면 대천리 한내장 만세운동의 시위를 주도하였다. 지역에서의 3월 3일 만세운동은 상당히 빠른 편이었다. 한내장 만세 운동을 계기로 그의 독립운동은 더욱 박차를 가해갔다.

그해 5월 조인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과견원인 이영식과 함께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충청도지단을 조직했다. 조인원은 이 조직의 서무부장을 맡아 지단장 서병익, 부단장 김석주 등과 함께 독립운동 관련 문건을 배포하는 데 주력했다.

1920년 12월, 상해의 임시정부는 국내의 국민들에 대해 일본 정부에 대한 세금 불납 운동을 제시했다. 그 조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열국이 승인해도 정치적 명령이 국내에서 떨치지 못하는 것은 일제 때문이니, 조선인은 세금을 납부하지 말라. 만약 이에 따르지 않으면 독립군이 국내로 들어올 때 후회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조인원은 이러한 대한민국임시정부 명의의 선전물을 예산군 삽교면 역촌리 등에 부착한 일로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1921년 9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런데 그가 아직 옥고를 치르던 중 옥중에서 아버지(조종호)의 서거 소식을 접하였다. 그러나 투옥된 몸이라 아버지의 상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 효자리의 효자 가문의 후예로서 그의 마음의 고통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었다.

출감 후 조인원에 대한 일제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따라서 그는 독립운동의 방향을 바꾸어 국민계몽운동에 진력하기로 하고, 고향 봉산에 초등학교를 세우는 일에 진력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1932년 4월 상해에서 윤봉길 의사의 흥구공원 거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에 이어 윤의사가 일본 김택 형무소에서 사형(1932년 12월 19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윤의사의 매장지를 탐문하였으며, 귀국 후에는 예산군과 협의하여 봉산초등학교의 개교에 진력하였다. 봉산초등학교는 1936년 개교하여 지역의 문맹 퇴치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꿈에도 그리던 광복이 왔다. 조인원은 광복 후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봉환할 때도 동참하였으며, 말년에는 고향에서 살다가 1950년 12월 21일 76세로 별세하였다.

그의 초장지는 그가 살던 덕산 시동리 서당골에 정해졌으나, 그가 별세한 지 27년 후, 정부는 그의 독립운동을 확인하고 그 공로를 기리어 1977년 12월 13일 그의 영전에 건국 포장을 추서하였고, 1987년 3월 그의 묘소 앞에 예산군수 박천수의 명의로 독립운동공로비를 세웠다.

2009년 4월 보훈처에서 그의 묘를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할 것을 권유하여 현재는 대전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모시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인원의 공적을 기려 1977년 건국포장, 199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또 지역에서는 예산군 봉산면 시동리에 지방유지들이 공동명의로 조인원의 공적비를 만들어 세워 그 공적을 길이 기리고자 하였다.

### **한국의 잔다르크, 여전사 수당 정정화**

정정화(鄭靖和, 1900-1991)의 어릴 적 이름은 묘희(妙喜)이고, 정화(靖和)는 후에 지은 이름이며, 호는 수당(修堂)이다. 본관은 연일이다. 조선 중기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세거하던 경화사족(京華土族) 집안의 후예였고, 아버지는 수원 유수를 지낸 정주영이다.

정정화는 1900년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에서 정주영과 어머니 이인화의 사이에서 2남 4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다. 11살 때 대한협회 회장을 지낸 김가진(金嘉鎮)의 아들 김의한(11세)과 결혼하였다. 그들은 1919년 여름 첫딸을 얻었지만, 곧 가슴에 묻어야 했다. 남편 의한도 부친김가진을 따라 상해로 갔다. 서울에서 2-3개월을 고민하던 정정화는 결단을 내렸다. 그 역시 남편을 따라 망명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정정화는 21살 때 중국 상해로 털출한다. 이미 상해에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망명하여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후일 자신의 자서전인 ‘장강일기’에서 이때 상해로 가게 된 이유를 ‘시아버지의 뒷바라지’로 밝힌 바 있다. 정정화의 독립운동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녀에게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표하고 있던 시아버지지는 가족이자 나라였다. 이후 그녀가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도맡은 맏며느리로, 그리고 독립자금을 받아다가 조달하는 여성 전사로 그녀의 역할과 활동은 시아버지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뒷바라지하는 일에 다름이 아니었다. 이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묘희에서 정화(靖和)로 바꾸고, 수당(修堂)이란 호를 사용했다. ‘정화’는 “세상이 잘 다스려져서 인심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수당(修堂)’은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몸과 마음을 닦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독립운동에 임하는 자신의 각오를 새롭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정정화는 임정 밀사의 자격으로 수차례 국내에 잠입하여 예산의 대술면 친정집에 기거하면서 은밀하게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해 상해로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초기에 그녀는 압록강 철교를 건너려다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조사를 받고 풀려나긴 했지만, 상해에서 시아버지의 부음 소식이 전해졌다. 결국 몰락해 어느 부잣집 곁방살이를 하던 시댁에서 조문객을 맞아

호상(護喪)하여 얼마간의 군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김가진의 목숨값이었다. 그녀는 1920년부터 1930년까지 10여 년 동안 전후 여섯 차례에 걸쳐 국경을 넘나들며 어려운 임무를 완수하였다.

그러나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의거가 있고 난 다음에는 일경의 추적이 극심해졌고 도산 안창호(安昌浩)도 체포되었다. 프랑스 조계당국에서도 더 이상 조계 안의 한인(韓人)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했다.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은 상해를 서둘러 탈출해야 했다. 8년에 걸친 임시정부의 5천 km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정정화는 임시정부와 운명을 같이 하면서 해방되기까지 13년간 중국대륙을 떠돌면서 도피와 투쟁의 길을 걸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녀는 한국부인회를 재건하여 훈련부 주임으로서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결성에 참여했다.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해방이 찾아왔다.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광복이 아닌가? 중경에서 조국의 해방을 맞은 임정 요인들과 정정화는 곧바로 귀국을 하고자 하였으나, 미군정의 냉대로 임정 요원의 자격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전쟁 난민의 신분으로 조국에 들어왔다. 이 또한 넘고 가야 할 조국의 참담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더 심했던 것은 다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남편이 납북되고 가족이 흘어지는 불행을 겪어야 했던 일이었다. 또한 그 자신도 공산당에 부역했다는 누명을 쓰고 구속, 투옥되기까지 했다.

이후 정정화는 은둔의 생활을 하였고, 세상에 잊혀진 존재로 살았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이 겪은 세월의 모든 것을 <녹두꽃>(후에 장강일기로 개명)이란 자서전에 써서 남기고 1991년 별세하였다.

세상에서는 흔히 백범 김구 선생을 ‘임정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여성의 몸으로 거의 평생을 임정의 고난기를 함께 하면서 임정의 안살림을 꾸려 간 정정화는 ‘곧 임정의 어머니’, 또는 임정의 맏며느리였다. 또한 정정화는 독립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 진입을 무려 여섯 차례나 시행한 독립투사였고 장한

여전사(女戰士)였다. 중국에서의 독립투쟁은 하루하루가 목숨을 건 위태로운 삶의 연속이었다. 더구나 독립자금의 조달을 위한 국내 잠입과 임정 복귀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지 않고는 수행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백범 김구로부터 ‘한국의 잔다르크’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다.

현재 정정화의 묘소는 국립대전현충원(국립묘지)에 자리하고 있다. 독립 운동기 한국 여인의 표상이라고 불리는 수당 정정화의 삶은 ‘치마’라는 연극으로도 만들어져 매년 극단 ‘독립’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 2. 불사이군의 충절과 사화기 선비들의 절의정신

### 1)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

- 박인우, 도옹, 신숙서

우리 역사에서 여말선초(麗末鮮初)는 475년을 이어온 고려왕조의 긴 역사가 문을 닫고, 새 나라 조선이 건국되는 초입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변화와 개혁으로 점철된 전환기적 격동기였다. 이에 따라 그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는 사대부층에서도 극심한 동요와 혼란이 불가피했는데, 이때 유행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불사이군(不事二君)’이었다. 곧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시기의 불사이군은 고려 조정에서 벼슬하던 고려의 신하들이 새로운 왕조 조선 조정에의 출사를 거부하면서 내건 의리정신의 상징적 표제였다.

역사적으로 ‘불사이군(不事二君)’이란 말의 연원은 사마천의 『사기(史記)』 열전 중의 ‘왕족(王蠋)’의 고사에서 찾아진다. 왕족은 전국시대 제(齊)나라의 화읍(畫邑) 사람이다. 연(燕)나라 장수 악의(樂毅)가 제나리를 공격해 들어갔을 때 왕족의 명성을 듣고 화읍을 30리 밖에서 포위하고 사람을 보내 그를 연나라 장수로 삼고 만호(萬戶)의 식읍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왕족이 사양하였다. 이에 악의가 삼군(三軍)을 거느리고서 화읍을 도륙하겠다고 협박하자, 왕족이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라 하고 목을 매어 자결하였다. 왕족의 이 말은 고려 충렬왕 때의 문신 추적(秋適)이 지은 『명심보감(明心寶鑑)』은 물론 『삼강행실도』나 『소학집주(小學集註)』에도 수록되어져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널리 전해지고 익히 알려져 왔다.

예산인 박인우와 도옹, 그리고 신숙서는 여말선초의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신이었다. 이들의 선비적 삶과 충행(忠行)과 의리행(義理行)을 통해 그들의 충의정신을 정리해 보자.

## 왜구와 싸워 지킨 나라, 불사이군의 충신 박인우

박인우(朴麟祐, 1338-1410)는 고려 말 왜구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몸소 전장에 나가서 구국에 몸 바쳐 싸웠고,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없애고 새 나라 조선을 개국하자 고려의 신하로서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개로 관직을 버리고 예산에 은거한 충신이다.

박인우의 호는 초암(草庵) · 지정(芝亭)이며 본관은 밀양이다. 아버지는 판사를 역임한 박천옹이며, 어머니는 죽산안씨이다. 예산읍 간양리 밀양박씨의 입향조이다. 박인우는 가정 이곡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당대의 청류인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와 교류하였다. 그는 고려 말에 문과 무과에 모두 합격한 문무겸전(文武兼全)의 엘리트 선비였다.

14세기 후반 내포 지역에 왜구 침략이 극심하자 박인우는 최영 장군의 휘하로 전장에 나가서 1376년(우왕 2) 홍산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예산덕산면천 일대의 왜구 토벌에 큰 공을 세워 내포를 지켰다. 또한 수군도만호 재임 시에는 삼정(三丁)을 1호(戶)로 수군을 편성하는 법을 만들었으며, 바닷가 왜구 침탈 지역의 양인에게는 토지세를 받지 않았고, 또 수군의 처자식을 관청이 대신 양육하도록 하였다.

박인호는 14세기 말 최영과 함께 홍산전투를 승리로 이끈 용장(勇將)이었고, 수군의 삼정(三丁) 1호(戶)제를 새로 만든 개혁적 관료였으며, 왜구 침탈지역에서는 토지세를 면해 주고, 또 수군의 처자식의 생계를 관이 책임지게 하는 등 어려움에 빠진 서민과 장병 가족의 복지까지를 두루 챙기고 배려한 복지행정의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행정관료였다.

그러나 1388년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이루어지고, 이성계의 군부세력과 정도전 등 개혁적 신진 사람이 연합하여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결국 1392년 고려가 망하고 새 왕조 조선이 건국되었다. 형식적으로는 이른바 왕씨의 나라에

서 이씨의 나라로의 역성혁명이 일어난 것이었다. 그런데 사실상 역성혁명의 본뜻은 ‘군주가 실덕하여 민심을 잃으면, 다른 유덕한 인물에게 군주권이 이양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논리였다. 그러나 고려의 사대부층에서는 대체적으로 이것을 조선 건국의 정당한 명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벼슬을 버리고 의리를 내세우며 은거하는 불사이군의 충신들이 속출하였다. 박인우도 그런 인물에 속하는 고려의 충신이었다.

조선이 건국되자 박인우는 벼슬을 버리고 예산읍 신례원 덕방산 아래로 내려와 초막을 짓고 은거하였다. 태조 이성계가 그에게 세 번이나 병조판서에 임명하며 불렀으나 그는 끝내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끝까지 불사이군의 의리를 지킨 고려의 충신이었다. 박인우의 묘소는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 2리에 있다. 박인우는 1987년 예산의 창절사(彰節祠)에 배향되었다.

### 이성계의 친구, 그러나 불사이군을 실천한 도옹(都膺)

예산인 도옹(都膺)은 여말선초의 저명한 절의의 인물이다. 도옹의 초명은 유(兪), 자는 자예(子藝), 호는 청송당(靑松堂)이고 본관은 성주이다. 예산 지역 성주 도씨(星州都氏) 입향조이다.

도옹은 고려 우왕 때 과거에 급제하여, 고려 말에 벼슬이 찬성사(正2품)에 이르렀다. 그러나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자 불사이군의 절의를 지켜 벼슬을 버리고 홍주 노은동(현 충남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에 은둔하였다.

여말 선초에 고려수절신(高麗守節臣), 또는 이를 줄여서 수절신(守節臣)이라고 칭해지던 인물들이 있었다. 당시 조선 개국을 전후하여 유교적 대의명분을 지켜 조선에서 벼슬하지 않고 절개를 지킨 학자들, 이성계의 등극을 반대하여 고려 멸망 전에 낙향하여 은둔한 사람들, 개국 세력에 의해 맞아 죽은 사람들, 조선

성립 후 두문동에 들어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예산인 도옹도 고려수절 신의 한 사람이었다.

도옹은 태조 이성계와 어렸을 적 친구였다고 한다. 이성계는 조선을 개국한 후 민심수습의 차원에서 또 친구와의 옛정을 생각하여 그를 상장군에 임명하고 다섯 번이나 조정으로 불렀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3년(태조 2)부터 1397년까지 태조가 도옹에게 내린 사령왕지 4매와 녹패 등 5매의 고문서가 일괄 보물 제724호(성주도씨 종종 문서 일괄)로 지정되어 있다. 이 문서들은 조선 개국 초에 도옹과 태조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다.

도옹은 이러한 이성계의 끈질긴 출사 요청을 끝내 거부하고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유교적 의리를 지켜 낙향하였다. 이에 태조는 그 절의에 감탄하여 도옹의 호를 청송당(靑松堂)이라 하사하였고 그의 절의를 찬양하는 시 한 폭을 내렸다.

도옹은 문장에 능하였다고 전하며, 「어사시」(御賜詩) 1수, 「두문동비표」(杜門洞碑表) 14자, 「사제문」(賜祭文)과 「부조현연구」(不朝輿聯句)가 각 1편씩 남아 있다. 도옹의 묘소는 예산군 응봉면 계정길 9-20(지식리 산141-16)에 있다. 여기는 도옹이 말년에 은거하였다고 전하는 홍성군 홍복면 노은리와 이웃한 마을이다. 도옹이 사망하였다는 전갈을 받은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로 하여금 묘지를 점지해 줄 것을 명하였고, 노은동으로부터 북동쪽으로 3km 가량 떨어진 매봉산(예산군 응봉면) 기슭 쌍유혈의 좌측혈에 자리를 잡아 안장시켰다고 전한다. 현재 이 묘소에는 도옹과 부인 단양우씨의 묘가 쌍분으로 조성되어 있다. 주변에 비석, 문인석, 망주석, 석등, 신도비 등이 세워져 있다. 이 일원은 '도옹선생묘 일원'(都膺先生墓一圓)이라는 명칭으로 충청남도 기념물 제90호로 지정되었으며, 후손들이 사당인 경충제(敬忠齋)를 지어 도옹의 제사를 모시고 있다.

## 사육신의거, 절개 지킨 신숙서

신숙서(申叔胥, 1435-1496)는 조선 문종-단종 때의 문신이다. 수양대군(후일의 세조)이 부당하게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정권을 잡아 왕위에 오르자, 이에 대한 적극적 저항으로 발생한 사육신의거에 동참하였다가 유배를 당하였고,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여러 차례 벼슬이 제수되었으나 끝내 불출사로 일관하여 절개를 지킨 충절의 인물이다.

신숙서의 자는 상지(相之), 호는 목장(陸牆) · 죽당(竹堂)이며, 본관은 평산이다. 고려 개국공신 신승겸의 후손이며, 고려가 망했을 때 불사이군의 정신으로 저항했던 두문동 72현 신순(申珣)의 후손이다. 신숙서는 아버지 신효우와 어머니 전의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451년(문종 원년) 17세의 나이로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고 이어 증광 문과에 차례로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라, 박사를 거쳐 단종 2년에 승문원 교리(정5품)로 승차하니, 주위에서 재상의 재목이라고 칭송이 자자하였다. 지방관으로는 청양 현감 문의 현령 등을 역임하였는데 선정을 베푼 지방관으로 명성이 있었다. 또 조정에 들어와서는 성균관 전적, 예조 정랑, 승문원 교리 겸 지제교 등을 역임하였는데, 1456년 사육신과 함께 단종복위에 동참했다가 발각이 되어 면천 흑석(지금의 당진시 순성면 봉소리)으로 유배되었다.

그 후 수년이 지나 정국이 안정되면서 그도 유배에서 방면되고 이후 여러 차례 출사(出仕)를 권유 받았으나 병을 빙자하여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패륜의 왕 세조, 그 불의의 정권하에서 벼슬하지 않겠다는 절의정신의 표출이었다.

이후로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강을 넘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고 주위에 대나무를 심고 스스로 죽당(竹堂)이라 자호(字號)하고 후학 교육에 전념하면서, 자손에게는 “나는 불사이군(不事二君)으로 두문불출하지만 자손에게는 수학을 계을리 하지 말고 굳은 신념으로 입신양명(立身揚名)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연산

군 2년에 62세로 별세하였다.

그의 묘소는 그가 만년을 보낸 봉산면 대지리에 있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산 신씨의 세거지이다. 신숙서가 평산신씨의 예산 입향조가 된 것이었다.

숙종 때 단종이 복위된 후, 그 위패를 공주의 계룡산 동학사의 초혼각(招魂閣)에 제향할 때, 신숙서도 함께 동무(東廡)에 배향되었다. 초혼각은 후일 숙모전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계룡산 동학사의 구내에 있는 숙모전,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숙모지(肅慕誌)』의 다음 기사는 신숙서의 생애와 의리행을 간단명료하게 적어서 전하고 있다.

### 숙모전(肅慕殿) 동무(東廡) 29위 신숙서(申叔胥)

동(東) 29

신숙서(申叔胥)

자는 상지(上之) 호는 죽당(竹堂) 본관은 평산으로 이상(貳相) 신인기(申仁鑄)의 손자이다. 문종 신미(1451년)에 문과에 올라 승문원 교리 겸 지제교로 있다가, 세조 2년(1456) 병자에 면천으로 귀양갔다. 귀양에서 풀려나 관직에 등용될 수 있었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창밖에 대나무를 많이 심어 그 불변하는 절의(節義)를 취하여 죽당(竹堂)이라 자호하고, 한강(漢江)을 넘지 않기로 맹서하고 자정(自靖)하여 세상을 떠났다.

– 『충보 숙모지(肅慕誌)』, 사단법인 숙모회, 2016, P.323

또 후에 한말 의병장 안병찬(1854-1921)이 그의 신도비명을 지어 그 절의를 찬양하였는데, 1928년 그 대강을 적어서 소개하고 있는 요약문은 다음과 같다.

## 신도비명 요약

통훈대부 평산신공 휘 : 속서, 자: 상지, 호: 죽당

공은 평신신씨의 장절공 신승겸의 17세손이다.

15세손인 조부는 인기(仁錡)이시며 이상공파 파조이다.

조선 문종대왕 원년(1451년) 성균관 사마시에 합격하고 같은 해(1451)에 중광문과에 급제하여 성균학관으로 선발되었다가 영전하여 박사에 이르고 청양현감, 문의현령으로 두 곳에서 선정을 베풀어 명성이 높았다.

성균관으로 들어와 전적(典籍)이 되었고 예조정랑, 승문원 교리 겸 지제고로 옮기었다. 1456년(세조 2) 사육신과 함께 단종 복위를 모의하다가 발각되어 면천(현, 당진군 순성면 봉소리)으로 귀양 갔다. 이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에 정착한 후 조정에서 여러 번 불렀으나 뜻을 굽히지 않고 송백 같은 굳은 절개로 불사하였다. 그 후 숙종 때 단종을 복위하고 이 분도 다른 공신들과 함께 공주 동학사의 숙모전에 배향되었다.

숙부인은 능성구씨이며 슬하에 3남(속곤, 석강, 석령) 3녀를 두었다. 한말의 문장가로, 의병장으로 1977년 건국포장을 받으신 안병찬 의사가 쓴 신도비이다.

순정후인 안병찬 근찬

회산후인 황 방 근찬

외 예 손 조희원 근전

서기 1928년 2월

단종의 충신 신숙서, 그의 위패가 공주 숙모전에 올라 있음은 그의 절사가 사육신의거의 의리정신과 절행에 동참하였다는 뜻이고, 후일 그에 대한 신도비 명을 한말 의병장(안병찬)이 찬술해 준 것은 그의 의리정신과 절행이 한말의

의병들의 의리정신과 상통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그 의리정신의 계승은 길이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 2) 사화기 선비들의 절의정신

- 김구, 민회현, 이약수, 이담

### 개혁에 앞장섰다가 긴 세월 유배당한 기묘명현 김구

자암 김구는 조선 중종대의 사림파 명현으로, 조광조 김정 김식 등과 함께 도학정치의 구현에 진력하다가 기묘사화로 인해 남해·임피 등에서 긴 유배 생활을 보내야 했던 기묘명현이다. 그는 성균관 생원으로서 소릉복위운동을 주도하였고, 또 이조정랑 때에는 소격서 폐지운동에, 그리고 홍문관 부제학 일 때는 대간권의 확보 및 위훈삭제운동에 적극 나섰다. 사림파의 개혁운동을 통해 부정한 정치문제들을 바로잡아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을 위해, 매번 직언으로 일관했던 그의 꿋꿋한 선비풍에서 예산 충의정신의 일단을 만나게 된다.

### ‘6세 시(詩) 신동’에서 ‘생원·진사시 장원(壯元) 천재’로

김구(金絃, 1488-1534)의 자는 대유(大柔)이고, 호는 자암(自庵), 또는 율곡병수(栗谷病叟)이며, 시호는 문의(文懿), 본관은 광산이다. 증조 김예몽은 예조판서를 지냈고, 조부 김성원은 성균관 사예를 지냈으며, 아버지 김계문은 대홍현감을 지냈다.

김구는 1488년(성종 19) 한성 연희방(현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에서 아버지 김계문과 어머니 전의 이씨(현감 이겸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

부터 총명하고, 행실이 독실하였다. 그의 남다른 총명함은 그가 이미 6세 때 「석류시」를 짓고 있는 데서도 인정된다. 그의 석류 시는 다음과 같다.

### 석류(石榴)

愛寶不愛身	보물을 아끼면서 제 몸을 아낄 줄 몰랐다니
堪笑賈胡愚	고호(賈胡, 오랑캐 장사꾼)의 어리석음이 우습구나.
如何不自愛	어찌하여 제 한 몸을 아끼지 않고서
剖身藏明珠	몸을 갈라 아름다운 진주를 숨긴단 말인가?

이것은 김구가 여섯 살 때 한자로 지은 오언율시의 석류이다. 이 시는 여섯 살짜리 아이가 지은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성숙미와 뛰어난 함축미를 보이고 있다. 그를 신동(神童)이라고 불렀다는 전언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시에서는 운율이 지닌 리듬과 비유나 함축적 상징성을 중요한 시의 미학으로 꼽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갖췄다 해도 그 시에 내포된 사상성이나 철학적 메시지가 없으면 수작으로 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김구의 이 시에서는 5언 절구라는 운율의 형식미를 잘 구비하면서도, 또한 석류(石榴)가 서역의 과수라는 걸 알고, 서역의 장사꾼들은 귀중한 보물을 자기 몸을 가르고 감춘다는 것을 석류에 비유하여,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겨우 여섯 살짜리 아동이 자연물 석류를 보고 인간세상의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그리고 근본적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또한 그가 그 어리석은 자를 고호(賈胡 : 오랑캐 장사꾼)로 지정하여 말한 것은 은근히 소중화(小中華)인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까지 비추고 있어서 당시 사람들의 문화의식의 일단을 엿보게도 한다. 그는 또 8세 때는 「오작교시」를 지었다.

김구는 어려서부터 한훤당 김굉필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16세에는 한성시에서 장원하였고, 1507년(중종 2) 20세 때에는 생원 진사과에 모두 장원하였다.

그런데 이때 그는 자칫 양시 장원의 영광을 놓칠 뻔 했다. 이 경우 대개는 하나만 장원을 시키고 다른 하나는 차점자에게 주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김안국도 젊었을 때 생원시 진사시에 모두 장원하였는데, 출방할 때 한 사람이 양쪽에서 장원이 될 수 없다 하여 진사시에는 2등이 되었으므로 이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겼다. 이때도 김구가 생원 진사시에 모두 장원하자 여러 시관들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두 가지 장원이 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마침 이때 김안국이 시관의 일원이었다. 김안국이 김구의 답안들 들고 “한퇴지의 문장이요, 왕희지의 필법이거늘, 무엇이 불가하겠는가?”라 하여 드디어 양시의 장원이 되었다. 청소년 시절의 김구, 그는 과연 가히 ‘6세 시(詩) 신동’으로, ‘생원 진사시 장원 천재’로 칭해질 만했다.

### **성균관 생원으로서 올린 ‘소릉 복위 상소’**

김구는 1512년 12월 성균관 생원으로서 동료들과 함께 소릉(昭陵)의 추복(追復)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소릉은 조선의 5대 임금인 문종의 왕비(현덕왕후) 권씨의 능이다. 문종비 권씨는 곧 비운의 왕 단종(端宗)의 생모이다. 권씨는 왕자(후일의 문종)를 출산하고는 불행하게도 아들만 남기고 그 자신은 바로 숨을 거두었다. 그 무덤이 소릉인데, 1456년 사육신 의거의 여파로 단종이 처벌되면서 그 어머니 문종비는 폐서인이 되고 그 무덤은 폐릉 되었는데, 반 백년이 넘도록 아직 복원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의 소릉은 문종비(권씨)를 지칭하고, 추복(追復)은 ‘빼앗았던 위호를 그 사람이 죽은 후 다시 회복하여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소릉 추복 상소’는 곧 죽은 문종비의 위호를 회복해달라는 ‘소릉 복위 상소’였다.

이때 김구는 성균관 유생들과 함께 이 소릉 복위 상소를 이틀에 걸쳐 두 차례나 연이어 올렸다. 실록에서 상소를 올린 사람을 ‘성균관 생원 김구 등’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소두(疏頭)는 김구였다. 다음은 『중종실록』 중종 7년(1512) 12월

7일자와 8일자의 기록이다.

성균관 생원(生員) 김구(金絃) 등이 상소하여 소릉의 복위를 청하였으나, 윤 허하지 않았다.

이것은 김구 등 성균관 유생들이 소릉(문종비)의 복위를 청하는 상소의 기사인데, 이상하게 양일의 기사 주제가 동일하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실록에는 이 주제 기사만 기록되어 있을 뿐, 상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되어 있어서 그 전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실록의 기사 유형 중에서는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아마도 『중종실록』의 편찬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그러나 사실상 문종비 권씨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병자년 (1456) 거사(사육신의거)는 정당한 것이었고, 설사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1456년이고, 문종비가 죽은 것은 1441년이니 이미 15년 전에 죽은 사람이다. 더구나 문종비는 정통 국왕의 왕비였고, 비록 고인이 되었지만 당시 문종의 지위는 건재했다. 세조가 소릉이 아들 단종을 제거하고, 단종 복위를 주장하는 신하들을 무참히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형수 되는 무고한 소릉을 무참하게 폐릉 시킨 것은 온당한 군주가 취할 도리가 아니었고, 또 대를 이은 후세의 왕들도 조종이 한 일이라는 핑계로 나 몰라라고 무조건 넘어갈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중종과 당시의 조정이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려 하자 김구(金絃)는 아직 성균관 학생의 신분이었지만, 과감하게 유생들을 거느리고 소두(疏頭)가 되어 이틀에 걸쳐 두 번씩이나 이 문제를 상소로써 요청한 것이었다. 그것은 이후의 그의 조정에서의 행적을 볼 때 부정에 항거하고 정의를 구현하려는 그의 사림적 개혁 운동의 시작이었고, 직언(直言)으로써 부정을 바로 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한 그의 충의정신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김구가 전면에 나섰

던 사림파의 소릉복위운동은, 3년 후인 1515년 충암 김정이 주도한 중종비 신씨 복위 상소운동으로 이어져 갔다. 개혁파의 이상은 과거의 잘못된 폐악을 일소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었다. 김정의 소릉복위운동이 그 선구였음을 알 수 있다.

### **문과급제로 출사하여 홍문관 부제학에 오르다**

김구는 26세가 되던 1513년(중종 8) 문과 별시에 2등으로 합격하였다. 처음 그는 홍문관 정자로 출발하여 계속 홍문관의 여러 벼슬을 역임했고, 28세 2월에는 부수찬이 되었고, 5월에는 사가독서(賜暇讀書)에 뽑혔다. 이때 앞의 소세양도 함께 사가독서를 받는다.

이후 홍문관 사간원의 요직을 거쳐, 31세에는 이조정랑, 사간원 사간, 장악원 정 성균관 사성 등을 역임하였는데, 그가 장악원정(掌樂院正)을 맡은 것을 보면 음율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간에 경연에 나아가서 성리대전 등을 진강하였고, 32세에는 홍문관 직제학이 되고, 동부승지를 거쳐 그해 6월에는 홍문관 부제학(정3품)이 되었다. 그는 주로 언관직을 맡으면서 벼슬길도 승승장구하였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관로는 여기까지였다. 사림파의 개혁운동에 반발한 훈구파의 반동으로 기묘사화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그를 포함한 개혁적 사림파가 철저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 **가짜 공신을 척결하라는 마지막 상소운동에 나서다**

조광조와 김정, 그리고 김구와 김식, 이들은 중종대의 대표적인 기묘명현들이 다. 이들 개혁파 사림들은 1512년 김구의 소릉 복위운동을 시작으로 하여, 1515년 김정이 주도한 중종비 신씨복위 상소운동을 변환점으로 삼아, 이후 잘못된 이전의 정치를 바로 잡으면서 지치주의적 개혁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소격서 혁파, 향약의 간행과 보급, 현량과 실시 등을 급격하게 달성해낸 그들은 대간권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짜 공신을 색출하여 이들을 처벌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위훈삭제 운동을 전개하였다.

1519년(중종 14) 10월 6일 김구는 홍문관 부제학으로서 조광조와 함께 조강에 나아갔다. 동지사(同知事, 당시 대사헌) 조광조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조종조 아래로 사람을 이(利)로 이끌어 상사(賞賜)에 절도가 없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접때 한낱의 일로 당시 조정에 있던 사람들이 외람되게 공신(功臣)의 칭호를 얻었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한낱 이과(李顥)가 홀로 아비의 무덤을 지키는 것을 가서 잡아 온 것이 무슨 기록할 만한 공이겠습니까?"라 하고, 또 연이어 참찬관(參贊官, 당시 부제학) 김구(金球)가 말했다.

고변(告變) 같은 일은 그것만으로 공(功)이라 할 수 없으며, 훈구(勳舊)의 신하가 나라의 일에 노고하여 은택이 백성에게 미쳤다면 공(功)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종반정을 주도한 정국공신에 또 추가로 생긴 정란공신 등으로 공신의 수가 넘쳐났고, 공신체계가 너무 방만하여 무질서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영터리 가짜 공신이 너무 많았다. 조선 초의 개국공신은 55명에 불과했는데, 중종 반정공신은 107명이나 되었다. 그것은 공(功)의 기준이 모호하고, 이 일을 주관하던 유자광 같은 자가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신들의 불참자제들까지 가짜 공신으로 둔갑시키며 양산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김구는 그 공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고변자라 하더라도 그것을 공(功)이라 할 수 없고, 진정한 공(功)은 '나라 일에 수고를 쏟아서 그 은택이 백성에게 있어야 공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반정공신에 대한 위훈삭제의 요청은 이미 오래된 조정의 공론이었지만, 그달 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달 25일에도 대사헌 조광조

- 대사간 이성동 등이 합사로 이 문제가 재론되었는데, 이때 조광조는 2·3등 공신 중에도 엉터리 공신이 있고, 4등 이하는 50여 명인데 이들은 모두가 다 공이 없이 함부로 기록된 자라고 주장하였다.

1519년 10월 29일 김구는 부제학으로서 홍문관 관원을 대동하고 경연에 나가 공신 개정에 관한 일을 힘껏 논하였으나, 중종은 “지금 개정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리고 11월 3일 김구는 다시 홍문관의 이름으로 공신 개정을 요청하는 상소를 내고, 이어서 비현합(不顯閣)에서 중종을 뵈었는데, 중종은 “이제 차자(劄子)를 보니 그 뜻이 과연 절실하다. 조정의 대신에게도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그러나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어찌하여 이토록 고치지 않겠는가?”라 했다. 이에 대해 김구는 “아랫사람이 함께 청하는 까닭은 공의(公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이는 공론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라 하고, 땅에 엎드려서 매우 오래도록 왕명을 기다렸으나 임금은 잠자코 답하지 않았다. 이들(대사헌 조광조·대사간 이성동·부제학 김구)은 다시 11월 10일 홍문관의 이름으로 면대를 청하여 국왕을 만나 공신 개정을 요청하였다. 이날 조광조는 “대신이 다들 옳지 않게 여기는데 임금의 뜻을 고집하시니, 아마도 임금의 뜻이 치우치게 매인 곳이 계신 듯합니다”라 했고, 이성동은 “성례(聖慮)에 조금이라도 치우치게 매인 사의(私意)가 계시다면 크게 두려운 일입니다”라 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이 조정에서 공신 개혁을 간절히 요청한 마지막 군신간의 만남이었다.

그런데 11월 12일자 실록 기사에 대간이 정국 공신의 삭공(削功)에 따른 가자의 개정을 아뢰면서 “정국 공신(靖國功臣) 등이 이제 삭공(削功, 공을 깎아 내림)되었으나 그 친수(親受)한 가자(加資)를 개정하지 않았는데, 이미 그 공이 없어졌다 면 어찌하여 그 자급(資級)을 그대로 띠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 한 바와 같이 11월 중에 삭공이 이루어졌다. 중종반정 공신 107명 중에서 무려 76명이 가짜라는 것이었다. 위훈 삭제운동은 이렇게 일단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 개혁의 좌절과 유배

그러나 이들의 급진적인 개혁운동은 공신세력의 극한 반발을 초래했고, 사람을 지원하던 중종마저도 이들에 대해 상당한 피로감과 경계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하여 홍경주 남곤 심정 등은 경빈(敬嬪) 박씨 등 후궁을 움직여 왕에게 신진 사류를 무함(諷陷)하게 하고, 희빈(홍경주의 딸)에게 대궐 뜰의 나뭇잎에 과일즙으로 ‘走肖爲王(주초위왕)’이란 글자를 써 벌레가 짖아먹게 한 다음 궁녀를 시켜 그 잎을 따다가 왕에게 바쳐 의심을 조장시켰다. 또한 1519년 11월 15일 사화 당일 밤, 이들은 경복궁의 북문인 신무문(神武門)으로 들어가서 비밀리에 왕을 만나 조광조 등 사림세력이 붕당을 지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임금을 잘못 인도한다는 죄명을 씌워, 사람을 일망타진하는 기묘사화를 일으켰다.

이로써 조광조와 김정, 김구와 김식을 비롯한 다수의 개혁파 기묘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멀리 유배되었다. 따라서 이들이 이루어 놓은 개혁적 사업들은 다시 원점으로 복원되거나 지속성을 잃어 개혁운동은 일단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11월 16일, 이들 기묘명현들에 대한 추국(推鞫)이 시작되었다. 추국은 의금부에서 왕명에 따라 중한 죄인을 신문하던 일이다. 이날의 추국에서 김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신(臣)의 나이는 32세입니다. 성품이 본디 어리석으나, 다만 고인(古人)·사우(師友)의 도움을 사모하여 뜻을 같이하는 선비들과 교유하였을 뿐입니다. 인물을 진퇴(進退, 천거하거나 배척함)하는 것은 하류(下類)가 할 일이 아니며, 착한 자를 좋아하고 착하지 않은 자를 미워하여 한갓 공론(公論)을 가지고 서로 시비(是非)하였을 뿐입니다. 붕비(朋比, 붕당을 지어서 자기 편을 두둔함)를 맺고 궤격(詭激, 언행이 지나치게 과격함)하여, 국론이 전도되고 조정을 날로 글러가게 하였다는 것은 신의 뜻과는 다릅니다.

당시의 훈구세력들이 이들 개혁적 사림파를 제거하는 명분은 봉비(朋比)를 맺고 궤격(詭激)하여 국론이 전도되고 조정을 날로 글러가게 하였다는 데 두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구는 자신은 다만 뜻을 같이 하는 선비들과 교유하였을 뿐이고, 또 오직 공론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논하였을 뿐 봉비 궤격을 한 일은 없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김구는 정광필과 안당 등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그해 11월, 개령(開寧, 지금의 경북 김천)에 유배되었다가 수개월 뒤에 죄목이 추가되어 남해로 이배(移配)되었다. 남해에 이배된 지 13년 만에 임피(臨陂, 지금의 전북 옥구)로 가깝게 옮겼다가, 다시 2년 뒤에야 풀려나 1533년(성종 28) 고향 예산으로 돌아왔다. 32세에 유배 가서 46세가 되어서야 돌아온 고향이었다. 그러나 부모는 그가 유배 중이던 1626년과 1628년에 각각 돌아가셔서 만나 뵐 길이 없었다. 그는 처음 참배할 때 산소 앞 토교(土橋)에서 산소를 바라보다 기절해서 말에서 떨어졌다고 전한다. 그는 돌아와 뒤늦게나마 부모를 위해 상복을 입고 무덤 옆에 여막을 짓고 시묘실이를 했는데, 너무 슬퍼하다가 병을 얻어 상기를 마치지도 못하고 47세에 생을 마쳤다.

### 소격서 혁파에 동참한 개혁파, 현량과 출신 민회현

민회현(閔懷賢, 1472- )의 자는 계사(季思),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1472년(성종 3)에 아버지 사직 민질(閔質)과 어머니 단양 우씨(우계충의 妃) 사이에서 태어났다.

1517년(성종 12) 충청감사 김근사(金謹思)의 천거로 참봉이 되고, 1518년 군자감주부를 거쳐 감찰이 되었다. 같은 해 5월 성종이 천거로 등용된 관원들을 인견(引見)한 자리에서 민회현은 치도(治道)의 핵심을 질문 받고, ‘당우 삼대의 치세는 백성이 배를 두들기며 안락하게 산 시절’이라고 전제하고, ‘후대에 그것

이 쇠퇴한 이유는 백성이 살 곳을 잃고, 기한에 떨며, 유리하여 스스로를 보존할 수 없게 된 데서 온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서경』에서 '백성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라 한 것을 들어, '나라의 흥망은 반드시 민생의 휴적(休戚, 기뻐함과 근심함)에 달려있다'고 진술하였다. 또 그는 각도에 감사가 있는데도 3년 임기의 안렴사를 두어 감독하는 것에 대해서 묻자, '가능한 사람은 1년도 되기는 하나, 그래도 미진한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답하고, 꼼꼼한 선발로 어진 이를 선발하여 수령에 임명할 것과 임금의 덕을 밝힐 것을 주장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안당(安瑭)으로부터 "언론이 해박하고 통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1518년 민회현은 소격서(昭格署) 폐지운동에 참여했다. 소격서는 도교(道敎)의 초제(醮祭)를 맡은 관아로서 하늘에 제사지내고 별에 기도하는 도관(道觀, 도교의 사원)이었다. 이것은 고려시대로부터의 유제로 유교 이념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해 9월 민회현은 이조정랑 김구를 필두로 하여 6조의 낭관들과 연합하여 소격서(昭格署) 혁파를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소격서는 그달에 폐지되었으나 사실상 대간들의 강압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왕실의 원망이 담긴 조처였다.

47세 때인 1519년에 조광조 등이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추진한 현량과(賢良科)에서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정언(正言)에 임명되었다. 민회현의 천목(薦目)에는 "지조가 순수하고 독실하며, 또 재행(才行)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기묘사화로 출신자 방목(榜目)이 혁파되어 직첩과 홍패(紅牌)를 몰수당하고, 벼슬을 그만둔 뒤에 고향 예산 신암으로 돌아와 20년을 지냈다. 과거가 무효된 뒤 고향에서 한거하고 있을 때 결성현감 조우(趙佑)가 민회현을 위로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모시려 하였으나 끝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 후 20년이 지난 1538년에 이조판서 윤인경(尹仁鏡)이 건의하여 다시 직첩을 환급받고 좌랑에 복직되었다.

**조광조의 구명에 나섰다가 투옥,  
유배지 예산에서 잠든 이약수**



이약수 묘소



묘비

이약수(李若水, 1486-1531)는 조선 중기의 학자로 자는 지원(止源), 호는 우천(牛泉)이고 본관은 광주(廣州)이니 중종 26년 충주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현감자(憲慈)이며 어머니는 광주안씨(廣州安氏)로 사간 팽명의 딸이며 김평필의 문인이다. 이약수는 기묘사화 당시 공부를 하다가 조광조의 구명을 위해 나섰으나 투옥된 후 평해와 예산으로 유배를 며나게 되었고, 1530년 예산에서 세상을 떠나 학문과 절행의 흔적을 남겼다.

**도학정치를 이끈 조광조 기묘사화로 좌절하다**

중종은 젊은 학자 조광조를 내세워 명실상부한 유교적 명분에 입각한 개혁정치를 시도하였다. 그의 도학정치는 조선시대의 풍습과 사상을 유교식으로 바꾸어 놓는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즉 조선시대에 일반 서민들까지도 주자의 가례(家禮)를 지키게 되어 상례(喪禮)를 다하고 젊은 과부의 재가도 허락되지 않게 하였다. 미신타파를 내세워 소격서를 폐지하고 천거시취제인 현량과 를 처음 실시하게 하여 김식, 안처겸, 박훈 등 노장인이 뽑혔으며 이어 김정, 박상, 이자, 김구, 기준, 한충 등 소장학자를 뽑아 요직에 앉혔다.

그는 신진사류들과 함께 훈구세력의 타도와 구제(舊制)의 개혁 및 그에 따른 새로운 질서의 수립에 나섰다. 결국 그의 표적은 중종반정 공신들에 집중되었고 급기야 전공신의 4분의 3에 이르는 76인의 위훈이 사탈되었다. 이에 훈구파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된다.

조광조의 개혁은 너무나 급진적이고 훈구파를 궁지에 몰았으며 지나치게 이상적이었고 왕권에게까지 간섭하게 되니 안은 조광조, 김정, 김구, 김식, 윤자임, 박세희, 박훈등을 투옥하고 조광조, 김구, 김정에게 사사를 명한다.

### 조광조의 투옥소식을 듣고 구명에 나섰다가 유배가다

이약수는 성균관에서 공부만하고 있다가 조광조의 투옥소식을 듣고 성균관 유생 150여명과 함께 소를 올리고, 궐문을 제치고 편전문 밖까지 이르러 통곡하니 중종이 몹시 노하여 “상소하면 되었지 감히 대궐뜰까지 들어와서 통곡을 하는가. 유생의 체모가 이 같으나 지금 곡성을 들으니 몹시 불쾌한 일이라” “유생이 대궐에 들어와 통곡을 하는 것은 천고에 없는 일이라”고 노하여 김수성, 박세호, 윤언직, 홍순복등과 함께 투옥하였다.

1521년 평해로 유배되었다가 10년만인 1531년 대홍현으로 이배되었으나 그 해 8월 대홍 땅에서 서거하니 향년 46세였다.

그의 저서 『우천유고』는 시 461수, 부록으로 연보·세계·중종실록초(中宗實錄抄)·제가차록(諸家箇錄)·제문·상향축문·상량문·기묘사화일문구현(己卯土禍一門九賢)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약수는 조광조(趙光祖)가 유배되자 성균관유생을 인솔하여 항소(抗疏)하다가 평해(平海)와 예산(禮山)으로 유배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시사(詩詞)는 대부분 소리내어 우는 처량하고 비통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의 상황을 잘 나타내었다. 또한, 의열(義烈)을 토하여 사심(邪心)을 꾸짖는 내용도 있다.

「신묘사월자평해양이예산유감이부(辛卯四月自平海量移禮山有感而賦)」와 「대

『홍촌서독좌유감(大興村墅獨坐有感)』은 1521년 평해에 유배되어 있다가 10년 뒤인 1531년 4월에 예산으로 이배될 때 지은 시이다. 부록 중 「기묘사화일문구현」은 기묘사화로 화를 당한 문중의 아홉 사람에 대한 기록이며, 이들은 이은(李闇)·이연경(李延慶)·이약수(李若水)·이약빙(李若冰)·이종경(李宗慶)·이윤경(李潤慶)·이영부(李英符)·이준경(李浚慶)·이승경(李承慶) 등이다.

### 이약수의 학문과 절행이 전해지는 우천사



우천사우



우정재 현판

묘소는 대흥면 교촌리에 있으며 1605년(선조 38)에 설원(雪冤)되었고 우천사를 건립하고 봉향했다. 현재의 우천사는 1977년 복원된 것이다. 우천사우는 이약수가 예산에서 유배 생활 중 약 1년 만인 1531년에 죽은 뒤 1708년 건립된 사당이다. 2018년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1970년대 복원한 것이다. 『우천선생실기』에 의하면 우천 이약수가 죽은 후 70여 년 만인 1605년(선조 38) 설원되었고 1708년(숙종 34) 호서 지역 200여 명의 유생들이 이약수의 학덕을 추모하여 대흥현에 우천사를 세우고 춘추로 향사하였다.

우천사우가 건립되던 때 대흥현은 이약수의 학문과 절행이 전하는 고장이었으나 자손이 없어 지역 유생들이 이약수의 산소 아래에 사당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1668년(현종 9) 여양부원군 민유중(閔維重, 1630-1687)이 충청도감사로 부임하여 도내 지역을 순찰하다가 본군에 들러 이약수의 묘소

를 참배하였다. 이약수 묘소의 황량함에 아쉬움을 느낀 민유중은 당시 대홍현감이었던 홍만선(洪萬選, 1643-1715)에게 부탁하여 비석을 다시 세우고 묘제문을 지었다. 그리고 이때 약간의 재곡을 지원하여 사당을 건립하도록 하였다. 『우천 선생실기』 권1 개봉묘치제문 및 우정사 제향축문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우천사우는 홍선대원군의 훼철 이후 복설되지 못한 채 원래 터에 1974년 후손들이 건립한 재실 우정재만 남아 있다. 우정재는 우정마을의 낮은 구릉상 하단부 남향 경사면에 세워졌다.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2칸 건물로 팔작지붕을 올렸다. 건물 가운데 우정재라고 쓰여 있는 현판이 걸려 있다.

### 사회와 시련을 딛고 사림정치를 다시 세운 선비 이담

이담(李湛, 1510-1575)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중구(中久), 호는 정존재(靜存齋), 본관은 용인(龍仁)이고 종유의 아들이다. 덕산현의 동북쪽 고산에서 거주하였다. 그는 김굉필의 문인으로서 1538년(중종 33)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정언(正言), 수찬(修撰), 지평(持平)을 거쳐 1544년(중종 39)에 사가독서의 은전을 입었다.

그러나 명종이 즉위하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실시하면서 이담은 김굉필의 제자라는 이유로 귀양 가게 되었다. 5년 만에 귀양에서 풀려나고 이듬해 이기가 물러나면서 관직에 복귀하였다.

선조가 즉위한 후 이담은 정암 조광조의 복권을 주청하였다.

### 을사·정미사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귀양 가다

이담은 사림파로 갑자사화 때 죽은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이라 하여 관직을 박탈당하고 1547년(명종 2) 가을 양산으로 유배되었다. 유배명령이 내리자 태연

하게 평일처럼 행동하고 오직 모부인(母夫人)의 속옷을 청하여 가지고 가서 그리워하는 정을 나타내었다. 유배지로 가는 10여 일 동안 끝내 서글퍼하는 기색을 나타내지 않으니, 의금부(義禁府)의 나졸(羅卒)들도 탄복하였다. 유배지에 이른 다음에는 날마다 경사(經史)를 탐구하였으며 배우는 자들이 와서 물으면 간곡히 가르치고 타일렀다. 유배지에 있은 지 5년 만에 사면(赦免)을 받아 돌아왔다.

### 귀양에서 풀려나 정암 조광조의 관작을 복구할 것을 주청하다

1554년(명종 9년)에 모부인의 상(喪)을 당하였는데, 상례(喪禮)를 행함에 한결 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따랐다. 1562년(명종 17년)에 중종의 능침(陵寢)을 이장(移葬)하였는데 소복(素服)으로 교외에 나가 재궁(梓宮)을 맞이하여 슬퍼하는 정을 떴다. 1565년(명종 20년)에 직첩(職牒)을 환수반도록 명하였는데, 순님이 와서 축하하고 또 말하기를, “선생은 어찌하여 기뻐하는 기색이 없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어찌 죄인의 명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기뻐하지 않고 관직이 회복된 것을 기뻐하겠는가?” 하였다. 이듬해에 사복시 첨정(司僕寺僉正)에 제수되고 사성(司成)으로 승진하였으며, 사도시(司寺)와 선공감(繕工監)의 정(正)을 역임하였다.

선조(宣祖)가 새로 즉위하여 선비들을 빌굴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니, 조정의 의론이 다시 공을 추천하여 옥당(玉堂, 홍문관(弘文館))에 들어가 부응교(副應敎)가 되었다. “이제 새로운 정치를 펴는 초기를 맞이하였으니, 성학(聖學)과 유술(儒述)로 성상의 마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마침내 입대(入對)할 적에 요(堯)-순(舜)-우(禹)가 서로 전수한 심법(心法)과 공자(孔子)와 안자(顏子)가 전수하고 받은 극기복례(克己復禮)의 조목을 자세히 아뢰었으며, 또 성균관(成均館)에 훌륭한 선비를 뽑을 것을 창하였다. 사간(司諫)으로 옮겼다가 군자감 정(軍資監正)으로 옮겼으며, 1568년(선조 원년)에 번갈아 원관(院館)에 들어간 것이 모두 세 번이었다.

이담은 상소하여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에게 관작과 시호를 내려서 현자

(賢者)를 좋아하고 간인(奸人)을 미워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보일 것을 청하였으며, 인하여 앞의 말을 거듭하여 극언하기를,

우리 조정은 사화(土禍)가 서로 계속되어 사람들이 학문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니, 오늘날의 급선무는 사기(土氣)를 진작(振作)시키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사기가 한번 진작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스스로 바루어져서 조종(祖宗)의 기업(基業)을 광대(光大)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곤(南袞)과 심정(沈貞)을 추좌(追罪)할 것을 명하고, 정암에게 관작과 시호를 내렸으니, 이는 이담의 주청에 의한 것이었다.

명(明)나라 사신이 조칙(詔勅)을 반포하려 오게 되어 문학(文學)하는 선비가 필요하였으므로 제술관(製述官)에 뽑혔다. 가을에 상의원 정(尙衣院正)으로 있으면서 『명종실록(明宗實錄)』을 친수(纂修)하는 데 참여하였으며, 의정부(議政府)의 검상(檢詳)과 사인(舍人)에 임명되고 전한(典翰)으로 승진되었다.

### 평생을 학문에 정진하다

1570년(선조3)에 대사성(大司成)에 임명되고 겨울에 대사간(大司諫)이 되었다. 1574(선조7)에 다시 승지에 제수되었다가 체직하고 병조 참지(兵曹參知)가 되었다. 이해 12월에 병이 위독하자 옷깃을 여미고 위의(威儀)를 바로잡고는 자제들을 불러 인순 왕후(仁順王后)의 환후(患候)를 물었는데,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서거하니, 25일로 향년(享年) 65세였다. 부음(訃音)이 알려지자, 선조는 특별히 부의(賄儀)를 내리도록 명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하였다. 평소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공과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공과 매우 친하였는데, 이담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한 뜻이 제문(祭文)과 만사(輓詞)에 자세히 보인다. 이듬해 2월 15일 파주(坡州)의 백운산(白雲山) 남쪽에 있는 기동(基洞)의 산에 장

례하면서 정부인(貞夫人) 청주 경씨(淸州慶氏)를 부장(祔葬)하였다.

이담은 어려서 『소학(小學)』을 읽다가 ‘과부(寡婦)의 자식이 특별히 훌륭한 점이 있지 않으면 벗을 삼지 말라는 글을 읽고는 더욱 분발하여 반드시 성공할 것을 기약하였다. 이담은 천문(天文)과 산수(算數), 의약(醫藥)과 복서(卜筮), 활쏘기와 말타기, 서예와 그림 등을 모두 섭렵하였는데, 특별히 수학(數學)에 정밀하였다.

일찍이 후봉(後峰)이라 호(號)하였는데, 한가로이 거처하며 도(道)에 재미를 붙이자 ‘정존(靜存)’이라고 서재(書齋)에 편액(扁額)하니, 이로부터 배우는 자들이 정존 선생이라 칭하였다. 그러므로 정존이라는 호가 특별히 알려지게 되었다.

말년에 『주역(周易)』을 강론하기를 좋아하여 깊이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진리를 터득하면 책에 기록하고 터득하지 못하면 잠자는 것과 밥 먹는 것도 잊었으니, 이와 같이 하기를 20여 년 동안 하였다. 이에 퇴계 선생은 ‘너무 괴롭게 생각하면 병을 이룬다[憂思苦致疾]’는 시(詩)를 지어 경계하기까지 하였다.

이담은 특히 퇴계(退溪)를 존경하고 숭상하여 의심스러운 일을 질문하느라 편지가 계속 이어졌다. 퇴계 또한 공을 깊이 인정하여 공에게 보낸 편지에 매우 지극히 추존하였다. 그리고 공이 다시 등용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매우 기뻐하여 사람에게 준 편지에 이르기를, “정존재(靜存齋)는 여러 해 동안 수양하였는데 말년에 다시 관직에 서용(敍用)되니, 선비들이 모두 경하한다. 내 대면하여 축하하는 뜻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 하였다.

급문(及門)의 선비 중에 영재(英才)가 많았는데, 판서 윤국형(尹國馨)과 대사성(大司成) 우성전(禹性傳)이 세상에 가장 유명하였다. 뒤에 잠곡(潛谷) 김육(金堉)은 공을 『국조명신록(國朝名臣錄)』에 편입하였으며,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는 우리나라 선유(先儒)들을 기록하고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이라 이름하였는데 공의 이름이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 3. 예산 여성들의 열행과 절개

- 공신옹주와 화순옹주, 그리고 우봉이씨

#### 예산에 정려문이 있는 공신옹주와 화순옹주

충의정신은 충성과 절의의 정신이고, 절의는 절개와 의리를 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전통시대에 이러한 덕목들은 대개 나라와 임금에 대한 남성 선비들의 충행(忠行)과 절행(節行)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런데 여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덕목들이 어떻게 인식되었을까? 물론 예외가 없진 않지만, 그것은 대개 남편에 대한 절행(節行) 또는 열행(烈行)으로 특징지어져 왔다. 전통시대에는 충효열(忠孝烈)을 삼강(三綱)이라 했고, 여성의 경우 열(烈)은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의 남편으로 지칭되었기 때문이다.

예산의 문화 전통에서 이러한 여성의 절행이 돋보이는 것의 하나는 예산에 정려문이 서 있는 왕실의 여성들, 즉 조선시대의 공신옹주와 화순옹주의 사례들이다.

#### 공신옹주(恭愼翁主, 1481–1549)의 절행

공신옹주(1481-1549)는 조선 성종의 셋째 딸로서 귀인 엄씨의 소생이다. 옹주는 1494년 한명회의 손자인 한경침과 혼인하였는데, 이후 청녕위로 봉해진 남편 한경침은 혼인한 지 4년 후인 1498년(연산군 4)에 요절하였으며 슬하에 자식은 없었다. 당시 옹주의 나이는 열여덟이었다. 왕실의 옹주가 안타깝게도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된 것이었다.

그런데 옹주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로부터 6년 후인 1504년(연산

10) 갑자사화 때, 연산군은 생모 윤씨의 폐위에 엄씨(공신옹주의 어머니)가 관여하였다 하여 사사하고, 그 딸인 공신옹주는 작위를 박탈하고 폐서인으로 만들어 아산으로 귀양을 보냈다.

공신옹주는 유배되는 날 몰래 그 남편의 신주를 품고 가서 위리안치된 배소의 가시나무 울타리 속에 그것을 숨겨 놓고 아침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며, 또 죽이나 풀 열매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천신(薦新 : 새로 나는 물건을 우선 신위에 올리는 일)한 후에 먹었다. 이에 아산현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였다.

그 후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나 무도한 연산군이 축출되고 중종이 왕위에 올랐다. 옹주는 곧 사면되었고, 이듬해 중종은 옹주에게 정려(旌閭)를 내렸다. 그리고 1515년(중종 10)에는 옹주가 왕실의 귀한 몸으로 그 절행이 뛰어났는데도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 수록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찬집청에 이를 추가하게 하였다. 중종은 그해 6월에 옹주에게 쌀과 콩 30석을 하사하였고, 또 1518년 5월에도 쌀과 콩 50곡(斛)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1521년(중종 16)에는 이전에 옹주가 유배 가기 전에 연산군에게 상언(上言)하여 허락받았으나 유배로 인해 호조에 속해있던 인천 삼목도(三木島)를 다시 옹주에게 돌려주도록 하였다.



공신옹주 정려

공신옹주는 말년에 외가인 영월 엄씨 가문과 남편 한경침의 제사를 위한 후사 를 세웠다. 옹주는 남편 청녕위가 요절한 이후 평생을 수절하다가, 1549년(명종 4년) 69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쳤다. 묘는 경기도 양주 출동(楊州 莊洞)에 있고, 옹주의 태실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에 있다.

공신옹주의 정려문은 현재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중삼마을) 348에 세워져 있다. 이 정려의 이름은 ‘절부(節婦) … 공신옹주지려(恭愼翁主之閨)’로 명명되어 있다. ‘절개가 탁월한 부인 공신옹주의 정려’라는 뜻이다. 옹주가 생전에 혈손이 없어 청성군 찬(贊)을 입후하였는데, 아마도 그의 후손이 예산에 와서 살면서 옮겨 세운 정려로 생각되고, 당시로서는 그 옹주의 돋도한 절행이 예산 사회에 아름다운 울림을 주었을 것이다.

### 화순옹주(和順翁主, 1720–1758)의 절행

화순옹주는 조선의 21대 왕 영조의 둘째 딸이다. 어머니는 정빈이씨이다. 이름 은 향이(香怡)인데, 언니 화억옹주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장녀로서 자랐다. 옹주는 태어난 지 5년 만에 화순옹주로 봉해졌다. 1732년(영조 8) 경주김씨 가문의 김한신과 혼인하였는데, 김한신은 영의정을 지낸 김홍경의 아들이며 추사 김정희의 증조부이다. 따라서 화순옹주는 추사의 증조모가 된다.

혼인 후 화순옹주는 월성위로 봉해진 김한신과 함께 ‘어진 부마와 착한 옹주’로 불릴 만큼 평이 좋았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화순옹주에 대해서 “부도(婦道)를 깊이 잘 갖추었고 정숙하고 유순함을 겸비하였다. 평소에 검소함과 절약을 승상하여 복식에 화려하고 사치함을 쓰지 않았으며, 도위(都尉, 김한신)와 더불어 서로 경계하고 힘써서 항상 깨끗하고 삼감으로써 몸을 가지니, 사람들이 이르기를, ‘어진 도위와 착한 옹주가 아름다움을 짹할 만하다고 하였다’라 기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옹주가 혼인한 지 26년만인 1758년(영조 34)에 남편 월성위가 38세의 나이로 병사하였다. 이들 사이에는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 당시 옹주의 나이는 39세였다. 그런데 남편 월성위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 하자 화순옹주는 이날부터 곡기를 끊고 단식으로 남편의 뒤를 따르려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영조는

화순옹주가 그 부군 월성위가 죽은 뒤로부터 7일 동안 곡기를 끊었다고 하니, 음식을 권하지 않고 좌시하면, 어찌 아비 된 도리라 하겠는가?

라며 화순옹주를 찾아가 미음이라도 먹을 것을 권했다. 그러나 옹주는 아버지의 권유에 마지못해 조금씩 두 차례 마시고는 곧 도로 토하면서 말하기를,

비록 부왕의 하교를 받들었을지라도 결심한 바가 이미 굳어졌으니, 차마 목에 넘어가지 아니합니다.

라 했다. 영조는 그 뜻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그리하여 옹주는 스스로 음식을 끊은 지 14일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옹주가 이렇게 절사하자 그때의 예조판서 이익정이 그 정절을 기리기 위하여 정려(旌閭)를 내릴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내가 그 고집을 알았으나, 본심이 연약하므로 사람들의 강권을 입어 점차로 마실 것을 바랐는데, 끝내 어버이의 뜻에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마침내 이로써 운명(殞命)하였으니, 정절(貞節)은 있으나 효(孝)에는 모자란 듯하다. 그날 바로 죽었으면 내가 무엇을 한스러워 하겠는가마는, 열흘을 먹지 않아 내 마음이 많이 괴로웠다. 아까 예조판서가 정려하는 은전을 실시하라고 청하였는데, 그 청함은 잘못이다. 아비가 되어 자식을 정려하는 것은 자손에게 법을 주는 도리가 아니며, 또한 뒤에 폐단됨이 없지 아니하다.

라 하며 정려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렇게 영조는 딸 화순옹주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정절을 인정하면서도 부왕의 뜻을 저버린 불효한 딸에게 차마 정려를 내릴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화순옹주의 정려는 영조가 죽고 정조(영조의 손자)가 왕위를 이은 후에야 가능하게 되었다. 정조는 1783년(정조 7) 자신의 고모인 화순옹주가 살던 예산의 용궁리 마을 어귀에 열녀정문을 세우고, 옹주를 위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그 정문의 글에서 정조는 죽은 고모를 다음과 같이 추모하였다.

아 참으로 매섭도다. 옛날 제왕의 가문에 없었던 일이 우리 가문에서만 있었으니 동방에 신실한 여인이 있다는 근거이다. 어찌 우리 가문의 아름다운 법도가 빛나지 않겠는가? 더구나 화순 귀주는 평소 성품이 부드럽고 고우며 본디부터 죽고 사는 의리의 경중을 잘 알고 있었으니 외고집의 성품인 사람이 자결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아 참으로 어질도다.

화순귀주는 화순옹주의 별칭이다. 정조는 귀주(옹주)의 절행이 역대 제왕의 가문에 없던 유일한 절사(節死)의 실천 사례로 가문의 빛나는 법도가 될 것이라고 추모하고, 또 옹주의 이러한 결단은 죽고 사는 의리의 경중을 헤아려 따른 것으로 보통 사대부가의 외고집의 성품인 사람이 자결한 것과는 다른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어진 결단이었다고 추모하였다.

화순옹주는 조선왕조의 왕실에서 나온 유일한 열녀(烈女)라고 칭해진다. 앞에 공신옹주가 절부(節婦) 정려를 받았으나 절사에 이른 것은 아니었으므로 열녀라 하지 않고 절부라 했던 것이어서 비교가 된다.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는 화순옹주 홍문(紅門)과 능원(陵園)이 마련되어 있다. 홍문은 유형문화재 제4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능원은 정려문 인근에 월성위 김한신과 합장되어 있다.

□ 위에서 살핀 절부(節婦) 공신옹주의 절행과 함께, 열녀(烈女) 화순옹주의 결단과 이에 대한 영조의 처분, 그리고 고모(화순옹주)에 대한 정조의 정려 및 그 추모는 오늘의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를 던져 준다.

먼저 공신옹주의 절행에서는 주어진 극한의 여건에서도 자신의 본분과 의리를 지켜내려고 애썼던 옹주의 결연한 마음가짐과 그 실천이 돋보인다. 그것은 충분히 후대의 귀감이 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화순옹주의 절행에 대해서는 죽음을 초월하는 옹주의 의리적 결단과 그것을 열행으로 인정하여 열녀정려를 내린 정조의 추모가 여성에 대한 당시의 시대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조는 화순옹주의 열행에 대해 “우리 가문의 아름다운 법도”라고까지 찬양하며 그것이 왕실을 빛낸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영조는 화순옹주의 열행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어서 주목된다. 즉 그 딸의 죽은 부군에 대한 절행은 인정하지만, 부정(父情)을 저버리고 불효(不孝)의 길을 택한 딸에게 차마 정려를 내릴 수 없다 하고, “아비가 되어 자식을 정려하는 것은 자손에게 법을 주는 도리가 아니며, 또한 뒤에 폐단 됨이 없지 아니하다”라 하였다. 오늘의 눈으로 보면 영조의 판단이 더 합리적 결단인 듯하여 눈길이 간다.

전통시대의 선비들에게는 가정에 대한 효와 국가에 대한 절행의 선택적 갈등이 종종 있어 왔다. 그러나 화순옹주의 경우는 그가 여성이라는 점, 특히 왕실여성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며 그의 절행이 국가나 군왕을 위한 특별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도 이색적이다.

당시적인 예 관념으로 보면, 공신옹주와 화순옹주 이들의 효와 절행은 모두 돈독한 예행(禮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옛사람이 말하기를, ‘예출어정(禮出於情 : 예는 인정에서 나온다)’이라 했으니, 예행과 예법도 그 가치에 방점을 두되 각 시대의 인정(人情)의 흐름을 참작하여 갈등의 문제들을 재해석 해가야 할 것임을 생각하게 한다. 특히 화순옹주의 열행은 당시적인 관념이나 가치로

보면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생명이 중시되는 오늘의 관념과 가치관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결단이라는 것이다. 특정의 가치관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 국왕에게 상소하여 모순을 극복해 낸 장한 여성, 열녀 우봉이씨

#### 조선시대 예산의 열녀(烈女)

정부인(貞夫人) 우봉이씨(牛峰李氏)의 열녀 정려가 지금의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성지마을에 자리하고 있다. 우봉이씨는 덕산 출신의 동북면 병마사 정현룡(鄭見龍, 1547-1600) 장군의 부인이다. 정현룡 장군의 구국적 일대기는 앞의 <임란·호란의 극복>에서 서술한 바 있다.

조선 후기의 지리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1757-1765) 충청도 덕산현 인물조에는 정부인 우봉이씨에 대한 기사가 다음과 같이 등재되어 있다.

#### 정부인(貞夫人) 이씨

정현룡의 아내이다. 남편이 강계 판관에서 승진하여 북병사로 자리를 옮겼다. 부부가 서로 떨어져 지낸 지 12년이었다. 이씨는 그들에게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음을 근심하여 한글로 임금에게 상소하여 남편을 따르고 싶다고 했다. 이들 하나님을 낳았는데 곧바로 말을 했다. 남편이 죽자 평생 고기반찬을 먹지 않았고 발자취가 문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관아의 북쪽 내야면에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

덕산현 인물조는 충신 효자 효녀의 구분을 두지 않고 쓰고 모두 합쳐서 기록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내용이 겹칠 수 있는 인물이 많아서 그런 듯하다.

그런데 위의 내용으로 보아 정부인 이씨, 곧 우봉이씨는 열녀로 구분될 수 있고, 그에게 내려진 정려 역시 열녀(烈女) 정려로 되어 있다. 우봉이씨에 관한 기록들은 여러 버전이 있으나, 지금으로부터 240여 년 전의 기록인 위의 여지도서 기사에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실감 있게 전하고 있는 기록 하나를 가져다 읽어보자.

공의 배위는 우봉(牛峰) 이씨로 장군과 혼인 후 3개월 만에 헤어져 12년간 시댁 성지동에 사시다가 여자의 칠거지악의 하나인 무자거가 마음에 걸리고 또한 장군의 안부도 걱정 조정에 글을 올리니 선조께서 특별히 윤허하시어 역관에 분부, 부인의 행차에 침식을 보필하라고 하명을 내리셨다.

부인은 시비를 대동하고 10여일 후에 마천령에 도착, 객사에 여장을 풀고 쉬는데 밖에서 여러 사람들의 말 중에 부군인 장군의 목소리를 듣고 종자를 시켜 확인하니 장군께서 시비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아녀자가 전장터에 오느냐?”고 나무라며 빨리 모시고 가라고 호령하시니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리면서 시(詩) 한 수를 장군께 드렸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걷고 걸어서 마천령에 이르니	行行遂到 磨天嶺
동해 바다의 물 갓은 끝이 없네	東海無涯 鏡面平
천리길을 여자로 무슨 일로 왔는고	千里婦人 何事到
삼종지의 무거워 이 한 몸 가벼이 하였네	三從義重 一身經

시비를 시켜 이 시를 장군에게 드리고 집을 향해 오는데 십 여리도 채 못 와서 장군이 모셔오라는 분부로 부인은 다시 명영으로 들어가 생활하시면서 2남 1녀를 두시었다.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부인과 자녀를 고향으로 보내었다.

부인은 고향에서 장군을 기다리던 중 선조 33년에 장군의 애마가 장군의 두안(頭顙)을 물고 오니 부인이 이를 확인하고 이웃에 칠전곡(현 봉산면 옥전

리 옷발골) 명당에 두안을 안장하고 그 아래에 애마를 묻어주고 그 자손들이 지금도 별초를 하고 있다. 현종 조 장군의 녹훈이 이루어짐과 함께 조정에서 부인의 열행의 정려문 현판을 내리고 그 절의를 높이 친양하고 찹쌀과 청기와 3장을 하사 하셨는데 그 후 청기와 2장은 도난당하고 1장만 보관하고 있다.

전통시대의 용어로 삼종지도(三從之道)라는 말이 있었다. 여성은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을 따르라는 것이다. 철저히 여성의 수동적인 삶을 강요하는 봉건적 사고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우봉이씨는 혼인한지 3개월 만에 남편이 북방에서 벼슬하러 가서 나라를 지키느라고 12년 동안이나 강제로 헤어져 살아야 했다. 그러니 대를 이을 자식을 갖지도 못했다. 이런 경우 대개의 여성은 '자신의 기구한 필자려나' 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우봉이씨(牛峯李氏)는 달랐다. 당시로서는 놀랍게도 여성의 몸으로 임금 선조에게 감히 편지를 올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따라가 살게 해 달라고 상언(上言)을 했고, 선조의 승낙을 받아 쌍령(雙嶺)을 넘어 가서 전방의 남편과 재회한다. 부부의 위상을 되찾고, 또 2남 1녀를 얻어 가문의 맥을 잇기도 했다. 그리고 후에 남편이 북방의 오랑캐들과 싸우다 전사하자, 그 남편을 위해 3년상을 잘 모시고, 이후 고기반찬을 입에서 끊고 문밖을 나서지 않았다고 전한다.

조선시대의 남준여비(男尊女卑)의 시대적 한계와 그 자신이 당하고 있던 부조리한 혼인생활, 그리고 집안의 대를 이을 후손을 낳아야 한다는 당시대적 여성의 의무 등을 모두 능동적으로 잘 해결해낸 장한 여성이다. 오늘의 눈으로 보면 조선시대의 멘토 여성이라 할 수 있다.

## 예산현 매읍덕과 대홍현 황씨

### 예산현 열녀 매읍덕(每邑德)

매읍덕(每邑德)은 호장 장중연의 딸이다. 나이 23세 때 남편이 죽자, 무덤  
곁에 여막을 짓고 3년 동안 몸소 제사지내며, 소금과 장을 입에 대지 않았다.  
뒤에 부모가 절개를 뺏고 재가(再嫁)시키려 하자, 죽겠다고 다짐하고는 마침  
내 머리를 깎고 비구니(여승)가 되었다. 매읍덕 정문이 칠곡(七谷)에 있다.

(『여지도서』, 충청도 예산현, 열녀)

### 대홍현 열녀 황씨(黃氏)

학생 박성망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자 3년 동안 죽만 먹었고, 평생 고기반찬  
을 먹지 않았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부역과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여지도서』, 충청도 대홍현, 열녀)

이상의 사례들은 오늘의 예산군을 이루는 조선시대의 3개 현, 즉 예산현, 덕산  
현, 대홍현의 열녀 중에서,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열행을 한 가지 씩 발췌한  
것이다. 이들은 대개의 열녀들의 열행에서 보이는 식, 즉 '남편이 죽으면 따라서  
같이 죽는다는 식'의 수동적 방식이 아니라, 남편이 죽어도 살아남아서 죽은  
남편을 정성껏 애도하고, 또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어려운 여건을 타개해 간  
경우의 여성들이다. 특히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덕산현의 정부인 이씨(정현  
룡의 아내)의 열행이다. 이씨부인은 12년간이나 남편과 생이별을 하고 살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대를 이를 후사도 없었다. 이씨부인은 이 어려운 사정을  
한글로 써서 임금에게 상소하는 적극적 대응을 하여, 마침내 그 뜻을 이루고,  
또 고대하던 아들까지 얻어 대를 잇게 되었다는 것이니, 그 용기가 돋보인다.

## 4. 예산 충의정신의 특성

삼국시대 이래 20세기 광복(1945년)에 이르기까지 예산에서는 충의 실천이 각 시대마다 여러 형태로 연면히 이어져 왔다. 이 점이 예산 충의 정신의 첫 번째 특성이다. 임존성에서의 백제부흥운동, 고려의 강민첨장군의 거란 격퇴, 조선건국기의 불사이군, 사화기의 목숨을 건 직언과 충언, 임진 병자 양란의 극복에 앞장선 사람들, 그리고 공신옹주와 화신옹주 등 예산 여성들이 보여준 절의정신과 한말 의병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등이 충성과 절의의 정신적 맥락을 이어왔다.

둘째는 백제부흥운동과 한말 이래의 투쟁적 구국운동의 연계성이다. 임존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삼국시대의 백제부흥운동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의병운동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그 임존성을 품고 있는 예산에서 또 다시 한말 의병운동과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이 폭발적으로 분출된 것은 예산의 역사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연계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백제부흥운동기의 이 지역민의 충의정신은 그 역사적 현장과 역사 기록과 구전을 통하여 예산인에게 연면히 전해지며 각인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예산 역사의 숨은 잠재력이 되어 깊숙이 내재해 있다가, 비슷한 국망(國亡)의 상황이 재현된 시기에, 한말 의병운동과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이 폭발적으로 분출될 때, 이에 부응하여 그 간접적인 원동력이나 추동력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1906년 홍주 의병(洪州義兵)의 첫 봉기가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여기 예산의 임존성이 있는 대홍의 광시장터였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셋째는 한말 의병운동과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이 보여준 용광로 같은 뜨거운 에너지와 그 영향력의 동아시아적 파장이다. 이 시기 예산인의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은 그 범주가 중국 일본에까지 연계되고, 사상적으로는 위정척사사상(최익현 이남규 김한종)은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사상(윤봉길)과 아나키즘(무정

부주의)과도 연결(신현상의 독립운동)되어 있었다. 최고령 의병장 최익현은 대마도에 잡혀가서 ‘일본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며 단식과 풍토병으로 절사했고,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이남규는 체포되어서도 왜군의 회유에 끝까지 항거하다 절사했으며, 대한광복회 활동으로 독립자금을 모으던 김한종은 패덕하고 비협조적인 친일적 인물들을 처단하다가 잡혀서 처형되어 절사했고, 신현상은 독립자금 조달을 위한 호서은행사건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 그 일부 지금은 중국에서 무정부주의자회의 결성을 성사시켰으며, 또한 광복 후에는 김구의 비서실장, 반민 특위 등에서 맹활약을 하였다. 특히 1932년 윤봉길의 사의 상해공원 의거는 예산 충의정신의 하이라이트다. 그것은 침략자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쌍인 울분과 우리의 강고한 독립의지,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린한 폭력적 일군(日軍)에 대한 정당한 응징임을 세계만방에 알린 쾌거로서, 한국인의 기개를 온 세계에 높이 떨치고,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낸, 25세 청년의 값진 현신이 이룬 애국적 거사였다. 이를 5현이 예산의 실학정신과 예술정신의 주역인 김정희와 함께 이른바 ‘예산 6현’이라 칭해지는 인물들이다.



## 2장

### 예산의 효제 孝悌 정신

1. <의좋은 형제>의 이성만 · 이순 형제
2. 예산 선비의 돈보이는 효행
3. 정려를 받은 효자 · 효녀의 유형별 효행
4. 예산 효제 정신의 특성

전통사회에서는 충효(忠孝)를 국가 사회의 기본 덕목으로 삼았고, 특히 가정에서는 효제(孝悌)를 핵심 덕목으로 삼았다. 효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사이에 우애하는 도리'이다. 그런데 맹자는 "요순의 도(道)는 효제뿐이라"고 했다. 유가에서는 요순의 시대를 가장 이상적인 시대로 인식하는데, 그 요순시대의 도(道)로서 내건 표제어가 충도 아니고 효도 아니고 효제라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그것은 충이나 효를 경시해서가 아니라, 충도 하고 효도 하되, 효제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효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자의 『논어』에서도 보인다. 즉 "효제는 인(仁)을 이루는 근본이 된다"라 한 것이 그것이다. 유가 덕목을 총괄하는 것이 바로 인(仁)이다. 그런데 그 인이라는 것도 효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효제의 가치를 새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전통사회에서 이렇게 효제가 중시된 그 까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효제가 다만 가정에서의 도리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그것이 사회와 국가로 확장되면, 곧 임금과 나라에 대해서는 충(忠)이 되고, 윗사람과 어른에 대해서는 공경으로 발전하여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의 밑거름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효자 집에서 충신 난다라 했고, 공자도 또한 들어와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가서는 어른을 공경[제(悌)]하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효제가 가정윤리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와 국가의 윤리로 확장해 갈 수 있는 덕목이지만, 그 출발점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가정에서의 도리이다. 그러므로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와 국가도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관점은 오늘날 많이 약해지고 희석되었지만, 아직 현대사회에서도 그 명맥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효제를 하되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가 논란의 관건인 것 같다. 왜냐하면 윤리 도덕도 그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불가피하게 시대적 시의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그것은 원리상의 문제라 기보다도 방법상의 문제가 관건이 되곤 한다. 효제의 문제도 예외가 아닐 것이

다. 그렇다면 먼저 효제의 실천사례들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예산에서는 효행이 돋보이는 이름난 선비들도 많았고, 또 효자정려를 받은 인물도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배출되었다. 그런데 이에 비해 효제(孝悌)의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고, 또 그 구체적인 사례를 찾기도 쉽지가 않다. 아마도 이 점은 다른 지역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인 듯하다. 전통시대에는 수직적 사회구조가 중시되어 대개 효(孝)에 방점을 두고, 수평적 여백이 보이는 제(悌)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산에는 특별히 돋보이는 독특한 효제로 정려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주목된다. 1964년 이후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의좋은 형제>의 주인공인 이성만 이순 형제의 효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의 효제 실천은 따뜻하고 감동적이며, 그 부모사랑과 형제사랑이 남다른 데가 있어서 특별하다. 당시의 교과서에는 주인공들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았다. 어느 지역의 이야기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 기록과 후에 발견된 관련 빗돌의 기록에는 이들의 이름이 선명하다. 그 빗돌, 즉 이성만형제효제비가 현재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의 대흥동현 앞에 세워진 비각 안에 우뚝 서 있다.

## 1. <의 좋은 형제>의 이성만 · 이순 형제

이성만 이순 형제의 효제 이야기는 교과서 <의 좋은 형제>로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 있어서 너무도 유명하지만, 그 이야기의 연원을 풀어 가는 것은 다소 복잡한 데가 있다. 그것은 관련 자료의 출로가 셋이어서 그렇다. 하나는 『세종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자료이고, 또 하나는 <이성만형제효제비>라는 금석문 자료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 마을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의 좋은 형제> 버전의 설화 자료가 그것이다.

따라서 독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설화를 이전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버전으로 읽고 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의 좋은 형제 공원

## 설화 버전의 <의좋은 형제>

- 초등학교 2학년 교재(1964년) 수록 내용

옛날 어느 시골에 형제가 의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같은 논에 벼를 심어서 부지런히 김을 매고 거름을 주어 잘 가꾸었습니다. 벼는 무럭무럭 자라서 가을이 되자 곧 벼를 들이게 되었습니다.

“형님, 벼가 잘 되었지요. 이렇게 잘 여물었어요”

“참 잘 되었다. 언제 곧 베어야 할 거야”

누렇게 익은 논을 바라보며 형제는 기뻐하였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부터 형제는 벼를 베기 시작하였습니다.

“형님은 동쪽에서 베어 오세요. 저는 서쪽에서 베어갈 테니”

“그래라, 누가 더 많이 베나 내기를 할까?”

형제는 부지런히 벼를 베었습니다. 형제는 온통 땅에 젖었지만, 쉬지 않고 열심히 베어나갔습니다. 넓은 논도 어느덧 다 베어 훤한 별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누가 많이 베었나 한군데 쟁아보자”

형제는 자기가 벤 벼를 각각 쟁기 시작하였습니다. 형님은 동쪽에 커다란 날가리가 되게 벼를 쟁았습니다. 동생은 서쪽에 높다랗게 쟁았습니다.

“누가 많이 베었을까?”

서로 대보았지만 둘은 똑같았습니다. 형제는 서로 한 더미씩 의좋게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밤, 동생은 저녁을 먹고 나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벼를 형님과 똑같이 나누어 가졌지만, 잘 생각해 보니 암만해도 안 됐어. 형님 택엔 식구가 많거든”

동생은 형님에게 벼를 보내드리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을 하였다가는 형님이 받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옳지. 형님 몰래 갖다 드려야지”

동생은 깜깜한 논으로 가서 벼를 나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만하면 형님이 더 많겠지”

동생은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형님도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동생과 같이 똑같이 벼를 나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했어.”

동생은 살림을 새로 시작했으니까 살림에 드는 것이 더 많을 거야”

형님은 밤중에 논으로 나갔습니다.

“영차!”

형님은 자기의 벼를 동생의 날가리에 갖다 쌓았습니다.

“자, 이만하면 되겠지. 아마 살림에 도움이 될 거야”

형님도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에 퍽 기뻤습니다.

날이 밝아서 해가 동쪽 하늘에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생은 눈에 나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에 그만큼 많은 벼를 형님 날가리에 옮겨놓았는데, 이게 어찌 된 셈입니까? 벼는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도 하다”

형님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형님은 또 몰래 논으로 가서 자기의 벼를 동생 날가리에 쌓았습니다.

“이만하면 동생 것이 더 많겠지”

형님은 기뻐하며 동생의 날가리를 쳐다보았습니다. 형님이 집으로 돌아간 뒤 이번에는 동생이 논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벼를 꿩꿍 짚어지고 가서 형님의 날가리에 잔뜩 쌓았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형님과 동생은 몰래 다시 눈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날가리에는 여전히 똑같이 쌓여있었습니다.

“참 이상도 하다”

“참 이상도 하다”

형님과 동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까닭을 몰랐습니다. 다시 밤이 되자 형님과 동생은 몰래 논으로 가서 또 벼를 나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저쪽에서 누가 옵니다. 형님은 우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구름 사이에서 달님이 환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구, 형님 아니십니까?”

“아, 너였구나”

이제야 형제는 벼 날가리가 줄어들지 않은 까닭을 깨달았습니다. 형제는 저도 모르게 벗단을 내던지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얼싸안았습니다. 하늘에서 달님이 웃으며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읽어도 여전히 감동이 큰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예산의 효제 실천의 자료로 설정하려면 여기서 숙제로 남는 문제들이 있다. 하나는 이야기에 나오는 ‘어느 시골’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가의 장소성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등장하는 주인공 형제의 이름이 무엇이며, 또 그들이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었는가의 실제성의 문제와 시간성의 문제 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관련 문헌자료를 통해서 이를 검증해 보자.

### 『세종실록』으로 보는 이성만·이순 형제의 효제

세종실록에는 위의 <의좋은 형제>에서 궁금했던 큰 문제들이 단번에 해소될 수 있는 기사가 수록되어 있어서 주목된다. 그것은 세종 2년(1420) 1월 21일자 실록 기사인데, 필자가 독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그것을 편의상 (가) (나) (다)의 셋으로 나누고, 약간의 설명을 덧붙였다. 한 단락씩 꼼꼼히 읽다 보면 예산의 인물 이성만·이순 형제를 알아가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다.

(가) 임금이 처음 즉위하여 중외에 교서를 내리어, 효자·절부(節婦)의부(義夫)·순손(順孫)이 있는 곳을 찾아 실적(實迹)으로 아뢰라고 했더니, 무릇 수백인이 되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그 중에 특행(特行)이 있는

자를 추리라” 하고, 정초를 명하여 예조에 올린 행장 기록을 가지고 좌우 의정과 의논한 결과 무릇 41인이었다.

이것은 세종이 전국의 효자 효녀 효부 등을 탐문하여 조정에 보고하라고 명했는데, 대상자가 수백 명에 이르렀으므로, 임금이 대강 추리라고 명했고, 또 정초에게 명하여 좌상 우상과 의논하여 선정하게 한 결과 41명이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세종의 적극적인 윤리 중진의 문화정책과 지방관료 및 백성들의 호응도를 짐작케 하고, 또 최종 선발된 사람들이 수백 명 중 41인인 점으로 보아 모두 출중한 효행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대홍 호장(大興戶長) 이성만(李成萬)은 그 아우 순(順)과 더불어 부모를 잘 섬겨 마음을 다하여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고, 매양 봄가을에는 주식(酒食)을 갖추어 부모의 사랑하는 친구를 맞아서 연락(宴樂)함으로써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죽은 후에는, 형은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고, 아우는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며, 매양 아침저녁에 형제가 서로 가고 오고 하여 한 상에서 같이 먹고, 비록 한 개의 음식을 얻어도 반드시 함께 먹었다.

이것은 세종 초에 효행으로 선발된 자와 그들의 효제 실천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부분인데, 그 첫 줄에 ‘대홍 호장(大興戶長) 이성만(李成萬)은 그 아우 순(順)과 더불어’라고 하여 이성만 이순 형제의 이름이 선명하게 나오고, 또 대홍이라는 지역명과 대홍호장이라는 직위가 선명하게 밝혀지고 있다. 이로써 앞의 대홍에서 구전되어 내려온 <의좋은 형제>의 주인공과 그 지역이 확실하게 밝혀졌다 하겠다.

그런데 이 실록 자료의 본문에서는 이성만 이순 형제와 그들의 효제행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는 이들의 나이가 최장이었거나, 아니면 이들

의 효제행이 가장 돋보이는 것 때문이었을 것 같으나 자세히는 알 수가 없다. 이들의 부모에 대한 효행의 실천 내용은 대개 세 가지이다. ①마음을 다하여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고, ②매양 봄가을에는 주식(酒食)을 갖추어 부모의 사랑하는 친구를 맞아서 연락(宴樂 : 잔치를 벌여 즐김)함으로써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③부모 사후에는 형은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고, 아우는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는 여묘살이를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돋보이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봉양했다는 것이고, 가장 돋보이는 것은 해마다 춘추로 부모의 친지를 모셔 와서 술과 음식을 갖추어 잔치를 베풀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점이다. 우리가 앞에서 본 이른바 공자의 4효(孝)에 덧붙여 둘 만한 아름다운 효행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형제의 우애를 보인 것으로는 부모의 묘소에 대한 여묘살이를 형제가 한 분씩 맡아서 행하였고, 아침저녁으로 형제가 가고오고 하여 한 상에서 같이 먹고, 비록 한 개의 음식을 얻어도 반드시 함께 먹었다는 것이다.

(다) 임금이 명하여 이성만·이순 … 등에게는 그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포창하고, 그 집의 요역(徭役)을 면제하게 하고, 권경·전사례 … 등은 요량하여서 벼슬을 주라고 하였다.

이것은 효행 심사의 결과에 따른 포상을 적고 있는 대목이다. 세종이 명하기를, “이성만·이순 … 등에게는 그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포창하고, 그 집의 요역(徭役)을 면제하게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포상의 내용은 두 가지이다. 정려문을 세워주어 그 효행을 널리 알리고 격려하는 것과 그 집에 부과된 부역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권경 등에게는 벼슬을 주라고 한 것을 보면 그때도 효행으로 벼슬을 얻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성만 형제는 이에서는 제외되었다. 아마도 그것은 이때 그의 나이와 관련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이나 『여지도서』(1760년 경) 등 지리지에 그가 모두 ‘고려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아마도

당시에는 인물의 생년을 기준으로 그 인물의 소속 시기를 구분한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점을 고려하고, 또 당시 그들의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때였음을 고려하여 계산한다면, 이 당시 이성만의 나이는 아마도 50대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문헌자료인 세종실록 기사를 통하여 이성만 이순 형제의 돈독한 효행과 제행(우애 실천)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가 있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의좋은 형제>에서는 알 수 없었던 이야기의 주인공 형제의 이름과 그 지역이 대홍, 곧 예산이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다만 이들 형제의 볏단 나르기가 실록 기록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특별한 효제실천을 보고, 또 형제의 볏단 나르기 이야기가 예산 대홍의 구전설화인 점을 고려하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과 그 지역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 하겠다. 그러면 남은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 다음으로는 앞의 두 가지 자료에서 미처 얻지 못한 해명들을 <형제효제비>를 통해서 보충해 보기로 하자.

### <이성만형제효제비>에 수록된 이성만 형제의 효제실천과 포상

마지막으로 이성만 형제의 효제실천이 금석문으로 새겨져 있는 『이성만형제효제비』를 검토해 보자. 이 형제비(1497년)는 당연히 앞의 세종실록 기사(1420년)에 근거하여 세워진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앞의 내용을 보완하는 몇 가지 추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주목된다.

내용상 비문의 구성은 대개 다음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 (가) 영락 16년(세종 즉위년, 1418) 11월 3일, 지신사 하연이 삼가 왕지를  
받들어 '의리가 있는 남자와 절개가 있는 여자, 효성스런 아들과 손자를  
찾아보고 보고할 일'로 각도에 공문서를 보낸 일이 있었다.

이것은 이 비의 건립자가 먼저 이 비를 세우게 된 연원적 배경을 간단히 설명한 것이다. 즉, 세종 초에 지신사(후일의 도승자) 하연이 ‘왕지(王旨, 왕의 명령서로 후일의 교지를)를 받들어서 의리 있는 남자(義夫), 절개 있는 여자(節婦), 효성스런 아들(효자(孝子)과 손자(順孫)를 찾아서 보고할 일’로 각도에 공문을 띄웠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가가 효자·효녀·효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포상하고자 한 것이었다. 아마도 그 공문을 띄운 날자가 1418년(세종 1) 11월 3일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기사는 세종실록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세종 실록의 1420년(세종 2) 1월 21일자의 실록 기사는 효행 포상자를 결정하여 반포하고 또 그들에게 포상한 날짜였음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당시의 국가적인 효행 실태 조사와 포상자 선정 및 포상은 조사 공문을 보낸 날로부터 약 15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충청도 대홍 호장 이성만 이순 등은 부모가 살아 계실 적에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봉양하고, 봄가을로 부모가 사랑하는 친구와 친척들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부모가 돌아 가신 뒤에는 형은 어머니 무덤을 지키고 동생은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면서 아침에는 형이 아우의 집에 이르고 저녁에는 아우가 형의 집에 나아가서 아침저녁으로 서로 맞잡고 밥을 먹었고, 한 가지 만난 것을 얻으면 모이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고 임금께 상신을 올려 보고했다.

이것은 이들 형제의 효제의 실상을 적은 것이다. 이것을 앞의 실록기사와 비교해 보면 부모에 대한 효행은 동일한데, 다만 형제간의 제행(悌行)에 있어서는 “아침에는 형이 아우의 집을 찾아가고, 저녁에는 아우가 형의 집을 찾아가서”라 하여, 실록 기사에서 “아침저녁에 형제가 서로 가고오고 하여”라는 것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다) 앞서 대홍호장 이성만 이순 등을 임금께서 궐내로 불러 정려(旌閭)를 내리시고,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조심하고 삼가고 지켜서 가풍(家風)을 떨어뜨리지 말고 더욱 더 힘쓰라 하시고 영세토록 전하는 교훈이 되게 하셨다.

– 홍치10년(연산 3년, 1497) 정사 2월 일 세우고 표하다

이것은 세종 임금이 이들 형제의 효제를 귀하게 여겨 이들을 대궐로 불러 정표를 내리고 크게 격려하였다는 효행 포상의 기사이다. 호장(戶長)은 향족의 수장으로서 당시로서는 향촌의 지배세력이기는 하지만 국왕이 대궐로 특별히 초청할 정도의 지위는 아니다. 그런데도 세종은 이들을 대궐에 초청하여 정려를 내려주고, 또 자자손손이 조심하고 삼가하여 효자집의 가풍을 잘 지키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는 세종의 적극적인 문화정책의 실상을 보여주는 측면이겠으나, 또한 조선초기의 왕실에서의 왕자의 난이나 그 자신과 양녕대군과의 갈등구조를 의식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때 세종이 이성만 형제를 대궐로 불러 이들을 특별히 격려했다는 것은 세종의 이들 형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알게 한다. 또 이 기사가 앞의 실록기사에는 보이지 않고, 여기 금석문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점도 그것이 공적 행사로서가 아니라 세종의 사적 관심과 배려의 결과였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 <이성만형제 효제비>에 담긴 시사점

그러면 이성만형제 효제비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그 의의는 무엇일까?

첫째는 이 형제효제비(兄弟孝悌碑)의 건립(建立)이 주는 시사점이다. 그 비문에 의하면 이 효제비가 세워진 연대는 1497년(연산군 3)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들 형제가 정려를 받은 때(1420년)로부터 거의 80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러면 이때

비가 세워진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이들 이성만 이순 형제가 세종 때 정려를 받은 후 약 8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자, 예산 대홍의 후세인들이 이들 형제의 아름다운 효제행이 후대에 잊혀질까 염려하여 석비를 세운 것으로 생각된다. 예산인들의 전통 계승의 정신이 진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인의 전통 계승의식의 상징이라 할 만하다.

둘째는 이 ‘형제효제비’의 명칭(名稱)이 주는 시사점이다. 사실상 <이성만 형제 효제비>라 할 때의 ‘효제비(孝悌碑)’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상당히 생경한 용어이다. 그것은 흔치 않은 제목이며, 사실상 전국 어디서도 ‘효제비’라는 이름은 잘 찾았지 않는다. 아마도 예산의 형제효제비는 거의 유일한 효제비일 것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생기는 두 가지의 의문이 있다. 하나는 ‘효제’가 효자선발의 대상 명목에 없었는데도 특히 예산에서 왜 이렇게 부각되었는가 하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맹자가 ‘요순의 도(道)는 효제뿐’이라고 하고, 또 공자도 ‘효제가 인(仁)을 이루는 근본’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왜 우리 역사에는 효제의 표창이나 효제비의 건립이 이리도 없었던가 하는 점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종 때 국가에서 찾아내어 표창하고자 했던 것은 효자(孝子)·절부(節婦)·의부(義夫)·순손(順孫)이었다. 거기에 ‘효제(孝悌)’가 별도의 명목으로 들어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이성만 형제가 주목을 받고 정려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성만 형제의 돋보기한 효제 실천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감동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세종과 당시 대신들에게 크게 공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두고두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예행으로 믿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도 효뿐만 아니라 효제를 추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이후의 조선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다만 이후의 조선역사에서는 주자성리학이 조선유학의 강고한 기반이 되고, 따라서 주자예학, 특히 소학과 주자가례가 조선예학의 틀로 굳어지면서 수평적 여백을

지닌 효제보다는 수직적 논리인 효에 더 방점이 두어져서, 효제에 대한 표창이나 효제비의 건립 등이 찾아보기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이성만 이순 형제의 효제비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예산이 요순시대의 도(道)가 되고 공자의 인(仁)을 이루는 귀한 덕목인 효제(孝悌)를 중시하고, 그 실천을 마을 공덕(公德)으로 길이 기리고자 한 '효제(孝悌)'의 대표 고장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의 형제효제비는 예산과 예산인들의 선도적 도덕지향성의 상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2. 예산 선비의 돋보이는 효행

### 사회기 예산 명현의 효행 – 김구, 민회현

조선의 역사에서 사화기는 대개 16세기 전반기를 지칭한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등 이른바 '4대 사화'가 모두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시기적으로 예산 명현들의 절행과 관련된 사화는 대개 1519년(중종 14)에 일어난 기묘사화이고, 그 중심적 인물들은 김구, 민회현, 성수종 등이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예산의 출중한 효자였음은 주목되는 사실이다. 그것은 종종대의 기묘명현들이 추구한 사회사상과 내적인 연대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506년의 중종반정은 연산군의 무도한 패륜정치를 바로잡고 새로운 도덕적 사회를 이루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반정 초 중종은 도덕 사회의 회복과 조선의 중흥을 추구하여 이를 이끌어 갈 참신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였는데, 조광조 김정 김식 등은 그 중심이 된 인물들이었다. 그 대표적 인물인 조광조는 도학정치를 추구하는 학맥을 잇고 있었다. 그것은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이어지는 이른바 도통적 학맥이었다. 조광조는 김굉필에게서 공부했고, 김굉필은 김종직에게서 배웠는데, 특히 김굉필은 소학(小學)에 심취하여 스스로를 '소학 동자'라고 일컬을 정도였다.

원래 소학은 송나라의 유자징이 스승 주자의 권유로 아동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1187년에 편찬한 유교적 수신서이다. 그것은 유교사회의 도덕규범 중에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가려 뽑은 것인데, 이 책에 대한 주자의 영향에 방점이 두어지면서 주자의 저서로 인식되었고, 점차 성리학의 입문서로서의 구실을 했다.

따라서 조광조 김정 등 기묘명현들은 소학을 매우 중시했고, 향약(鄉約)과

함께 이 책의 보급에 힘썼다. 내용상 소학은 오륜(親·忠·別·序·信)의 덕목이 강조되었고, 특히 부자유친의 효(孝) 관념이 그 대중을 이루며 다른 덕목들의 근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향약도 덕업상권에서 효(孝)가 우선해서 나오고, 뒤의 그 벌칙 조항에서도 불효(不孝)에 대한 처벌이 가장 먼저 수록되어 있었다. 이러한 소학과 향약이 중시되고, 특히 소학이 널리 보급되던 시대적 분위기는 효의 실천을 선도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이 시기 예산 명현들의 출중한 효행은 그것을 입증해주는 하나의 단서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묘명현인 자암 김구도 손꼽히는 효자이다. 그는 서울 인수방(仁壽坊)에서 살았으나, 그의 세거지는 충청도 예산이다. 그는 1513년(중종 6)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관직에 나간 뒤 홍문관 부제학에 이르렀으나, 1519년 11월에 남곤(南袞)·심정(沈貞) 등 훈구 세력이 기묘사화를 일으켜 그는 개령(開寧)에 유배되었다가 수개월 뒤 남해로 이배되었다. 남해에 이배된 지 13년 만에 임파(臨陂)로 옮겼다가, 2년 뒤에 풀려나와 고향 예산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 긴 유배 기간 동안에 부모는 이미 모두 돌아가지고 무덤에는 풀만 무성했다. 김구는 늦게나마 부모 무덤에 곡(哭)하고, 추복(追復)을 입어 못 다한 정(情)을 표해 드리고자 했다. 추복이란 상(喪)을 당한 때에 사정이 있어 입지 못한 상복(喪服)을 뒷날에 가서 입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가 아침저녁으로 묘소 앞에서 눈물을 흘려 그 자리에 초목이 모두 말랐다 했다. 지극한 효심의 눈물이 샘물이 되어 묘역을 적셔 잔디가 말라 죽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병이 되어 시묘한 지 1년 만에 죽으니 그의 나이 47세 때였다.

또한 이 시기 예산의 이름난 선비들 중 효렴(孝廉)한 사람으로 뽑혀 관직에 등용되고 승진한 대표적인 인물은 민회현(閔懷賢, 1472-1540)이다. 민회현은 두 살에 부친이 사망하였고, 16세에 모친상을 당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민회현은 몸소 흙을 짓고 잔디를 가져다가 봉분을 만들었다. 그리고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했는데 날마다 죽만 먹고 정성과 예법을 다했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버지

를 미처 모시지 못했던 정성이 어머니를 모시는 데 더욱 떨친 것이라” 했다. 1496년(연산군 2)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는데, 후에 효행이 있는 사람과 청렴한 사람으로 추천되어 참봉이 되었고, 후에 호조좌랑이 되었다. 그리고 1519년에는 현량과에 뽑혀서 정언에 올랐으나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고향마을로 쫓겨나 산천을 벗 삼아 살다가 69세로 죽었다. 1538년에 직첩을 훈급받고 좌랑에 복직되었다.

## 문효공 조익과 효교리의 조극선의 효행

### 문효공 조익의 효심과 효행

조익(趙翼, 1579-1655)의 자는 비경(飛卿), 호는 포자(浦齋), 존재(存齋)이며, 본관은 풍양이고,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1579년(선조 12) 서울 창신동에서 아버지 조영중과 어머니 해평윤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15세에 이정구에게 잠시 수학하였고, 17세에 윤근수에게 문장을 배웠다. 어려서부터 장유 최명길 이시백과 절친하여 사우정(四友情)이라고 불렸다.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고 예학에도 밝았는데, 예학의 종장인 『사계문인록』에는 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조익은 24세가 되던 1602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삼사(三司)를 두루 거쳤다. 이 무렵 광해군 초기에 권력을 잡은 이이첨이 서로 친하게 지내기를 바라고 전랑(銓郎)에 천거하려 하였으나, 조익이 끝내 응답하지 않았고, 또 정인홍이 이언적·이황 등 제현(諸賢)을 공박하여 배척할 때에 조익이 홍문관에 있었는데 동료와 함께 상차하여 그



포자 조익

죄를 논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고산 칠방으로 좌천되었다. 곧이어 광해군 정권에 의해 인목대비가 유폐되어 윤리 기강이 아주 무너진 것을 보고 곧 벼슬을 버리고 고향 광주(廣州)로 돌아갔다가 충청도 신창으로 이주하여 은거하며 한번도 성시(城市)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후 1623년 인조 반정 후에 이조좌랑으로 다시 출사하여 직제학 등을 거쳐 동부승지에 올랐고, 1633년 어머니의 삼년상을 마친 뒤 관직에 복귀하여 대사간, 이조참판, 대사성, 예조판서, 대사헌, 한성부판윤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이원익을 도와 대동법의 관리와 확대 실시에 적극 참여하였다. 1636년 예조판서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 피난 중에 길을 잊은 아버지를 찾느라 남한산성에 호종하지 못하여 관직을 사퇴당하고 유배되었다가 돌아왔고, 효종대에 아버지의 상복을 벗고 조정에 돌아와서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올랐다.

한편, 조익은 학문에도 정진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일찍이 산림 박지계와 문과 장원 권득기가 격물치지로 논쟁이 끝나지 않자, 이들은 조익에게 글을 보내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자문을 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익은 효종대에 『곤지록(困知錄)』·『중용주해(中庸註解)』·『대학주해(大學註解)』·『서경천설(書經淺說)』 등을 지어 임금에게 바쳤는데, 이 저술들은 주자(朱子)의 장구(章句)를 크게 고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출기에서도 이를 문제 삼기도 하였지만, 대개 사람들은 그것을 감히 헐뜯지 못했다고 한다. 조익의 학술의 심오함과 그 정밀함을 일러 주는 대목이다.

조익은 치사하고 고향인 경기도 광주에서 77세로 죽었다. 후일 조정에서는 그에게 문효(文孝)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의 시호가 문효인 것은 그의 호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예산의 대홍현 동화산(東華山)에 장례하였다. 후일 이로 인하여 이전에 그를 향사하던 신창의 도산서원이 묘 아래로 이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산서원에는 조익과 그의 문인인 조극선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 『인조실록』에 수록된 조익의 효심과 효행

1636년 조익이 예조판서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그는 직책을 따라 종묘를 강화도로 옮기고 뒤이어 인조를 호종하려고 했다. 그런데 아들 진양(進陽)으로 하여금 강화로 모시게 하였던 80세의 아버지가 도중에 실종되어 며칠 동안 아버지를 찾느라 직무를 이탈하여 인조를 호종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호란이 끝난 뒤 그 죄가 거론되어 판직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지만 그 까닭이 효성을 다하고자 한 데 있었고 아버지를 강화도로 도피시킨 뒤에는 윤계(尹啓), 심지원(沈之源) 등과 함께 경기지역의 패잔병 등을 모아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적을 공격하여 입성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참작되어 그해 12월에 석방되었다.

그로부터 3년 후, 조익은 원손보양관(元孫輔養官)으로 조정에 들라는 하명을 받았으나 늙은 아버지를 봉양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뒤이어 예조판서, 이조판서, 대사헌의 직이 내려졌지만, 모두 사양하다가 아버지가 죽고 상복을 벗게 되자 1648년 좌참찬이 되어 다시 조정에 나갔다.

그의 졸기(卒記)에서는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기고, 자체로서의 일을 늙어도 게을리 하지 않고 지켰다. 상중에 있을 때에는 3년 동안 죽을 먹고 밤낮으로 호곡하여 피가 침석(枕席)을 적셨다. … 나이는 일흔 일곱이었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라 했다.

## 야사에 전하는 조익의 효(孝)

아버지 영중(瑩中)이 나이 89세에 항상 대변이 뭉치는 병을 앓았는데, 공이 벼슬이 정경에 올라있고 나이가 60세가 지났는데도 항상 손가락에 기름을 발라서 비벼내고, 주야로 한 방에 거처하였다. 그때 아버지는 매양 혼자 말하기를, “내 사촌 조판서가 나를 정성껏 사랑한다”라 하였으니, 이는 대개 노흔

(老昏, 늙어서 정신이 흐림)해서 그가 아들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또 자기가 씹어 먹던 약과를 요 밑에 두었다가 이것을 나누어서 공에게 주면, 공은 노인의 뜻에 거슬릴까 두려워하여 더러운 것도 씻지 않고 앞에 앉아서 달게 먹었다.(『조야집요(朝野輯要)』)

아버지의 나이가 89세일 때 조익의 나이도 이미 60세가 넘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60 노인이 90 노인을 돌보는 일이었다. 오늘날 여전에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조익은 자기를 당신의 사촌으로 부르는 치매 걸린 아버지를 위하여 변비문제를 손수 해결해 드리고, 또 아버지가 드시다가 요 밑에 감춰 두었던 약과를 씻지도 않고 받아서 달게 먹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자 4효에 색난(색난: 色難, 얼굴색을 가지런히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치매 걸린 아버지에 대해서도 혹 그 마음이 편치 않을까 걱정하여 그가 그리했다는 것이니. 참으로 진정한 효자라 아니할 수 없다.

### 효종도 존중했던 학행, 효교리의 효자 조극선

조극선(趙克善, 1595-1658)의 자는 유저(有諸), 호는 야곡(冶谷)이고, 시호는 문목(文穆)이며, 본관은 한양이다. 1595년(선조 28) 예산에서 아버지 조경진(趙景璉)과 어머니 공주 이씨(진사 이치림의 妞)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처음 이명준(李命俊)에게 나이가서 주자서 등을 배웠는데, 후에 그의 권고로 박지계(朴知誠) · 조익(趙翼)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성리학과 예설에 밝았으며 효행으로 이름이 있었다.

29세가 되던 1623년(인조 1) 인조 때 학행으로 추천을 받아 동몽교관(童蒙敎官)이 되었고, 이어서 공조좌랑 호조 정랑 등 여러 벼슬을 역임하였다. 1636년 이조 정랑으로 재직할 때에는 시폐(時弊)와 자강지책(自強之策)을 진언하였다. 이어서 그는 면친 군수를 잠시 지냈으나, 병자호란 당시에는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다.

병자호란 소식을 듣고 남한산성으로 달려가다가 천안에서 길이 막혀 부모와 함께 해도(海島)로 피난하였다. 이후 1637년 순창군수, 형조정랑 등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다가 1648년(인조 26)에 온양 군수로 나갔다. 그해에 그는 상소하여 “고 참판 이명준이 일생을 청백하게 보냈다는 것은 온 세상이 알고 있는 바이니, 포장(褒獎)하는 은전이 있어야 합니다”라 하여 청백한 삶을 살다 간 스승의 선비적 삶을 국가가 포장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하여 이명준에게 의정부 좌찬성이 추증되었고, 그의 자손들을 녹용하도록 하였다.

55세가 되던 1649(효종 즉위년) 인조가 서거하고 봉림대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곧 효종이었다. 효종은 이미 대군 시절부터 북벌(北伐)에의 뜻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즉위하자 곧 널리 인재를 구하여 북벌의지의 꿈을 펴 보였다. 그런데 마침 이때 스승 포저 조익이 정승이 되었고, 조익이 그를 친거하여 성균관 사업(司業, 정4품)에 제수되었다. 원래 사업(司業)은 인조반정 초에 인조가 재야의 숨은 산림을 불러오기 위하여 성균관 유생의 학업을 지도하는 산림직으로 만든 것으로, 사계 김장생이 처음 이 직을 제수 받았다. 이로써 보면 조극선은 일단 당대의 후보 산림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만한 자격이 없다고 극구 사양하여 나가지 않았고, 효종 3년(1652)년 순창군수로 나가 대개 3년 정도 재임하였는데, 선정을 베풀어 고을 백성들이 청덕비(淸德碑)를 세웠다.

이후에 그는 익산군수 공조정랑 등을 제수 받아 간혹 벼슬에 나갔으나 대개는 사양하고 학문에 집중하였다. 이후 1657년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에 임명된 되고, 이듬해인 1658년(효종 9) 정월에 장령에 임명되어 경연 자리에 출입하곤 했다. 그런데 그해에 그는 대궐에서 급성 중풍에 걸려서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이때 효종 임금이 입고 있던 갖옷을 벗어 덮어주면서 위사에게 명령하여 수레에 태워 보내도록 했으나, 집에 돌아와 이를 만에 별세하였다. 향년 64세였다. 조극선이 죽자 임금이 매우 슬퍼하며 장사치를 때 쓸 옷가지와 널을 모두 관청에서 갖추어주도록 명했다. 1666년(현종 7)에 정문을 세우고 표창하도록

명령했다. 이듬해 또 학문과 덕행이 있으며 청렴결백했다 하여 이조참의를 증직 했다.

그는 처음 덕산 대성산에 묻혔다가 뒤에 부덕산 통산(봉산면 시동리)으로 이장하였다. 묘 주변에 신도비, 효자문, 어제각(御製閣)이 있고, 어제각 안에는 친필 어제가 보관되어 있다. 사후에 이조판서에 증직되었으며, 시호는 문목이다. 도고의 도산서원과 덕산 회암서원에 배향되었다.



조극선 신도비

### 조극선의 효행

조극선은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효가 지극하여 효자로 이름이 났었다. 그는 12세에 어머니 상을 당했다. 어머니는 생전에 늘 오이를 좋아했는데 겨울에는 오이를 구할 수 없어 그는 늘 애를 태우곤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는 마음껏 오이를 구해드리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평생 오이를 입에 대지

않았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눈이 올 때마다 묘에 가서 눈을 쓸었고, 또 장마 때에는 비를 무릅쓰고 산소에 올라가 혹 피해가 없는지 묘를 두루 살폈다. 한번은 무덤이 있는 산에 불이 난 적이 있는데 불길이 장차 무덤에 미칠 형편이었다. 하늘에 대고 통곡하니 갑자기 비가 쏟아져 불길이 잡혔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동한 것이라 했다.

인조 때 그는 전국에서 학행(學行)이 있는 자를 뽑을 때 천거되어 처음 벼슬에 나갔다. 한양에서 벼슬하고 있을 때도 그는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지를 섬겼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아버지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렸으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정월과 동지에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 향불을 피우고 아버지가 계신 시골을 향해 절을 올렸다.

후에 아버지가 칠순에 이르러 중풍(中風)에 걸렸다. 아버지가 자리에 누우신 지 5년 동안 그는 잠시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의원이 침을 놓을 때에는 먼저 자신의 몸에 침을 놓아 시험하게 하고 뚩과 오줌으로 더럽혀진 옷과 이불은 손수 뺏았다. 아버지의 병세가 갑자기 위독해졌을 때는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그 피를 내어 드리니 얼마간 목숨을 연장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있으면서 다른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는데 오직 젊어서부터 좋아했던 회 만큼은 즐겨 찾았다. 그리하여 조극선은 몸소 낚싯대를 들고 강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 아버지께 드렸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 자신도 두 번 다시 회를 입에 대지 않았다.

부친상을 당하자 그는 물에 거친 밥을 말아 그것을 마시고 채소나 간장조차 먹지 않았다. 또 제사를 지내는 날에는 밤새도록 자지 않고 제사를 마친 뒤에도 관과 띠를 벗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계모를 얻었는데 조극선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친 부모처럼 계모를 받들었다. 또 매씨가 과부가 되어 가난해지자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출가시켰다. 또 종족과 향리에서 미천한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고 애경사도 극진히 쟁겼다.

조극선은 계모를 섬김에도 사랑과 공경을 극진히 했고, 그가 건너다녔던 다리가 있다 하여 마을 이름이 효교리(孝橋里)가 되었다. 국가에서 그에게 내린 효자정문은 현재 봉산면 시동리에 있다.

### 효종대왕도 인정했던 조극선의 학행

효종대왕은 조선의 역대 왕 중에 효성이 지극한 왕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시호가 효종인 데서도 이를 짐작할 수가 있다. 효종은 조극선의 돈독한 효심과 그의 학행을 아름답게 보아 그에게 특별한 사랑과 배려를 베풀곤 했다. 다음은 『효종실록』에 수록된 「효종 대왕 행장(行狀)」의 일부이다. (「효종 행장」을 지은 사람은 우암 송시열이다)

조극선(趙克善)이 병들었을 적에는 털옷을 하사하여 덮어주고 내의를 보내 구원하여 치료했으며, 그가 죽었을 때에는 호조의 낭관(郎官)으로 하여금 상가 일을 다스리게 하는 한편 날마다 중사(中使)를 보내어 보살피게 하였다. 그리고 의금(衣衾) · 관염(棺斂)을 예(禮)를 갖추어 극진히 하였으며, 관곽과 분묘에 드는 비용도 모두 관(官)에서 갖추어주게 하였다. 『효종실록』 1권, 효종 대왕 행장(行狀)

이 사실만 봐도 조극선의 효심과 학행이 어떠했고, 또 그에 대한 다시 사람들의 평이 어떠했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 설화로 보는 조극선의 효행

조극선은 어려서부터 부모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면 항상 동구 밖까지 나와 기다렸다가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마을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그 동구 밖은

지금 비석이 서 있는 그 자리라 한다.

어느 날 아버지 조경진이 외출하여 덕산 현감 이담과 함께 늦은 밤까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가 밤이 늦었음을 알고는 곧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런데 밖으로 나서다 보니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현감이 그에게 밤도 늦었고 비도 오니 자고 갈 것을 권면하였다. 그러나 조경진은 자식이 밖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끝내 고집하였다. 그러나 현감은 늦은 밤이고 비까지 이렇게 내리는데 설마 그의 아들이 나와서 기다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같이 가서 과연 그런지를 확인하고자 하여 조경진을 따라나섰다. 그런데 현감이 함께 쫓아가 보니, 과연 그의 아들 조극선이 그 늦은 밤까지 냇가에서 비를 맞으며 부친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 효행의 현장을 확인한 현감이 감동하여 조정에 이 사실을 알려, 효자 정려를 내리고 그 자리에 비(碑)를 세워 주었다 한다.

### 3. 정려를 받은 효자·효녀의 유형별 효행

조선시대 예산에서는 다양한 효행과 함께 많은 효자들이 배출되었다. 앞에서 대개 조선 중기까지의 효행과 효자를 개관하였다. 이제 여기서는 조선후기 예산에서 있었던 실제의 효행 사례를 분석하고 그 흐름을 살피기로 한다.

여기에 소개되는 효행자들은 대개 조선후기의 예산 인물들이다. 그런데 효행자들이 정려를 받은 연대를 기준으로 보면, 대개가 고종·순종대의 인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서세동점의 혼란스런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함께 그 해소 방법의 하나로 시행된 정책적 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 예산의 대표적 효행자와 내용 및 정려

인물	시기	효행의 내용				정 려 旌 閭	비고
		단 지 斷 指	할 고 割 股	상 분 嘗 糞	여 묘 살 이		
강만채 강만구	고종대	○		○	○	○	형제효자. 1883년(고종 20) 정려 받음.
인영원	철종대					○	뒷산에 단을 쌓고 기도함. 부부효자, 부부쌍효각.
전금근		○				○	
정해열	?~1928						병든 어머니를 위해 한겨울에 잉어와 미나리를 구함.
차명증 차경증	?	○			○		형제효자. 효자천이라는 이름의 우물.

김방언 김치화	1693년 출생 (김방언)	○	○		○	○	부자효자. 양세정려문(1783).
최승립	현종 2년 출생					○	정성으로 기도, 뱀과 임어를 잡아 병든 부모를 봉양함.
정학수	고종대	○			○	○	1870년 충청도 관찰사의 교지에 의해 효자문 건립.
김창조	1819년 출생 (순조대)	○		○		○	1881년 효자정려문.
최필현	숙종대	○			○		효자명정을 받고 동지중추부사에 증직.
최순홍	현종대			○	○		효자명정 받음
이 규	?	○	○			○	효자문(고덕면 사리). 1890년(고종 27) 명정 받음.
이우영	?	○				○	효자문(고덕면 상장리). 1905년 효자문 내려짐.
이우직	?	○				○	겨울에 더덕, 가물치를 구해 간호함. 효자문(봉산면 봉림리, 1905년)

위의 표에 의하면 효행자들의 연대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정려를 받은 것은 대개 고종—순종대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들의 효행은 형제효자 부자효자 부부쌍효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고 있어서, 효가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표창된 효행은 대개 단지, 할고, 상분, 여묘살이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단지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다음은 여묘살이로 되어 있다. 단지(斷指)는 부모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먹여드리는 것이고, 할고(割股)는 자신의 허벅

지 살을 베어 탕약에 넣어드리는 것이며, 상분(嘗糞)은 부모의 변을 맛보아 병의 차도를 알아서 약을 짓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여묘살이는 부모의 묘 옆에 여막을 짓고 3년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다. 어느 하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효행으로서는 선뜻 동의할 수 없지만, 그 효심에 대해서는 눈물겹고 기슴이 아려지는 바가 또한 없지 않다. 韶闕는 국가가 그 효성을 장하다고 여기고 장려하여 그 동네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던 일이다.

그러나 18세기 실학이 발달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이전의 성리학적 사회에서 추앙되던 효 실천의 방법에 대해서 회의적인 비판이 조심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예컨대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예론(禮論)에서 보이는 다음의 비판은 그 대표적 한 가지 지적이라 할 수 있다.

효도는 인륜(人倫)의 지극한 것이다. 그러나 평소에 부드러운 용모와 유순한 낯빛으로 부모의 뜻을 미리 반들여 부모의 마음을 봉양하는 것은 온 향당(鄉黨)에 드러낼 만한 효도로는 부족하다. 손가락을 잘라 운명하는 부모에게 자신의 피를 먹여 드리고 자신의 허벅지의 살을 베어내서 부모를 봉양하는 따위의 그 탁월한 효행은 보통 사람들이 따르지 못할 바이다. 그러나 손가락을 자르고 허벅지 살을 베어내는 것은 순(舜) 임금이나 증삼(曾參)같은 성인들도 말씀하지 않은 바이고, 주공(周公)과 공자(孔子) 같은 성인도 말씀하지 아니 한 바이며, 9경(九經)의 글에서도 상고할 수 없는 바이니, 군자(君子)가 이에 대하여 조심하여 말하기 어렵게 여기는 것이다.

— 정약용, 『목민심서』 「예전」 교민조

이렇게 다산은 단지나 할고의 효를 통해 부모를 봉양하는 행위를 보통 사람들 이 따르지 못할 탁월한 효행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러한 효행은 실은 옛 성인들이 가르친 바가 아닌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더욱 어느 하나 동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그 부모가 돌아가신 후가 아니라 아직 살아계실 때, 여러 가지의 제약된 여건 속에서, 어찌 할 수 없어서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효심까지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그 방법이 문제가 된다면, 그 진정어린 효심을 살려 그것을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부모 돌아 가신 후에야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쳐주지를 않고, (철이 들어서)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를 않는다(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라는 한탄할 일이 아니라, 부모 살아계실 때 정성으로 잘 모셔야 할 것을 명심하고, 부모가 병드시고 앓아누우시기 전에 부모를 챙기고 사랑과 공경의 마음으로 늘 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조선후기 예산인의 효행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전해주는 시사점이 아닌가 한다.

## 4. 예산의 효제(孝悌) 정신의 특성

예산인의 효제(孝悌) 실천은 여말 선조를 살았던 이성만·이순 형제의 효제를 비롯하여, 문효공 조익과 효교리의 조극선 및 기묘명현 김구와 민회현의 돋보이는 효행, 그리고 국가의 정려를 받은 문현 자료상의 효자 효녀 효부들의 효행에 서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예산 효제 정신의 특성은 첫째, 대개의 다른 지역에서는 '충효'를 내세우지만, 예산은 특별히 '효제'를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이다. 예산에는 그럴 만한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만 이순 형제와 또 다른 형제 효자 등의 효제와 그 정신이 그것이다. 효제는 앞의 충의정신과 함께 충효를 더 풍성하고 알차게 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실천 덕목이다.

둘째, 이성만 이순 형제가 보여준 출중한 형제 사랑과 배려의 정신은 효제실천의 전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형제의 효제는 1956년 이후 2000년까지 초등학교 교재에 실렸던 <의좋은 형제>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들의 효제(孝悌)이다. 이들의 효는 보통 국가의 표창을 받아온 효행들과는 색다른 점이 있다. 그들은 조식으로 부모에게 좋은 음식을 올리고, 특히 봄가을로 부모의 친지들을 모셔서 맛있는 음식과 연회로 대접하여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는 형제가 서로 나누어서 부모의 묘에 각각 시묘살이를 했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 사랑도 특별하여 아침에는 형이 아우의 집을 찾아가고 저녁에는 아우가 형의 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반드시 나누어 먹었다. 또 예산에 구전되어 온 <의좋은 형제>의 별단 나르기도 형제가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여 서로 자기 몫을 더 주려고 한 형제간의 따뜻한 정이 가슴 뭉클하게 고맙게 느껴지는 이야기이다. 이들의 효제 정신의 특성은 효도는 부모 살아계실 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데 힘써야 한다는 정신이고, 우애는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상호 배려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정신이다. 현재 예산의

대홍에 전해지고 있는 이들 <이성만형제효제비>는 문헌기록으로 입증되는 유일한 효제비로서, 그 역사가 520여 년(정려를 받은 것은 603년 전)이나 되고, 그 정신사적 내용은 가히 멘토 형제, 멘토 효제로 삼을 만한 귀한 자료라는 점에서, 가히 국보급 정신사적 유산이라 할 것이다.

셋째, 예산의 효제 정신은 사후에 국가가 내려주는 이름인 시호(諡號)나, 마을의 이름에 효(孝)자가 들어간 경우의 사례들로서도 확인된다는 점이다. 즉 문효공(文孝公) 조익은 병자호란 중에 고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음에도, 길잃은 늙은 아버지를 찾느라 피신하는 왕을 수행하지 못했다 하여 관직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고, 치매 걸린 아버지가 주시는 곶은 음식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아먹었던 효성이 돋보인다. 그리고 효교리(孝橋里)의 조국선도 평소 출중한 효자로서, 늘 동구 밖에서 귀가하는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특히 비가 내리는 늦은 밤에도 기약 없이 나와 아비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지켜 본 덕산현감이 그를 표창해 줄 것을 국왕에게 품신하여, 효교리의 효자정려가 있게 되었다는 전언도 감동적이다.

넷째, 예산에는 다양한 효행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개는 부모의 병중에 단지수혈(斷指輸血, 손가락을 베어서 피를 수혈해 드림)이나 할고(割股, 허벅지 살을 베어내서 어버이를 구완함), 상분(嘗糞, 변을 맛보아 병증을 살핌), 그리고 여묘살이로 그 효행이 표출되었다. 그 중에는 형제효자 삼부자 효자가 있고, 또 부자간 또는 3대 4대의 효자도 보인다. 또 한말에 일경에게 잡혀가는 아버지의 몸에 내려치는 일제의 칼을 막으며 아버지의 죽음을 대신하려다 희생된 이충구(이남규의 아들)의 현신적 효성도 주목된다. 이들의 아름다운 효행과 효심이 예산의 예문화를 유지해 온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 3장

# 예산의 실학實學 정신

1. 예산 실학의 사상적 배경 – 육경론과 인물성동론
2. 예산 세거 여주이씨가의 실학
3. 김정희의 실사구시설과 고증학적 실학
4. 예산 실학 정신의 특성

## 1. 예산 실학의 사상적 배경 : 육경론과 인물성동론

예산의 실학은 대개 근기남인의 경세치용적 실학과 추사의 실사구시적 실학으로 대부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자는 대개 성호 이익 가문의 후예들인 예산세거 여주이씨들에 의한 경세치용적 성호학 중심의 실학풍이고, 후자는 추사 김정희의 실사구시를 대전제로 한 고증학적 실학풍이라 할 수 있다.

대개 18세기 전반은 경세치용적 실학, 18세기 후반은 이용후생적 실학, 그리고 19세기 전반은 실사구시적 실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이 점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실학과 실학정신의 형성에 영향을 준 그 사상적 배경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전거의 기준을 사서(四書)가 아닌 요순 삼대(堯舜三代)의 고경(古經)에 두자는 육경론(六經論)과 본래적으로 인성과 물성이 같은가 다른가의 논쟁인 인물성이동 논쟁에서의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이 주목되는 주제들일 수 있다.

### 근기남인의 육경론(六經論)

조선후기 사상계의 주류는 주자주(朱子註)를 절대 신봉하며 사서체제(四書體制)를 고수하는 성리학이었고, 그 학문적 전통을 고수하여 학문과 정치와 사상계를 주도하던 정파가 서인(西人)이었다. 그리고 17세기 말 경에는 서인 중에서도 노론(老論)이 점차 강고한 정권 체제를 구축해 갔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17세기 후반 이러한 정치와 학문 사상계의 흐름이 고착되어가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 근기 남인학파(近畿南人學派)가 등장했다. 이들은 기존의 서인(노론)계의 노선이 지니는 주자 절대주의의 폐쇄성 및 편향성에 맞서 새로운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이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그 출발은 17세기 후반 현종대의 예송(禮訟)에서부터 비롯되었고, 그 중심에는 퇴계 이황—한강 정구로 이어지는 영남학맥을 계승한 미수 허목(許穆, 1595-1682)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허목은 영남학맥을 계승하면서도 특히 원시 유학인 육경학(六經學)에 기반한 복고적인 학풍을 선도하며 그것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색을 보이고 있다. 육경(六經)은 시경(詩經) 서경(書經) 역경(易經) 예기(禮記) 춘추(春秋) 악경(樂經)이니 곧 요순 삼대지치(堯舜三代之治)의 전거가 되는 경전들이었다. 허목은 이를 바탕으로 주자에 매여 있는 조선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나아가서 강고한 권력기반을 구축하고 있던 노론 정파에 대한 학적 이론적 대항 논리를 갖추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허목은 정치체제로는 육경학의 시대인 요순 삼대지치를 이상으로 삼고 그에 입각한 고전적인 민본주의(民本主義)를 조명하였고, 토지제도로는 삼대의 정전제(井田制)를 모델로 삼아 조선의 현실에 맞게 개량한 개혁론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문장 역시 육경(六經)에 모범을 둔 고문(古文)을 써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들이 미수 허목-성호 이익으로 이어지는 근기 남인학파가 지니는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성호 실학(星湖實學)의 단서가 되는 바라 할 수 있다.

예산 세거 여주이씨들은 성호 이익(星湖 李灝)의 가르침을 받고 또 가학(家學)으로 대를 이어 그것을 발전시켜 나갔으므로, 그들의 학풍은 허목-이익의 육경지학(六經之學)을 바탕으로 삼았고, 나아가서 육경(六經)에 모범을 둔 고문(古文)을 선호하였으며, 『성호사설』이 제시하는 박물학적 사고에도 주목하였다. 예산 세거 여주이씨들의 실학풍의 연원적 단서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

### 서인 노론계의 인물성동이론

한편, 이러한 남인계의 반주자학적 문화운동으로 18세기 전반에 경제치용적 인 실학이 꽂피워지고 있을 무렵, 서인계에서는 또 하나의 색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중반의 북학론(北學論)의 출현이 그것이다.

북학(北學)이란 청나라의 학술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선의 경제를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일 것을 주장한 학풍이다. 이것을 이용후생학(利用厚

生學)이라 하고, 중상주의 실학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전의 서인 노론계의 주론인 북벌론(北伐論)과는 배치되는 개념이었다. 북벌론은 춘추대의와 화이론을 중심으로 청을 쳐서 복수하고 치욕을 씻자는 복수설치론으로 출발했고, 명이 망한 이후에는 이제는 ‘조선(朝鮮)이 유일한 중화(中華, 전통의 중화문명)’라는 조선중화주의적 입장에서 오랑캐인 청을 배격하고 화(華)인 명(明)의 전통을 계승한 조선중화(朝鮮中華)를 신장시켜나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면 북벌론의 현실적 한계가 노정되고, 또 청의 문화정책의 변화와 문물의 발달에 자극을 받으면서, 이제는 오히려 청의 새로운 발전된 문물을 적극 도입하여 조선의 낙후된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진보적 사조가 일어났다. 이때 그 선두에 선 집단이 바로 서인 노론계의 북학파(北學派)였다. 이들은 대개 청에 가는 사신의 자제가 군관의 자격으로 연경(燕京)에 가서 그 변화상과 발전상을 직접 목도하고 온 노론계 명가의 젊은 청년들이었다. 홍대용(1731-1783), 박지원(1737-1805), 박제가(1750-1805) 등이 그 대표적 인물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전의 북벌론을 버리고 북학론을 제창하게 된 것은 단순히 중국의 발전된 현상을 목도하고 온 결과에 의해서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근원적으로 종래의 북벌론의 사상적 기반이 된 화이사상(華夷思想)을 극복하고 더 이상 청을 오랑캐로 배척하지 않아도 되는 철학적 논리의 영향이었다. 18세기 예 서인 노론계에서 제시된 인물성이동 논쟁에서의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이 바로 그것이었다.

인물성이동 논쟁은 18세기에 율곡계의 송시열 문인인 수암 권상하의 문하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된 논쟁이다. 그것은 타고난 사람의 성품과 사물(특히 금수 또는 동물)의 성품이 같은가 다른가의 논쟁으로서, 호서계의 권상하를 계승한 남당 한원진(1682-1751)의 인물성이론(異論)과 대개 서울학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외암 이간(1677-1727)의 인물성동론(同論)이 대립되었는데, 전자를 호론(湖論)이라 하고 후자를 낙론(洛論)이라 했다.

낙론(洛論), 즉 동론(同論)은 대개 『중용』 1장의 주자 주에, “사람과 사물이 각각 그 부여된 바의 리(理)를 얻어서 오상(五常: 仁 義 禮 智 信의 5가지 덕)의 덕(德)이 되었다”에 의거하여 사람과 사물이 모두 균등하게 오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호론, 즉 이론(異論)은 대개 『맹자』의 「생지위성장(生之謂性章 : 타고난 것을 성이라 한다는 장)」 주(注)의 “리(理)로서 말하면 인의예지(仁義禮智)의 품수가 어찌 물(物)이 얻은 바가 온전하다 하리오?”에 근거하여 사람은 오상의 온전함을 얻었지만, 사물은 오상의 온전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북벌론 또는 북학론과 연계하여 보면 그 관련성이 각기 다르게 드러난다. 요컨대 그것은 인물성이론(異論)의 입장에서 보면, 인성과 물성이 다르므로 화이론(華夷論 : 중화와 오랑캐로 나누어 보는 이론)의 구분이 엄정해야 한다. 따라서 화이론적 북벌론은 정당하며 유효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인물성동론(同論)의 입장에서 보면, 화(華 : 정통 문명의 중화)의 성품이나 이(夷 : 오랑캐)의 성품이 동일한 것이어서 굳이 화이론의 구분이 불필요하여 청에 대한 북벌론의 사상적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인물성동론은 그 자체로서 청에 대해서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북학론의 사상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호락론은 대개 호서에서는 이론(異論)이, 서울에서는 동론(同論)이 지배적이었지만, 그렇다고 서울과 호서가 지역에 따라 확연히 하나의 의견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호서에서도 낙론의 지지자가 있었고, 또한 서울에도 호론의 지지자가 없지 않았다. 이 점은 예산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수암 권상하의 문하에서는 대표적인 문인인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예산의 학자가 셋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현상벽(1673-1731), 윤봉구(1681-1761), 한홍조(1681-1712)가 그들이다. 이들의 묘는 모두 예산에 있다. 현상벽의 묘는 예산읍 관작리에 있고, 윤봉구와 한홍조의 묘는 모두 봉산면 궁평리에 있다.

한홍조(韓弘祚)는 예산현 현내 봉암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 총명함이 뛰어났고, 수암 권상하의 문인이 되어서도 그 예지가 출중하여 강문 팔학사에 들어가는 인물이었다. 그는 비록 32세에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권상하가 그의 성실함과 총명함을 칭찬하는 글이 『수암집』 여러 곳에서 보인다. 권상하가 그에게 준 글 중에는 “고재(高才)라서 바른길에 뛰어나기 그만인데/ 외진 산 멀리 찾아 뜻이 너무 열심일세/ 나는 선사(先師)로부터 직(直) 자를 받았으니/ 작별함에 이것으로 그대에게 준다오”라 했다. 스승 우암 송시열로부터 그 유언으로 ‘직(直 : 정직, 올곧음)’ 자를 받은 권상하가, 다시 그 문인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는 대목이다. 한홍조의 저술로는 스승과 제자들이 문답한 정치론인 『강상문답(江上問答)』이 가장 저명하며, 인물성이동론에서는 호론(湖論)을 죽이 인물성이론(異論)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또 윤봉구(尹鳳九)는 일찍이 권상하의 문인이 되어 진사가 되었다. 후에 유일로 천거되어 여러 벼슬을 거쳐 대사헌에 특채되었고, 1763년에는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그 역시 강문팔학사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 또한 인물성이동 논쟁에서 호론(湖論)을 죽이 인성과 물성은 서로 다르다는 편에 섰다. 그의 생각은 요컨대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형성 이전에 부여된 천리(天理)는 동일한 것이지만, 일단 만물에게 부여된 리(理 : 이치) 즉 성(性 : 성품)은 만물에 따라 각각 다른 것이므로, 인성과 물성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윤봉구는 송시열의 묘지(墓誌)를 지었고, 또 권상하가 주도하여 세운 화양서원의 묘정비문을 짓는 등 송시열-권상하로 이어진 호서학맥의 전통 수립에 충실했다. 그는 호락논쟁에서 호론의 대표적인 옹호론자였다.

한편 현상벽(玄尙璧)은 강문팔학사에 속하는 예산인이면서도 앞의 두 사람과는 달리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하여 눈길을 끈다. 그는 호서인이면서도 낙론을 지지한 특이한 경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상벽은 예산에서 태어나 수암 권상하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영조 때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장릉

참봉, 익위사 세마가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시재가 뛰어나 많은 저작을 남겼으며 성리학의 이기이원론에 입각하여 사문(斯文)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발전시켰다. 그는 『중옹』의 천명지성(天命之性)과 『맹자』의 성선설을 인용하여 태극을 통한 오성(五性)의 본원을 밝힘으로써 이의 이통기 국설(理通氣局說)을 계속 발전시켰다. 그의 인물성동론의 이론적 근거도 여기서 찾고 있다. 그는 예론에도 정통하였고 저서로는 『관봉문답』 『관봉유집』이 있다.

이상의 인물성이동 논쟁에서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 인성과 물성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주장한 측은 그 발상이 본성을 후천적인 것, 즉 기질의 다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하여 그 방향이 인성(人性)을 동물성으로부터 분별해서 그것을 보호하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인륜 도덕의 숭고한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윤리의식과 연관된 것이기도 했다.

반면에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 본래적으로 인성과 물성은 같다는 것은 인성(人性)의 본성 문제를 인성에 국한하지 않고 물성(物性)과 관련하여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이것은 인성론에 대한 논의가 자연물에까지 확대된 형이상학적 전개로서, 16세기의 퇴계 율곡 아래 조선 성리학의 이론적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17세기 이후 성리학이 예학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회규범으로서 경직되어가는 학문 풍토에서, 인성과 물성의 동이론(同異論)의 제기는 성리학과 예학의 학문적 이론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또한 18세기 북학론의 형성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데에서 또 하나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특히 인물성 동이론 중에서도 인물성 동론(同論)이 노론계의 북학파들로 하여금 종래의 북벌론 대신 북학론으로 선회하게 한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이용후생파로 분류되는 북학파의 세계관을 형성하였고, 따라서 그것은 북학파 실학을 완성했다고 칭해지는 추사 실학에서도 그 기반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 예산 세거 여주이씨가의 실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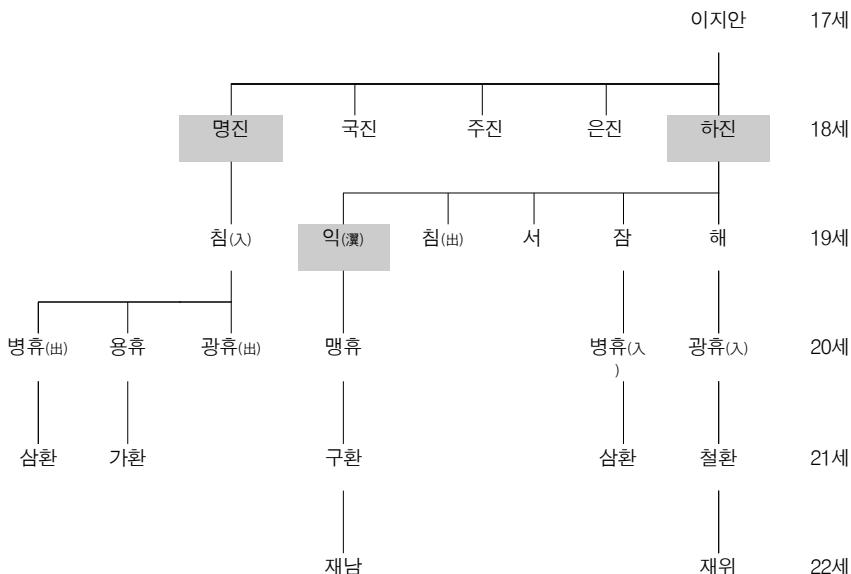
### 예산 세거 여주이씨 가계

조선후기 예산에 세거한 여주이씨들은 당대를 대표하는 실학자 성호 이익(李灝, 1681-1764)의 문중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예산 고덕에 입향하여 세거하게 된 배경은 이명진(1641-1696, 이익의 속부)이 고덕의 양반사족인 용인이씨 이준갑의 딸과 혼인하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

전통적으로 조선사회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라 하여 혼인은 여자 집에 가서 하였고, 또 남녀균분상속(男女均分相續)이라 하여 재산을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평등하게 배분하는 전통이 있어 왔다. 물론 그것은 17세기 후반으로부터 서서히 적장자 상속을 핵심으로 하는 종법(宗法) 제도가 정착되면서 재산상속이 아들 위주, 장남 위주로 변천해 갔지만, 이명진은 아직 17세기 중엽의 인물이었다. 따라서 여주이씨 성호가(星湖家)의 예산 고덕 이거는 용인이씨가의 재산 분배와 관련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이명진의 처 용인이씨는 1714년(숙종 40) 지금의 예산군 고덕면 경내인 덕산현 고산면 장사천리 12통 2호에 편제되어 손자 용휴와 함께 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명진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 따라서 맏형인 이하진(李夏鎮, 성호 이익의 아버지)의 넷째 아들 이침(李沈)을 양자로 입양하였는데, 이침의 세 아들(광휴, 용휴, 병휴) 중 광휴(廣休)는 다시 이하진의 장자 이해의 아들로 입양되었고, 또 병휴(秉休)는 이하진의 차자 이잠(李潛)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이들은 대개 대를 이어 예산에 정착하였다. 결국 예산에 입향한 인물은 이명진이었지만, 연이은 입양으로 인하여 예산에 세거한 인물들은 사실은 모두 이하진(이익의 아버지)의 후손들로 구성되는 결과가 되었다.

## 예산세거 여주이씨 가계도



조선 후기 예산의 실학은 이러한 예산 세거 여주이씨의 가계 구성과 관련되고, 특히 성호 이익(이하진의 5자)의 학문 계통과 깊은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었다.

성호 이익의 학통은 대개 기호남인 또는 근기남인이라고 칭해진다. 역사적으로 근기남인의 연원은 남인 북인의 형성과 관련된다. 조선의 당파는 선조대의 동서분당(1575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동인이 기축옥사(1598년)로 크게 피해를 입은 후 건저 문제로 서인이 실각하고 동인이 득세하자, 동인의 서인에 대한 차별 및 보복 과정에서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립되었는데, 이때의 강경파가 북인이 되고 온건파가 곧 남인이 되었다. 이후 광해군대에는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의병장을 많이 배출한 북인이 수권세력이 되었으나, 이후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연대하여 성공한 인조반정(1623년)으로 북인은 정파에서 소멸되었다. 원래 남인은 퇴계 계열의 순정 성리학의 입장이었던 것에 반하여 북인은 남명 조식과 화담 서경덕의 학맥으로 비순정성리학파로 분류되었으나, 이때

세력기반을 잃은 북인계는 대개 남인으로 편제되어 갔다.

한편 영남사람의 일부는 대개 16세기 말부터 중앙의 정치무대에서 벼슬하면서 생활근거지를 근기지방서울 및 경기 광주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1680년의 경신환국을 거쳐 1694년 갑술환국으로 서인의 집권이 강고해지자 남인은 실권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당색은 대개 남인과 북인이었다. 특히 이들 중 소북의 일부를 포함한 근기지방의 남인들이 곧 근기남인(近畿南人)이다. 근기 남인은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고 은거한 인물이 많았다. 이하진(이익의 아버지)은 도승지 대사헌 대사간을 역임하였으나, 경신환국(1680) 때 진주목사로 좌천 되었다가 다시 평안도 운산으로 이배되어 유배지에서 사망하였다. 그리고 이익의 스승이기도 한 둘째 형 이잠은 1706년 노론이 세자(후일의 경종)를 이롭지 못하게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가 투옥되어 곤장을 맞고 사망하였다. 이익이 정계진출의 꿈을 접고 아산 향리에서 은거하며 학문에만 전념한 것도 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성호가학(星湖家學)으로서의 예산실학

근기남인의 학풍은 반주자학적 입장에서 육경 지향의 복고풍이 있었고, 그것은 실학적 사고를 동반하고 있었다. 17세기 후반 산림으로서 정치 일선에 나선 허목(1595-1682)은 원시 유학체계로의 회귀성을 보이면서 육경(六經) 중심의 학풍을 형성하였는데, 갑술환국으로 정권에서 도태되자, 재야의 비판학문의 성격을 뚜렷이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학풍은 18세기 전반 성호 이익(1681-1763)에 이르러 가학(家學)으로 발전하면서 근기 남인 실학파(實學派)로 문호를 이루게 되었다.

원래 충청도는 대체로 노론세가 강한 지역이었으나, 기호남인 계열의 여러 가문도 폭넓게 분포하였다. 즉 예산의 여주이씨 성호가와 한산이씨 이산해가, 청양의 평강채씨 채팽윤가, 공주 유성(지금의 대전)의 안동권씨 권이진가와 온양

배방의 권대업가 등이 그들이다. 그 중에서 예산의 여주이씨는 바로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조선 후기에는 덕산현 장천리)에 세거한 여주이씨 성호 기문이다. 이들의 가학으로서의 실학적 학문전수와 그 실천은 조선 후기 실학을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성호 이익은 많은 문인을 양성하였고, 이들에 의하여 성호학(星湖學)은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예를 들면 안정복·황덕길 등 성호의 직계가 안산 첨성리에 거주하면서 근기실학(近畿實學)으로 정착되었고, 또 황덕길의 제자 허전에 의해 경남지역으로도 전개되었다. 그리고 성호의 아버지 이하진(李夏鎮)의 후손들을 통해 또 다양한 실학풍의 학문이 대를 이어갔는데, 그 학문과 학문적 계보를 일러 ‘성호가학’(星湖家學)이라 한다. 그것은 성호의 동복 형제인 침(沉, 1660-1706)이 숙부 명진(明鎮, 1641-1693)의 양자가 되어 예산으로 이거하였고, 그의 세 아들인 광휴(廣休)·용휴(用休, 1708-1782)·병휴(秉休)는 숙부인 성호 문하에서 수학한 다음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세거하며 학문에 전념하여 성호가 학의 실학풍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는 성호가학의 중심지로 크게 부상하였다.

예산 고덕에 정착한 이침의 자손 광휴·용휴·병휴 3형제는 숙부 성호 이익이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가서 학문을 익혔다. 이후 광휴는 1713년(숙종 39) 부친 이침의 별세로 귀환하였고, 그 아들 철환·정환·삼환도 성호에게 지도를 받았는데, 이들 중 철환이 먼저 돌아와 예산 실학의 기초를 놓게 되었다. 그 후 성호가학은 예산의 여주이씨들을 통해 그 융성기를 맞게 된다.

조선 실학을 선도한 성호 이익의 학문세계를 보면 그 관심 분야는 기히 백과사 전적이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경학과 예학은 이병휴-이삼환(李森煥)계가, 문학은 이용휴-이가환(李家煥)계가, 그리고 박물학에서는 이광휴-이철환-이재위(李載威)계가 각각 두각을 드러냈다.

이들은 사망 후 예산 고덕의 선영에 묻혔다. 이명진과 이침의 묘지를 비롯하

여, 이광휴—이철환—이재위, 이병휴—이삼환—이재상—이시홍, 이용휴—이가환—이재적, 그리고 성호의 아들 이맹휴의 손자인 이재남의 무덤 등 11기가 이곳에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묘는 지난 1987년 후손들에 의해 강원도 원주로 모두 이장되었다.

다음은 이들의 학문적 성취를 분야별 특징을 고려하면서 가계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 이병휴—이삼환 부자

### 경학과 예학에 출중했던 이병휴

이병휴(李秉休, 1710-1776)의 자는 경협(景協), 호는 정산(貞山)이며, 본관은 여주이다. 중조는 사헌부지평 이지안이고, 조부는 여주이씨의 예산 입향조인 이명진(이침의 양부)이다. 아버지는 이침(李沈, 이침의 생부는 이하진)이고, 실학자 성호 이익이 그의 숙부이다. 후일 숙부인 이潛(李潛)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이병휴는 1710년 예산군 덕산현 장천리에서 아버지 이침과 어머니 한양조씨(조석제의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아산으로 가서 숙부인 성호 이익(李灝)에게 수학했다. 양부인 이潛이 1706년(숙종 32) 노론이 견제하던 왕세자[후일의 경종(景宗)]를 보호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가 곤장을 맞아 죽은 후, 그는 관직에 뜻을 버리고 고향 덕산에 은거하며, 스승 이익의 학문을 계승하고 보완 정리하는 데 진력하였다. 그는 만년에 성호 이익의 남겨진 자료를 모아 그 문집을 정리하였고, 2년 후인 1776년(영조 52) 67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이병휴는 성호 이익의 경학과 예학을 계승·발전시킨 대표적 인물이다. 수당 이남규는 그가 지은 이삼환(이병휴의 자)의 묘지명 중 그 가계를 논하는 글에서, 여주이씨가의 학맥과 이병휴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옥동(玉洞) 이서와 성호(星湖) 이익 두 분 선생께서는 사도(斯道)를 자신의 소임으로 삼았었다. 그리하여 당시 그 문하에 모여든 선비들이 몹시 많이 있었는데, 여러 자질(子姪 : 아들과 조카)들 중에서 그 경학과 예학을 전수받아서 사과(四科; 유학의 네 가지 학과, 즉 덕행, 언어, 정치적인 일, 문학)의 과목에 넉넉히 들 수 있는 자로 말한다면, 곧 정산(貞山) 이병휴(李秉休) 선생이 그런 분이다.

이남규는 실학시기 여주이씨가의 대표적 학자들인 옥동 이서(李渤)와 성호 이익(李灝)의 문인 중에서도 그 경학과 예학을 전수받은 대표적 인물이 이병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병휴의 경학론을 보기 이전에 먼저 성호 이익의 경학관에 대해서 개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익은 글을 읽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곧바로 기록해 두고 이것을 나중에 종합하여 『○○○ 질서(疾書)』라는 제목의 책으로 엮었는데, 사서삼경(四書三經) 뿐만 아니라 『소학』『가례』『근사록』『심경』에 이르기까지 11종의 경전을 망라한 것이었다. 그가 칠서(七書, 4서 3경)의 주석을 모두 내고 있는 점은 그의 경학에 대한 깊고 넓은 관심을 보여주는 바이고, 특히 주자의 저술들에 대해서도 각각 질서(疾書)를 낼 만큼 주자서에도 관심이 깊었음을 알게 한다. 이익이 18세기 실학의 문을 연 인물이지만, 그가 주자학을 극복의 대상으로만 보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주자주(朱子註)를 절대시하여 맹신하는 풍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였고, 또 주자주를 부분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지만, 그렇다고 주자의 권위나 주자의 학문을 부정하는 반 주자적 입장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일 다산 정약용이 “성호의 학문은 일생동안 주자를 존신하였으므로, 모든 경전의 질서가 모두 주자의 전주(傳注)에 나아가 발휘하고 천양하여”라고 평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의 경학이 주자의 큰 울타리를 벗어난 것은 아님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성호 이익은 경전 연구에 대해서, “경전 연구는 반드시 본지(本旨)를 추구하고 방증(傍證)을 철저히 하여 수기안인(修己安人)의 기본이 되게 해야 한다”라 하고, 또

경전(經典)을 궁구함은 장차 치용(致用)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경전을 말하면서 천하만사에 쓰여짐이 없다면 이것은 한갓 책(冊)을 읽는 데 능할 뿐이다.

라 하여 경학 연구는 그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경세치용(經世致用)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경세치용을 화두로 내건 실학자다운 실학적 경학관이다. 성호의 이러한 경학관은 자연히 경전 연구에 있어서도 노론의 주자 주(朱子註) 중심의 성리학적 ‘사서(四書) 체제’를 비판하고 원시유학의 ‘육경(六經) 체제’로의 복고적 지향성을 보인다. 결국 경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집주(集註)를 통해 육경(六經)의 본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그 목적은 치용(致用)이라는 실용성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실학파적 경학관으로, 그가 후학들에게 경학연구의 새로운 실학적 경전연구의 방향과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이병휴는 이러한 이익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나, 그의 경학관은 이익의 관점에 머물지만은 않았다. 주자는 『대학』에 대한 자신의 주석서 저술에서, 『(고본) 대학』의 편제를 바꾸고, 또 고본대학에는 연문(衍門, 군더더기 글)과 궤문(闕文, 빠진 글자나 글귀)이 있다 하면서 자신이 지은 이른바 격치보망장(格致補亡章)을 삽입하여 「대학장구(大學章句)」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익은 논란이 되어 오던 이 주자의 격치보망장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병휴는 스승과 달리 성호학파에서 처음으로 「대학 장구」의 체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29세가 되던 1739년(영조 15), 주자의 대학장구를 비판하면서 고본 대학에 입각하여 자신의 대학에 대한 자들의 견해를 담은 『대학심해(大學心解)』를 저술하였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주자가) 이른바 ‘빠진 글이 있다’고 한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비록 고치지 않더라도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에 감히 분수에 넘치는 것을 무릅쓰고 고본에 의거하여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뜻을 풀어서 적어 놓는다.

라 하여 주자의 대학장구를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스승 이익과는 결이 다른 경학관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주자의 대학장구 체제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고본) 대학』의 차제에 따라 대학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주자의 격치보망장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이었다.

이병휴는 또한 『대학』에서의 명덕(明德)과 지선(至善)의 해석에서도 주자와 견해를 달리하였다. 그는 명덕은 곧 성(性)이지만, 성과 덕(德)은 구별된다 하고, 명덕의 덕(德)은 득(得)을 의미하고, 그 덕은 천하(인간세계)에서 얻어지는 후천적 경험적인 것으로 본다.(『대학심해』 경(經) 1장) 이어서 지선은 곧 명덕인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명덕이라 하고 행위의 측면에서는 지선이라 하지만 실제는 하나라고 하였다. 그러면 명덕과 지선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경(經)에서는 ‘명명덕어천하(明明德於天下)’라 하였는데, 전(傳)에서 살펴보니 밝게 한다는 것은 효제자(孝悌慈 :효도와 형제사랑과 자식사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효제자(孝悌慈) 같은 것이 바로 이른 바 명덕이라고 생각한다. 효제자는 비록 성(性)에 근원을 두고 마음(心)에서 발한 것이지만, 이제 그 뜻은 성(性)이라고도 심(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단지 덕(德)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대가 말한 임금에게 충성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비록 성(性)이지만 그 충효란 바로 명덕이라는 것을 말할 뿐이다. (이병휴, 『정산고』, 답이사홍서)

경(經)에서는 ‘지어지선(止於至善)’이라 하였는데, 전(傳)의 인경효자신(仁敬孝慈信)이 거기에 상당하며 경에서 ‘명명덕어천하(明明德於天下)’라 하였는데

전(傳)의 효제자(孝悌慈)가 거기에 해당한다. …… 그러므로 나는 지선은 명덕의 실(實 : 내용)이 되고 지어지선은 명명덕의 사(事 : 행위)가 된다고 말한다.  
 (『대학심해』 경 1장)

이와 같이 이병휴는 명덕 곧 지선을 구체적인 실천덕목인 효제자(孝悌慈)로 이해하면서 그것은 선협적인 것이 아니라 인륜에 대한 실천적인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효제자는 격치공부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성의공부에서 비롯되는 것이 된다. 이는 주자의 주지주의적 해석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새로운 학문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상과 같은 이병휴의 학문성향은 후에 신후담은 물론, 권철신 이기양 등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이러한 대학에 대한 새로 운 견해는 1743년에 신후담이 저술한 『대학후설(大學後說)』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병휴는 특히 예학에 대한 논저가 가장 많았는데, 그 범주는 관혼상제의 사례에 두루 걸쳐 있고, 나아가서 사대부가의 실생활의 예식까지 정리하고 있다. 구체적인 저술로는 『관혼례(冠婚禮)』, 『상제례(喪祭禮)』 등이 있고, 특히 그가 이익의 글을 모아 간행한 『성호선생예식(星湖先生禮式)』은 사대부가 실생활에서 빈번히 겪는 관혼상제의 사례(四禮)를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의 예학은 성호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였다는 평을 받는다.

이 외에 이병휴의 저술로는 시문집인 『정산고(貞山稿)』·『정산시고(貞山詩稿)』·『정산잡록(貞山雜錄)』·『정산잡저(貞山雜著)』를 비롯해 여러 저술에서 초록한 『잡기(雜記)』 등이 있다. 또 그는 성리학 연구에도 주력하여 유형원과 이익의 반열에 서서 이(理)와 기(氣)에 대한 변론을 전개하였고, 경전의 해석서로는 앞에서 말한 『대학심해(大學心解)』를 비롯하여 『대학보의(大學補義)』·『논어보의(論語補義)』·『역경심해(易經心解)』 등이 있다. 이병휴는 그 외에도 문학·역법·역사·역학·산수 등에도 정통하여 그의 제자 중에는 이기양·권철신 등 인재들

이 많았고, 그 학문은 아들 이삼환에게도 계승되었다.

이병휴의 묘소는 예산군 덕산면 고덕리에 있었으나, 1987년 후손들이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의 매산묘원에 이장하였다.

### 후학 양성에서 ‘장천(長川)의 구두(句讀)’로 칭해졌던 이삼환

이삼환(李森煥, 1729-1813)의 자는 자목(子木), 호는 목재(木齋) 또는 소미(少眉)이고 본관은 여주(驪州)이다. 종조부가 성호(星湖) 이익(李灝)이고, 아버지는 이광휴(李廣休)이며, 후에 숙부 이병휴(李秉休)에게 출계하였다.

그는 1729년(영조 5) 경기도 안산의 첨성리에서 아버지 이광휴와 어머니 해주정씨(정덕녕의녀)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너무 여위고 병이 많았으므로 나이 열두 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글을 배우기 시작하자 곧 스스로 과정(科程)을 세워서 밤낮으로 각고(刻苦)의 노력을 기울여 부지런히 하여 조금도 쉬지 않았다. 그래서 성호(이익)가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이 아이는 재주도 있고 포부도 있으니 아마도 성취할 것이다” 하였다. 약관(羽冠)의 나이에 명성이 대단하였고, 여러 번 소과에 합격하였으나, 과거(科舉)는 본래 그의 뜻이 아니었다.

증조부 이하진이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둘째 이삼은 포의(布衣)의 몸으로 항언(抗言)을 하다 희생되었고, 셋째 옥동 이서와 다섯째 성호 이익은 도학(道學)으로 존중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각각 문장과 행의(行誼)로써 세상에 일컬어졌다. 그런데 특히 성호 이익은 학자들의 존중을 받아서 사방의 선비들이 많이 귀부하였다. 이삼환도 어려서부터 증조부 성호(이익)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는데, 성호의 사랑이 지극하여 그 왕래와 강학(講學)의 편의를 위해 별서(別墅)를 내어주고 거기서 거처하면서 공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중년이 되면서부터는 가문이 전처럼 흥성하지를 못한데다 초상(初喪)

이 또한 거듭하여 일어났다. 아버지(이광휴)의 상을 당하여 겨우 상기를 마치자, 양 아버지 이병휴의 원배(元配)인 양천 허씨가 죽었는데, 그 아들이 없었으므로 문중의 의논에 의하여 그가 양자로 들어가서 그 상을 복상(服喪)하게 되었다. 그 뒤 또 본생가(本生家)에서 어머니와 형이 세상을 떠났으며 안으로는 아내마저 영결했다. 그리하여 그는 그만 많이 여위고 시들어서 늙기도 전에 벌써 머리가 허옇게 세고 말았다.

이삼환은 1763년(영조 39) 속부 이병휴의 양자로 입적되면서 거주지를 충청도 덕산(德山)의 장천(長川)으로 옮겨 생활하였다. 덕산에서 이삼환은 강학과 후생들에 대한 서당 교육을 통해 성호 학통의 유지에 주력하였고, 또 아버지(이병휴)를 도와 성호의 문집 정리를 도왔다. 또한 1775년(영조 51)에 홍역이 크게 유행하자 그는 청나라에서 간행된 『마과휘편(麻科彙編)』을 구해 스스로 연구하여 치료요령을 채득, 가족과 인근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였다. 그의 실학적 근대의식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그는 아버지 이병휴가 작고 한 후인 1780년대 이후에는 사실상 성호학파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1786년(정조 10) 「양학변(洋學辨)」을 저술하였다. 이 글은 천주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논설로, 당시 성호학파 일부와 자신이 거주하는 덕산 지역에 천주교가 확산되자 이를 경계하면서 현실에서 있을지도 모를 조정의 박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삼환은 1795년(정조 19) 충청도 온양의 서암(西巖) 봉곡사(鳳谷寺)에서 금정찰방으로 부임해온 정약용(丁若鏞) 등과 함께 강학 모임을 개최하였으며, 1799년(정조 23)에는 이의의 영정을 봉안한 영당(影堂) 건립을 시도하였다.

1813년(순조 13) 12월 12일, 이삼환은 85세로 편안히 세상을 마쳤다. 이듬해 윤2월에 장천(長川)의 당산(堂山) 언덕에 장사를 지냈다. 사림(士林)들이 의논하여 유현장(儒賢葬)으로 치르려고 하였으나 그 집에서 유언(遺言)이라 하여 이를 사양하였다.

이삼환은 만년에 이르러서는 따르는 제자들이 더욱 많아졌다. 그래서 평소에

늘 이들을 효도와 공경, 예의와 염치로 순순히 타이르고 달래어 이끌어 주었으며, 밤이 깊어서야 비로소 물러가기를 명하였다. 이런 까닭에 그의 문하에 있는 자들은 모두 행동거지(行動擧止)가 볼 만하였다. 그리고 글을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글의 이치를 열어 보여서 스스로 이를 터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약 이를 깨치지 못하면 하루 종일 마주 앉아 있었으며, 마침내 깨치고 나면 다시 그 앞뒤의 말뜻을 따라서 거듭 이를 이끌어서 차근히 일러 주었다. 이 때문에 배우는 자들 가운데 배움이 정숙(精熟)하지 않은 자들이 없었으며, 한번 터득을 하고 나면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다. 이리하여 이남규의 시대에 내려와서도 마을 서당(書堂)에서는 이른바 ‘장천(長川)의 구두(句讀 : 글 쓸 때 문장 부호를 쓰는 방법)’라는 말이 전해 왔다고 전한다.

다음은 이남규가 지은 이삼환 묘지명(墓誌銘)의 일부이다.

선생이 교화한 곳은

先生之化

나라가 아니고 마을이었다네

不于邦而于鄉

선생이 계시던 세월이

先生之世

지금 백 년이 흘렀어라

今百星霜

그런데 그 마을을 살펴보니

而試觀其里

아래로 농부나 상인에 이르기까지

下及農商

상사(喪事)에는 슬퍼할 줄 알고

喪知必戚

제사에는 공경할 줄을 아는구나(중략)

祭知敬將(中略)

누가 말했던가 사방 육칠십 리의 고장이

孰謂方六七十而後

군자를 기다려야 비로소 예악이 빛난다고

禮樂始俟君子以彰耶

이남규는 이삼환이 벼슬에 나가지 않고 시골 마을에서 향촌교회를 했는데, 백년이 지나서 그 마을을 살펴보니 농부나 상인에 이르기까지 “상사(喪事)에는 슬퍼할 줄 알고, 제사에는 공경할 줄을 안다”고 친양하고 있다. 『논어』에서는 “장례를 신중히 모시고 제사를 공경스럽게 모시면, 백성의 덕이 후한 데로 돌아갈 것이다”라 했으니, 이삼환이 그 살았던 마을에 미친 교화의 덕이 백년이나 이어지며 후덕한 마을이 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이남규는 사방 60-70리 고장에 예악(禮樂)이 빛나려면 군자(君子)를 기다려야 가능한 일이라고 매듭짓는다. 이것은 실학자 이삼환이 참으로 군자였음을 전해주는 기록이며, 또한 실학기 예산세계 여주이씨가의 지역적 역할과 위상을 확인해 주는 기록이라 할 것이다.

## ■ 이용휴-이가환 부자

### 문학으로 ‘재야의 대제학’이 된 이용휴

이용휴(李用休, 1708-1782)의 자는 경명(景命), 호는 혜활재(惠寰齋)이며, 본관은 여주이다. 아버지는 이침(李沈)이고, 실학자 성호 이익이 그의 숙부이며, 이가환(李家煥)이 그의 아들이다.

이용휴는 1708년(숙종 34) 덕산 장천리(현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에서 아버지 이침과 어머니 한양조씨(조구석의 네)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안산에 거주하고 있던 숙부 성호 이익의 문하에서 배워 문중적 가학을 익혔다. 28세가 되던 1735년(영조 11)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성균관에서 수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40대 이후 그는 벼슬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 침잠하였다.

이후 그는 주로 덕산에 은거하면서 실학의 학맥을 따라 천문, 지리, 병농 등의 연구에 힘써 조예가 깊었는데, 특히 문장가로 명성이 높았다. 숙부 성호의 학문을 이어받은 그는 재야학자로서 당시 학계와 문단의 큰 별이었다. 다산 정약용은

이용휴의 문학적 성취와 그 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그는 일찍부터 문학에 뜻을 두었으므로 문장이 기이하고 새롭고 공교로와 영조 말년 경에는 그의 문명(文名)이 일세의 으뜸이었다. 당시 문인들 중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사사하였으므로 그는 한갓 선비에 불과했으나, 문권(文權)을 잡은 지 30년이나 되었다.

후일 사람들이 그를 ‘재야의 대제학’이라 칭하였던 그 실상을 가히 짐작케 하는 평가이다. 그런데 이용휴의 문학은 당시 사대부들의 고문(古文), 즉 당송의 고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호의 경세치용(經世致用)의 학문을 바탕으로 한 실학파 문학이라는 데 특색이 있었다. 그러면 성호의 문학관은 무엇이며, 이용휴의 문학관의 특색은 무엇인가?

먼저 성호 이익의 문학론은 그의 도통관(道統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성호의 도통관에서 ‘도통(道統)’이란 공문(孔門)에 전해 내려온 심법(心法)이다. 즉 그것은 공문(孔門)의 치심(治心) 치학(治學) 치사(治事) 치국(治國)의 방법으로서 일관된 계통으로 전해진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도통의 연원을 복희까지 올려보고, 아래로는 송대의 이정(二程)과 주자에게까지 전해진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당밀 한유의 원도(原道)와는 구분되지만, 도통의 의미상의 전통성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이익은 천지와 사물과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통하는 자연의 이법(理法)이 실재한다고 보고, 이것을 도(道)라 하고, 도를 온전히 인식하고 체득한 사람을 성인(聖人)이라 하였다. 그의 이러한 도통관은 그의 경세적 문학론에도 반영되어 전통적인 도(道)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관, 즉 도통적 문학관을 철저하게 계승하여 문학의 현실적 효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익은 기본적으로 일반 성리학자들의 관념적 사변적 해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모든 문제를 현실적 방안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는 성호의 현실주의적 경학관을 보이는 것이다.

이용휴는 이러한 가학의 개방적 분위기 속에서 성호의 실학적 학풍을 계승 발전시켰다. 그는 이러한 경세적 문예정신으로 무장하여 참된 문장은 백성들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고, 백성과 더불어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것이 학문의 요지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 참[眞]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정(情)의 측면이 억제되었던 종래의 제도적 문학론에서의 성정(性情)의 정이 아닌, 인간의 자연스런 감정으로써의 성정지진(性情之眞)에 대한 자각이었다. 그의 일관된 관심은 인간이었고, 인간다운 삶을 중시하였다. 그의 인아평등(人我平等)과 만물일체(萬物一體) 등의 언급은 이러한 그의 평등의식을 전해 준다.

그는 당대의 의고적인 문학의 병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동시에 소외된 지식인들의 새로운 시풍과 순수한 시정을 잘 드러낸 여행(閭巷)의 시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가학을 계승하여 근기 남인이 주장한 육경 고문에 뿌리를 두고 합고(合古)에서 이고(離古)로의 전환을 통한 주체적인 창작논리를 제시하였다. 옛것을 본뜨는 것을 능사로 삼는 것에 반대하는 그의 반의고적(反擬古的) 개성주의 문예론은 그의 양명학적 사고를 근거로 촉진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서화의 연원을 하도낙서(河圖洛書)에 두고 서화(書畫)의 가치를 천지자연의 생성 원리와 관련시킨다. 이러한 근거에서 그는 화서동근(畫書同根) 서화동체(書畫同體)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당시까지 남아있던 서화를 천시하는 천기(錢技) 사상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서예에 대해서는 임서(臨書, 본떠서 글씨를 쓴)를 통하여 오랫동안 연습이 쌓여 깨달음이 생겨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취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학습법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전심정력을 강조하고 고법(古法)을 상실한 시체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비판하였다. 이용휴의 서예인식과 비평에는 대체로 고법을 중시하여 전통의 부단한 학습을 강조했는데, 전범(典範)을 중시하면서도 전범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懷疑)를 통하여 자신의 세계를 개척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 하겠다.

그의 문학은 아들 이가환과 외손 이승훈·이학달에게 계승되었다. 이들은 모두 당대의 준재로서 18세기 말 19세기 초 조선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용휴의 저술로는 『단만집』을 비롯하여 『혜환시초(惠寰詩鈔)』, 『혜환잡저(惠寰雜著)』, 『혜환시집(惠寰詩集)』 등이 있다.

이용휴의 묘소는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에 있었으나 1987년 후손들이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매산묘원으로 이장하였다. 이용휴의 실학적 문학풍과 그 미학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 서학(西學)을 경세와 실용의 학문으로 수용한 이가환

이가환(李家煥, 1742-1801)은 실학자인 성호 이익의 종손자로서 그 학풍을 계승하여 예산에 세거한 여주이씨 가문의 대표적 실학자가 되었다. 그는 문장의 대가이며 천문학과 수학 등에도 능통하였고, 유학과 서학 등 여러 학문에 막힘이 없어 당대 제일의 천재로 소문난 학자였다. 그는 서학을 경세와 실용의 학문으로 적극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정조 사후인 1801년 조카 이승훈 등과 함께 신유박해 때 탄압을 받아 옥에서 순교하였다.

이가환의 자는 정조(廷藻)이고, 호는 정산(貞山)·금대(錦帶)이며, 본관은 여주이다. 성호 이익의 종손자이고, 조부는 이침이며, 아버지는 ‘재야의 대제학’으로 알려진 이용휴이다. 최초의 천주교인 이승훈의 삼촌이 된다.

이가환은 1742년(영조 18) 덕산현 고현내면 장천리에서 아버지 이용휴와 어머니 진주유씨(유현장의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30세에 진사시에 급제하고, 36세(1777년)에 증광시에 급제하여 1780년에 비인현감이 되었다.

1784년 생질인 이승훈이 북경에서 돌아오고 동료학자들이 서학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는 천주교에 대한 학문상의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이벽을 만났다. 이때 그는 이벽과 논쟁을 벌이다가 오히려 설득당하여 천주교인이 되었다. 이후

그는 이승훈에게 부탁하여 중국에서 서적을 구입해다가 서학연구를 계속하였다. 또 이승훈에게서 세례를 받고 이승훈, 권철신과 더불어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이가환은 이벽으로부터 서학입문서와 『성년광익』(聖年廣益) 등을 빌려 탐독하고, 남인들 사이에 동지를 규합하여 천주교 보급에 투신하였고, 제자들에게도 전교하는 열렬한 신자가 되었다.

그러나 1791년 신해박해 때에는 교리연구를 중단하고, 광주부윤(廣州府尹)으로서 천주교를 탄압하였다. 1792년에는 대사간에 올랐으며, 이후 공조판서 대사성, 개성유수, 형조판서를 지냈다. 이가환의 정치사상은 민본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였다. 그는 당시에 특히 중요 관직이 자연과 문벌에 국한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유능한 인재의 발굴을 주장하였다. 또 국가 재정 수입을 늘려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재원을 확보하고 상품화폐 경제의 활성화를 중요시하였다. 민족의 개체성에 기초하여 근대적 영토관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방론을 펼친 점도 주목받을 만하다.

이가환은 성호의 실학을 계승하는 한편, 특히 서학에 심취하였으며, 부친 이용휴의 문학적 재능도 이어받았다. 이가환은 정조가 가장 신뢰하던 채제공·정약용 등과 함께 남인 3대 핵심 인물이었다. 정조는 이가환에 대해 “해박함을 당할 수가 없다”라 하며 그를 ‘정학사(貞學士)’라 불렀다. 이가환은 그의 탁월한 기억력을 바탕으로 9경·사서·23사에 정통했음은 물론 제자백가와 국학·서학에도 일가견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학문적 교우로는 정약용, 이벽, 권철신 등 초기 천주교 신자가 많았다.

1795년 주문모신부 입국사건에 연루되어 충주목사로 좌천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천주교인을 탄압하다가 파직되었다. 기본적으로 이가환은 천주교를 연구하고 서양의 과학문명을 수용하면서, 서학을 경제와 실용의 일환으로 연구하여 이를 실천에 옮기려 하였다. 하지만 정조 사후 그는 반대당으로부터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다고 지목되고, ‘자작교주’(自作教主)로 몰려 투옥되었고, 1801년

이승훈 권철신 등과 함께 옥사로 순교하였다. 역설적이게도 그를 천주교 신자로 만들었던 이벽은 아버지가 그를 밀리다 목매어 죽자 그 충격으로 배교자 이기경의 권유로 천주교와 절연, 교리를 끊고 있다가 그 이듬해 페스트로 죽었다.

정약용(丁若鏞)은 이가환의 묘지(墓誌)인 「정현묘지명(貞軒墓誌銘)」에서 이가환의 학문에 대해 “무엇이든지 한 번 물으면 조금도 막힘없이 쏟아 놓는데 모두 연구가 깊고 사실을 고증하여 마치 전공한 사람 같으니 물은 자가 매우 놀라 귀신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다”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또 이가환은 문장에도 뛰어나 아버지 이용휴와 함께 「혜한금대지문(惠寰錦帶之文)」으로 칭송될 만큼 조선 후기 문학사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가환의 저서로는 문집 『금대관집(錦帶館集)』 10책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다른 저술로 『시문초(詩文嘲)』 4권 4책, 『시문(詩文)』 2권 1책, 『금대시문초(錦帶詩文抄)』 1책, 『금대전책(錦帶殿策)』 등이 전한다.

이가환의 묘소는 원래 예산군 고덕면에 있었으나, 1987년 후손들이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로 이장하였다.

## 이철환-이재위 계열

### 『물보(物譜)』를 지은 박물학자, 이철환-이재위 부자

이철환(李喆煥, 1722-1779)의 자는 길보(吉甫), 호는 예헌(例軒)이며, 본관은 여주(驪州)이다. 증조할아버지는 이하진(李夏鎮)이고, 할아버지는 이해(李瀞)이며, 아버지는 이광휴(李廣休)이다. 실학자 성호 이익은 그의 종조할아버지가 된다.

이철환은 덕산 장천리[현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에서 태어났다. 사촌 아우 이창환, 이삼환과 함께 종조가 되는 성호 이익에게 입문하여 안산에서 학문을 익히다가 제일 먼저 덕산으로 돌아와 평생 은거하였다.

이철환은 성호실학에 근거한 가학(家學)을 통하여 특히 동식물을 관찰 대상으로 깊이 연구하였다. 후일 다산 정약용은 성호 이익의 학문을 계승한 여주이씨의 인물에 대하여, ‘이병휴는 역경과 삼례, 이맹휴는 경제와 실용, 이용휴는 문자학 등을 말하면서 ‘이철환은 박물학’을 계승하였다고 하였다. 성호의 자연과학적 실학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인물이 이철환임을 입증해주는 대목이다.

성호의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은 그의 성호사설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이미 연행사들에 의해 중국에서 수용된 서양문물과 천주교로 인해 비롯되었는데, 그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족손들에게 이어져 동식물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천착으로 이끌어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종손자 이철환과 그의 아들 이재위는 『물보(物譜)』라는 책을 저술하기에 이른다.

이철환은 작은 생물이나 초목이라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일일이 연구하고 고찰하며 실학이 가지는 과학 정신을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그는 아들 이재휘와 함께 사물 어휘를 연구한 『물보』를 저술하였는데, 특히 초목류 등은 향촌에서 의방에 실제 대입하며 질병을 퇴치하는 데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시·서·화에도 능통하였으며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 등과 교류하였다. 1779년(정조 3) 58세로 생을 마쳤다.

이들 이철환–이재위 부자가 남긴 『물보』는 그들의 가문의 실학적 사고의 산물이었다. 이 책은 이철환이 초고(草稿)를 쓰고, 1802년(순조 2) 그의 아들 재위(載威)가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여 엮은 사물의 이름을 조사한 어휘집이다.

이 책에는 서두에 이재위가 쓴 「물보서」(物譜序)가 있고, 그 다음에 어휘목록이 실려 있고, 맨 뒤에 제자 이기경이 쓴 「물보跋」(物譜跋)이 있다. 「물보 서(物譜序)」에는 『물보』를 편찬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서술되어져 있다. 서문에서 이재위는 조수와 초목의 이름을 알아야 함을 밝히고, 천지만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고귀하므로 만물의 품성이 인류의 과학적인 분석에 의하여 밝혀져야 그들

의 일상생활이 이롭게 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의식(衣食, 먹고 입는 것)이 민생에 가장 중요하며,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예에 대한 명칭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는 곧 혀된 예식의 조례만 남을 따름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물보』는 그들 여주이 씨가의 전통적 가학(家學)인 예학(禮學)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성호가학에서의 예학 연구는 성호에서 시작되어 이병후에 의하여 보완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들의 연구는 성호학 내에서 상호 연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보』의 내용은 상·하 2편 8부 49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물명 2,468항목(한자 물명 1,469항, 한글물명 999항)을 수록하고 있다. 그 항목명은 곡식·채소·과일·꽃·약초·잡초·잡목(雜木)·벌레·물고기·새·인체·의복·음식·주택·배·수레·우마·농업·양잠·수공업·술·복식·무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물의 명칭이 총망라되어 있다. 가히 박물학 또는 백과사전이라 할 만하다. 물명을 기록한 체재는 먼저 한자품명을 쓴 다음 국어품명을 써놓았는데, 한자품명 1,470여 개, 국어품명 1,000여 개에 이르며, 근대국어 및 방언사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철환은 당시의 사람들이 민생에 가장 중요한 물명(物名, 사물의 이름)에 너무 소홀함을 딱하게 여겨 보는 대로 적어 놓았고, 결국 아들 이재위가 그것을 분류·정리하여 『물보』라는 이름의 책으로 엮은 것이었다. 이것은 이재위의 수필본(手筆本)으로 추정된다.

이재위가 쓴 서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물명칭에 소홀하므로 이철환이 물명(物名)을 발견하는 대로 기록해 놓았으나 체계가 없으므로 그가 다시 분류·정리하여 엮었다 한다.

「물보발」에서 이기경은 사물의 명칭[물명: 物名]이 비록 성리학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것을 모르면 이치를 알 수 없기에 이것부터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이철환의 학문에는 성리학과 물명이 겸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의

학문세계가 단순히 성리연구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학에까지 확대되고, 또한 그것이 성리학연구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다 보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기경(李基慶)이 쓴 발문(跋文)에 따르면, 그가 이철환으로부터 『물보』의 초본(草本)을 받아 손으로 베껴 두었는데, 그 뒤 이재위의 『물보』를 보니, 그 편차가 구본(舊本)과 다르며, 책 이름 ‘물보’도 이재위가 붙인 것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체제와 내용을 약간 달리하는 『물보』가 이중적으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여주이씨가의 실학적 연구의 확산을 보여주는 일면일 수 있겠다.

이철환과 그의 아들 이재위에 의해 작성된 『물보』는 천지만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고귀하므로 만물의 품성은 인류의 과학적인 분석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이롭게 됨을 강조하였다. 그 내용은 상·하 2편 8부 49류로 분류되어 2,468 항목의 物名을 수록하였다. 한편 천생만물에서는 다른 충어(蟲魚) · 조수(鳥獸)의 항목보다 초목(草木)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보아, 이들의 초목이 약재로 쓰여 일상생활에서 의학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그의 아우 이삼환이 의학을 터득하여 사람들에게 적용시킨 사실은 이와 관련하여 참고가 된다. 이들의 연구는 성호학 내에서 상호 연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 김정희의 실사구시설과 고증학적 실학

추사 김정희는 조선후기 실학(實學)의 맨 마지막을 매듭지은 고증학파의 수장이며, 추사체와 세한도로 대표되는 저명한 예술가로서 학예일치(學藝一致)의 대문호이다. 그의 학문 정신의 키워드는 “실제의 일에서 진리를 찾는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이다. 이러한 그의 실학정신은 그가 지은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과 그가 남긴 고증학적 작품들에서 잘 드러난다. 추사의 학문과 사상은 그 뿐만이 깊고 다양하여 하나의 정신만으로 설명해 내기는 쉽지가 않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먼저 그의 생애와 함께 그의 실사구시설과 금석학적 고증학에 담긴 <실학정신>을 검토하고, 그의 독창적 글씨인 추사체와 세한도로 대표되는 그의 그림 및 문학정신은 다음 장의 <예술정신>에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 추사 김정희의 생애

김정희(1786-1856)의 자는 원춘(元春)이고, 호는 추사(秋史) · 완당(阮堂) · 예당(禮堂) 등 삼백여 개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김정희의 고조는 영의정 김홍경이고, 증조는 월성위(月城尉) 김한신(영조의 딸 화순옹주와 혼인)이며, 조부는 예조판서 김이주이고, 아버지는 이조판서 김노경(金魯敬)이다. 김정희 집안은 화순옹주 와의 혼인(1732) 외에도 또 정순왕후(영조의 계비, 경주김씨 김한구의 딸)의 혼인(1759)으로 인하여 왕가의 내외척이 되는 왕실과의 혼맥을 형성하고 있었다.

#### 10대의 아픔들을 이겨내고, 20대 초에 생원이 되다

김정희는 이러한 출중한 배경의 경주김씨 가문에서, 1786년(정조 10) 아버지 김노경과 어머니 기계유씨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 출생지는 현재 추사고택과 추사묘 및 월성위 등 선영이 있는 예산현 신암면 용궁리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서울 통의동의 구 월성위궁 출생설이 대두되고 있다. 김정희는 7세에 큰아버지 예조참판 김노영의 양자가 되어 월성위의 봉사손이 되었고, 이로 인해 후에 서울 월성위궁의 주인이 된다.

그는 이미 6-7세에 입춘첩(立春帖)을 써서 자기 집의 대문에 걸 정도로 필력이 뛰어나서 차례로 박제가와 채제공의 칭찬을 받았다 한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김노경은 원래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하여지고, 또 당시 그에게 특별한 선생이 없었던 것을 보면, 김정희는 어려서 가학(家學)으로 글과 서도를 익힌 것으로 보인다. 14세가 되어서는 북학파(北學派) 실학자로 알려진 박제가의 가르침을 받았다. 김정희의 집안은 서인노론계였고, 박제가 역시 노론계 집안의 자제였으므로 이들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때 그의 박제가와의 만남은 그가 북학파 실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김정희는 15세(1800년)에 한산이씨와 혼인했다. 그러나 그의 청소년기는 비교적 어두운 그늘이 많았다. 10대 초반에 할아버지와 양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결혼 이듬해에는 친어머니 유씨 부인이 작고하였다. 같은 나이(16세)에 어머니를 잃고 3년 여묘살이 후에는 출가하여 생사의 물음을 가지고 금강산으로 들어갔던 율곡의 사례를 고려해 보면, 감수성이 예민했을 나이에 추사가 겪어야 했던 아픔과 시련이 짐작된다. 아마도 추사는 서예와 경학에 몰두하면서 이 난관을 이겨내지 않았나 한다. 그의 23세에 사용한 호가 현란(玄蘭)이었고, 또 그가 24세에 생원시에 급제 한 데서 이를 짐작해 볼 수가 있다. 그의 호 현란을 누가 지어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의 평생의 수많은 호는 대개 그가 그 자신에 대해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의 현란은 곧 목란(墨蘭)을 의미하고, 그것은 그가 이미 난에 또는 난 그리기에 흥취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그는 21세 때 집안 어른을 위해 목란도를 그려준 적이 있었다. 또 그가 24세에 생원시에 급제한 사실은 그가 그림 글씨뿐만 아니라 경학 공부에도 줄기찬 노력을 해왔음을 입증하는 바라 할 것이다.



기사증광사미방목

### 연경(燕京)에 가서 석학 옹방강·완원의 제자가 되다

1809년(순조 9)은 추사의 일생에 있어서 매우 뜻 깊고 획기적인 해였다. 그의 나이 24세가 되던 해였다. 이 해에 마침 아버지 김노경이 청나라로 가는 사은부사로 제수되었는데, 이때 추사는 자제군관이 되어 함께 중국 연경을 방문할 수 있고, 여기서 평생의 스승인 청나라의 대학자 옹방강과 완원의 제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옹방강과 완원

조선에서는 이미 18세기 전반에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기호남인계가 근기지방을 중심으로 가학적 학맥을 이어가며 경세치용(經世致用)의 실학을 전개했었고, 또 18세기 후반에는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 집권 노론계 집안의 청년 자제들은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상공업의 발달과 기술 향상을 추구하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학을 폈고 있었다. 이들 이용후생학파의 주역들은 모두 자제군관으로서 이미 중국을 다녀왔고 그 기행문을 중심으로 신지식을 담은 책자들이 소개되고 있었다. 김정희도 이제 그 길에 동참하게 된 것이었다.

이때 김정희가 연경에 머문 것은 고작 2개월 남짓이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당대 최고의 고증학자들인 옹방강·완원 등을 찾아가 어렵게 만나서 학문을 교류하면서 마침내 사제의 관계를 이루어 냈다. 당시 옹방강은 78세의 노사숙유였고, 완원의 나이도 46세의 완숙한 큰 학자였다. 김정희는 이들을 찾아가 경학에 대해서 문답하고 특히 그들이 보여주는 역대 중국의 문현과 희귀자료들을 꼭넓게 감상하면서 경학과 고증학을 배우고 또 서법을 터득하였다. 이때 옹방강은 추사에게 동방제일통유(東方第一通儒)라는 칭을 붙여주었다. 추사의 빼어난 재주와 함께 경학·도사(圖史) 등에 대한 그의 사전 공부가 철저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김정희의 대표적인 호인 '추사(秋史)'라는 이름도 이때 그가 옹방강을 만나서 필답을 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썼던 것이라 하는데, 추사는 옹방강의 친한 친구의 호와 같은 이름이었다고 전한다. 이들 중국 스승들과의 친교는 그가 귀국한 후에도 계속되면서 연구 자료를 서로 교환했고, 그것은 옹방강의 아들 옹수근에까지 이어졌다. 이 무렵 옹방강은 그에게 시암(詩盦) 편액을 보내왔고, 옹수근도 『홍두산집』을 보내왔다. 또한 김정희도 조선의 금석학 자료들을 보내어 답했다. 이러한 김정희의 중국 최고 학자들과의 교류의 폭과 그 수준은 이전에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서, 그의 학문적 신장과 그 위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었다.

## 북한산 진홍왕순수비를 고증하고, 실사구시설을 짓다

1816년(순조 16) 김정희는 친구 김경연과 함께 북한산에 올라 비봉에 서 있는 비의 정체를 밝히는 일에 착수한다. 이 비는 원래 무학대사비라고도 하고, 또는 도선국사비라고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서 추사가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한 것이다. 그는 또한 이듬해 다시 조인영과 함께 비봉에 올라 북한산비를 방문 조사하고, 드디어 이 비가 진홍왕의 순수비임을 밝히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비의 한 쪽 끝에 이 비가 분명하게 진홍왕순수비이고, 자기 김정희가 다녀갔다는 표기를 분명하게 적어 새겨둔다.



북한산 순수비 측면 탁본

예당금석과안록

그런데 바로 그해에 김정희는 또한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을 지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 주목된다. 그것은 그의 경학과 고증학의 핵심 사상인 실사구시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김정희는 실사구시의 고증학의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조선 제일의 고증학자가 된 것이었다. 이때가 1817년, 그의 나이 32세 때의 일이다. 사실상 그의 『예당금석과안록(禮堂金石過眼錄)』이 준비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 문과 급제로 출발한 관료생활

김정희는 1819년(순조 19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가 24세에 생원시에 급제한 지 10년만의 일이었다. 그간의 중국 경험과 연이은 스승들과의 연계 공부, 그리고 그 실천학으로서의 현장답사와 북한산 진홍왕순수비의 발견 등으로 볼 때, 아마도 그가 과거시험에 올인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가 문과에 합격하자 왕실에서는 ‘월성위 봉사손이’ 문과에 급제하였다라 하여 사람을 보내 축하하고 월성위 묘전에 올릴 제문을 보내오기도 했다. 당시의 추사 집안의 권위를 알게 하고, 또 그에 대한 왕실의 기대가 컸음을 알게 한다. 사실상 추사 집안은 이미 17세기로부터 명문가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즉 인조대에 그의 7대조 김홍옥은 황해도 관찰사로서 강빈(소현세자빈) 옥사의 일로 직언하다가 장살되었는데,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 명가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중조부 김한신이 월성위(1732년)가 되면서 척족(戚族)으로서 왕실의 일기를 이루는 가문으로 발전하였다. 또 7대조 김홍옥의 자손 중에 김정희의 조부와 10촌이 되는 정순왕후 김씨가 영조의 계비(1759년)가 되면서 이들 가문은 왕실과 중첩적인 종척(宗戚)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이후 김정희는 문중과 왕실의 기대를 모으며 관료생활에 충실했다. 그리하여 암행어사·동부승지·예조 참의 등을 거쳐 세자 교육을 담당하는 시강원 보덕(정 3품)에까지 차례로 올랐다. 그러나 바로 그때 1830년 생부 김노경이 윤상도의

옥사에 배후 조종 혐의를 받아 전라도의 고금도(古今島)에 유배되었다. 이 옥사는 윤상도(1768-1840)가 대리청정을 하던 효명세자(순조의 장남으로 후일의 익종, 1809-1830)의 무능을 지적하며 호조판서 박종훈 등의 탐학을 탄핵하는 상소로 발단되었는데, 순조는 당시 집권세력의 주장에 따라 이것이 군신을 이간질하고 반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그를 추자도로 유배 보내고, 그 배후 인물로 김노경이 지목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조작이었고, 이후 곧 순조의 특별 배려로 아버지 김노경은 귀양에서 풀려나 판의금부사로 복직되었다. 이후 김정희는 관직을 위태롭게 지켜가면서 1836년에는 병조참판·성균관 대사성 등에 이르렀다.

돌이켜 보면, 김정희의 관직생활은 문과급제(34세) 후 44세까지 10년간은 순탄하게 승승장구를 하였으나, 45세가 되던 1830년(순조 30) 아버지 김노경이 윤상도 옥사에 연루된 이후 유배가기까지 10년간은 위협과 불안이 점철되고 있었다. 당시 대리청정을 맡은 효명세자와 순조는 힘을 합쳐서 외척 안동김씨의 전횡을 억제하고자 하였고, 따라서 경주김씨의 김노경 김정희 부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1830년 5월 효명세자가 22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게 되면서부터 김정희의 집안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안동김씨가의 김노경에 대한 탄핵은 1830년에 이어 1832년에는 그 부자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졌고, 1834년 순조가 죽고 뒤를 이어 현종이 즉위하고 순원왕후 김씨(김조순의 딸)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서, 김정희의 집안은 또다시 공격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1840년(현종 6) 7월 윤상도 사건이 재론되면서 아버지 김노경은 이미 죽었지만 삭탈관직을 당하였고, 김정희는 예산에 내려와 있다가 나포되어 제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그에게 유배의 명이 있기 전에 그에게는 중국으로 가는 사은부사의 직임이 부여되었지만 그것도 허사가 되었다. 반외척 세력의 연대를 막기 위한 집권 외척세력의 김정희 집안 죽이기의 정치적 결과였다. 이때 사실상 김정희는 정치적 무고를 당한 것이었다. 순원왕후 김씨(김조순의 딸)의 수렴청정은 그해 12월에 막을 내리고 현종의 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번에

는 풍양조씨의 세도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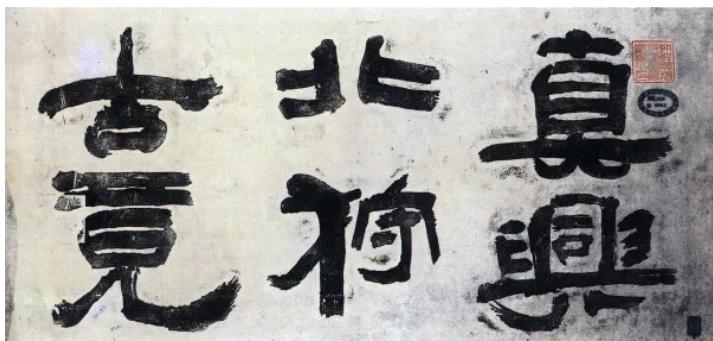
### 고난의 유배생활 – 제주 9년, 북청 2년

김정희는 1840년부터 제주도 대정에서 9년간의 긴 유배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나이 55세 때였다. 당시 그에게 정치적으로 유일한 희망은 서예에 밝아서 절친했던 친구 김유근(김조순의 아들)의 도움이었지만, 이叛 병판을 지낸 김유근은 김정희가 제주 유배를 당할 때 이미 중풍으로 반신불수의 형편이었고, 그 해에 그 마저도 병으로 죽고 말았다. 또 유배 중인 1842년에는 부인 예안이씨가 죽었다. 추사는 부인이 죽은지도 모르고 부인의 안부를 묻는 애틋한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뒤에 알고 보니 이미 부인이 죽은지 1개월 전에 부친 편지였다. 그 이듬해에는 친구 초의선사가 제주에 와서 기거하다 갔고, 또 문인 소치 허련이 제주를 다녀갔다.

그러나 추사의 억울함과 외로움은 갈수록 심해갔다. 그가 정치적으로 패배하고 유배까지 당하자 세상 사람들은 대개 다 그를 등지고 떠나갔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연락도 끊어지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오직 제자 이상적은 변함없는 사제의 정을 가지고 중국에 역관으로 오갈 때마다 구하기 어려운 진귀한 책들을 애써 구해서 보내주었다. 다른 권세가에게 그것을 주었다면 높은 벼슬이나 보상이 있을 법도 했지만, 이상적은 변함없이 외로운 처지의 스승을 저버리지 않았다. 김정희는 “추워진 연후에야 송백의 절개를 안다”는 공자의 말을 떠 올리며, 이렇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는 제자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려준 그림이 바로 저 유명한 세한도(歲寒圖)이다. 1844년, 그의 나이 59세 때였다. 세한도는 제자 이상적의 순연한 의리에 대한 추사의 보답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적을 통해 중국 문단에 전해지고, 또 세한도에 대한 중국 문인 17인의 제영(題詠, 감상문)이 다시 추사에게 전해졌다. 아마도 추사는 크게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었을 것이다. 그것은 유배의 외로움을 오직 글씨 쓰기와 그림 그리기로

버텨온 추사에게 더 없이 고마운 일이고 용기를 더해준 일이었을 것이다.

김정희는 63세가 되던 1848년, 현종 말년에 9년 만에 귀양이 풀려 유배에서 돌아왔다. 그러나 1851년 '진종 조천(眞宗祧遷)'의 예송에서 친구인 영의정 권돈인의 예설에 연루되어, 그는 또다시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었다. 예송(禮訟)은 예설 논쟁이 정치문제로 비화된 사건을 이르는 말이다. '진종 조천'이란 현종이 죽어 그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하면서 이제 5대조가 되는 진종(眞宗 : 추존왕으로 영조의 맏아들, 정조의 양부)의 신주를 종묘에서 영녕전으로 옮기는 일의 문제인데, 이때 권돈인은 조천에 반대하다가 유배를 갔고, 그 예설의 배후가 친구 김정희라 하여 그를 다시 유배가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예송은 사실상 순수 학술적 논쟁이라기보다는 정파적 대립과 갈등의 다른 표출이었다.



진종북수고경

북청에 유배 가 있던 중에 김정희는 함경감사로 부임한 윤정원의 별호 '침계(檉溪)'를 써 주었고, 또 2년 만에 해배되자 황초령비를 찾아가 그 비각에 <진종북수고경(眞宗北狩古境)>과 <황초령진종왕순수비이건기>등을 남기었다. 해배가 되었지만 이 시기는 안동 김씨가 득세하던 때라서 정계에 복귀하지는 못하였다. 아니 이때 김정희는 외척 세도정치로 정도를 잊고 있는 부조리한 조정으로 아예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 과천에서의 여생과 작품활동

67세(1852년)에 해배되어 북청에서 돌아온 김정희는 경기도 과천(果川)으로 갔다. 과천은 아버지 김노경의 묘소가 있는 곳이고, 그가 일찍이 과지초당을 지어 둔 곳이기도 했다. 과천에 있는 동안 그는 69세에 완연합벽첩을 만들었고, 70세에는 또 유명한 불이선란(不二禪蘭)을 그렸다. 그리고 71세(1856년)에는 8월에 유명한 예서체 대련 ‘대팽두부(大烹豆腐)’를 제작하였고, 또 봉은사의 편액 판전(板殿)을 썼다. 그의 마지막 유작이었다. 이렇게 김정희는 만년에 과천에 은거하면서 마지막까지 학예(學藝)와 선리(禪理)에 몰두하다가 과란만장한 그의 생을 마쳤다. 향년이 71세였다.

조선왕조실록의 김정희 졸기는 그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참판 김정희 졸기

전 참판 김정희(金正喜)가 죽었다. 김정희는 이조 판서 김노경의 아들로서 총명하고 기억력이 투철하여 여러 가지 서적을 널리 읽었으며, 금석문(金石文)과 도사(圖史)에 깊이 통달하여 초서(草書)·해서(楷書)·전서(篆書)·예서(隸書)에 있어서 참다운 경지를 신기하게 깨달았다. 때로는 혹시 거리낌 없는 바를 행했으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시비하지 못했다. 그의 중제(仲弟) 김명희와 더불어 훈지[熏篪 : 형이 훈(熏)이라는 악기를 불면 아우는 지(篪)라는 악기를 불어 회답함]처럼 서로 회답하여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지듯 당대의 대가(大家)가 되었다. 젊은 나이에는 뛰어난 명성과 명예를 드날렸으나, 중간에 집안이 재앙을 만나서 남쪽으로 귀양가고 북쪽으로 귀양가서 온갖 풍상을 다 겪었으니, 세상에 쓰이고 혹은 벼림을 받으며 나아가고 또는 물러간 것을 세상에서 간혹 송(宋)나라의 소식(蘇軾)에게 견주기도 하였다.

— 『철종실록』 8권, 철종 7년(1856년) 10월 10일 기사

김정희의 실록 줄기(卒記 : 사관이 죽은 사람의 인물과 업적 등을 간략하게 평하여 적은 기록)는 비록 짧은 글이지만, 주목되는 글이다. 파란만장한 그의 삶과 조선의 학문예술에 남긴 그의 기라성 같은 업적들을 되돌아 볼 때, 한 구절씩 공감되는 대목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금석문과 서예의 출중한 재능을 가진 대가였으며, 예술혼으로 아우 김명희와의 우애가 남달랐던 인물이었다. 짊었을 때는 뛰어난 명성과 명예를 드날렸으나 중간에 집안이 당쟁의 희생 양이 되면서 두 번이나 유배 가서 10여년을 보내야 했다. 살아온 행적이나 후세에 그 이름이 저명한 것은 송나라의 소동파(동파 소식)에 비유될 만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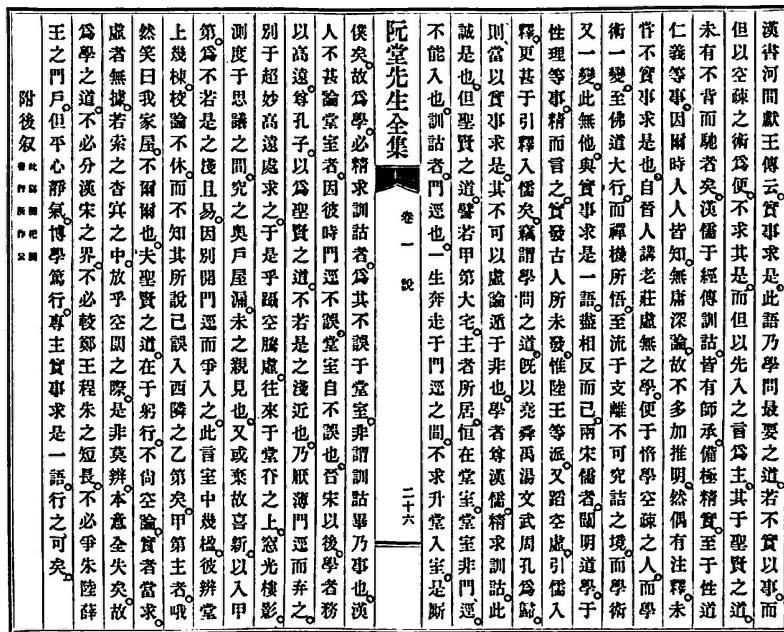


김정희 초상

이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사평(史評)이다. 그러나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종합적인 평가는 현대인의 몫이다. 추사의 줄기를 현대적으로 다시 쓰는 일, 그것은 추사연구의 남은 과제라 할 수 있다.

### 추사의 실사구시설과 실학정신

추사의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은 추사가 31세가 되던 1816(순조 16)년에 기술한 것으로, 자신의 경학관과 함께 고증학적 실학사상을 매우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 글이다. 이것은 비록 짧은 글이지만 기승전결의 체계로써 자신의 실사구시관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 글의 주조는 청나라의 스승 완원에게서 나온 것이라 하나, 추사가 그것을 수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글로써 소화하고, 또 그 제목을 <실사구시설>로 재정리한 것이므로, 이 글이 그의 실학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글에서 추사는 먼저 실사구시의 시원적 용례를 들어 그 말의 연원을 밝히고, 다음으로 실사구시의 학풍이 한대(漢代)-진대(晉代)-송대(宋代)에 각각 어떻게 수용되고 배척되고 있었는지를 개관하였다. 이어서 학문(學問)하는 도(道)는 ‘훈고(訓詁)’를 통한 진리 찾기라는 원칙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이어서 진·송대 이후에 그것이 왜곡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성현(聖賢)의 도(道)와 실사구시의 학문의 방도를 다시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다. 다음은 추사의 실사구시설 전문을 필자가 편의상 몇 개의 글로 나누어서 임의로 제목을 붙이고 그 아래에 약간의 해설을 덧붙인 것이다.

### 추사의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

#### ① 실사구시의 연원(용례)

『한서(漢書)』 하간현왕전(河間獻王傳)에 이르기를, “사실에 의거하여 사물의 진리를 찾는다.[實事求是]”하였는데, 이 말은 곧 학문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리이다. 만일 사실에 의거하지 않고 다만 허술한 방도를 편리하게 여기거나, 그 진리를 찾지 않고 다만 선입견(先入見)을 위주로 한다면 성현(聖賢)의 도에 있어서 배치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추사는 ‘실사구시(實事求是)’를 ‘학문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리’라고 규정하였다. 이른바 ‘학문의 도’를 말한 것이다. 이것은 조선에서의 이전의 실학, 즉 토지제도나 사회제도의 개혁에 방점을 두었던 경세치용적 실학(18세기 전반)이나, 상공업의 발달이나 선진 기술 도입에 방점을 두었던 이용후생적 실학

(18세기 후반)과는 구별되는 영역으로서, 대개 경학 문학 고증학 등의 학문에 방점을 둔 실학이라는 점에서 특색을 보인다. 물론 그것은 그의 예술정신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은 이때 추사는 앞의 경제 치용이나 이용후생의 사회개혁적 실학에는 어떤 입장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때는 그가 아직 혈기 왕성한 31세의 청년이었고, 왕실과 종척관계인 그의 집안이나 전도양양했던 그 자신에게 있어서 사실상 거칠 것이 없어 보이는 때여서 사회개혁적 야망을 가질 법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가 가르침을 받았다고 전해지는 박제가(朴齊家, 1750~1805)는 이미 1778년(정조 2) 『북학의(北學議)』를 지어서 이용후생적 실학을 선도했던 것과도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경제치용이나 이용후생이 아닌 학문적 예술적 측면에서의 실사구시적 실학에 옮인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제치용과 이용후생은 이미 선학들의 주장이나 업적이 있었던 때문이기도 하였겠지만, 그의 실학적 취향이 철저히 학문적이고 예술적인 데 방점을 두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이 점은 그의 실학이 지니는 변별성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②-1 한유의 훈고와 주석

한유(漢儒)들은 경전(經傳)의 훈고(訓詁)에 대해서 모두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어 정실(精實)함을 극도로 갖추었고, 성도인의(性道仁義) 등의 일에 이르러서는 그때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어서 깊이 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추명(推明)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연히 주석(注釋)이란 것이 있으니 이것은 진정 사실에 의거하여 그 진리를 찾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것은 추사가 한대(漢代)에는 한유(漢儒)의 실사구시적 학풍이 이미 정립되어 있었다고 보고, 그런데도 한대 주석이 남아 있는 것은 우연히 이뤄진 것이지만

그것은 진정 실사구시가 아닌 게 없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것은 한유의 학풍과 그들이 남긴 주석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뢰를 반영한 것이다. 훈고(訓詁)는 자구의 해석과 경서의 고증, 해명, 주석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한유는 이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 극히 정실했고, 뿐만 아니라 성도인의(性道仁義) 등의 일에 대해서도 모두 알아 논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는 중에 만들어진 주석이 간혹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정론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볼 때 추사의 지향하는 학풍은 곧 한대(漢代)의 훈고학(訓詁學)에 방점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실제로 한대의 훈고학은 후일 청대의 고증학적 학풍의 원류가 되고 있었다.

## ②-2 진대의 노장학과 불도는 실사구시와 상반된 것

그런데 진(晉) 나라 때 사람들이 노자(老子)-장자(莊子)의 허무한 학설을 강론하여 학문을 계을리하는 허술한 사람들을 편리하게 함으로부터 학술(學術)이 일변(一變)하였고, 또 불도(佛道)가 크게 행해짐으로써 선기(禪機)의 깨닫는 바가 심지어 지리해서 추구하여 따질 수도 없는 지경이 됨에 이르러서 학술이 또 일변하였으니, 이는 다행이 아니라 다만 ‘사실에 의거하여 진리를 찾는다. ([實事求是])’는 한마디 말과 모두가 상반(相反)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대에 이미 크게 유행한 노불(老佛)로 인하여 학술이 변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한대(漢代)의 실사구시적 학문 태도와는 상반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비판과 자성의 대상을 다만 유학에만 두지 않고, 도교와 불교가 유가의 학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문제까지를 거론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그의 학문상의 관심의 범주가 유학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②-3 양송(兩宋)의 성리학과 육왕학

그 후 양송(兩宋) : 북송 시대와 남송 시대를 합친한 말)의 유자(儒者)들은 도학(道學)을 천명하여 성리(性理) 등의 일에 대해서 정밀하게 말해 놓았으니, 이는 실로 고인(古人)이 미처 발명하지 못한 것을 발명한 것이다. 그런데 오직 육왕(陸王) 등의 학파(學派)가 또 실없는 공허(空虛)를 밟고서 유(儒)를 이끌어 석(釋)으로 들어갔는데, 이는 석을 이끌어 유로 들어간 것보다 더 심한 것이었다.

이것은 추사가 송대의 성리학에 대해서 ‘도학(道學)을 천명하여 성리(性理) 등 의 일에 대해서 정밀하게 말한 것으로 고인(古人)이 미처 발명하지 못한 것을 발명한 것’이라 하여 송대 성리학을 긍정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양명학에 대해서는 ‘실없는 공허(空虛)를 밟고서 유(儒)를 이끌어 석(釋)으로 들어갔다’라 하여 또한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추사가 성리학을 정학으로 인정하고 양명학을 이단으로 배척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송대 성리학은 송학(宋學), 정주학(程朱學), 리학(理學), 또는 도학(道學)이라고도 했다. 본문에서의 도학도 곧 성리학의 별칭이다. 송대의 성리학이 도학인 것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남송의 주자가 『송사』의 도학 열전에 수록되어 있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혹자는 조선후기의 실학이 성리학을 배격하여 그 대안으로 등장한 학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추사는 성리학 자체에 대해서는 ‘고인(古人)이 미처 발명하지 못한 것을 발명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학자로서의 추사의 성리학에 대한 기본 관점은 무엇인가? 이것은 다음에서 그가 훈고학을 찬양하면서 그 학문방법을 찬양하고 있는 데서 그 답을 엿볼 수 있다.

### ③-1 학문하는 도(道) : ‘훈고를 통하여 진리 찾기’

생각하건대, 학문하는 도는 이미 요 순 우 탕 문 무 주 공(堯舜禹湯文武周公)을 귀의처(歸依處)로 삼았으니, 의당 사실에 의거해서 옳은 진리를 찾아야지, 헛된 말을 제기하여 그른 데에 숨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자들은 훈고를 정밀히 탐구한 한유(漢儒)들을 높이 여기는데, 이는 참으로 옳은 일이다. 다만 성현의 도(道)는 비유하자면 마치 갑제대택(甲第大宅)과 같으니, 주인은 항상 당실(堂室)에 거처하는데 그 당실은 문경(門逕)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훈고는 바로 문경이 된다. 그러나 일생 동안을 문경 사이에서만 분주하면서 당(堂)에 올라 실(室)에 들어가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끝내 하인(下人)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학문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훈고를 정밀히 탐구하는 것은 당실을 들어가는 데에 그릇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훈고만 하면 일이 다 끝난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특히 한 나라 때 사람들이 당실에 대하여 그리 논하지 않았던 것은 그때의 문경이 그릇되지 않았고 당실도 본디 그릇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추사가 학문하는 도의 귀의처를 요 순 우 탕 문 무 주 공(堯舜禹湯文武周公)으로 전제하고, 또 그 도에 귀의하는 학문방법으로서 ‘훈고(訓詁)를 통한 진리 찾기’가 정답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것을 풀이하여 말하기를, ‘훈고’라는 것은 마치 갑제 대택(甲第大宅 : 크고 넓게 잘 지은 집)의 주인이 사는 당실(堂室 : 그 안의 집의 방)에 들어가는 문경(門逕 : 출입문)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또 주목되는 것은 문경, 곧 훈고가 중요하지만, 문경의 목적이 당실에 들어가는 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훈고의 목적은 학문의 진리를 찾는 일임을 강조한 것이다. 학문이 훈고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실사구시의 구시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실천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한 것이다.

### ③-2 진(晉) · 송(宋) 이후의 그릇된 학풍

그런데 진(晉) · 송(宋) 이후로는 학자들이 고원(高遠)한 일만을 힘쓰면서 공자(孔子)를 높이어 ‘성현의 도’가 이렇게 천근(淺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이에 올바른 문경을 싫어하여 이를 버리고 특별히 초묘 고원(超妙高遠)한 곳에서 그것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허공을 딛고 올라가 용마루 [堂廡] 위를 왕래하면서 창문의 빛과 달락의 그림자를 가지고 사의(思議)의 사이에서 이를 요량하여 깊은 문호와 방구석을 연구하지만 끝내 이를 직접 보지 못하고 만다.

그리고 혹은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좋아하여 갑제(甲第)에 들어가는 일을 가지고 ‘갑제가 이렇게 얕고 또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어 별도로 문경을 열어서 서로 다투어 들어간다. 그리하여 이쪽에서는 실중(室中)에 기둥이 몇 개라는 것을 말하고, 저쪽에서는 당상(堂上)에 용마루가 몇 개라는 것을 변론하여 설새없이 서로 비교 논란하다가 자신의 설(說)이 이미 서린(西隣)의 을제(乙第 : 이웃의 다른 집)로 들어간 것도 모르게 된다. 그러면 갑제의 주인은 빙그레 웃으며 이르기를, “나의 집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도 진(晉 : 위 오 촉 삼국 중, 위를 바로 이은 나라) 송 이후의 학자들은 올바른 문경(門逕, 출입문)을 싫어하여 이를 버리고 특별히 초묘 고원(超妙高遠 : 초월하여 오묘하고 높고 면 데)한 곳에서 그것을 찾고, 혹은 별도로 문경을 열어서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 그것이 진리를 바르게 탐구하지 못하게 되는 병폐가 된다는 것이다.

#### ④ 성현(聖賢)의 도(道)와 학문의 방도

대체로 성현의 도는 몸소 실천하면서 공론(空論)을 승상하지 않는 데에 있으니, 진실한 것은 의당 강구하고 헛된 것은 의거하지 말아야지, 만일 그윽하고 어두운 속에서 이를 찾거나 텅 비고 광활한 곳에 이를 방치한다면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여 본의(本意)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하는 방도는 굳이 한(漢)-송(宋)의 한계를 나눌 필요가 없고, 굳이 정현(鄭玄)-왕숙(王肅)과 정자(程子)-주자(朱子)의 장단점을 비교할 필요가 없으며, 굳이 주희(朱熹)-육구연(陸九淵)과 설선(薛瑄)-왕수인(王守仁)의 문호를 다룰 필요가 없이 다만 심기(心氣)를 침착하게 갖고 널리 배우고 독실히 실천하면서 ‘사실에 의거하여 진리를 찾는다는’ 한마디 말만을 오로지 주장하여 해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것은 추사의 실사구시설의 결론이다. 추사는 성현의 도는 몸소 실천하면서 공론(空論)을 승상하지 않는 데에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심기(心氣)를 침착하게 갖고 널리 배우고 독실히 실천하면서 ‘사실에 의거하여 진리를 찾는다는’ 한마디 말만을 주장해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추사는 훈고학에서 정현과 왕숙의 장단점이나, 성리학에서 정자와 주자의 장단점 같은 것을 따지는 데 빠지지 말고, 또 성리학 양명학의 문호를 다룰 필요도 없이 오직 실천과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학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그가 그에게 가르침을 준 중국의 스승들로부터 학문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서 그것은 당시 조선의 새로운 학술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시대를 선도하는 그의 예지를 느끼게 된다.

그런데 위에서 추사가 학문의 방도로써 말한 ‘널리 배우고 독실히 실천하는 것은 곧 ‘박문약례(博文約禮)’를 말한 것이다. 박문약례가 무엇인가? 그것의 어원은 『논어』 응아편의 “군자가 글에서 널리 배우고 예(禮)로써 요약하면 또한 도(道)

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君子博學於文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라 한 데에서 찾아진다. 이 말은 공자가 그의 문인교육에 지침으로 삼았던 말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후일 조선 선조 때에 율곡(이이)도 문인 교육에서 늘 이 말을 외우듯 하면서 후학을 가르쳤다 한다. 즉 송시열이 지은 『사계어록』에 “박문과 약례 이 두 가지는 성현의 학문에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양 날개와 같다.(博文約禮二者 於聖門之學 如車兩輪 如鳥兩翼)라 한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의 ‘박문’은 글에서 얻은 지식이고 ‘약례’는 실천이다. ‘그것을 요약하여 예로써 한다는 것은 곧 예로써 실천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현의 학문을 힘에 있어서 지식[이론]과 실천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과 자칫 이론[지식]만 내세우고 실천이 따르지 못할 것을 경계한 말이라 생각된다. 후대에 윤곡은 조선 실학의 비조로 말해지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그의 박문약례 교육철학은 그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추사의 실사구시론을 보면, 그 역시 공자와 윤곡이 강조한 이 박문약례의 정신에 주목하고 있었음을 확인케 된다. 그리하여 그도 박문약례를 학문하는 방법의 기본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주목되는 것은 그가 그 위에 다시 ‘실사구사라는 새로운 학문방법을 보태서 자신의 고증학적 실학정신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사구시는 실로 추사의 고증적 실학정신의 화두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 금석문으로 본 추사의 실학정신

추사는 31세가 되던 1816년(순조 16)에 친구 김경연과 함께 북한산에 올라 비봉의 빗돌을 답사하였고, 이듬해에 다시 조인영과 함께 이 빗돌을 답사하여 그것이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무학대사비나 도선국사의 비가 아니라 북한산 진홍왕순수비임을 밝혔다. 이것은 그가 청나라에서 스승 옹방강과 완원으로부터 배운 고증학을 고비(古碑)에 대한 현장조사로 실천하여 얻어낸 최초의 성과였고,

또 최고의 성과였다. 그의 『예당금석과안록』의 글쓰기가 이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산진홍왕순수비

추사의 금석 고증학 여정은 대개 3기로 구분된다.

### ① 30대의 금석학

- |               |                        |
|---------------|------------------------|
| 31세(1816)-32세 | 북한산비 조사(북한산 진홍왕순수비 고증) |
| 32세(1817)     | 경주무장사비 단편 고증과 문무왕비 빌굴  |
| 39세(1824)     | 창림사 출토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고증    |

## ② 40대 중후반의 금석학

44세(1829) 평양 고구려의 성벽 석각 발견

47세(1832) 『예당금석과안록』 저술

## ③ 60대의 금석학

67세(1852) 북청 유배지에서 신라 옛 강토를 답사하고 쓴 석노시, 진흥북수고경(眞興北狩古境)은 그 종결에 해당한다. 특히 진흥북수고경은 학예일치(學藝一致)의 절정으로 추사체의 대표적 예술 작품의 하나이다.

이러한 추사의 금석학 연구의 결과들은 그의 실사구시 정신의 실천적 작업의 산물로 실학정신을 대표하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의 결실로서 예술로 분류될 수 있는 것도 있다. 전자가 북한 진흥왕순수비로 대표될 수 있다면, 후자는 진흥북수고경(眞興北狩古境)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진흥왕순수비의 고증 사례에 대해서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4세 연행 이후 추사가 중국에서 수학한 금석고증학을 처음 우리 역사 현장에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31-32세 때의 북한산 진흥왕순수비 고증이다. 그는 31세 때 김경연과 함께 북한산 비봉에 올라 묵은 빗돌을 답사하여 고찰하고서 비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직접 새겨두었다.

이것은 신라 진흥대왕의 순수비이다.

병자년(1816) 7월 김정희와 김경연이 와서 읽고 간다.

此新羅眞興大王巡狩之碑 丙子七月 金正喜 金敬淵 來讀

그리고는 또 이듬해에도 조인영과 함께 비봉에 올라 이 비를 재차 답사하고는 자세하게 남아 있는 글자 68자를 확정하였다. 이 사실도 다음과 같이 새겨두고 있다.

정축년(1817) 6월 8일,

김정희 조인영이 함께 남아 있는 글자 68자를 살펴서 정하였다.

丁丑年 六月八日 金正喜 趙寅永同來 審定殘字六十八

이때 그는 이 비문을 또 다른 진홍왕 순수비인 <황초령비 탁본>과 일일이 고증하여, 이 비석의 머리글의 글귀를 '진홍태왕순수관경(眞興太王巡狩管境)'으로 맞춰 낸다. 그리고 그 결과를 조인영에게 논문 같은 편지로 자세하게 전했는데, 이것은 그의 실시구시적 태도로써 옛 것으로 지금을 증거해 낸 것이었다.

그는 이 두 비문의 내용을 토대로 『삼국사기』, 『문헌비고』 등의 기록과 비교하여 7000여 글자의 「진홍이비고(眞興二碑考)」라는 논문을 완성해 낸다. 이것이 그의 나이 47세 때의 일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금석학 연구에서 최초의 논설로 평가된다. 그의 금석학을 대표하는 『예당 금석과안록』은 바로 「진홍이비고」의 별칭이다. 또한 김정희는 '평백제비', '당유인원비', '경주문무왕비', '진주진감선사비', '문경지증대사비', '진경대사비', '경주무장사비' 등 모두 7종의 비문을 연구한 금석학 연구서인 『해동비고(海東碑考)』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추사가 이 북한산 순수비를 처음 찾았던 해(1816년)는 그가 그의 실시구시정신을 이론적으로 밝힌 앞의 「실사구시론(實事求是論)」을 지었던 바로 그 해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의 실사구시에 대한 확고한 이론의 정립과 현장에서의 고비문 연구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추사는 이미 청년기에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조선 제1의 고증학적 실학자가 되었다.

이러한 김정희의 금석학에 대한 열기는 청나라 학자와의 금석문 자료 교류로 이어졌고, 결국 청나라 학자에 의해 조선의 금석문에 대한 저술이 나오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김정희와 동갑내기인 옹수곤(옹방강의 아들)은 김정희 외에도 홍현주, 신위, 유최관 등 조선 학자들에게서 제공 받은 금석 탁본의 비문을 판독하고 평가한 『해동금석영기(海東金石零記)』를 저술하였다. 또 청나라 학자 유희해는 김정희와 아우 김명희 및 조인영이 보내준 조선의 금석문을 모아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을 편찬하였다. 조선에서는 조인영이 『해동금석존고(海東金石存攷)』를 쓰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김정희는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의한 고증금석학의 꾸준한 연구와 국내외에 미친 영향으로 조선 고증학의 비조(鼻祖)가 되었다. 또한 그는 조선과 청나라의 수많은 비석 탁본 등의 금석문 자료와 법첩(法帖) 등을 수집하여 연구하고 피나는 노력을 첨가함으로써, 청장년기 이후에는 스승 옹방강의 글씨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신만의 서체를 창조하였으니, 그것이 곧 추사체였다. 그의 예술로서의 서화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 4. 예산 실학정신의 특성

예산 실학(實學) 정신의 특성은 대개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실학은 예산세계 여주이씨가의 근기남인적 실학풍과 서인 노론계의 추사 김정희의 고증학적 실학풍이 차례로 형성된 복합적 실학풍을 형성하여, 2가지의 실학정신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경세치용적이면서도 경학적 문학적 박물학적 특색을 보이고 있고, 후자는 실학시대의 경세치용학 이용후 생학을 넘어, 학문탐구에 방점을 둔 실사구시적 실학정신이 주를 이룬다.

둘째, 추사의 실사구시정신은 단순히 금석학적 고증학이나 학문적 고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실제에서 진리를 구한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로서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그의 <실사구시론>에는 한송불분론(漢宋不分論)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 한대의 고증학과 송대의 성리학을 대립적이거나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양자를 융합적으로 수용하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당시의 조선 학계가 해결해야 하는 분파성을 극복하는 방향과 방안을 제공하였다. 그 답은 바로 실사구시였으니, 즉 어떤 학문이든 어떤 일에서건 그것은 결국은 실사구시(實事求是)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셋째, 추사의 고증학은 북한산진홍왕순수비의 고증에서 보듯, 그의 동지로서 김경연(1차 답사 참여)과 조인영(2차 답사 참여)이 각각 참여하는 식의 공동참여와 학습 전수 등을 통하여 고증학파를 이루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엄정한 고증을 통한 실사구시의 구현이라는 실학정신의 가치를 뿌리내리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김정희는 조선 고증학의 문을 열었고, 가장 큰 결실을 이룩한 조선 최고의 고증학자였다.





## 4장

# 예산의 예술<sup>藝術</sup> 정신

1. 묵향의 본향, 예산의 서예가들
2. 문향의 고장, 예산의 문인들
3. 근현대 예산의 문학과 미술
4. 예산 예술 정신의 특성

## 1. 묵향(墨香)의 본향, 예산의 예술가들

예산의 예술은 다양하고 화려하다. 시·서·화(詩書畫)에 저명한 인물들이 줄을 이어 나왔고, 그 내용과 수준이 출중하여 예산은 가히 ‘문향(文鄉)’이요, ‘묵향(墨香)’의 본향이라 칭할 만하다. 조선전기의 4대 명필의 한사람인 김구는 인수체(仁壽體)의 창시자이고, 조선 중후기의 이산해와 이서는 출중한 서예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서(성호 이익의 형)는 평생을 서예 연구에 집중하여 동국진체(東國晉體)의 창시자가 되었고, 그가 남긴 『필결(筆訣)』은 경학적·성리학적 서예 이론서로서 주목된다. 그리고 조선후기의 추사 김정희는 예산의 예술계를 대표하고, 나아가서 조선의 예술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의 결실이 예술로 열매를 맺은 것이 곧 추사체(秋史體)이고 세한도(歲寒圖)이다. 전자는 조선 서예의 정수이고, 후자는 조선 문인화의 얼굴이다.

### 조선 전기 4대 명필, 인수체의 김구

#### 조선 전기의 4대 명필로 선정되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는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을 전기라 하고 이후를 후기라 한다. 조선전기는 주자 성리학을 치국의 이념으로 삼아 대개 15세기에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응용하여 문물제도를 정비하였고, 16세기에는 그것을 학술 문화적으로 활용하여 조선시대의 학문과 예술의 기반을 닦았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학문과 예술의 기본으로서 서예(書藝)가 발달하였는데, 특히 조선전기의 안평대군 이용(李容, 1418-1453), 김구(金絃, 1488-1534), 양사언(楊士彦 1517-1584년), 한호(韓濩 1534-1605년) 등이 조선전기 4대 명필로 손꼽힌다.

그런데 이들 4인에게 ‘국조 4대 명필’의 이름을 붙여 준 것은 18세기의 서예가 원교 이광사(李匡師 1705-1777년)였다. 그러면 이때 이광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4대 명필로 선정한 것일까? 조선전기 서예사에서의 김구의 서예적 가치와 그 위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명필 4대가에 대한 이광사의 평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조선시대의 명필에 대한 언급은 여러 기록들에서도 보이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국조 4대 명필’로 정리한 것은 소론계의 원교 이광사에 의해서였다. 이광사는 그의 『서결후론(書訣後論)』에서 이들 4대가의 서예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 ① 안평대군 이용

글씨는 빼어난 풍치가 아름다워 사랑스러우며 재기(氣)가 가장 우수하였으니, 마땅히 조맹부와 함께 서로 높고 낮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맹부의 필법을 전적으로 사용하여서 속됨을 면치 못하였다. 또 안평대군은 귀공자로써 이 필법을 맨 먼저 창시하여 한 시대를 눈부시게 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열조(朝)의 어필(御筆)이 모두 이 필법을 사용하니, 드디어 나라의 습속이 되었다. 이 몇 해 전에는 온 세상이 쓸리어서 왕희지, 조맹부라고까지 하였고, 또는 안평대군의 획법으로써 조맹부의 필체를 썼다고 하니, 웃을 수밖에 없다.

### ② 자암 김구

해서(楷書)는 비루하여 볼 만한 것이 못 되는데, 대자(大字)와 행서, 초서는 필법이 자못 훌륭하나 필력은 둔하고 느리다. 일찍이 홍산(山) 유세모(1687년 -?)의 집에서 큰 글씨 한 폭을 보니 의젓하게 뛰어나서 그의 글씨도 쉽게 평론할 것이 아니었다.

### ③ 봉래 양사언

초서(草書)는 호탕하여 탈속하였는데 언뜻 보면 장우(張遇)보다도 뛰어나고

왕희지를 지나칠 것 같으나 재기는 있어도 학문이 없고 곁보기는 근사하여도 뼈대가 없어서 대가가 되지 못하였다.

#### ④ 석봉 한호

재주와 학문이 높지 못하였으나 연습을 쌓은 공으로 비록 옛사람의 획법은 알지 못하였어도 자연히 서로 합치하였는데, 처지가 미천하였던 까닭에 관청의 서사(書)에 일정한 법식의 구속을 받았었다. 해서(楷書)는 더욱 비루하였으나 필력은 볼만하였고, 행서·초서의 잘된 곳은 웅장하고 힘차서 송·원의 명필보다도 뛰어났다고 하여도 잘못이 없을 정도이다.

이로써 보면 이광사의 이들 4대가에 대한 평가는 그들 서예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극찬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비판한 내용도 없지가 않다. 이것은 서예 작품의 평가에 있어서 이광사의 엄정하고 칭찬에 인색한 일면을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일단 4대가로 선정한 것이므로 그 선발 기준에 더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광사가 4대가에 대한 논평에 뒤이어 적고 있는 백하 윤순(尹淳, 1680-1741)에 대한 평가와는 상당히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 윤순은 윤두수의 5대 손으로, 소론 윤증계인 정제두의 문인이다. 그는 진사시에 장원 급제하고 문과를 거쳐, 벼슬이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그는 시서화에 모두 뛰어났으며 특히 글씨는 해 행 초서가 주로 남아 있는데, 해서는 왕희지 안진경 소식 문정명을 두루 수용했고, 행서는 미불을 수용했다. 서예사적으로는 대개 미불과 동기창의 서풍을 수용하여 18세기 후반의 서풍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되는데, 이광사가 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광사는 윤순(윤두수의 5대 손, 정제두의 문인)의 글씨에 대해 “윤순은 늦게 나서 중국의 획법을 독학하였는데, 서체가 신기·절묘하고 재사(才思)가 교묘, 화려하여 동방 사람의 비열함을 완전히 씻었으니 후학을 개발한 공이 4대가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 하였다. 즉 이광사가 볼 때 윤순은 명나라가 망한 이후에

태어나서 독학으로 일가를 이루었는데, 명나라 명사들의 평가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4대가에 못지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광사의 명필 선정 기준이 중국의 획법 습득 여부, 동방(우리나라)적 서예 습속의 탈피 정도, 후학을 개발한 공(功) 등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 획법 습득의 정도는 그 작품에 대한 중국인(명나라인)들의 평가를 중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안평대군과 한호는 이미 명나라에 필명을 날렸다고 전제하고 있음도 주목할 일이다. 특히 김구에 대해서는 ‘해서(楷書)는 볼 만한 것이 못 되고, 대자(大字)와 행서, 초서는 필법이 훌륭하나 필력이 둔하고 느리지만, 큰 글씨 한 폭을 보니 의젓하게 뛰어나서 쉽게 평론할 수가 없다’ 했다. 이광사는 특히 김구의 대자 행 초서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구의 글씨에 대한 중국인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 조선의 새로운 서체, 인수체를 창시한 자암 김구

그렇다면 조선전기 명필 4대가에 대한 이상의 이광사의 평가 등을 참조하면서, 이제 서예사에서 자암 김구의 독창적인 서예로 평가받고 있는 인수체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자. 먼저 그의 서체가 조선전기 4대 명필로 뽑힌 추가적인 요건은 무엇이며, 또 그의 글씨가 조선 고유의 서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려 말 아래 조선 전기까지도 서도의 대종으로 군림해온 서체는 조맹부의 송설체(松雪體)였다. 14세기 초 충선왕은 연경에 만권당(1314년 건립)이라는 독서당을 세워놓고 이제현 등 고려의 학자를 양성하며 원나라의 학자들과도 폭넓게 교유했는데, 그때 만권당의 큰 손님이 곧 원나라의 송설 조맹부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그의 글씨체인 송설체가 고려에 적극 유입되었고, 그것은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조선전기에 왕실과 어필(御筆)에 큰 영향을 끼치며 서체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16세기에는 송설체를 극복하고 진체(晉體), 곧 왕희지체로 돌아가려는 변화의 움직임도 나타났다. 그것은 이 시기의 문화 예술 전반에 나타나는 다양성 추구와 조선화(朝鮮化)의 변화 풍조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도 했다. 16세기 후반에 주자성리학이 퇴율에 의해서 조선적 색채가 강한 조선성리학으로 변화되어지는 추세도 그 연장이었을 것이다. 이런 변화를 선도한 것은 서예였고, 그 선두에 김구의 인수체가 자리하고 있었다.

김구는 당시 조선에 주류로 자리잡고 있던 송설체가 서체의 원류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그 이전의 서체, 즉 왕희지의 진체(晉體)로의 복고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기에 자신의 조선적인 색체를 더하여 인수체(仁壽體)라는 독자적인 서체를 만들었다. 그의 「묘비명」에 의하면 ‘중국인들이 그의 글씨를 보배로 여겨 경쟁적으로 사 간다는 말을 듣고서, 그는 붓을 꺾고 다시 글씨를 쓰지 않아 그의 글씨가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드물다고 하였다. 그의 글씨를 중국인들이 경쟁적으로 사 갔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그의 글씨를 인정한다는 것이겠지만, 그가 이 말을 듣고 ‘붓을 꺾고 다시 글씨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중국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인수체를 조선의 글씨로 자부하는 그의 탈 중국적 성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수체의 필법과 후대인의 평가

그러면 김구의 필법은 어떤 것이었는가? 김구의 필법은 이미 송설체를 극복하고 위진시대의 왕희지의 필법을 얻고 있었다. 그것은 곧 인수체의 방향과 그 기본 성격을 알게 한다. 그런데 그것을 또한 인수체로 명명한 것은 그의 필법이 이미 왕희지체까지 극복하고 자신만의 필법을 구사하는 데 까지 나아갔음을 시사한다. 다음의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 자암서법 난정체(自庵書法 蘭亭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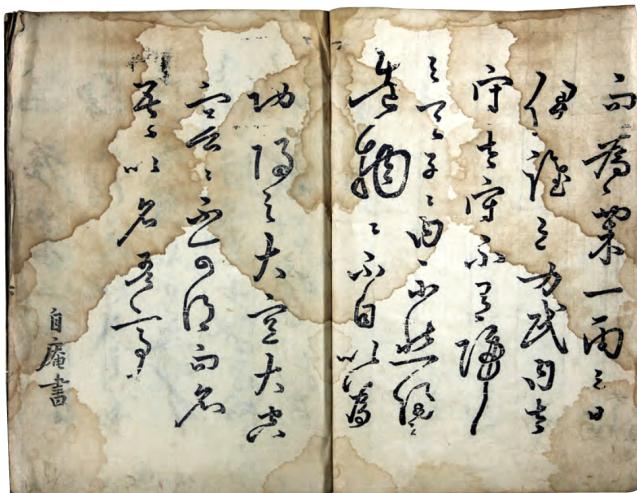


자암서법 난정체

이것은 동진의 서예가 왕희지의 『난정집서(蘭亭集序)』를 자암이 임서(臨書)한 대자 글씨인데, 목판본으로 만들어 임출한 것이다. 이 첨본에는 비록 낙관(落款)이 없는 임서지만, 자암 서체의 특징인 '필획 굵기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그의 작품임이 틀림없는 필적임을 알게 한다.

자암은 황희지를 익혀 인수체를 완성한 명필이다. 인수체는 왕희지 필법을 배웠지만 왕희지와는 구별되는 필법을 완성한 서체로 그 만의 특징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후세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수체라고 불렀던 것이다. 같은 글씨를 공부 하더라도 필자의 성정(性情)에 따라서 각자 다른 특징적인 필획(筆劃)과 결구(結構)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 필첩은 인수체의 발생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필첩이다.

## 희우정기(喜雨亭記)



희우정기

이 필첩은 당나라 소식(蘇軾)의 「희우정기」를 초서로 쓴 것이다. 이것은 다른 글씨와 달리 작품화 한 것을 목판으로 인출한 것이다. 그리고 「희우정기」는 유일하게 자암(自庵)의 낙관이 있는 작품이다. 다만 이는 후락으로 해서로 낙관하였다. 「희우정기」는 단순한 필사의 개념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작품의 개념으로 서사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글씨와 구별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의 필획과 결구 그리고 장법까지도 완전하게 살펴 수 있는 그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초서 작품이다. 비록 목판본이지만 인수체의 초서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다음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암 김구의 대자 초서이다. 이것은 자암이 쓴 두보(杜甫)의 절구 2수 가운데 일부로 초서(草書) 글씨 8자이다.

지일강산려(遲日江山麗) 춘풍화(春風花)



지일강산려 춘풍화

자암이 쓴 이 큰 글씨의 초서는 힘이 넘치는 필획과 동감이 커서, 마치 춤을 추는 듯, 또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또 양쪽 화면의 글씨 배치와 여백의 효과는 균형과 긴장감을 함께 느끼게 해 준다.

지일강산려(遲日江山麗) 나른한 봄날에 강산이 아름답고  
춘풍화초향(春風花草香) 봄바람은 꽃향기 싣고 불어오네  
니옹비연자(泥融飛燕子) 진흙 녹으니 집 지으려는 제비들 날아오고  
사난수원앙(砂暖睡鴛鴦) 따뜻한 강모래에 원앙 한 쌍이 잠들었구나

– 윤근수가 김구의 「자암시첩(自庵詩帖)」에 붙인 글

다음은 윤근수가 후일 김구의 시첩에 쓴 「제자암시첩(題自庵詩帖)」의 일부이다.

공의 글씨는 깊이 위진시대의 필법을 얻었으니, 지금 글씨를 배우는 사람들 이 보고 베끼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글씨를 평하는 사람들은 혹 그를 두고

‘힘차지만 맹렬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강한(1455-?)은 ‘맹렬하지만 힘차지는 않다고 하면서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하니 또 어떻게 정론을 얻을 수 있겠는가? 시에는 완연히 당시의 풍골이 있어, 공(公)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져 흐름이 끊이지 않아 이를 확대하여 크게 했다면, 이미 이룬 업적이 어찌 여기서 멈출겠는가?’

이 시첩은 김구가 자신의 시를 손으로 직접 써서 만든 것이다. 위의 글에서 윤근수는 김구의 글씨는 깊이 위진(魏晉) 시대의 필법을 얻은 것이어서, 지금 글씨를 배우는 사람들이 보고 베끼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고 중언하고 있다. 윤근수가 이 글을 지은 것이 1602년이니, 김구가 세상을 떠난 지 약 70년에 가까운 시점이었다. 그런데 김구의 글씨가 그렇게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모범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니 그의 글씨의 영향력을 가히 알 수가 있다.

또 윤근수는 당시의 사람들이 김구의 글씨를 평하기를, ‘힘차되 사납지는 않다’ 즉 ‘위이불맹(威而不猛)’이라 한다고 전하고, 시인 강한은 그 반대라고 평하면서 장단점을 말하고 있으나 정론을 얻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시에는 완연히 당시의 풍골이 있는 법, 따라서 하늘이 그에게 시간을 좀 더 주어 흐름이 끊이지 않고 그것을 확대해 갈 수 있었다면 그의 업적이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고 아쉬워했다. 또한 윤근수는 같은 글에서 “중국의 저 명필이라는 사람들, 즉 조맹부, 왕희지, 저수량 등 여러 사람들은 모두 행실은 전하지 않고 다만 작품만 남아 있지만, 자암 김구는 깨끗하기 그지없는 명신으로 재주를 다시 겸해 갖추었으니, 이 시첩과 같은 것은 보물로 보관해야 할 것이라” 했다. 청렴한 인품과 명신으로서의 지위와 명필의 재주를 가진 김구의 인수체로 써어진 그 서첩이야 말로 보물의 가치를 지닌다는 평가인 것이다.

요컨대 김구의 인수체의 성격은 위진시대의 필법을 얻은 것으로서 그 특징은 ‘힘차되 사납지는 않다’는 위이불맹(威而不猛)에 있다는 것이며, 특히 김구가 그

의 글씨로 쓴 그의 시첩은 그 품격 높은 저자의 인물적 가치까지 더해져서 ‘보물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 김구의 인수체에 대한 이정형 · 김세렴 · 안로의 평

위의 윤근수의 해석과 평가 외에, 또 다른 후대인들은 김구의 인수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이정형 · 김세렴 그리고 안로의 평가가 주목된다.

이정형(1549-1607년)은 남인계열의 학맥을 이은 인물로, 양주목사를 역임하였고, 성리학에 밝았을 뿐 아니라 제자백가 성력(星曆) 복서(卜筮) 등 다방면에 능통하여, 이원의 이수광 등과 가깝게 친교하였다. 그는 그의 『황토기사』(黃兔記事)에서 “김구의 초서(草書)를 천하제일이라 칭하였는데, 김구의 글씨가 명나라에 알려져서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들리자 글씨쓰기를 기꺼워하지 않아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드물다”고 하였다.

또 김세렴(1593-1646)은 문과에 장원하고 흥문관 제학 등을 거쳐 그 벼슬이 호조판서에 이르렀는데, 문장이 아름답고 특히 시문에 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은 김구의 「신도비명」에서 “선정신, 모제 김안국(1478-1543)이 과거시험장의 고관이었는데 그 시권(김구의 시권)을 가리키며 ‘한퇴지의 글에 왕희지의 글씨로다!’라고 평하였다. 그리하여 김구는 마침내 생원 진사에 모두 장원이 되니 국조에 드문 일이다. 필법이 강건하고 스스로 일가를 이루어 세상에서는 인수체(仁壽體)라 하는데, 대개 공이 인수방에 살았기 때문이다. 뒤에 화인(華人, 중국인들)들이 구입한다는 말을 듣자 절필하고 쓰지 않아서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드물다”고 하였다.

그리고 안로(安璐, 1580-1657년)는 김정국의 『기묘록』에 이어 『기묘록보유』를 지은 인물인데, 김구의 글씨에 대해 “공의 필력이 경건하여 종요, 왕희지의 필법을 본받았다. 일찍이 명나라 사람이 공의 글씨를 보배로 여긴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드디어 쓰지 않으므로 그의 필적이 세상에 드물다”고 하였다.  
 『해동잡록』의 「기묘록보유」 김구 전(傳)에서도 “김구는 문명이 있었고 필법의 굳셈이 중요와 왕희지를 본받았다”라 하였다.

김구의 글씨에 대한 이상의 평가들을 종합해 보면, 김구가 생원 진사시에 장원한 그 답안은 왕희지체였고, 전체적으로는 필법이 강건하고 필력이 경건하여 중요 황희지의 필력을 본받았고, 나아가서 스스로 일가를 형성하여 인수체를 이루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것은 앞에서 윤근수가 김구 글씨의 특징이 ‘힘차 되 사납지는 않다는 위이불맹(威而不猛)’에 있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김구가 당시 유행하던 송설체를 탈피하여 더 이전의 왕희지체로의 복구를 추구한 경향성을 알게 하고, 나아가서 이 과정에 자신의 독특한 서체인 인수체를 창립했다고 할 수 있겠다.

자암의 필법, 인수체는 “그의 사후 70여 년이 지난 임인년(1602년, 선조 30)경 까지도 조금도 쇠퇴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이 후세에 미친 영향과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다. 자암의 인수체는 조선중기 기묘명현의 사립적 서체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주자성리학을 극복하고 조선성리학의 단초가 열리는 하나의 시단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먼저 서화에서 조선의 고유색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발현 시기와 특성으로 보아, 자암의 인수체는 지역적으로도 예산 묵향(墨鄉)의 새로운 문을 연 개척자적 위상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전하고 있는 김구의 작품으로는 『자암필첩』, 「이겸 묘지」, 「우주영허첩」,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두보 시, 경남대 데라우치 문고의 「시고」 등의 단편이 있다.

## 이산해의 글씨와 동국진체의 창시자 이서

### 이산해의 글씨

#### 서화(書畫)와 문장에도 출중했던 당대의 문인

이산해(李山海)는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북인정파를 이끌며 선조 때 두 번이나 영의정에 올랐던 선이 굵은 정치가였다. 또한 그는 서화(書畫)에 능하였고, 또 문장팔가(文章八家)의 한 사람에 꼽힐 정도로 글에도 능하여 당대의 문인으로 이름이 드높았다.

이산해(1539-1609)의 자는 여수(汝受), 호는 아계(鵝溪·종남수옹(終南睡翁), 본관은 한산이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목은 이색의 7세손이고, 부친은 내자시정(內資寺正) 이지번이며, 토정 이지함이 그의 속부이다.

이산해는 1539년(중종 34) 서울에서 아버지 이지번과 어머니 의령남씨(남수의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속부인 이지함에게 글을 배웠는데 5세에 시를 짓고 6세에 글씨를 잘 써서 신동으로 소문이 났고, 15세가 되기도 전에 향시(鄉試)에 장원하였다. 1558년(명종 13) 진사가 되었고, 1561년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갔다. 이듬해(1562년, 24세)에 홍문관 정자가 되었는데, 명종의 명으로 경복궁 대액(大額)을 썼고, 중국사신이 오면 원접사(遠接使)로 자주 파견되었다.

이후 선조대에 이산해는 육조(六曹)와 삼사(三司)의장을 두루 거치고, 북인정파를 이끌면서 1589년 영의정에 올랐다. 이듬해 그는 명나라 실록과 법전에 태조 이성계의 가계가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을 시정케 한 종계변무(宗系辨訛)의 공으로 광국공신(光國功臣)에 책봉되었다. 그리고 1591년에는 좌의정 정철이 세자 책봉을 주장하자 이를 계기로 무더기로 서인을 탄핵하여 북인정권의 틀을 확고히 정립하였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이산해는 선조를 모시고 피난을 주도하였으나, 도중에 파직되어 백의종군하였고, 이후에 다시 탄핵을 받아 강원도 평해에

3년간 유배되었다. 유배가 풀린 후 곧이어 복직하여 대제학을 겸하였고 북인이 분당할 때에는 대북파의 영수가 되었다. 1599년(선조 32) 다시 영의정에 오르고 아성부원군(鵝城府院君)에 책봉되었으나 이듬해 파직되었다. 이후 부원군으로 복직되었지만 국정에 깊이 개입하지는 않았고, 1608년(선조 41년) 선조가 갑자기 사망하자, 원상으로서 정무를 주관했고 옥새를 탈취하려는 소복계열의 음모를 사전에 차단한 뒤 광해군에게 옥쇄를 넘겨주었다.

이후 이산해는 모든 공직을 사직하고 예산 근교의 신창으로 내려와 병을 치료하면서 산천을 유람하며 살다가 1609년(광해 1) 7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광해군은 이산해를 극진히 대접하여 죽은 후에도 직접 장례 일정을 챙기고 1611년에는 제수를 하사하였다.

이산해는 화려한 정치적 이력 못지않게 문장과 서화로도 이름이 높았다. 그는 선조대의 문장 8대가에 들었으며, 특히 서예에 능하여 초서 대자(大字)와 산수묵도에 뛰어났다. 작품으로 「제관악산인정각시권(題冠岳山人正覺詩卷)」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1599년에 쓴 초서 「간찰」이 있다. 조맹부의 송설체(松雪體)를 잘 썼다. 그리고 비갈 글씨로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의 옥산서원에 있는 「이언적 신도비(李彦迪神道碑)」와 용인시의 「조광조신도비(趙光祖神道碑)」가 있다. 저서로 『아계집(鵝溪集)』이 있다. 그는 또한 한시에도 조예가 깊어 허균이 극에 달하였다며 칭송한 바 있다. 문집으로 『아계유고』가 있으며 친필 유품을 상당 수 남겼다.

이산해의 묘소와 신도비, 사당이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319-50(방산리 산7-1)에 있다.

### 이산해의 서풍과 글씨

이산해는 서풍(書風)이 있는 가학(家學)을 계승하고, 또 타고난 자신의 글씨 재주를 비탕으로 고급의 서풍을 두루 수용하여 자신의 서예의 풍격(風格)을 이루어냈다.

그의 서예 형성에 영향을 준 서체나 서풍은 대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가 있다.

이산해는 먼저 해서(楷書)에서는 고려 말 이후 조선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원나라 조맹부의 송설체를 따랐다. 그러나 송설체가 이미 16세기에 들어와서 완곡하고 연미한 외형적 특징이 차츰 열어지면서 근정 단아한 풍격으로 바뀌어 갔는데, 이산해는 바로 이러한 송설체의 경화적 변화의 단계에서 당대를 대표하는 여러 비갈문 필적을 남겼다. 예컨대 이언적 신도비, 정암 조광조 신도비 등이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또 이산해의 대자서에서는 원나라 설암의 서풍을 수용하면서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으며, 대신에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런 필치를 구사하였다. 예컨대 경주 옥산서원 편액(1574), 옥산서원 독락당 등이 그것이다. 옥산서원 편액은 1838년 구인당의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후에 그 모사본 편액을 만들어서 현재 구인당 안쪽에 걸려 있다.



옥산서원 편액



옥산서원 독락당

다음으로 이산해의 초서(草書)에 있어서는 다양한 서체 서풍이 수용되었다. 즉 소자 행초(小字 行草)에서는 왕희지 등의 고법과 한석봉의 석봉체, 그리고 자기 집안의 전래의 서풍을 두루 수용하였고, 중자 행초(中字 行草)에서는 명나라 축윤명(祝允明, 1460-1526)의 솔직하고 호방한 서풍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축윤명은 명나라 중기의 개성이 강한 서예가로 철저한 고법(古法)의 연구와 부단한 노력으로 결국은 유창하게 자신의 성정을 확실하게 표현한 서예가였다.

『축윤명서법』은 그의 대표작들을 모은 책으로 행초서 연구의 모범서로서 오늘 날까지도 정평이 나 있다. 그리고 대자 광초(大字 狂草)에서는 대개 회소·장필·황기로로 이어지는 광초서풍을 계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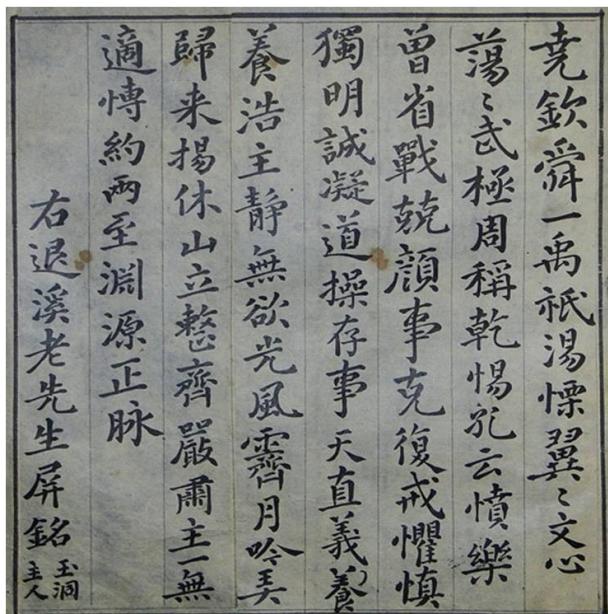
이산해의 서예는 특히 이 명나라 광초 서풍에 영향을 받아 분방한 광초(狂草)로 이름이 나 있다. 그 맥을 이은 고산 황기로의 광초풍은 글씨의 근본을 왕희지에 두고 있는 16세기의 도학시대에는 사실상 금지시 된 글씨였다. 원래 광초는 초서 중에서도 미친 듯이 휘둘러 쓴 글씨이고 보면 문예를 도덕의 표현으로 간주하면서 서예의 모든 점획과 글자를 한결같이 경한 자세로 엄정 단아하게 쓸 것을 주문하는 주자·퇴계의 예덕일치의 관점과는 상이한 서체였다. 따라서 16세기 도학시대에 광초는 사실상 금지된 글씨였다.

### 동국진체의 창시자 옥동 이서

이서(李淑, 1662-1723)의 자는 징지(澄之), 호는 옥동(玉洞)·옥금산인(玉琴散人)이고 아명(兒名)은 서(瑞), 본관은 여주이다. 사시(私諡)는 홍도선생(弘道先生)이다. 사시란 문장과 도덕이 뛰어난 선비지만, 관직이 낮아서 나라에서 시호를 내리지 아니할 때, 그 선비에게 친척이나 고향 사람 또는 제자들이 올리던 시호를 말한다. 이 시기의 이서의 재야적 명성과 위상을 가늠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의 부친은 대사헌을 지낸 이하진이며, 실학자 성호 이익이 그의 이복동생이다. 열 살 때 숙부 이주진(李周鎮)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이서는 1662년(현종 3) 서울 정동에서 이하진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에 잠시 덕산[현 예산군 고덕면]의 숙부 이명진에게 나가 살았으며, 열 살 때부터는 숙부 이주진의 양자로 들어가 서울에서 거주하였다. 아버지 이하진과 둘째 형 이잠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벼슬에 나가지 않고 향촌에서 은거하였다. 이서는 이후 예산 지역과 지속적으로 인연을 이어갔는데 둘째 형인 이침(李沈)이 덕산에 거주하던 숙부 이명진의 양자로 입적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이침의 자손들이 제자가 되어 이서의 서법을 전수받아 예산의 여주이씨가(家)의 서풍(書風)으로 동국진체를 이어 갔다.



옥동 이서의 해서

### 명필가(名筆家)로 알려진 옥동 이서의 가계

이서의 가문, 여주이씨가(家)는 원래 창녕성씨 성수침-성흔가(家), 전주이씨 이경석-이광사가(家), 창녕조씨 조명교-조윤형가(家)와 함께 조선후기의 손꼽히는 명필가(名筆家)였다. 기호남인인 옥동 일가는 선조 23년(1590년)부터 광해군 3년(1611년)까지 20여 년 동안 문과 진사 생원 무과 등 도합 33명의 과거급제자를 낼 만큼 가세가 극성했다. 그러나 1623년 서인계의 인조반정과 1680년의 경신환국, 그리고 1694년의 갑술환국 이후 정계에서의 서인의 득세와 남인의 몰락으로 가문의 세력과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다.

여주이씨 이서 직계의 경우, 경신환국 무렵에서부터 어려운 국면에 봉착하게 된다. 1680년(숙종 6), 허목이 영의정 허적의 서자인 허견의 불법을 상소하였다가 관직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다. 그때 이서의 아버지 이하진은 대사간으로서 허목을 두둔하였다가 숙종의 진노를 사서 진주목사로 좌천되었고, 얼마 뒤 관직을 그만두었다. 그는 또 경신환국의 정국에서 외척이면서 친 서인계인 김석주(金錫胄)와 매사에 뜻이 맞지 않아 평안도 운산에 유배되었고, 1682년 배소에서 죽었다. 이서는 이렇게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작고하자 장사를 지낸 후, 벼슬길을 단념하고 초야에 묻혀 글과 글씨 공부에 일생을 걸기로 다짐했다. 따라서 옥동 이서의 벼슬은 찰방(종6품)에 그치고 말았다.

### 이서의 동국진체(東國眞體)의 형성 배경

사실상 16세기의 도학시대에는 서화(書畫)는 완물상지(玩物喪志)라 하여 사대부의 밀기(末技) 정도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임진, 병자 양란을 거치면서 점차 관념 위주에서 현실 위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또 모든 부면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청되었는데, 17세기 후반부터 등장하는 우리나라의 실학 풍도 이런 시대의식의 변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추세는 서예계에도 예외일 수 없었다.

조선문화사에서 숙종 초에서 정조에 이르는 시기(1675-1800년)는 대개 진경시대(眞景時代)로 불려진다. 이 시기는 조선의 고유색을 한껏 드러내면서 문화의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시기였다. 이 시기는 성리학이 조선 고유 이념으로 뿌리내리고, 병자호란 이후 청에 대한 적개심과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에서 이제는 조선이 곧 중화(中華)라는 조선 중화의식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조선 고유의 문화가 성립되고 발전할 수 있었다. 자국 문화에 대한 자존감과 자긍심이 글씨에서는 ‘동국진체(東國眞體)’로 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서예 이론서 『필결(筆訣)』의 내용과 성격

옥동 이서가 한국서예사에 남긴 가장 기념비적 공적은 그의 서예이론서인 『필결(筆訣)』을 저술하여 남겼다는 점이다.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우리식의 서예이론서라는 말은 생경한 것이었다. 글씨로 일가를 이룬 작가는 무수하고, 그 중에는 중국과 비견될 작가도 많았지만, 서예의 이론적 토대나 품평을 우리 시각에서 정리한 본격적인 저술은 옥동 이전에는 사실상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점에서 옥동 이서는 우리 서예사에서 서예 이론과 비평서를 남긴 최초의 인물이고 선구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또한 그것은 서화를 다만 ‘완물상지(玩物喪志)’라 해서 사대부의 말기(末技) 정도로만 여기던 당시 도학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히 매우 혁신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의 저서 『필결』에서는 서예를 주역의 이치로써 해명함으로써 서예를 도학(道學)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옥동체’나 ‘필결’이라는 혁신적 서예이론은 어떻게 배태되었을까. 사실 여주 이씨 가문의 필명(筆名)은 이서의 부친 이하진(1628-1682)을 거슬러 올라가 이지정(李志定, 1588-1650)에서부터 세간에 칭송이 자자했다. 이지정은 17세기 전반, 여주 이씨가를 대표하는 명필이었다. 그는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득세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자신의 남인(친계)-북인(흔적으로 연계)계적 당색에 영향을 받아, 중년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아산의 서호 가운데 조그만 정자를 짓고 그 편액을 ‘청선(聽蟬)’이라 하고 그것을 자호로 삼아 한묵(翰墨)으로 여생을 즐겼다. 우리나라 역대 명가의 필적을 모아 『대동서법(大東書法)』을 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지정은 특히 초서(草書)를 좋아했는데, 명나라의 장필(張弼)을 수용한 16세기의 황기로(黃耆老)의 초서풍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 특징을 극대화시켰다. 황기로에 비해 필획의 비수(肥瘦)의 변화가 두드러지며, 감필법(減筆法)으로 쓴 간결하고 굳센 필획이 큰 특징이다. 대표적인 필적으로 두보(杜甫)의 오언율시를 쓴 「초서 두보시 거촉(草書杜甫詩去蜀)」이 있다. 이 필적에서는 획

사이를 잇는 필획이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소는 거친 필획을 구사했음에도 원필세(圓筆勢)의 유창한 흐름이 돋보인다. 획 사이의 간격을 좁거나 짧게 하여 속도감이 드러나는 결구를 구사하는 한편, 장육(張旭)의 거칠고 분방한 서풍을 바탕으로 쓴 황기로의 필적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그의 서풍은 종질인 이하진(李夏鎮)과 이하진의 아들 이서(李渤) · 이익(李灊) 형제 등에게로 이어졌다. 이지정은 중국의 회소와 장육 장필은 물론 조선 중기 황기로로 이어지는 광초(狂草)의 정맥을 이어 다시 그것을 이하진을 통해 가볍으로 전수케 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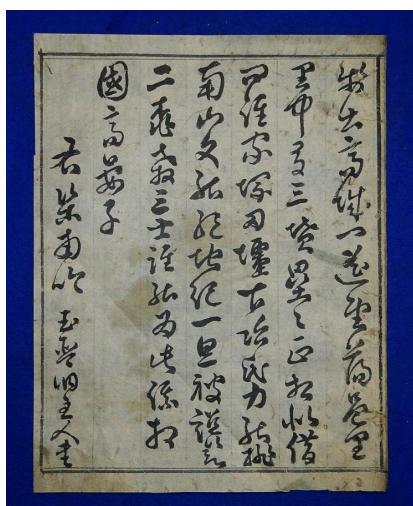
『필결(筆訣)』에서 이서는 “글씨는 심법을 궁구해야지 자획(字劃)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글씨의 외양만 본뜨려는 태도를 경계하며 심획(心劃)을 강조했다. 이는 그가 『필결』에서 외형적인 균제미에만 치중하는 조맹부의 송설체와 관청의 서사정식(書寫程式)으로 흐른 석봉체를 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서의 글씨에 대한 관점은 이복동생이자 실학의 대종(大宗)으로서 경세치용학파의 최대 인맥을 형성한 이익이 사실주의 문학론을 주장하여 근기남인 문학의 지향을 제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시문이나 회화에서 형체를 온전히 묘사해야만 정신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옥동이나 이익이 말한 ‘심획’이나 ‘사실성’은 결코 외형의 흙사(酷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감추어진 정신세계를 사실적으로 표현해낸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서는 『필결(筆訣)』을 저술하여 동국진체를 창시했다고 평가받는다. 『필결』은 조선 최초의 서론(書論)으로, 글씨의 획에 음양오행 등 『주역』의 이치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글을 쓸 때에도 그 성질에 맞도록 붓을 움직여야 글씨가 된다고 하여 ‘영자팔법(永字八法)’을 사상(四象)으로 분류하고, 각 획의 운필을 삼정법(三停法)으로 처리하는 것을 서법의 기본으로 삼았다. 이서는 왕희지의 『악의론』을 독실히 연마하여 해서·행서·초서에서 자가체를 확립

하였다. 이것을 ‘옥동체’ 또는 ‘동국진체’로 불렀던 것이다.

이서의 『필결』은 중국은 물론 한국의 여타의 서예이론서와 차별성을 갖는다. 『홍도유고』 권12에 수록된 『필결』의 목차는 혼원분판생획도(混圓分判生劃圖) · 여인규구(與人規矩) · 조필지법(操筆之法) · 운필지법(運筆之法) · 마묵지법(磨墨之法) · 획법(劃法) · 변화획법(變化劃法) · 논작자법(論作字法) · 논행법(論行法) · 논경권(論經權) · 총론(總論) · 변정법여이단(辨正法與異端) · 범론서법(泛論書法) · 평론서가(評論書家) · 필결논요(筆訣論要) · 잡론(雜論) · 총단(總斷) · 요지(要旨)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의 앞부분에 실린 5종의 도판인 「혼원분판생획도(混圓分判生劃圖)」은 태극과 음양오행론 및 하도·낙서를 연계하여 획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를 밝힌 것이다. 「여인규구」의 상·중·하편은 『필결』의 총론격으로, 점과 획 그리고 글자와 행 등의 성립과 그것이 가지는 형이상학적 의미를 주역의 태극음양론을 가미해 밝힌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 “글씨는 역(易)에 근본한다”는 것과 “글씨는 하도와 낙서에 근본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옥동 이서의 초서

### 왕희지를 골수 정통으로 삼은 이서의 옥동체(玉洞體)

그러나 이서는 그의 『필결』에서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서풍은 물론 옥동체의 근간이 된 서가들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다. 회소와 장욱은 물론 장필 황기로 이지정으로 이어지는 가볍의 원류마저도 이단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역시 '필결'에서 '초서는 장지에서 시작하여 왕희지에 이르러 대성 하였고, 그 뒤로는 극도로 쇠퇴했다'는 관점에서 확인된다. 즉 왕희지의 전형을 뺀 광초계열의 글씨는 모두 정법이 아니라는 것이 옥동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특히 황기로에 대해서는 '획의 운용이 활달하고 글자 구성이 공교롭지만 습속에 빠져 용렬함이 매우 심하다'고 할 정도였다. 그가 왕희지에 극도로 경도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서의 이러한 왕희지에 대한 경도는 구체적으로 부친인 이하진이 연경에서 고가로 사온 왕희지의 '낙의론(樂毅論)'에서 필력을 얻는 사실과 관련된다. 아버지 이하진은 1678년(숙종4년) 3월, 진향정사(進香正使)로 연경을 다녀왔다. 귀국하는 길에 그는 황제로부터 받은 하사품을 통틀어 수천 권의 서적과 왕희지 필첩의 선본(善本)을 많이 구입해 왔는데, 당시 최고의 필명을 날렸던 윤순이 매양 기보(奇寶)라 일컬을 때는 반드시 이씨 집안 소장(李家藏)이라고 할 정도였다. 이하진은 연행에서 서적 구입을 통해 이서와 이익의 형제에게 서예 이론과 실기의 바탕을 제공해주는 한편 서첩 '천금물전(千金勿傳: 천금을 주어도 그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말라)'을 선대로부터 가볍으로 이어온 서풍을 전수했다. 이러한 이하진의 서풍은 아들 옥동과 성호에게 계승됐고, 소위 동국진체의 발원지도 옥동의 글씨는 당시 같이 교유한 윤두서와 윤덕희 부자 등 근기남인들을 통해 맥이 이어졌다.

## 동국진체(東國眞體)의 문을 연 이서의 옥동체(玉洞體)

동국진체는 기존의 그릇된 서풍에 변화를 요구하며 서법의 근원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상적으로나 서법적으로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우리의 서법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 18세기 조선 글씨의 총체적 명칭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조선의 고유한 색을 한껏 드러내며 문화가 발전을 이룬 18세기의 시대적 풍조에 발맞추어, 서예 분야에서 옥동 이서가 서법을 정립한 것이 윤두서·윤순을 거쳐 원교 이광사에 이르러 완성된 것으로, 조선 고유의 서체를 뜻한다.

그러면 동국진체는 이전의 다른 서체들과는 어떤 연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일까? 조선의 서법은 국초에는 여말에 수용된 송설체(松雪體, 조맹부체) 곧 촉체(蜀體)를 주로 하고, 선조 이후에는 한체(韓體) 곧 한석봉체(韓石峯體)를 주로 삼았으며, 조선 후기에는 진체(晉體) 곧 왕희지체(王羲之體)로 돌아가려는 서풍의 변화가 주를 이루었다. 또 17세기에는 여기에 서인 노론계의 송시열·송준길의 서체인 양송체(兩宋體)와 남인 영수였던 미수 허목의 서체인 미수체(眉叟體)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 새롭게 동국진체를 형성한 것은 바로 옥동 이서에 의해서였다. 그는 같은 기호 남인계인 미수 허목이 창안한 서체가 널리 이용되지 못하자, 스스로의 사상에 입각한 새로운 서법 정립을 시도하였다. 이것이 전통적인 진체(晉體)를 바탕으로 미법(米法)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며 창안된 옥동체(玉洞體)이며, 이를 후세 사람들이 ‘동국진체(東國眞體)’라고 칭하였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진짜 글씨체라는 의미를 가진다.

## 옥동체에 대한 후대인의 평가과 의의

다음으로 이러한 이서의 옥동체에 대한 후대인의 평가와 그 의의를 검토해보자. 먼저 앞에서 본 이서의 글씨에 대한 기본 입장이나 태도는 그의 글씨,

옥동체에서 그대로 잘 드러났다고 본다. 허전은 ‘옥동 이선생 홍도공(弘道公) 행장(行狀)’에서 “대자와 해서는 물론 행·초서 모두 참으로 정체(正體)인데, 자획(字劃)과 체상(體像)이 크고 기세가 웅장(雄壯)하다”고 평했다. 또한 그의 조카인 이용휴는 “대자(大字)는 신라와 고려시대 아래 한 사람뿐”이라고 까지 극적으로 친양하였다. 그리고 이규상은 ‘서가록’에서 “글씨가 큼지막하고 기력이 뛰어나다”고 했다. 또한 이광사는 “의론(議論)으로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다”라고 할 정도로 대자와 이론에 특장을 보였다.

이러한 이서의 초기 동국진체는 이후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에게 전해졌고, 이는 다시 소론계 학자였던 백하(白下) 윤순(尹淳, 1680-1741)에게 전해졌다. 윤순의 서체에는 조선 고유의 색, 즉 동국진체에 명조풍(明朝風)이 가미되었다. 그러나 윤순은 우리나라 역대 명필을 비롯하여 중국의 당·송·원·명 시대의 서체를 연구하여 진체로 절충 흡수하여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이 조선 고유의 서체로 기반을 잡게 되었던 것이다.

동국진체는 윤순의 서법을 배워 계승한 원교(員嶠) 이광사(李匡師, 1705-1777)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광사는 왕희지의 서첩들이 모두 오래되고 변모를 거듭하여 왕희지 본색을 알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이전의 서체인 전서(篆書)·예서(隸書)를 통해 심획(心劃)을 얻은 후, 다시 왕희지의 서법으로 바르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광사는 왕희지와 위부인(衛夫人)의 서론만이 법식으로 삼을 만하다고 하여 그들의 서론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결(書訣)』을 서술하였다. 이광사는 왕희지의 진적에 대한 위작들을 진본으로 믿고, 이를 해서의 근본으로 삼아 서법 수련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선 고유색을 강조하였고, 윤순의 서법에 배어있던 명조풍의 색을 바로잡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다. 이로써 그는 그 계보의 동국진체를 완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동국진체의 문을 연 이서의 옥동체는 18세기의 문화와 예술이 조선의 고유색을 떠면서 화려하게 꽂파워질 때, 조선 최초의 서예 이론서인 『필결(筆訣)』

을 저술하여 서예가 학문적으로 확립되는 데 기여하였으며, 영·정조 시대 조선의 특색을 잘 담아낸 동국진체의 창시자로 평가된다. 저술로는 문집인 『홍도유고(弘道遺稿)』가 있다.

이서의 묘는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에 있었는데 여주이씨 후손이 강원도로 이장하였다.

## 김정희의 추사체와 세한도

### 법고창신의 결실, 추사체를 창안한 김정희

김정희의 호가 300여 개에 이른다고는 하지만, 그 대표적인 호는 역시 추사(秋史)이고, 그것은 그의 독자적인 서체(書體)의 이름에도 붙여져서 추사체(秋史體)가 되었다. 그가 자신의 호를 추사(秋史)라고 정하여 처음 사용한 것은 그가 연경에 가서 옹방강을 만날 때부터였다고 전해지며, 후에 옹방강이 추사에게 보낸 편지가 4통인데, 그 편지에서도 ‘추사 진사 김정희(秋史 進士 金正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추사’로 표기된 낙관은 대개 그의 편지글의 말미나 봉투 등에서 보이지만, 특히 그가 예산의 화암사 뒤 석벽에 써서 새긴 ‘소봉래(小蓬萊)’의 아랫부분에도 ‘秋史’라는 작은 글자가 선명하게 주목된다.

### 추사체란 무엇인가?

그러면 추사체(秋史體)란 무엇인가? 그것은 서예에 있어서 추사 김정희의 글씨체라는 뜻일텐데, 그 추사의 글씨체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중국과 한국에서의 서예풍의 변화와 김정희 집안의 가학으로서의 서예풍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최완수의 「추사실기」(『예산의 실학』, 2003) 중의 <추사체의 성립>이 참고 된다. 아래는 대개 이 글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다.

사실상 서예라는 예술 분야는 중국문화권에만 있어 오던 특정한 문화 양식의 하나이다. 그것은 상형문자인 한자가 가지고 있는 회화성과 유교문화가 중시해온 승문 의식이 결합하여 그 표현 방법인 문자가 점차 예술적 경향성을 지니게 된 결과였다. 특히 유교문화가 전성하였던 후한시대(25-220)에 이르러서는 효렴(孝廉)을 중시하는 윤리의식이 일반화되었는데, 시간이 흘러 점차 그것이 형식화되면서, 부모에 대한 효(孝)와 사장(師長)에 대한 염치(廉恥)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좋은 빗돌을 세우는 일이 경쟁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훌륭한 글씨와 뛰어난 문장이 요청되었는데, 때마침 이 시대에 종이가 발명되고 지필묵이 갖추어지게 되면서, 종래에 목편이나 죽간, 또는 비단 위에 쓰던 글씨를 필묵으로 종이 위에 쓸 수 있게 되자 운필(運筆)의 묘기에 따른 다양한 글씨가 나타났고 개성 있는 서예가들이 출현하였다.

한편, 서예에 쓰인 문자는 기본적으로 예술이기 이전에 문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필요에 따라 속기나 정서가 요청되었으므로, 이에 부응하여 초서나 해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개 글씨는 처음 전각으로 등장하였던 전서에서, 보다 간략하고 알기 쉬운 예서(隸書)로 발전하였고, 종이의 사용으로 예서가 발달하면서, 그 필요성에 따라 초서와 해서가 등장한 것이었다. 행서는 초서와 해서의 중간 정도의 흘림을 보이는 글자 형태였다. 또한 모든 글씨체에는 부仰(俯仰, 붓을 누르거나 들어 올림)과 과책(波磔, 좌우 빼침), 그리고 도법(挑法, 대고 떼는 데 있어서의 돋우는 법)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팔분서(八分書)라 했다. 이로 인하여 다양다기한 글씨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글자들은 일정한 정형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는데, 동진의 왕희지(307-365)가 해서 행서 초서의 각 서체를 완성하여 그 정형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당 태종(재위, 626-649)은 이러한 왕희지의 글씨를 매우 선호하여 그의 글씨를

널리 수집하였고, 한 조각의 글씨까지도 아끼다가 죽을 때 관에 넣어갔다고 전해진다.

이후 왕희지체는 서체의 확고한 표준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왕희지가 쓴 글씨첩의 원형이 훼손되고 소멸되어 그 연원이 흐려지자, 이를 바르게 회복한다는 명분을 걸고 원대에는 조맹부(1254-1322)의 송설체가 나왔고, 명대에는 동기창(1555-1636)의 동기창체가 등장하여 한시대를 풍미하였다.

이러한 서체 변화의 경향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사했다. 처음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왕희지체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원(元)지배 시기에는 만권당에서 활약하던 조맹부의 송설체가 유입되어 고려 말 이후 조선 초까지도 우리나라 서예의 주류를 차지하였다. 이후 선조대에 이르러서는 같은 명분으로 한호의 석봉체가 나와서 이후 백여 년간을 주도하였다. 최완수(간송미술관 한국민족미술연구소) 소장은 앞의 송설체가 연미화려(妍媚華麗, 곱고 화려함)하였다면, 석봉체는 둔중고박(鈍重古朴, 무겁고 예스럽고 질박함)하여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는 조선성리학이 발달하였고, 또 18세기에 실학이 발달하면서 자주적 성향을 가진 새로운 동국진체(東國眞體)가 등장하였다. 그것은 예산세거 여주이씨가의 성호학파 계열인 옥동 이서(1662-1723)가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다시 윤순(1680-1740)을 거쳐 원교 이광사(1705-1777)에 의해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들의 동국진체는 전아유려(典雅流麗, 법도에 맞게 아담하고 우아함)한 조선적인 특징이 잘 드러난 글씨로 평가된다.

한편, 김정희의 집안에서의 서풍(書風)의 흐름도 이와 비슷했다. 중조 김한신은 송설체와 석봉체를 잘 썼고, 조부 김이주는 동국진체를 잘 썼다. 따라서 추사의 글씨교육의 기초는 동국진체였을 것이다. 추사가 8세에 생부 김노경에게 올린 편지글을 비롯하여 그의 초년의 글씨에서 보이는 단정한 결구와 전아 운필법은 바로 여기서 연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후일 박규수

(1807-1877)는 “김정희가 어릴 때에는 오직 동기창체에 뜻을 두었고, 젊어서 연경을 다녀온 후로는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옹방강을 좋아 노닐면서 열심히 그의 글씨를 본받았다”라 하였다. 그렇다면 김정희의 가학으로서의 서예교본의 첨학은 동국진체였고, 여기에 그 자신이 진취적으로 주목하고 배우고자 한 것은 동기창체였음을 알게 된다.

한편 청(淸)에서는 18세기 후반으로부터 연경학술계를 주도하였던 옹방강이 학예일치(學藝一致)를 주장하고 비문에 의한 서예연구를 통하여 그 예술성을 재발견하려는 비학(碑學) 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그는 왕희지체의 절대론에 회의를 느끼고 전해오는 왕희지의 법첩(法帖)을 비롯한 필첩(筆帖) 위주의 서학(書學)을 비학으로 보충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서론을 주장하고, 그 자신이 이것을 실천해 보였다. 그는 왕희지체의 근원이 되는 한예(漢隸) 즉 팔분서(八分書)의 예술성이 가장 탁월하다고 인식하고, 서도 수련의 마지막 단계를 한예의 소급 통달에 두었다. 그의 기본적인 입장은 전통적인 첨학을 바탕으로 비학을 포섭 겸수하려는 온건 개혁론적인 입장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경학에 있어서 그가 한송불분론(漢宋不分論)을 주장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이 무렵 안휘성 회령 출신의 등석여(1743-1805)가 나와서 진정 한예(漢隸)만이 서법의 준칙이라 하여 비학(碑學) 절대론을 부르짖고 첨학의 전통을 부정하였다.

김정희는 이렇게 중국에서 서도 논쟁이 분분하던 때에 김정희는 옹방강과 완원을 만나 사제지간의 인연을 맺고 서법과 서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 김정희는 연경 방문을 통해 이미 완원에게 남북서파론, 북비남첩론의 대강을 들었을 터이고, 또 옹방강에게서도 비첩겸수론을 지도받았으므로, 서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이 무렵 그가 박혜백에게 답한 다음 글에서도 확인된다.

나는 어려서부터 글씨에 뜻을 두었는데, 24세에 연경에 가서 여러 이름난  
큰 선비들을 뵙고 그 서론을 들으니 발등법(撥燈法)이 입문하는 데 있어 제일

첫째가는 의미가 된다고 하였네. 손가락 쓰는 법, 붓 쓰는 법, 먹 쓰는 법으로부터 줄을 나누고 자리를 잡는 것 및 빼침과 점획 치는 법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쪽 나라 사람들이 익히던 바와는 크게 달랐네. 그리고 한위(漢魏) 아래 금석문자가 수 천종이 되니 종요(鍾繇, 151-230)나 색정(索靖, 239-303)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반드시 북비(北碑)를 많이 보아야 한다고 말했네, 그래서 비로소 나는 그 처음부터 변천되어 내려온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네.

이렇게 김정희는 용방강과 완원으로부터 참신한 서학이론을 듣고서 크게 감명을 받았으므로, 금석학에 바탕을 둔 서도 수련이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지금까지의 왕희지의 첨학에 경도된 조선의 동국 진체식의 서도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었고, 그 오도의 책임이 이광사의 『원교 필결(圓橋筆訣)』에 있다고 믿어 이광사의 필법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연경에서 돌아 온 김정희는 주로 용방강의 서론에 입각하여 자신의 서법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갔다. 그가 31세에 쓴 「이위정기(以威亭記)」는 용방강 글씨와 매우 유사한데, 그래도 단정한 풍미는 조부 김이주의 글씨의 특징이 남아 있어서 오히려 김정희다운 맛을 보여준다. 그리고 37세 때 아버지 김노경이 동지정사가 되어 연경에 갈 때 동생 김명희가 자제군관으로 동행하였는데, 이때 그가 동생 편에 청나라 유학자 고순(顧純)에게 써 보낸 글(直聲留闕下秀句滿天東)은 아직 비후미(肥厚味)가 크게 남아 용방강의 필의가 엿보이지만, 이미 예기(隸氣)가 흘러넘쳐 추사체의 진면목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또 다음 38세 때 가을에 쓴 「허천소초발(虛川小草跋)」의 소해(小楷) 필체에서도 같은 필치를 구사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들어서 최완수 소장은 “추사는 벌써 30대 후반에 추사체의 골격(骨格)을 이룩하였다”고 평하였다.

그런데 김정희가 그의 독자적인 추사체를 언제 완성했는가에 대해서는 대개 그가 제주에 유배 가 있던 시기라거나, 또는 그가 제주 유배에서 풀려난 63세부터 71세 사이에 완성한 것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언급들은 ‘추사체의 골격 완성

론'과 상호 어떤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가?

김정희에게 있어서 연경(燕京)을 다녀온 후 10년간은 과거 시험도 접어두고 오로지 실사구시적 학문탐구에만 옮인한 시기였다. 그의 실사구시설(이론)과 북한산순수비의 고증(실천) 등 이론과 실천의 면을 모두 갖추고, 그의 실사구시적 실학연구가 피크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이로써 보면 “30대 후반에 추사체의 골격(骨格)을 이루하였다”는 것은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언설이다. 더구나 글씨에 ‘아직 옹방강의 영향으로 비후미(肥厚美)가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예기(隸氣)가 흘러넘쳐 추사체의 진면목을 드러냈다’면 이후의 변화는 강약의 차이이지 근본의 차이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사체의 특징을 졸박청수(拙樸清瘦, 필체가 서툰 듯하면서도 맑고 깨끗하며 가늘다)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면, 사실상 30대 후반 이후의 추사의 글씨가 보다 더 진정한 추사체로 발전해 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추사의 현판 글씨’의 변화만을 통해서도 그 대강을 살필 수가 있다.



무량수각(無量壽閣)(1) – 제주 유배가는 길에 쓴 편액(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무량수각(無量壽閣)(2) – 6년 후 유배 중 화엄사 중건에 맞춰 쓴 편액

예컨대 그가 제주로 유배 갈 때 해남 대홍사에 들러 초의선사에게 써 준 <무량수각(無量壽閣)>이란 글씨와, 유배 6년이 지나서 제주에서 쓴 예산의 화암사에 걸 <무량수각>이라는 글씨는 확실하게 대조적이다. 전자가 살찌고 기름진 옹방강체의 색채가 짙은 글씨였다면, 후자는 그 비만과 윤기를 다 빼버리고, 더 가늘지만 균골이 탱탱하고 더 웅골찬 글씨로 변해 갔다.



침계(樺溪)

또 김정희의 글씨 <침계(樺溪)>도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김정희가 이 글씨의 부탁을 받은 지 30년이 되도록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 비첩(碑帖)에서 예서로 된 그 첫 글자를 찾지 못해서였다는 그의 고백은 그가 이미 30년 전부터 ‘예기(隸氣)가 흘러넘치는 추사체’를 갈구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그런데 그 ‘침계’가 해서와 예서의 합체자로 완성을 보게 된 것이 언제인가? 그가 유배를 다녀왔다가 다시 북청으로 유배 가서야 이루어 진 것이었다. 여기서 김정희는 예서와 해서의 합체에서 그 묘미를 찾고 있다. 글자의 구성도 재미있다. 그의 침(樺)에서 木은 작게今の상단부는 길게 쓰면서 살짝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계(溪)는 상부가 크고 하부가 작은 비율로 쓰면서 역시 균형감보다는 긴장감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획의 굵기와 힘에서는 정신적 도도함이 힘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계산된 불균형감의 조성과 넘치는 힘과 도도함이 추사체의 한 특징일 수 있다.

글 쓴 시기를 알 순 없지만 그의 <계산무진>도 균형감각 보다는 긴장감이 높게 드러난 작품이다.

또 그의 대표적인 명필 추사체로 알려진 <진흥북수고경(眞興北狩古竟)>도 그가 북청으로 유배와 있을 때의 작품이었다. 황초령진흥왕순수비 비각 현판인 <진흥북수고경>은 그의 서예 세계를 바꿔놓은 한 획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래서 극히 졸박한 추사체의 진수가 나온 것이다. 졸박이 어떻게 가능한가? 무욕졸박이다. 욕심을 버리고 얻는 아름다움, 그것은 벼림의 미학이요, 비움의 미학인 것이다.



계산무진



진흥북수고경(進興北狩古境)

또 그의 마지막 유작으로 서울 강남 봉은사에 걸려 있는 현판 <판전(板殿)>도 추사체의 졸박청수(拙樸清瘦)를 대표할 수 있는 만년의 작품이다. 한 점의 속된 기운이나 일호의 기교도 없어 항상 대해도 짙증이 나지 않은 작품이다. 고졸(古拙)이란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글씨로서 추사가 이 세상에 유언같이 써 놓고 간

글씨이다. 이상의 몇 가지 편액만으로도 추사체의 흐름의 대강 읽을 수 있다 하겠다.

김정희는 기본적으로 기학적 서풍에서 배워 온 동국진체의 첩학적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연경에서 돌아온 후 김정희는 여행에서 배워 온 옹방강의 서체에 몰두하였고, 또 조선과 중국의 금석문 연구에서 얻어진 서체론과 한위-서한의 비첩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갔고, 또한 뒤에는 여기에 등석여의 급진적인 비학이론 까지 겸수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첩학과 비학의 체득과 서도의 논설 등을 혼융(混融)하여 그 자신만의 서체를 만들기에 이른다. 이것이 곧 추사체(秋史體)이다. 결국 김정희는 자신의 가계적 서풍의 바탕 위에서, 청조 고증학의 난만한 발전 결과로 출현한 서법금석학 즉 비학(碑學)의 제파의 이론을 겸수하고 그 이론을 그의 타고난 예술적 재능으로 서도에 구현해내는 데 큰 성공을 거둔 것이었다.

### 추사의 대련 글씨

김정희의 대련 글씨를 대표하는 <호고 연경>이나 <대행 두부> 역시 추사체의 변화과정에서 만년에 이루어진 명필들이다. 전자는 제주 유배 후 강상(江上, 노호 즉 용산)을 찾아 온 흥선 대원군에게 써준 글씨이고, 또 후자는 그가 생을 마치는 해 71세의 과천시대의 작품이다.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婁日罷吟詩

옛 것이 좋아서 때로 깨진 비갈을 찾고,  
경전을 연구하다 보니 여러 날 시를 읊지도 못한다.

- 완당(阮堂)



호고유시수단갈(好古有時搜斷碣)  
연경루일파음시(研經婁日罷吟詩)

이것은 김정희가 제주 유배를 마치고 돌아와 강상(용산, 당시의 노호)에 머물고 있을 때 그를 찾아온 석파 이하옹(홍선대원군)에게 써 준 글씨이다. 홍선대원군이 30세 되던 때 그를 찾아와 문인이 되기를 자청하여 난 치는 공부를 한지 1년 쯤 되어서, 자신의 난첩을 가져와 작품의 평가를 청했다. 김정희는 후한 평을 해 주었는데, 이때 대원군의 과한 자신감에 자제가 필요했던 듯, 이 대련 글은 서법에 대한 권면과 함께 경계의 뜻을 담고 있다. 그것은 실사구시적 고증 학자로서의 김정희 그 자신이 금석과 경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음을 전하여 깨우치게 한 것이다. 또 협서에서는 그의 서예관을 담았으니, 이것은 ‘난을 치려면 반드시 예서 쓰는 법으로 해야 한다’는 평소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한 것이었다.



대팽두부괴강채(大烹豆腐瓜羹菜)  
고회부처아녀손(高會夫妻兒女孫)

大烹豆腐瓜羹菜

高會夫妻兒女孫

맛있는 요리는 두부 오이 생강 나물의 요리요,  
즐거운 만남은 부부와 아들 딸 손자와의 만남  
이라네.

이것은 김정희가 세상과 작별하게 되는 1856년(철종 7)에 쓴 예서체 대련이다. 그가 생의 마지막 해인 71세 때 과천(果川)에서 지낼 때, 자기를 식사에 초대해 준 행농(杏農) 유치육(兪致旭)을 위하여 쓴 대련이다. ‘가장 좋은 음식은 두부 오이 생강 나물이고, 가장 좋은 모임은 부부와 아들 딸 손자라는 말이다. 태어나서 부러울 것이 없는 영화를 누렸고 또 시대의 급류에

휩쓸려 유배 살이로 점철된 생을 살았던 추사가 비로소 71세의 늙은이가 되어 깨우친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아름다운 진리였다. 늙은이의 삶이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이 부럽다는 마음을 담고 있다. 가장 소박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만년의 그의 인생철학이 담긴 것이라 하겠다.

### 예산 화암사의 뒤쪽 암벽, 추사의 금석문 글씨

#### ○ 천축고선생택(天竺古先生宅)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의 화암사 뒤쪽에는 병풍 형상을 한 구체 석벽이 둘러 서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병풍 벽에 세로로 새겨진 ‘천축고선생택(天竺古先生宅)’이다. 행서(行書)로 써여진 이 글씨는 그 글귀와 함께 상당히 묘하게 자유분방하면서도 저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서체가 유연하고 날렵할 뿐 아니라, 글귀에도 유교국가의 고급 관인유자로서 선뜻 ‘천축(天竺)’을 내세우고 있는 점이 특이한 때문이다.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을 생각하면 ‘천축’은 곧 옛 인도임이 분명한데, 그러면 인도의 고선생은 석가모니를 뜻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천축고선생택(天竺古先生宅)은 석가모니의 집, 곧 절집을 뜻할 것이다. 그것은 가까이에 있는 추사집안의 사찰 화암사와 연계해 보면 바로 이해가 될 듯하다. 그러나 김정희가 굳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김정희는 24세 때(1810년, 순조 10) 청에 사신으로 가는 아버지 김노경의 자제 군관으로 연경에 가서, 당대 최고의 고증학자인 옹방강의 서재, 소재(蘇齋)를 방문하게 된다. 소재 안에는 소동파의 파옹입극상을 비롯하여 소동파와 관련된 보물급의 서화나 서책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옹방강이 시서일체를 주장한 송대 학자 동파(東坡) 소식(蘇軾, 1036-1101)을 극히 존중한 표현이기도 했다. 그래서 옹방강은 자신의 서재 이름을 소동파의 소(蘇)자를 따다가 소재(蘇齋)라 했다 한다. 이때 옹방강은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김정희에게 보여주었고, 김정희는

평생 그날의 감동적인 광경을 가슴 속에 품고 살았다. 당연히 그날 소재에서 보았던 물건들은 그의 일생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위의 석각, ‘천축고선생댁(天竺古先生宅)’은 바로 이날 김정희가 소재를 찾았을 때 거기서 보았던 하나의 글귀와 관련이 된다.

그가 소재에 들렀을 때 서재 좌우에는 담게 옹방강 자신이 쓴 대련이 걸려 있었다.

想見東坡舊居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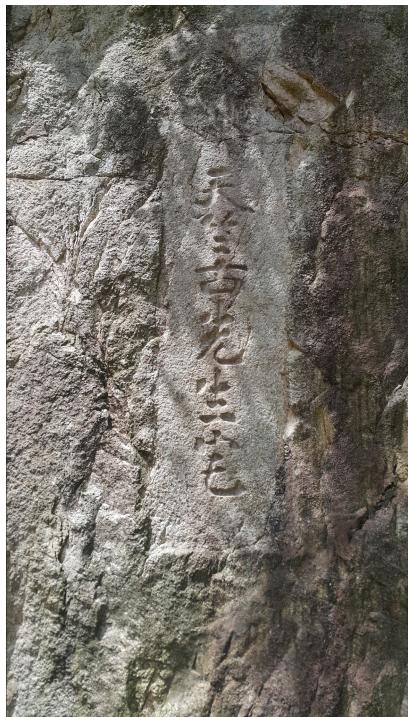
儼然天竺古先生

옛날의 동파거사 생각해보니

완연히 천축의 고선생이네

‘천축고선생’은 바로 이 옹방강이 쓴 대련에서 온 것이다. 위 대련의 <상견동파구거사>는 황산곡(黃山谷) 즉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이 소동파에게 보낸 시의 한 구절이고, <엄연천축고선생(儼然天竺古先生)>은 당나라 현종대의 유명한 시인 왕유(王維)의 시의 한 구절이다. 옹방강은 이 두 시에서 한 구절씩 따다가 한 쌍의 대련을 만들었던 것이다. 소동파는 송대 시인으로 시서일치(詩書一致)의 이론을 폈던 인물로 스승 옹방강이 사숙한 인물이고, ‘천축고선생’을 노래한 왕유는 사실상 남종화(南宗畫)의 시조였다. 그는 당대에 시선 이백, 시성 두보와 함께 ‘시불왕유(詩佛王維)’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육조 해능이 이끄는 남종선의 성실한 신도였다. 따라서 그의 시화는 불교적이고 탈속적 염세적인 색채가 강하였다. 따라서 여기서의 천축고선생은 천축국의 옛 선생 곧 부처님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따라서 천축고선생댁은 부처님의 집, 곧 절집이란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보면 추사가 여기에 ‘천축고선생댁(天竺古先生宅)’을 석각한 것은 그의 불교의식과 집안의 원찰 화암사를 의식한 것이지만, 나아가서 그것은 또한 스승 옹방강과 옹방강이 사숙한 소동파와 관련되고, 또 남종화의 시조 왕유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의 학맥을 알게 하는 예술사적 의미가 있다. 김정희는 이를 친필로 써서 화암사 뒤쪽 석벽에 새기게 했다. 옹방강 서재에 걸려 있던 대련의

한 구절은 이렇게 해서 화암사 뒷편 석벽에 새겨지게 되었다. 스승 옹방강에 대한 추모의 정이 담기고, 나아가서 그의 학맥과 그 정신을 세상에 알리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천축고선생택(天竺古先生宅) 추사 금석문

### ○ 시경(詩境)

화암사 뒤쪽 암벽에 새겨진 김정희의 또 하나의 석각이 ‘시경(詩境)’이다. 그것은 천축고선생택이 새겨진 석벽의 왼쪽 끝 부분에 자리하고 있다. 시경은 ‘시흥(詩興)을 불러일으키거나 시정(詩情)이 넘쳐흐르는 아름다운 경지’를 이르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시의 나라’로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김정희가 여기에 ‘시경(詩境)’이라는 문구를 택하여 새긴 사유는 무엇일까? 중국 남송 때 학자 방신유는 유명한 시인이었던 육유(陸游)를 사랑하고 존경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 육유의 글씨가 후대에 영원히 전해지기를 바라는 뜻으로 육유가 쓴 ‘시경(詩境)’이라는 글자를 자신의 부임지마다 돌에 새겼다. 옹방강은 그 글씨의 탁본을 떠서 벽에 붙이고 이 이름을 따서 자신의 서재 이름을 시경軒(詩境軒)이라 했다. 또 육유의 ‘시경’ 글자를 새긴 멍도 만들어 사용하였고, <소재시경가>를 비롯하여 시경을 소재로 한 많은 시를 지었다.

스승 옹방강은 육유의 예서체 글씨 시경(詩境)’을 탁본해서 김정희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 김정희는 스승 옹방강의 이러한 시 사랑, 시경 사랑의 뜻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화암사 뒤쪽에 시경 두 글자를 석벽에 새겼고, 또 <시경루(詩境樓)>란 글씨를 써서 현판으로 만들어 화암사 건물에도 걸었다. 다만 육유가 쓴 시경은 해서(楷書)인 반면, 김정희가 새로 써서 새긴 시경은 예서(隸書)이다.



시경(詩境)



소봉래(小蓬萊)

### ○ 소봉래(小蓬萊)

예산의 용궁리 화암사 뒤쪽 암벽의 시경(詩境) 석각을 지나 왼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 김정희가 해서체로 쓴 ‘소봉래(小蓬萊)’라는 글자가 역시 세로로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추사제(秋史題)’라는 관지(款識)까지 선명하게 새겨 놓고 있다. 이 글씨를 추사가 썼음을 확인케 한 것이다.

그러면 추사는 여기에 왜 소봉래를 새겨 둔 것일까? 글자의 뜻대로 보면 이것은 작은 봉래산(蓬萊山)이다. 봉래산이 금강산(金剛山)의 다른 이름이고 보면, 이 암각이 새겨진 뒷산 오석산이 작은 금강산이라는 풀이도 가능할 것 같다. 오석산에서 바라보면 그가 금강산이라는 시에서 표현한 촉촉 첨첨 괴괴 기기한 바위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의 다른 석각들에서 살핀 바와 같이 여기에도 스승 옹방강과 관련된 사연들이 있어서 주목된다. 여기에 소봉래를 새긴 것은 스승 옹방강 및 황역과 관련이 있다. 황역(黃易, 1744-1802)은 호가 소송(小松), 추암(秋庵)으로 옹방강과 교유하였으며 금석학을 깊이 연구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의 호가 추암인 점이 눈에 띈다. 그것이 추사(秋史)의 추(秋)와 같아서 친밀감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추사는 처음 옹방강을 만날 때 이 점을 의식해서인지 자신의 호를 추사로 소개하여 옹방강의 환심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 황역의 7대조(횡여형)가 항주 서호 뇌봉 기슭 세운 서재가 소봉래(小蓬萊)였다. 뒤에 그것이 무너져 황역이 조상을 위하여 그것을 다시 짓고 이름을 소봉래각이라 했다. 그리고 옹방강도 자신의 서재를 소봉래각(小蓬萊閣)이라 한 것이 있었는데, 이들은 서로 모르고 서재 이름을 같이 지은 것이었다. 후에 이들은 각각 이 이름의 인장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런데 후에 김정희도 또한 소봉래각 인장과 함께 소봉래를 사용하였고, 또 소봉래학인(小蓬萊學人)이라는 인장까지도 사용하였다. 김정희에게 있어서 소봉래라는 글자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옹방강의 제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또한 그것은 중국 금석문 연구의 대가들이 소봉래란 세 글자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화암사 위쪽의 석각 세 가지는 모두 김정희가 써서 새긴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같이 옹방강과 관련이 있다. 여행에서 돌아온 김정희는 과거도 보지 않고 옹방강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10년 동안 복학의 연구에 몰두했다. 그 결과 옹방강의 학문은 청나라가 아닌 조선의 김정희를 통해 계승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추사 연구가 박상철은 “김정희가 화암사를 옹방강 추모의 장소로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그렇다면 화암사와 화암사 암벽이 있는 그 일원을 옹방강 기념 소공원으로 개발하고, 이들 관련 인물들의 비(碑)를 세워서 ‘한중 남종화문 인들의 비림(碑林)’을 조성해도 좋을 것 같다. 이상의 여기 세 가지 석각만으로도 많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한중 문화교류는 물론 동아시아 서예 문화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 추사체의 평가와 의의

### 동시대 인물 박규수의 평

김정희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박규수(朴珪壽, 1808-1876)는 김정희의 글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추사체의 변천을 이해할 수 있는 글로써 주목된다.

추사의 글씨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그 서법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어렸을 적에는 오직 동기창(董其昌)에 뜻을 두었고, 중세(中歲) 즉 스물네 살에 연경을 다녀온 후에는 옹방강을 좋아 노닐면서 열심히 옹방강의 글씨를 본받았다. (그래서 이 무렵 추사의 글씨는) 너무 기름지고 획이 두껍고 골기(骨氣)

가 적었다는 흡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소동파(蘇東坡)와 미불(米芾)을 따르고 이북해(李北海)[당의 李邕]로 변하면서 더욱 굳세고 신선해지더니… 드디어 구양수의 신수를 얻게 되었다. 만년에 제주도 유배 살이로 바다를 건너갔다 돌아온 다음부터는 구속 받고 본뜨는 경향이 다시 없게 되고 여러 대가의 장점을 모아서 스스로 일법을 이루게 되니 신(神)이 오는 듯 기(氣)가 오는 듯, 바다의 조수가 밀려오는 듯하였다.

### 현대 서예가 임창순(任昌淳) 이 본 추사체의 특징

한학자이자 서예가인 임창순(任昌淳, 1914-1999)은 「한국서예사에 있어서 추사체의 위치」라는 글에서 김정희 글씨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즉 “추사 글씨의 특징으로 김정희는 서법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 당에서 남북조, 다시 위진에서 한예(漢隸)에 이르고 예(隸)의 근원이 전(篆)에서 왔다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마침내 완당은 예(隸)를 쓰기 시작하였고 동한(東漢)의 예서가 파임과 삐침으로 외형미가 두드러진 데에 불만을 가지고 다시 서한예(西漢隸)에서 본령을 찾으려 하였다. (중략) 그러므로 완당의 임서는 옛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법으로 쓴 것이다. (중략) 김정희의 작품은 점과 획의 운용이 강철 같은 힘을 가졌고, 공간 포치에 대한 구성은 모두 다 평범을 초월한 창의력이 넘친다. 그대로 현대회화와 공통되는 조형미를 갖추었으나 이는 과거의 어느 작가도 시도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지이다”라 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추사의 서법은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방향성은 매 단계마다 최선을 다하면서도 새로운 서체를 추구해 가는 데 있었다. 그 방법으로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문제점(불민족한 점)을 해소해 가는 것이었으니, 동기창-옹방강-소동파와 미불-이북해(이옹)를 거쳐서 마침내 구양수의 신수를 얻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 시기는 추사가 제주유배를 다녀와서부터이니, 이후로는 추사가 옛 그대로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법으로 썼다는 것이다.

또 그 소급의 방법은 서법의 원류를 시대적으로 찾아 당-남북조-위진-한예의 서법에 까지 이르고, 또 동한의 예서가 파임과 삐침으로 외형미가 두드러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는 서한의 예서로까지 소급 추적을 해 갔다. 그 결과 추사의 임서(臨書)는 옛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필법으로 쓸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의 글씨에 대해서 박규수는 “김정희의 글씨는 여러 대가의 장점을 모아서 스스로 일법을 이루게 되니 신(神)이 오는 듯, 기(氣)가 바다의 조수가 밀려오는 듯하다.”라 했다. 그리고 임창순은 “추사의 작품은 점과 획의 운용이 강철 같은 힘을 가졌고, 공간 포치에 대한 구성은 모두 다 평범을 초월한 창의력이 넘친다. 그대로 현대회화와 공통되는 조형미를 갖추었으나 이는 과거의 어느 작가도 시도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지이다”라 했다. 그것은 한마디로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극치를 이룬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 추사 김정희의 그림 – 세한도와 불이선란도

김정희가 추구한 그림은 문인화였고, 특히 사기(士氣)의 전신(傳神)을 그려내고자 하는 남종문인화풍의 그림이었다. 그것은 사물을 사실 그대로 그리는 형사(形寫)가 아니라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 등 내면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사의성(寫意性)을 중시하는 경향성이 강했다. 이러한 화풍은 송대 문인 동파 소식(蘇軾, 1036-1101)으로부터 이어지는 시(詩)-서(書)-화(畫) 일치의 문인 취향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김정희는 그 전통을 이으면서, 글씨와 마찬가지로 그림에서 도 문자향 서권기를 강조하였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그의 「세한도(歲寒圖)」와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이다.

## 문인화의 상징,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

김정희의 세한도(국보 180호)는 조선문인화의 상징적 그림이다. 그것은 김정희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아 제주도에 귀양 가 있던 시절인 1844년(현종 10)에 그린 그림이다. 유배 기간 중에 그에게는 아무런 지위도 권력도 없었다. 그의 경주 김씨 가문이 성하고 그에게 돈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 가까이 다가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문이 기울고 그가 권력에서 배제되어 유배와 있는 상황에서는 관심을 가져주거나 편들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

이때 중인 신분의 역관 이상적(李尙迪, 1803-1865)이 전에 맺었던 사제 간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두 번씩이나 중국 북경에서 귀한 책을 구해서 부쳐주었다. 이에 김정희는 공자가 말한 ‘날씨가 추워진 후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는 말이 가슴 깊이 공감되었다. 그래서 그는 제자 이상적을 위해 붓을 들어 세한도를 그렸다.



세한도

이 그림에서 그가 표현하고자 한 바는 무엇이었을까? 먼저 그는 여기서 변화 무쌍한 인간세상의 탐욕과는 거리가 먼,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절개를 굳게 지키는, 의로운 선비의 도리를 표현하고자 했을 것이다. 추사의 세한도에 그려진

두 그루잣나무와 한그루 소나무, 그 송백(松柏)은 바로 제자 이상적의 변함없는 의리와 사제지정(師弟之情)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마치 온갖 풍상에도 굴하지 않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굳세고 곧은 성품이 바로 김정희가 희구한 인간상이고 그의 예술세계였다. 또 창문도 없이 둑근 출입문만 있는 꽉 막힌 집은 당시 유배로 갇혀 지내는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함 그 옹색함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먹물로 명암을 살린 원근의 배경 표현 하나 없이 다만 갈필의 거친 선으로만 그려진 투박한 그의 집과 썰렁하고 스산한 전체 풍경은 아마도 원대(元代)의 화풍이나, 그것을 이은 청대 서화가 포산 장경(張庚, 1685-1760)의 백묘(白描)의 영향이었지 않은가 한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아는 세한도는 그림 한 장이거나, 여기에 추사 자신의 발문을 보탠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제영(題詠, 작품에 대한 감상기)이 포함되어 전체 길이가 14미터에 이르는 상당히 긴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 세한도가 완성된 것은 1844년 여름이었고, 이상적은 이것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그해 겨울 병부시랑의 집에서 전시한 후 중국 문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그들 17인의 제영을 받아오게 되었다. 그것은 유배중인 김정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이다. 제자 이상적의 공적은 대개 중국에서 귀한 책들을 구해다 김정희에게 전해 준 그 의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세한도를 중국에 가져가서 중국 문인들의 제영을 받아와서 김정희에게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가 되게 한 공적 또한 더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그것은 추사 김정희의 고도로 세련된 문인화풍이 중국의 화단에 효과적으로 전해지게 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중 미술 교류에서 주목해야 할 시안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 김정희 그림의 주류, 묵란(墨蘭)

그런데 사실상 김정희가 그림 중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한 화목은 묵란(墨

蘭)이었다. 그래서 목란은 김정희의 그림 중 주류를 이룬다. 김정희는 난을 치는 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난을 치는 법은 또한 예서 쓰는 법과 가까우니 반드시 문자향 서권기가 있는 다음에야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난을 치는 법은 그림 그리는 법칙대로 하는 것을 가장 꺼린다. 만일 그림 그리는 법칙을 쓰려면 일필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蘭法亦與隸近必有文字香書卷氣然後可得且蘭法最忌畫法若有畫法一筆不作可也).

이로써 보면 그는 남종문인화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썼던 것 같다. 그리하여 그는 난초를 그릴 때에도 예서 쓰는 법처럼 해야 하고, 문자향 서권기 가 있는 후에야 난초를 잘 그릴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 다만 화첩의 화법(畫法)에 따라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추사예술의 화두가 법고창신이라 할 수 있다면, 그 방점은 법고보다는 창신에 두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이를 통해서도 더욱 분명해 진다.

김정희는 난을 그리는 데도 많은 정력을 쏟았다.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난맹첩(蘭盟帖)」은 모두 15점의 목란으로 이루어졌는데, 목란의 다양한 형태와 구도의 묘미를 보여 주는 작품이다. 그런데 이 화첩의 말미에는 “난초 치는 것을 배운 지 30년이 되어서야 송나라의 정사초(鄭思肖)와 조맹견(趙孟堅), 명나라의 진원소(陳元素), 주도제(朱道濟), 서위(徐渭) 청나라의 정섭(鄭燮)과 전재(錢載) 등의 그림을 보았으나 전혀 방불치 않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의 이 분야에 기울인 열정과 목란의 연원을 헤아리게 한다. 또한 추사의 목란에 대한 견해는 그의 「불기심란(不欺心蘭)」에서도 확인된다. 이것은 그가 그의 아들에게 주는 글도 함께 적혀있는데, 난을 치는 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난초를 칠 때는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생각을 진실하게 하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은 난을 친다는 것이 단순히 난을 사생(寫生)하여 미(美)를 창출한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마음 자세를 중시하는 것인데, 그것은 불기심(不欺心)에 두고 있음은 주목되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점이 추사가 추구한 실사구시의 구시(求是) 정신의 맥이 상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도덕성의 일단이고, 실사구시 정신의 추구, 특히 구시정신으로서는 도덕적 접근을 철저히 주장한 만회 권득기의 견해와 일맥 상통되는 대목이 되기 때문이다.

### 시서화선 일체설이 그림으로 표출된 김정희의 「부작난화(不作蘭畫)」

김정희의 목란의 대표적인 작품은 「불이선란도」이다. 일명 부작난화라고도 불리는 이 그림은 김정희의 그림으로서는 현전하는 최후의 작품으로, 시서화각(詩書畫刻), 유불선(儒佛仙), 문사철(文史哲)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어 김정희의 철학을 오롯이 보여 주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추사는 이 그림의 화제에서 “초서(草書)와 예서(隸書), 기자(奇字)의 법으로 그렸으니,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겠으며 어찌 좋아하겠는가?”라고 하였다. 화제에서 난초를 그림에 있어 김정희의 철학이 드러나고 있다.

김정희의 ‘부작난화(不作蘭畫)’는 초서와 예서 그리고 기이한 글자 쓰는 법으로 그린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좋아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유마경(維摩經)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유마경은 유마 거사와 문수보살의 대승(大乘)의 깊은 뜻에 대한 문답을 기록한 불경이다.



불이선란도

난초를 그리지 않은 지 어언 이십년  
우연히 그려내니 타고난 성품  
문을 닫고 찾고 찾아 찾고 찾는 곳  
바로 유마의 불이선(不二禪)이라네

#### — 「부작난화(不作蘭畫)」 제(題)

위의 시는 김정희의 부작난화의 화제이다.  
여기에는 바로 유마힐의 불이법문(不二法門)  
이 배어 있다. 불이법문이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는 문’이라는 뜻으로 부처의 가르침  
이다.

지혜의 보살인 문수보살과 유마거사의 대화에서 유마거사가 “절대 평등한 경지에 이르려면 어떻게 대립을 떠나야 그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수가 “모든 거사에 대해 말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인식할 것도 없으니 일체의 문답을 떠나는 것이 곧 불이(不二)의 경지에 들어가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문수는 “유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유마는 오직 침묵할 뿐,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김정희는 이 유마의 무언의 불이선(不二禪)을 한 포기의 난초에 담아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불이선란도’라고 불린다. 불이선란은 학예일치(學藝一致)의 정수라고 칭해진다. 그것은 이 그림의 제발(題跋, 제사와 발문)에 “난을 그리는데 내가 우연히 난에서 하늘의 본성(性中天)을 사출(寫出)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관련될 수 있다. 여기서의 ‘성중천’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 즉 천성을 말한다. 조선후기에 인물성이 동논쟁이 있었다. 천성은 사람에게도 있고 물상에게도 있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였지만, 그 천성은 사람과 사물아 동일한가에 대해서

는 입장이 서로 같렸다. 서로 다르다는 입장[동론(同論)]에서는 천성을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 여겼고, 같다는 입장[동론(同論)]에서는 인성과 물성은 동일한데, 다만 기가 막혔는지 아닌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 하였다. 그런데 추사는 불이선란도를 만드는 중에 우연히 난에서 성중천을 본 것이었다. 천성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난에게도 있다는 것을 본 것이다. 그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불이선란도 여백에 그 사실을 대서특필하고 싶었을 것이다. 불이선란도를 보면 그림보다 글씨가 더 많은데,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불이선란도는 추사의 불교관, 그리고 시서화선 일체를 주장하는 추사의 예술관이 잘 표출된 작품이다.

### 추사의 멘토 화첩, 장포산첩(張浦山帖)

그러면 김정희의 멘토 화첩은 무엇이었을까? 김정희는 왕실의 내척(內戚)인 명가(名家)에 태어나서 이미 10대부터 서화(書畫)를 즐겼고, 적잖은 그림을 그렸다. 이후 24세에 연경(燕京)으로 가서 청나라 최고 수준의 용방강과 완원의 제자가 되어 서화에 대한 지식과 감식 방법을 배우는 등 서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추사에게 실사구시의 경학적 실학론과 고증학 및 서학(書學)의 이론 등을 전수했으나, 그림에 있어서는 보충해야 할 데가 없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하여 추사는 화첩을 남긴 그림의 멘토로 장경(張庚, 1685-1760)을 선택했다. 장경은 추사보다 백년 전의 사람으로, 자가 부삼 호는 포산(浦山)이며 산수(山水)와 백묘(白描)에 뛰어났다. 백묘란 동양화에서 얇고 흐릿한 곳이 없이 먹의 선만으로 그린 그림(백묘화)이나 그러한 기법을 의미한다. 포산의 산수도는 특히 원대 화가들의 풍모가 있었다. 추사는 장경의 화첩인 포산첩을 자신의 멘토 화첩으로 삼았다. 다음은 추사가 평생 가장 아끼던 화첩인 그 장포산첩(張浦山帖)의 끝에 마치 유언처럼 남긴 글이다.

이것은 원나라 예찬(倪瓈)과 황공망(黃公望) 이후 진체(眞諦 : 진리 도리 참뜻) 이자 신수(神髓 : 진수)이다.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진짜 임자가 아니면 팔지 말라. 동해낭현(東海娘媛, 추사의 별호)이 평생 소중히 간직하며 감상했다.

여기서의 예찬(1301-1374)과 황공망(1269-1354)은 모두 원대의 남종화의 대가들이다. 예찬의 대표작은 용슬제도(容膝齋圖)이고, 황공망의 대표작은 저 유명한 부춘산거도(富春山居圖)이다. 위의 글을 보면, 김정희는 청대의 장경이 이들의 뒤를 이은 최고 수준의 남종화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화첩은 포산 장경의 그림이 10면에 걸쳐 실려 있는 장포산의 화첩이다. 추사는 제주도에 유배 갈 때 이 화첩을 가지고 가서 늘 이 그림을 감상하면서 유배지에서의 외로움과 답답함을 달랬다. 하지만 병이 깊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경이 되자 이 화첩의 끝에 몇 자를 적어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아껴서 잘 보관할 것을 신신 당부하였다. 즉 이것은 진체(眞諦)가 되고 신수(神髓)가 되는 화첩으로 내가 평생 아끼고 간직하며 감상한 화첩이니,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진짜 임자가 아니면 팔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화첩의 말미에는 또 하나의 다른 유언 같은 글이 적혀 있다. 기록한 날짜가 1849년인 것으로 보아 추사가 유배에서 돌아온 이듬해에 해당한다.

이것은 내가 제주도에서 병이 심하게 들었을 때, 집안사람에게 써서 보내며 부탁한 것인데,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와 다시 보게 되었다. 옛날의 달빛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나무 사이에 걸린 달은 평소 모습 그대로였다. 이제 다시 병이 들어 하루살이처럼 기댈 곳이 없는 게 한탄스러운데 운치있는 멋진 그림에 감동하여 다시 여기에 몇 자 적는다. 비록 천만인이 와도 보여줘 서는 안 되지만 이재(彝齋, 친구 권돈인의 호)에게만은 한 번 보여줘도 괜찮다. 내 동생들과 아이들은 기억하라. 기유(己酉, 1849) 4월 20일 완당은 용산(龍山) 묘전병사(墓田丙舍)에서 쓴다.

이 화첩은 그가 제주 유배 시절, 유배지에서 병들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보관을 당부하는 글을 써서 집으로 보냈던 것인데, 그는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남아 집으로 돌아와 이 화첩과 함께 전에 쓴 자신의 글을 다시 만난 것이다. 이때 추사는 진정 감회가 새로웠을 것이다. 그런데 비록 그때와 상황은 다르지만, 또 병이 들어 하루살이처럼 기댈 곳이 없는 궁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의 말미에 다시 유언처럼 동생들과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록 친만인이 와서 보여 달라고 해도 안 되지만, 단 한 사람은 예외, 바로 내 친구 돈인에게는 한 번 보여줘도 괜찮다고 적고 있어 주목된다. 친구 퀸돈인에 대한 추사의 특별한 우정이 재미있다. 그는 단순한 우정의 친구가 아니라 예술의 진미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심미감을 가진 귀한 예술 친구였던 것이다. 추사의 미술세계의 윤곽이 엿보이는 이 화첩과 그 말미에 그가 남긴 이 글들은 전후에 추사가 남긴 미술 작품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었는지를 주목해 볼 일이다.

또 하나 추사의 그림과 이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청대 화가들의 전기를 모은 『국조화징록(國朝畫徵錄)』이었다. 그것은 청대의 장경이 펴낸 화가전 3편, 속편 2권으로 된 화가의 평전이다. 역시 포산 장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여기에는 청나라 초기부터 건륭연간에 이르기까지 활동한 450명의 화가들에 대한 전기가 들어있다. 추사는 이 책을 통해서 청대 화단의 정보를 얻고 그 흐름에 대한 이해를 습득하였을 것이다. 그가 얼마나 이 책을 탐독했는지는 그가 친필로 제첨(題簽 : 다른 종이쪽지에 써서 붙인 비깥 제목)을 써서 소장하던 『국조화징록』의 안쪽 곳곳에 찍혀 있는 붉은 관주(貫珠 : 예전에, 글이나 시문을 끊어서 잘된 곳에 치던 동그라미)와 비점(批點 : 과거 등에서, 시관(試官)이 시가·문장 등을 비평하여 아주 잘된 곳에 찍던 둥근 점)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다.

## 2. 문향의 고장, 예산의 문인들

### 예산문학의 문을 연 사람들

예산은 유서 깊은 문향(文香)의 고장이다. 고려 중엽에 대홍 사람 한문준(韓文俊)이 문학에 뛰어났다고 되어 있으나 그의 글로 전하는 바가 없다.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자료들로써 보면 예산의 고전문학은 시조 가사 고소설 한문학으로 분류될 수가 있고, 현대문학으로는 시문학 소설문학 아동 문학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이 중에서 예산문학의 문을 연 사람들은 일단 고전문학의 문을 연 사람들에게서 살펴야 할 것 같다. 현대문학은 다음의 근현대 문학에서 개관하기로 한다.

#### 시조(時調)를 남긴 사람들 : 김구 성흔 신계영

##### 김구(1488-1534)

『자암집』(권1)에 수록된 김구의 시조(時調)는 몇 수가 되고, 단가(短歌)는 수십 수에 이른다. 그리고 청구영언 중에 전하는 성흔의 시조는 3수가 있고, 신계영의 시조는 16수가 전하고 있다.

김구가 6세 때 지은 석류시는 단가(短歌)라 할 수 있는데, 이미 앞에서 소개한 바 있다. 여기서는 김구의 『자암집』에 수록된 시조 몇 수를 읽어 보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뾰이로다  
하해 깊다 하되 땅 위에 물이로다.  
아마도 높고 깊을 손 성은인가 하노라

그런데 이 시조는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인 듯하다. 초장이 우리의 귀에 익어 서일 것이다. 양사언(楊士彦, 1517-1584)의 고전 시가(고시조)의 하나인 아래의 「태산가」의 초장도 똑같은 말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泰山雖高是亦山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봐이로다
登登不已有何難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世人不肯勞身力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只道山高不可攀	뵈만 높다 하더라.

양사언은 중종-선조대의 문신이자 서예가이다. 그는 안평대군 김구 한호와 함께 조선 전기 4대 명필로 유명하다. 그런데 김구(1488-1534)는 중종대의 기묘명현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거의 30년의 차이가 난다. 김구가 더 연장자이다. 그리고 위의 김구의 시조가 자신의 문집인 『자암집』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후일 양사언이 자암의 시조 초장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양사언의 시조는 의지가 약하고 게으른 사람을 살며시 가르치고 타일러 사람의 부단한 노력을 강조한 것이고, 김구의 시조는 임금의 성은이 태산이나 하해보다 더 높고 깊다고 하여 신하의 군주에 무한한 충심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 독서를 격려해 준 중종을 위한 김구의 시조 2수

중종시대의 어느 날 김구는 달밤에 옥당(玉堂, 홍문관의 별칭)에서 당직을 하고 있었다. 이날 중종 임금이 김구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별감을 대동하고 옥당을 찾아왔다. 임금은 밖의 청상에 앉으시고 별감은 주안상을 들고 왔다. 중종이 말하기를, “오늘같이 밝은 달밤에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왔으니 오늘 밤은 군신의 예를 떠나 벗으로 대하자”라 하였다. 술상을 마주하고 조용한 가운데 술잔이 오갔고, 흥이 일자 중종임금은 말하기를 “그대의 글 읽는 소리가 청아하

니 반드시 노래도 잘할 것이다.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보라”라 하였다. 김구가 감격하여 답하기를, “오늘의 성은은 고금에 없는 일이오니 고금의 곡조로 부르기 보다는 신이 직접 지어서 부르겠습니다”하고 즉석에서 청에 따라 연이어 시조 2수를 지어 불렀는데, 그것의 현대어 역본은 대개 다음과 같다.

즐겁도다 오늘이여, 즐겁도다 오늘이여  
예부터 이제까지 오늘 같은 날은 없었도다.  
매일 오늘 같으면 무슨 성가실 일이 있으랴.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 다리가 되도록  
검은 까마귀가 해오라기 되도록  
무궁토록 복을 누리시어 억 만세를 누리소서

이것은 그가 중종임금의 건강과 만수무강을 기원한 것이다. 군왕 앞에서 즉석으로 이렇게 시를 지어 올리는 일은 높은 시안(詩眼)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었다. 중종이 노래 듣기를 마치고 “그대에게 노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노라” 하고는 담비 모피로 만든 갖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 경기체가의 시풍, 김구의 「화전별곡」

김구의 문학작품 중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그의 「화전별곡(花田別曲)」이다. 이것은 김구가 남해 유배지에서 그곳의 경치와 그 땅의 인물들과 어울려 풍류를 즐기는 정서와 감회를 노래한 작품이다. 경기체가로 지은 6장의 별곡이다. 화전(花田)은 경남 남해(南海)의 별칭이고, 제1장은 화전의 경치, 2장은 교우, 3장은 연락(宴樂), 4장 연락 중의 음악, 5장은 술과 안주의 풍부함, 6장은 결락구로서 자신의 생애를 읊고 있다.

경기체가(景幾體歌)는 고려 중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계속되었던 시가(詩歌)로, 한문 투의 장가(長歌) 형식으로 양반들의 생활 감정을 읊은 노래이다. 각 장의 끝에 ‘(景) 그 엇더(하니)잇고’란 후렴구가 붙는 것이 특색이다. 따라서 이것을 ‘경기 하여가(景幾何如歌)’라고도 한다. 김구의 화전별곡에서도 6장 결락구를 제외하고 1장부터 5장까지 각각 모두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라는 후렴구가 붙어 있어 이 노래가 경기체가임을 분명히 알게 한다. 그리고 별곡(別曲)은 시조와 함께 고려 중기 이후에 형성된 시형이다. 중국에서 전래된 한시 가곡에 대하여 우리의 가요를 지칭하는 말이 별곡이다. 신라인들은 우리의 고유의 가요를 향가라 했으며, 고려인들이 중국계 악장이니 악부니 하는 정악 또는 아악에 대하여 향악의 노래 이름에다 별곡이란 말을 붙이면서 생긴 말이다. 또는 원곡에 대하여 별도로 지은 곡이란 뜻이라고도 한다.

김구의 화전별곡은 남해의 멋진 자연 풍광과 그 지역 사람들과의 교유와 연락(宴樂)과 술안주의 풍성함 등을 차례로 읊고 난 후, 제6장 마지막 결락구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서울의 변화함이야, 너는 부러우나?  
 지체높은 벼슬아치가 사는 붉은 대문  
 술과 고기가 너는 좋으나?  
 돌 무더기 골라 낸 밭에 띠로 엮은 작은 집  
 계절마다 조화롭고 해마다 풍년이 되니  
 향촌 사람들이 모여 여는 모임을 나는 좋아하노라

여기서 김구는 서울의 변화함이나 높은 벼슬과 물질적 풍요 보다, 여기 화전(남해)의 자연 풍광과 풍년의 들판과 작은 집, 그리고 향촌 사람들이 모여 여는 모임을 더 좋아한다고 마무리 짓고 있다.

이상으로 자암 김구의 예술적 재능이 그의 독특한 글씨인 인수체는 물론,

문학에까지 미치고, 그것도 시조와 단가, 그리고 경기체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출중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 우계 성흔(1535–1598)

성흔의 자는 호원(浩源), 호는 우계(牛溪), 묵암(默庵)이며, 시호는 문간(文簡)이고 본관은 창녕이다. 아버지는 좌의정에 추증된 성수침이고, 어머니는 파평윤씨이다. 1535년 서울 순화방에서 태어났으며, 1539년 파주 우계로 이사하여 파주에서 성장하였다. 창녕성씨가는 조선중엽에 경기도 파주를 근거로 하여 성수침(1493-1564), 성흔(1535-1598), 성문준(1559-1626) 3대에 걸쳐 성리학자를 배출하면서 명문 선비가로 부상한 양반가였다.

성흔은 생원 진사 양시에 합격하였으나 문과에 응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백인결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이때 같은 마을에 살던 율곡 이이와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어 평생 교유하며 기호학파를 이끌었고, 서인계로서 정치적 노선을 함께 하였다. 선조 초년에 학행으로 천거된 후 여러 벼슬에 제수 되었으나 거의 출사하지를 않고 유일살았다. 임란 중에는 의주 행재소에서 참찬·대사헌이 되었다. 이때 그는 상소문을 올려 군사훈련, 장수의 임명, 군량 취합에 대한 대책들을 선조에게 올렸고, 좌참찬에 올라서 영의정 류성룡과 함께 주화론(主和論)을 주장하였다. 일본과의 7년 전쟁이 끝나던 해 성흔은 고향 파주에서 64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성흔은 1572년부터 6년간 이이와 함께 왕복서한으로 사칠이기설(四七理氣說)을 논하였는데, 그는 퇴계의 이기호발설을 지지하고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양자를 절충한 측면도 있었다. 그의 학문은 사위인 윤황·외손인 윤선거·외증손인 윤중으로 이어졌고, 서인의 소론 중심 계보를 형성하였다. 1681년(숙종 7)이 율곡 이이와 함께 문묘에 배향되었다.

성훈의 문집인 『우계집』의 제1권(詩)에는 그가 지은 시가(詩歌)가 모두 75수 들어 있고, 『청구영언』에는 또한 그의 평시조 3수가 포함되어 있다. 시조는 고려 말부터 발달한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이다. 그것은 초장·중장·종장의 3장으로 되어 있으며, 형식에 따라 평시조·엇시조·사설시조로 나뉘는데, 성훈의 이 시조는 평시조이다. 현대어 해석을 옮겨 적어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말 없는 청산이요 태(態) 없는 유수로다.  
값 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없이 늙으리라 (출전 『청구영언』 전문)

자연은 누구에게나 같은 모습으로 말도 없고 태도 없다. 청풍명월은 값도 없고 임자도 없다. 그러므로 그런 자연 속에서 자연과 벗하고 살면 인간도 욕망으로부터 비롯되는 병에 들지 않을 수 있다. 병이 들지 않으니 분별없이, 즉 근심 없이 늙을 수도 있다. 이 시조의 특징은 초장과 중장에 쓰여진 시어들, 즉 말과 태, 청산과 유수, 그리고 값과 임자, 청풍과 명월이 대조를 이루는데, 그것이 ‘없는’이라는 말과 어울리면서 서로 대구를 이루어 율동 감을 느끼게 한다. 특히 ‘없는’이라는 표현이 초장·초장으로부터 종장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없는’의 의미는 곧 ‘인위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자연과 더불어 근심 없이 사는 삶을 추구하면서, ‘자연의 섭리를 따라 살겠다’는 자기 암시가 들어 있다.

성훈은 『조선환여승람』에 아버지 성수침과 함께 예산(덕산)인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가 예산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543년(중종 38) 숙부 성수영이 덕산현감으로 부임하여 재직하던 때와 관련이 된다. 이때, 아버지 성수침이 덕산 가야사에 머물렀다. 그것은 오직 그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모시고자 하는 효심의 발로였다 한다. 그렇다면 『조선환여승람』에 성수침과 성훈이 덕산인으로 수록된 것은 아마도 이와 관련된 것아 아닌가 한다. 또한 1552년(명종 7)에는 아버지 성수침이

예산현감으로 제수되었는데 사은만 하고 부임하지는 않았지만, 예산과의 친근감이 더해졌으리라고 생각된다.

현재 예산군 문예회관 앞에는 우계 성흔의 문학비가 세워져 있다.

### 신계영(辛啓榮, 1577–1669)

신계영의 자는 영길(英吉), 호는 선석(仙石)이며 본관은 영산이다. 25세에 생원이 되었고, 아버지를 따라 예산 오지리(梧池里)로 이주했다. 43세에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벼슬을 거쳐 73세에 전부부윤이 되었고, 이어 한성 판윤에 올랐다. 이후 예산으로 낙향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지중추부사, 판중추부사의 벼슬을 계속 내렸다. 신계영의 관료 활동, 특히 외교관으로서의 그의 활동과 업적에 대해서는 앞의 충의정신에서 이미 살펴 바 있다.

그는 1655년 관직을 사임하고 예산으로 돌아온 후 여유로운 말년을 보내며, 문인으로서 다수의 문학작품을 남겼다. 그는 저서로 시문집인 『선석유고(仙石遺稿)』를 남겼는데, 여기에 수록된 가사(歌辭) 작품 『월선현 십육경가(月仙軒十六景歌)』가 잘 알려져 있다. 이 시조는 1655년(효종 6년) 작자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 예산에 들어와 살면서 예산의 풍경과 유유자적한 자기의 생활을 내용으로 하여 읊은 것이다.

월선현은 그가 예산으로 귀향하여 거처하던 예산의 집이다. 『월선현 십육경가』 1편에는 시조 작품으로 연군가(戀君歌) 3수, 탄로가(歎老歌) 3수,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10수 등 도합 16수의 시조가 들어 있다. 그 내용은 흔히 볼 수 있는 연군(戀君), 탄로(歎老), 전원한정(田園閑靜) 등으로 되어 있으며, 표현도 순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월선현 십육경가는 그가 예산으로 낙향한 그해 10월에 지은 가사로 그 자신이 월선현에서 보낸 예산의 4계절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 낸 것이다.

### 연군가, ‘창오산 해진 후에 세월이 깊어가니’

한편 신계영의 돋보이는 시조 중 하나는 연군가(戀君歌)이다. 연군가 3수 중 그 하나는 다음과 같다.

창오산 해진 후에 세월이 깊어가니  
님 그린 마음이 갈수록 새로워라  
우로은 생각하거든 더욱 서러워하노라.

이것은 그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며 지은 것이다.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히 잘 나타나 있다. 이는 순임금이 죽자 따라 죽은 이비(二妃)의 마음을 자신의 연군지정에 비겨 노래한 것인데, 창오산(蒼梧山)은 당시 순임금이 묘(苗)나라를 정벌하려고 진군했다가 죽은 곳이다.

이는 순임금을 따라 이비가 죽었던 것처럼 신계영이 벼슬에서 물러나 예산에 살면서 임금에 대한 은혜가 그립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나라와 임금을 위한 마음과 그리움을 예산으로 낙향한 후에도 진하게 나타낸 수작이다. 특히 가사 「월선현십육경가」의 끝부분에는 한가로운 전원생활도 임금의 은혜라고 마무리를 지으며 임금에 대한 충의지심의 표현에 방점을 찍고 있다.

### 탄로가, ‘아이적 늙은이 보고 백발을 비웃더니’

아이 적 늙은이 보고 백발을 비웃더니  
그 동안에 아이들이 날 웃을 줄 어이 알리  
아이야 하 웃지 마라, 나도 웃던 아이로다

사람이 늙은 후에 거울이 원수로다

마음이 젊었으니 옛 얼굴만 여겼더니  
센 머리 찡그린 얼굴 보니 다 죽어야 하여라

늙고 병이 드니 백발을 어이하리  
소년 행락이 어제련 듯하다만은  
어디가 이 얼굴 가지고 옛 내로다 하리오

겨울에 비친 자신의 늙고 추한 모습을 보고 겨울을 원망한다고 했다. 마음은 젊었으나 몸이 늙었음을 겨울로 확인하고 노쇠에 대한 원망을 겨울에다 하였다. 여기서는 늙고 병든 모습에서 젊어 즐거웠던 시절의 모습은 간 곳 없다는 상실감을 토로하였다. 젊은 날이 어제 같지만 벌써 백발이 찾아왔다는 한탄이며 아쉬움의 토로이다. 가버린 젊음이 그립고 찾아온 늙음이 싫다. 늙음이 인격의 성숙과 노년이 존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유교사회의 전통적 가치보다 젊음의 활력이 더 가치 있다는 인간 본연의 시각이 드러나 있다.

그의 평생을 돌아보면,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관료의 일원으로서 일본으로 가고, 또 중국으로 가서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동포들을 구해내는데 앞장섰고, 또 좋은 성과들을 이뤄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가 빼저리게 느낀 것은 저들이 왜 전쟁 포로가 되었는가? 그것은 국가의 무능 때문이었고, 그것은 유교적 명분과 원칙만 내세우고 실질적인 국가의 힘을 기르지 못했던 때문이었다는 인식이었을 것이다. 그럴듯한 명분적 가치보다는 사실적이고 직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그의 사실주의적 인식이 위의 탄로기(嘆老歌)에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 도옹의 한시와 이산해의 한문학

도옹(都膺)

### 여밀선초 불사이군의 군자, 도옹(都膺)

도옹은 여밀선초에 고려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잘 지킨 불사이군(不事二君),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충신이다. 그의 생애와 충절은 앞의 1장 <충의정신>에서 대개 살핀 바 있다.

그는 고려 말에 벼슬이 찬성(종 2품)에 이르렀으나, 고려가 조선에 망하자 홍주에 숨어 살면서 두문동 충신으로 추앙을 받았다. 이 태조가 다섯 번이나 불렀어도 나오지 아니함에 태조는 그에게 청송당(靑松堂)이란 시호를 내리고, 한 폭의 찬양시를 내렸다 한다.

도옹은 문장에도 뛰어났다고 하나 전해지는 문집은 없다. 다음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새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 그가 남긴 충의의 한시(漢詩) 한 수이다.

人臣當國威	신하가 나라의 위태로움을 당하니
死外更無爲	할 일은 죽는 일 밖에 없다.
一身擔負重	한 몸에 짊어진 부담이 너무 커
綱常五百朞	오백년이나 사람의 도리를 지켰도다
吾人一死字	우리는 오직 사자 하나 뿐이니
死當明白死	죽는 일을 명백하게 할 것이요
如我來得所	만일 우리가 뜻을 얻지 못하면
生曾不如死	살아도 죽는 것만 못하니라

고려의 충성된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 고려 멸망과 조선의 건국은 곧 자신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사건이었다. 오백년이나 사람의 도리를 다하면서 지켜온 나라 고려가 무너졌으니, 그 도리를 따라 자신도 무너져야 했다. 정몽주처럼 싸우다 목숨을 바친 경우도 있었지만, 다수의 선비들은 새 나라 조선에의 출사를 거부하고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불사이군(不事二君)의 길을 택했다.

위의 도옹의 시를 보면, “우리는 오직 사(死)자 하나뿐이니, 죽는 일을 명백하게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뜻을 얻지 못하면, 살아도 죽는 것만 못하니라” 했다. 우리는 그의 이 한 구절에서 당시의 충절의 선비들의 결연한 의지가 선명하게 만날 수 있다.

현재 도옹의 묘는 예산군 응봉면 지석리에 있고,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이산해(1539–1609)

### 조선중기 8대 문장가, 이산해의 문학

이산해는 이미 6세 때 글씨를 잘 써서 신통이라고 불렸고, 서화에도 능하였는데, 특히 큰 글씨[大字]를 잘 썼고, 또 산수목도에 능했다. 조선 중기 팔문장(八文章)의 한사람으로 손꼽힌다. 흔히 조선 선조대 8대 문장가의 일인이라고도 한다. 그는 양관대제학을 역임하였고, 시문은 물론 서예에도 모두 능하였다. 그의 글씨에 대해서는 이미 앞 절에서 따로 살핀 바 있다.

이산해는 5세 때부터 숙부 토정 이지함에게 글을 배워 6세 때에는 이미 글을 읽고 대자를 쓸 수 있었다. 그가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식음을 잊고 독서에 몰두하는 것을 보고, 숙부가 이를 염려하여 자제하도록 했다. 그러자 소년 이산해는 다음과 같이 시를 읊었다.

食遲有悶況學遲

腹飢猶悶況心飢

家貧尙有療心藥

須待靈臺月出時

밥 먹기 더딘 것도 민망한데 배움이 더딤에라

배가 주림도 민망한데 마음이 주림에라

집이 가난해도 오히려 마음 고칠 약 있나니

모쪼록 灵臺에 달이 뜰 때를 기다리리라

그의 시재(詩才)는 가히 타고난 것이라 할만하다. 심경호 교수는 이산해가 시(詩)의 여러 체에 모두 능했다고 한다. 그의 「기행(紀行)」은 그가 평해로 유배되어 처음 안정되기까지의 과정을 144구의 오언장편고시로 서술한 장편 시인데, 「즉사」 등 단형 신체시도 없지 않다. 또 내용상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출한 영회시(詠懷詩), 역사를 노래한 영사시(詠史詩), 사물을 노래한 영물시(詠物詩), 산수 자연을 노래한 산수시(山水詩), 사회문제를 노래한 사회시(社會詩), 풍속을 노래한 기속시(紀俗詩), 친구나 고인을 기리는 회인시(懷人詩),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도시(哀悼詩)는 물론이다. 이 외에도 또 가공의 인물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생각과 감정을 우의적으로 전하는 우언시(寓言詩), 철학적 이치를 전하는 철리시(哲理詩), 그림의 뜻을 풀이하거나 감상을 적은 제화시(題畫詩), 독후감을 적은 독후시(讀後詩), 사물이나 시사를 보고 느낀 즉흥적 감동이나 상념을 표현하는 관감시(觀感詩), 궁중여인을 소재로 삼아 그 애환을 노래한 궁사(宮詞)도 있다. 그런데 특히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서신을 주고받는 중답시(贈答詩), 내면적인 창작의 욕구 없이 소일거리로 읊은 음풍농월시(吟風弄月詩), 조정의 문서나 서적을 담당하는 문인들이 여가에 짓거나 군주의 명령으로 짓는 관각수창시(館閣酬唱詩) 등은 그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를 받는 유형의 시들이라 한다.

이산해의 시(詩)에 대해서 정병욱 교수는 그의 정치적 맞수 송강 정철과 대비해서, “송강(정철)은 문학사에서 사미인곡(思美人曲)을 비롯한 국문 가사(歌詞)의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아계(이산해)는 한시(漢詩)로서 송강과 맞서는 작품을 수없이 남기고 있다”라고 평하였다. 그러나 이산해의 시문은 많이 있었으나, 임진란 때 병화에 소실되었고, 그가 평해에 유배되었을 때 남긴 시문만이 남아있다.

여기서는 다만 심경호 교수가 「아계 이산해의 시 세계」의 맷음말에서 뽑아 소개하는 이산해의 『걸귀록(乞歸錄)』에 들어 있는 「야행잡영」 4수 가운데 제3수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處世機心久已忘      세상살이 기심은 오래 전에 잊고  
 白頭還逐少年行      백발 나이에 소년들과 어울려 선  
 高風十月元安島      시월 높새바람 부는 원안도에서  
 獵罷歸來未夕陽      사냥하고 돌아오는 때에 석양은 아직 지지 않았고

다음의 풀이는 위의 번역을 바탕으로 필자가 느낌이 가는 대로 덧붙여 본 것이다. ‘기심(機心)은 오래전에 잊고’라 했다. 기심이란 기회를 보고 움직이는 마음이요, 또 간교하게 속이거나 책략을 꾸미는 마음이다. 일인지하(一人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의 자리에 있던 그였다. 이제 벼슬에서 쫓겨나 유배 길에 와 있는 그로서는 이전에 작동할 수도 있었던 기심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도 않고 이미 내버린 지도 오래다. 그리하여 이제는 백발이 되었지만 저 천진난만한 소년들의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 자신도 ‘내 마음 가는대로’ 살고 싶은 것이다. 전개되는 시어들에서 생명의 약동감도 잘 묻어나고 있다. 그런데 끝에 ‘석양이 아직 지지 않았다는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갈 날을 기약하는 듯하고, 자신의 포부를 아직은 접을 때가 아님을 스스로 자기에게 다짐하는 말 같기도 하다. 과연 이산해는 평해 유배에서 풀려나(1595년)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 돈녕부영사가 되어 대제학을 겸하였고, 1600년(선조 33)에는 다시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다.

아계(鵝溪, 이산해) 문학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그가 영의정으로서 임진왜란의 책임을 지고 평해로 유배가 있을 때 남긴 『기성록(箕城錄)』이다. 이것은 그의 유배 중의 시(詩, 기성록 권1, 2)와 산문(散文, 기성록 권3)을 모은 유배문학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산해는 평해에서 3년 정도의 유배살이를 하다가 돌아왔는데, 그는 여기서 평해의 산수와 인물 풍속에 대해서 충실히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약 30개에 달하는 기문(記文) 및 전문(傳文)이 산문 형태로 수록되어 있고, 상당수의 집경시

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특색은 읍지(邑誌)의 성격을 가진 지리지(地理志)라 할 수 있다. 이산해의 무실(務實) 정신의 일단이 덤으로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상에서 살핀 이산해의 문학성과 그 재능은 이후 그의 집안의 전통이 되었다. 이산해-이경전-이무(李袤)로 이어지는 아계 집안 삼대는 세상에 명문장가로 알려졌다. 후에 미수 허목(1595-1682)은 경연에서 숙종에게 이무를 친거하면서 말하기를, “이무는 이산해의 손자요, 이경전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경전의 문장이 이산해보다 낫고 이무의 문장이 이경전의 문장보다 낫다고 합니다’라 했다. 이산해가가 명문장가로 알려진 한 가지 징표이다.”

## 조극선의 일기문학과 박두세의 고소설

### 조극선의 일기문학

조극선은 17세기 전반, 1609년부터 1632년까지 27년간의 삶을 『인재일록』과 『야곡일록』으로 남겼다. 『인재일록』은 덕산현에서 성장하면서 기록한 20대까지의 생활일기이자 청년기 성장일기이고, 『야곡일록』은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관직과 일상을 기록한 사환일기이자 장년기 생활일기이다. 이러한 조극선의 일기는 17세기 전반을 살아간 한 개인의 삶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의 역동적이고 급변하는 사회상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훌륭한 자료이다.

조극선의 인재일록과 야곡일록은 선비의 생활일기로 현재까지 조사된 생활 일기는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일기가 많았는데, 17세기 충청도 지역의 생활일기로는 『동춘당일기』와 『인재일록』·『야곡일록』 뿐이다.

인재일록과 야곡일록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로 인재일록과 야곡일록은 현존 어떤 일기보다 하루 일록의 양이 풍부하고도 다양하여 17세기 충청지역 시골

출신의 사족이었던 조극선의 향촌 생활상을 여러 방면으로 잘 보여 주고 있으며, 둘째로는 조극선은 하루를 철저히 기록하기 위하여 12조목의 규례(規例)를 정하고 기록방식까지도 상세히 기술하였다.

아울러 셋째로는 다양한 일상사를 수록하여 매일의 날씨 기록이나 각종 계, 특히 대동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종(노비)과 말에 관한 기사, 관혼상제의 가운데 혼례와 상례에 대한 기록, 가족의 질병, 교유한 인물, 전황(戰況) 등을 기록하여 당시의 사회를 읽어낼 수 있다.

① 조극선이 자신의 일상과 학자적 삶의 자취를 기록한 일기『인재일록』의 시점은 15세가 되던 1609년 12월 3일이다.

12월 3일 종형과 지주 이후(李候, 이명준)에게 『당음(唐音)』을 배우기 시작했다. 일찍이 여름부터 여러 학도를 따라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현아에 들어가 고강(考講)했다. 이때부터 우리 두 사람은 직접 수업했고, 뒤에 이평(李紓) · 이해룡(李海龍)도 직접 가르침을 입었다.

이명준에게 친히 수업을 받은 날을 일기의 시점으로 삼은 것은 조극선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극선이 덕산현감 이명준을 면대한 것은 1609년 여름이었지만, 이때는 매월 두 차례 고강(考講)을 위해 현아(縣衙)를 출입했을 뿐 학문적 수수의 과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12월 3일의 상황은 공적 관리의 대상에서 사적 가르침의 대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즉 조극선은 ‘덕산현감 이명준’의 치하 유생에서 ‘잠와 이명준’의 문인이 되어 그 관계성을 확장하였다 는 점을 보여준다.

② 1611년 2월 조극선은 서울행에 나섰다. 2월 16일 서소문에서 이명준을 뵈 조극선은 이해 9월 환향하기까지 이명준가를 매우 자주 왕래하며 수학했다.

이현기의 안내를 받아 이루어진 ‘도성관광(都城觀光)’은 서울에 대한 지리적 감각을 익히고 도회(都會)의 문물을 체험하는 과정이었고 ‘과학관광(科學觀光)’은 예비거자로서의 선행학습이었으며, ‘유소관광(儒疏觀光)’은 사람의 공론 표출과 집단행동의 방식을 현장에서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2월 18일, 박叔을 모시고 성균관 별시 마당에 들어가 이를 관광했다.

2월 19일, 이현기와 함께 남대문 누상에 올랐고 선무사도 관광했다. 나는 최순원·최진원·이형 이라는 사람을 만나 남계왕묘를 유람하고 돌아왔다.

4월 10일,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행위를 관광했다.(정인홍이 회재·퇴계를 헐뜯은 탓에 제생이 인홍을 공격한 것인데, 길에서 이 장면을 구경했다)

‘館儒上疏가 특히 인상적이었던지 조극선은 이에 대한 연속기사를 남기고 있다. 이것은 시사에 대한 조극선의 관심과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③ 1613년 5월 조극선은 이명준이 서제 이경준의 옥사에 연좌되었다는 비보를 접하여 상경하였다. ‘칠서의 옥’이 빨발한 것이다. 박옹서, 서양갑, 심우영, 허홍인, 박치의, 이경준, 김경순 등 명문가의 서자가 중심이 되었는데, 이들은 서얼금고를 사회적 부조리로 규정하고 영창대군 이의를 추대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축옥사를 재촉하여 혹독한 옥사로 종결되었다.

6월 30일, 고산으로 가서 용계를 뵈었다… 漚(흔)이 영덕에 계시는 잠와 선생께서 평안하시다는 기별을 들었다고 한다.

11월 9일, 아버지께서 고산·별산 등 여러 곳으로 가셨는데, 대구부사 李燦

씨가 마침 별산에 왔다. 우리들은 잠와 선생께 편지를 썼고, 아버지께서 대구부사에게 영덕으로 전해달라고 부탁하시려고 했다.  
 7월 3일, 아버지께서 李丈과 논의하여 잠와 선생의 궁핍함을 구호하자는 취지의 통문을 향중에 돌렸다.

이에 연루된 이명준은 연좌율이 적용되어 1613년 6월 17일 영덕유배가 확정되었고 『인재일록』에 따르면 배소를 향해 출발한 날짜는 약 10일 뒤인 6월 26일 이었다. 이후 이명준은 인조반정으로 해배·등용되기까지 10년을 배소에 묶이게 된다. 이명준의 유배는 조극선에게 있어 수학의 한시적 단절을 의미했다. 이에 조극선은 수시로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물었으며 이명준의 생계가 어렵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는 아버지를 통해 구호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 고소설 요로원야화기(要路院夜話記)를 지은 박두세

박두세(朴斗世, 1650-1733)의 자는 사仰(士仰), 호는 동암(東巖)이고, 본관은 울산이다. 1650년 예산의 대홍현 관음리(현 광시면 관음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박율(朴繡)이다. 어려서 신양면 서계양리 용암사(속칭 벼락절)에서 공부하였다 하며, 그의 별호도 여기에서 따와 동암이라 하였다 한다.

그는 1677년(숙종 3) 진사가 되었고, 또 1682년(숙종 8)에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직을 제수 받았다. 1686년 의금부도사로 권대운을 압송할 때 편리를 봐 주었다고 하여 파직되었다가, 이후 복귀하여 그 벼슬이 진주목사를 거쳐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색으로는 남인에 속하였으며, 벼슬길이 순탄치 못했다. 그러나 그는 문학에 능했고, 운학(韻學)에도 조예가 깊었다. 저서로 삼운보유(三韻補遺)와 증보삼운통고(增補三韻通考)가 있다.

박두세의 문학 작품으로는 「요로원야화기」가 대표적이다. 이것은 1678년(숙종 4) 그가 과거시험에 실패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충청도의 요로원이라

는 주막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겪은 일을 다룬 작품으로 수필 형식의 단편 산문이다. 고소설(古小說)이라고도 한다. 1책. 필사본. 1종의 한글본과 5종의 한문본이 있다. 한글본은 1949년 을유문화사에서 이병기의 주해로 출판되었고, 『동아휘집』에 수록되어 있다.

### 요로원야화기(要路院夜話記)

조선 숙종 때 박두세(朴斗世)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단편산문[고소설]이다. 그 내용의 줄거리는 대개 다음과 같다.

작중의 '나'라는 주인공은 충청도 홍주 금곡에 사는 29세의 선비이다. 그는 1678(숙종 4)년에 과거에 낙방하고 귀향하던 도중, 소사(素砂, 지금의 경기도 부천)를 지나 요로원(要路院, 지금의 충남 아산)에 이르러 주막에 들게 된다. 그날 밤 우연히 같은 방에서 함께 지내게 된 서울 양반이 고단하고 초라한 행색의 시골 선비인 그를 멸시한다. 이에 '나'라는 주인공 그는 짐짓 무식한 체하면서 서울 양반을 기롱(欺弄)하고 경향 풍속(京鄉風俗)을 풍자한다. 서울 양반과 시골 선비의 태생적 갈등 요소들이 다양하게 드러난다. 이어서 서울 양반의 제의로 육담풍월(肉談風月)로 내기를 하였다. 작중의 풍월 맷거리 한 대목을 보자.

두 사람은 풍월 맷거리를 하게 된다. 먼저 서울 양반이 한 구를 읊는다.

我觀鄉之賭 怪底形體條	내가 시골 사람과 내기를 하고 보니 글을 짓기가 괴이하구나
----------------	-------------------------------------

그러자 속으로 벼르던 나는 이런저런 말대꾸 끝에 다음과 같이 한 수를  
지어 보인다.

我觀京之表      내가 서울 것들을 보니  
 果然舉動戎      과연 거동이 오랑캐들 하는 짓 같구나

서울 양반이 깜짝 놀라 정색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으며,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한다.

육담풍월이란 한시의 형식을 취하지만, 우리말과 한자가 섞여 있어서 유희의 효과를 노리는 희작시(戲作詩)를 말한다. 이때 작품에 사용된 한자는 때로는 뜻으로 풀어야 하고 때로는 소리 나는 대로 풀어야 한다. 쉬운 듯하면서도 숨은 실력이 발휘되는 것이고 보니 서울 양반은 곧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교민하였던 언행을 부끄러워한다.

이어서 이들은 사색편당의 정치 문제를 비롯해서 학문과 수양의 방법 등 대화로 밤을 샌다. 서로 주고받은 여러 편의 시를 통하여 낙방한 선비로서 당대의 정치 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세태를 풍자하기도 했다. 밤사이에 두 사람은 서울 양반이 시골 선비를 중매하겠다고 말하는 등 얼마간은 가까워졌지만, 동창이 밝아오자 서로는 성명도 모른 채 헤어진다.

이 글은 작중의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하여 양반층의 횡포와 사회의 부패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향토 양반들의 실태와 그들의 교만성을 서울 양반에 빗대어 지적하기도 하고, 또 양반의 허세에 초라한 향인의 모습으로 도전하는 풍자성을 통해 이 작품이 경험한 사실을 기록한 기록문이면서도 또한 문학적 기법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한다. 또한 서울과 지방의 두 선비간의 대화를 통해 서 숙종대 조선사회의 세태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어서 재미있다.

특히 이 작품은 풍자적, 해학적,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는 고전수필, 야담의 성격을 지닌다. 주제는 양반들의 허세와 교만성 폭로와 비판이다. 조선시대 양반 문화의 허세를 통렬하게 비판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회적 비판성이 두드러진 야담류의 글로써 조선 후기 박지원의 단편소설 「호질」과

쌍벽을 이루는 고소설이라는 평을 받기도 한다.

## 진경시대 이용휴의 실학적 시풍(詩風)

이용휴(1708-1782)는 18세기를 오롯이 살았던 실학기의 인물로서, 그 시기의 대표적 시인이었고, 당시 조선 시단(詩壇)의 주역이었다. 그의 문학적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다산 정약용은 “영조 말년에는 (이용휴의) 이름이 한 시대의 으뜸이 되었다. 무릇 (글을) 갈고 닦아서 스스로 새로워지려는 자는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잘못을 바로 잡았다. 몸은 포의(布衣, 벼슬하지 않은 선비)의 반열에 있었지만, 손으로 문원(文苑, 문단)의 저울대를 잡은 것이 30여 년이었으니 지금껏 없었던 일이다.(정약용, 정헌묘지명(貞軒墓誌銘)”라 하였다. 벼슬하지도 않은 포의의 선비 이용휴가 ‘재야의 대제학(大提學)’으로 그 자리를 30년 간이나 지켰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한 평가이고,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당시까지의 우리 역사로서는 실학시대나 가능한 일이었다.

## 조선조 시단의 변화와 18세기 시단의 실학적 시풍

18세기 조선의 문학은 진경(眞景) 시대의 문학적 특성을 보이면서 우리 한문학 사상 보기 드물게 난만한 꽃을 피웠다. 진경시대는 조선후기 문화가 조선의 고유색을 한껏 드러내면서 이룩한 문화절정기를 지칭하는 문화사적 용어이다. 시기적으로 그것은 대개 숙종(1674-1720) 대부분 정조(1776-1800) 대까지의 125년간을 지칭하는 문화기로서, 최완수의 『진경시대』에서는 영조시대를 절정기로 삼고, 그 이전을 초창기, 그 이후를 쇠퇴기로 설정하고 있다. 이 시기는 조선의 문학적 고유색이 한껏 드러난 진경문화풍(眞景文化風)이 주조를 이루었는데, 진경(眞景)은 있는 그대로의 실경(實景)이고, 때로는 그 실경 속의 정신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그 후반기를 장식하는 영정조시대의 문화융성기는 바로 진경

시대의 꽃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의 대표적 시인 혜환 이용휴(李用休, 1708-1782)는 실학기의 시대사조에 힘입어 이전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독특한 작품세계를 독특한 방법으로 구사하였고, 이로써 한 시대의 문단을 이끌었다. 그는 몰락한 기호남인 계열 중 성호 이익 집안의 후예로서, 예산에 세거해온 여주이씨 집안을 대표하면서 연암 박지원(1737-1805)과 함께 당대 문단의 쌍벽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의 문학사에서 고려시대로부터 내리 3백년간은 사실상 송시(宋詩)가 시의 표준 교과서였다. 따라서 선비들은 앞 다투어 송시만을 따라 배우고 익혔다. 그리하여 문과 급제자의 방(榜)이 붙으면 으레 “금년에도 또 소동파 33명이 나왔구나”라 했다. 송시에서는 형식과 규범이 삼엄하였고, 옛날의 뛰어난 글들을 빌려 쓰는 철저함과 꼼꼼함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16세기 후반 선조(재위 1567-1608) 때부터는 당시(唐詩)의 열풍이 일세를 강타하였다. 그리하여 하루아침에 소동파(소식, 1037-1101)나 황산곡(황정견, 1045-1105)의 송대의 강서시풍(江西詩風)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입만 열면 사랑을 말하고, 낭만을 말하고 눈앞에 없는 아득한 옛날을 노래했다. 가보지도 않은 강남 땅을 동경하여 이백의 ‘연밥 따는 아가씨(5월이라 서시가 연밥을 따니 사람들 보느라 야계가 미어지네)’를 읊조리곤 했다. 그러나 실제로 연밥은 연꽃의 열매이고, 연꽃은 대개 7-9월에 피고지고, 10월은 되어야 연밥을 땐다. 그렇다면 이백의 시에 서시(西施)가 5월의 약야계(若耶溪)에서 땐 것은 연밥이 아니라 아직 연잎이거나 철없이 일찍 핀 연꽃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관념 속의 풍경일 뿐이다. 아마도 그것은 단지 봄 아가씨의 들뜬 마음 즉 춘수(春愁, 봄철에 공연히 일어나는 싱숭생숭한 마음)를 표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또 한 가지 중국에서는 당시(唐詩)에 이르러 5언·7언의 율시와 절구 같은 근체시(近體詩)의 양식이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조선에서도 이러한 당시풍이 일세를 지배하게 된 것이었다.

한편, 조선에서의 18세기 시단은 이러한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새롭게 삶의 다양한 국면들을 다정하고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시풍이 주도하였다. 시 속에 변화하는 시대적 풍경이 떠오르고, 또 그것에 적응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인간미 있게 그려지고, 그것의 표현은 있는 그대로를 표출하기를 선호했다. 그것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대로 진솔하게 들어내고자 했고, 분노를 굳이 감정의 채로 거르지도 않았다. 영원불변의 이념적 명분과 도리도 눈앞의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진경(眞景)으로 대체하고자 했다. 이 시기 이런 의식으로 무장한 시인들의 화두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또 ‘비슷한 것은 가짜이니 남을 흉내 내도 안 된다’고 했다. 당나라의 두보나 송나라의 소동파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보다, 시인의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실학기의 새로운 문학적 정서의 흐름이 실제로 이러했다.

물론 이러한 전환기적 인식의 맥락은 이미 17세기 말 서포 김만중(1637-1692)에 의하여 매섭게 비판된 문학적 비평에서 태동되고 있었다. 김만중은 그의 『서포만 필』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시문(詩文)은 자기 말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의 말을 배워서 표현한 것이니, 설사 아주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 여염집 골목길에서 나무꾼이나 물 긴는 아낙네들이 소리 내어 서로 주고받는 노래가 비록 저속하다 할지라도 그 참과 거짓을 따진다면 정녕 학사(學士) 대부(大夫)들의 이른바 시부(詩賦)라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논할 수는 없다.

라 했다. 물론 이것은 김만중이 정철의 관동별곡과 사미인곡의 가치를 논하면서, 우리의 가사문학을 굳이 중국 글자인 한자를 빌어다가 칠언시로서 표기한데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고, 우리 가사를 우리감정에 맞게 우리글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중국 한자를 빌어다가 한글을 대신

하려는 것이나, 중국의 시풍과 시 의식을 가져다가 자기의 시풍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식은 그 맥락이 같은 것이고, 상통되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그것은 18세기 실학기의 시풍을 선도하고 이어주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연계되면서 출발한 18세기에는 생각이 새롭다 보니 실험도 자유스러웠다. 그리하여 시의 형식에 있어서는 당나라 때에 정형화 된 5언시 7언시가 시작(詩作)의 대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때에 이르면 이제껏 보지도 듣지도 못한 육언시(六言詩)를 다투어 지었고, 산문투에 가까운 오언절구가 유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니 당연히 칠언율시의 엄정한 형식미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고, 그 자리를 산문투에 가까운 오언절구가 차지했다. 이 시기의 시는 더 이상 관념적 풍경을 복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것은 관념이나 명분, 또는 형식이나 정률보다도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진경(眞景), 다양한 형태로 살아 숨 쉬는 인간들의 모습에 주목했다. 이들은 마치 디지털 카메라처럼 그 시대의 장면들을 있는 그대로 바로 재현하고, 엄정한 역사가들처럼 그것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냈다. 그들은 아름다움 속에도 추함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추한 것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결만 꾸민 아름다움은 오히려 추하다고 배척하고 외면했다. 5언 절구니 7언 절구 같은 전통적인 형식미에는 미련이 없었다. 또한 한 편의 시(詩)에서 같은 글자를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는 불문율에도 고개를 저었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반복된 글자를 택하여 쓰기도 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말, 필히 써야 할 말이라면 과감하게 기존의 틀을 깨고라도 했다. 이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용납되기 어려운 시작(試作)의 자세, 그 주체할 수 없는 광기와 열정이 문단을 주도했다. 18세기의 실학시대, 이러한 시풍을 선도하고 이끌어간 그 중심에 예산의 시인 혜환 이용휴가 있었다. 바로 다산이 인정한 ‘재야의 대제학’ 이용휴였다.

### 이용휴의 파격적 시풍(詩風)

이용휴의 시는 송시(送詩, 이별하는 노래)와 만시(輓詩,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가 그의 시의 절반 이상이다. 이를 시는 보통 7-8수에 달하는 연작시인데, 대개 벼슬살이로 임지로 가는 벗에게 준 시이거나 세상을 떠난 지인을 추모하여 지은 시이다. 전자가 송시(送詩)이고, 후자가 만시(輓詩)이다. 공통점은 모두 인간관계에서 빚어진 시라는 점이다. 이용휴의 시를 연구하고, 그의 시세계를 맛깔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정민 교수는 “그의 시를 살피다 보면 이런 시가 많은 것에 놀라고, 또 하나는 하나도 비슷한 데가 없는 사실에 놀란다”고 했다. 정민 교수가 소개하고 있는 이용휴의 시 중에서 실학정신이 돋보이는 몇 가지 시들을 유형별로 소개해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먼저 이용휴의 시는 통상적인 한시의 문법에 전혀 얹매이지 않는 활달함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산문인지 시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자유분방하다.

#### ○ 주부 김명장에 대한 만사(輓詞)의 첫수

음덕은 귀 울음에 비할 수 있어  
자기는 알아도 남은 모르네.  
글에서 일찍이 이 말 듣다가  
지금 그대에게서 이를 보았네.

이것은 사실상 거의 산문에 가깝다. 지(知)가 두 번 나오고 어(於)가 같은 자리에 나란히 서는 것은 시에서 쓸 수 없는 句法이다. 증(曾) 같은 부사어나 지(之) 따위의 어조사도 아무렇지 않게 썼다. 하지만 자기는 들어도 남은

알 수 없는 이명(耳鳴)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던 망자(亡者)의 심덕(心德)을 지극히 일상적인 언어표현으로 곡진하게 풀어냈다.

### ○ 이후상에 대한 만사 제8수

그 사람 간담은 박과 같았고  
 그 사람 눈빛은 달빛 같았지  
 그 사람 팔뚝엔 신령이 있고  
 그 사람 붓 끝엔 혀가 달렸네.

이용휴는 이렇게 4구 모두 기인(其人)을 나란히 놓는 파격도 서슴지 않았다. 정(情)을 펴는데 필요하다면 격률(格律)을 허무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망설임 없이 담대한 행동 쏘는 듯 반짝이던 눈빛을 지녔던, 팔뚝에 신령이 붙고 붓에 혀가 달린 것처럼 붓을 잡기만 하면 거침없이 생각을 쏟아내던 우상 이언진에 대한 기억을 눈앞에서 보는 듯 되살려 냈다.

### ○ 직산현감 이만평에 대한 만사

발로는 고인의 자취를 쫓고  
 마음엔 고인의 가슴붙였네  
 몸뚱인 고인의 가운데 두어  
 자연히 고인과 하나가 되었지

매 구절에 같은 위치에 고인(古人)을 놓고 행동 뿐 아니라 마음 씔씀이까지 옛 사람의 표양(表樣)을 본받아서 살다간 고인을 떠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용휴의 시는 일상적이고 또 파격적이다. 너무도 쉬운 일상어로 되어 있고 산문에

가까운 구법을 보여준다. 하지만 표현은 산문처럼 설명적이지도 않고 늘어지지도 않고 시적으로 단단히 응결되어 깊은 울림을 남긴다.

### 일상생활상의 사실적 묘사

이용휴의 한시는 의표를 찌르는 표현과 인정의 미묘한 곳을 꼬집어 내는 절묘한 포착으로 독자의 정서에 깊은 울림을 남긴다. 일상의 묘사에서 특히 돋보인다.

며느린 앉아서 아이머리 땋는데  
등 굽은 늙은인 외양간을 쓰누나  
마당엔 우렁이 껍질 잔뜩 쌓였고  
부엌엔 마늘 접이 걸리어 있네

- 「전가(田家)」

한 폭의 나른한 풍경화이다. 햇살이 비낀 마루에선 며느리가 딸의 머리를 땋아주고 있고 등이 굽은 시아버지는 외양간 청소를 한다. 마당에는 알맹이를 다 먹고 벼린 우렁이 껍질이 소복이 쌓여 있고 햇마늘을 말리려고 부엌 한쪽에는 마늘 접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한 폭의 나른한 풍경화이다.

### 이용휴의 시에 대한 후대인의 평가

요컨대 이용휴는 18세기 경세치용적 실학을 주도한 성호 이익의 제자로서, 그 실학적 영향 위에서 자신의 문학론을 최대한 발휘하였다. 그것은 세상에서 그를 ‘재야의 대제학’이라 부른 데에서도 입증된다. 특히 그는 문예창작에서 주체정신을 발휘하며 실학적 실심미학과 현실적 실사미학을 추구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실심미학은 양명심학적 주체미학으로 표출되었고, 현실적 실사미학은

자아(自我)론으로 전개되었다.

흔히 이용휴의 문학을 두고 기굴첨신(奇崛尖新)을 말하곤 한다. 기굴은 기이하고 우뚝 솟은 것이고, 첨신은 새로움의 첨단이란 뜻이다. 유만주는 『흥영(欽英)』에서 “혜환의 시 백여 편은 살펴볼 만하다. 이 사람의 문장은 지극히 괴이한데 산문에서는 지(之)나 이(而) 같은 어조사를 전혀 쓰지 않다가 시(詩)에서는 지나 이를 거리낌 없이 쓴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아주 다르게 하려 했으니 이것은 진실로 하나의 병통이면서 또 한 가지 기이함이라 하겠다”고 적고 있다. 또 이덕무는 그의 시문에 대해서 “빼어나 곁할 사람이 없었고, 경전을 널리 보아 자구에 근거가 있었다”라 했다. 이것은 그의 글의 기이함이 학문이 깊은 온축서 나온 것, 즉 법고창신적 일면을 보여준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그의 시문을 살펴보면 담긴 생각이 비범하여 어느 한 편도 의표를 찌르지 않는 것이다. 산문을 시처럼 썼고 시를 산문처럼 썼다. 일상의 일을 말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었다. 이용휴 시문의 특성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용휴의 이러한 시단에서의 위상과 당대인의 기림은 이후 까맣게 잊혀졌다. 구슬 같은 작품들은 출판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고 산산이 흩어졌다. 풍문만 있고 실체는 없었다. 근근이 문중에 필사본으로 전해 왔으나 그나마 온전하지도 않다.

## 김정희의 「예산」 시, 그리고 가족 편지와 제문

‘추사 김정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개 한국서예를 대표하는 글씨로서의 추사체(秋史體)와 한국문인화를 대표하는 그의 세한도(歲寒圖)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품들이 추사를 대표하는 예술품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추사의 학문과 예술의 세계는 매우 방대하여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학(經學), 사학(史學), 시문(詩文), 금석문(金石文), 고고(考古) 분야에서도 그 위상이 대단히 높다. 여기

서는 그중에서 특히 그의 시(詩) 세계의 일단과 한글편지를 포함한 가족 편지 및 제문의 일단을 소개하여, 그의 문학 세계의 다양성과 출중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 김정희, 시(詩)로 예산(禮山)을 노래하다

『완당전집』에 의하면, 김정희가 남긴 시는 150여 편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다. 그중에서 특히 <예산>이라는 제목으로 남겨진 시는 유일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또한 그것은 김정희의 고향·예산 사랑의 일단을 알게 하는 애향시(愛鄉詩)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다음은 추사의 <예산> 시(詩)이다.

#### 예산(禮山)

禮山儼若拱 예산이라 의젓한 게 두손을 맞잡은 듯  
 仁山靜如眠 인산이라 잠자는 듯 조용도 하네  
 衆人所同眺 사람들이 함께 보는 곳이라 해도  
 獨有神往邊 홀로 내 마음 가는 곳 있네

渺渺斷霞外 가물가물 저 멀리 노을 밖으로  
 依依孤鳥前 아련히 새 한 마리 날아 오르네  
 廣原固可喜 넓은 들판 참으로 가슴이 설레고  
 善風亦欣然 좋은 바람 그 또한 흐뭇하구나

長禾埋畦畛 길게 벼가 자라 논 두렷이 보이지 않고  
 平若一人田 평평하여 한 사람의 논인 듯 한데  
 蟹屋連渙灣 작은 집들 물길 따라 흘어져 있고

蛩雨襯雁煙 빗 속엔 귀뚜라미 안개 속엔 기러기

秋柳三四行 가을 벼들 서너 줄 늘어섰는데  
 憔悴蒙行塵 길 먼지 덮어쓰고 초췌해 있고  
 紛紛具畫意 이것저것 모두가 그림 같은데  
 夕景澹遠天 석양은 먼 하늘에 담담하구나

이 시는 조선시대 예산을 대표하는 제1의 명인(名人) 추사 김정희가 지은 예산찬가이다. 그래서 다양한 기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노랫말에는 예산의 자연 풍광이 매우 자연스럽고 소박하게 그려져 있다.

김정희는 예산을 예산(禮山)의 모습이고, 인산(仁山)의 모습이라 했다. 또 다같이 보는 예산이지만, 자신의 눈에 비친 예산의 멋진 풍광이라 하며, 특별히 세 가지를 차례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멀리 노을 진 벌판에 아련히 새 한마리 날고 있을 때 가슴 설레게 불어오는 좋은 바람이 있는 풍광이고, 또 하나는 곡식이 무르익은 들판과 물길 따라 흘어져 있는 작은 집들, 그리고 빗속에 귀뚜라미 울고 안개 속에 기러기 날아가는 모습이다. 마지막 하나는 죽 늘어선 가을 베드나무와 함께 먼 하늘로 석양이 지는 예산의 풍광이다.

예산을 노래한 김정희의 시는 극히 자연스럽고 담담하다. 거창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다. 시어로 예산·인산을 끌어 왔지만 이 또한 그 모습이 예스럽고 어질게 보여서라는 말로 멈춘다. 김정희의 눈에 비친 예산의 멋진 풍광도 어찌보면 너무도 평범한 자연의 모습일 수 있고 일상의 모습들일 수 있다.

사실 김정희의 <예산>이라는 주제의 이 시를 대하면서, 우선 그 주제가 반갑고 고마웠지만, 그 첫 소절부터 웬 예산이 나오고 인산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은 의아해 한 것도 사실이다. 예산에는 예산이라는 산이 없고, 또 인산이라는 이름의 산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추사는 자연의 풍광에서 상상 속의 예산을 찾아

내어 예산을 예산이요 또 인산이라 고 노래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하필 예산이고 인산이었을까?

김정희(1786-1865)의 만년이 대개 19세기 중반이고 보면, 그때는 919년(고려 태조 2)에 시작된 예산 지명의 역사가 구백년을 훌쩍 넘는 시점이었다. 추사는 구백을 넘어 천년 역사를 향해 가고 있는 유서 깊은 고향 예산의 역사와 정신을 자신의 <예산>의 노래에 담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추사는 가상적인 예산과 인산을 설정하여 ‘예산의 예산다움’으로 그려냈던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희가 보기에 자연으로서의 예산은 예스러워서 점잖고, 어진 모습을 지녀서 잠자는 듯 조용한 땅인데, 생각해보니 그것은 또한 구백여 년 역사를 지닌 예산의 지명에 어울리고, 또 그것은 유가의 최고 덕목인 인(仁)의 기운을 품고 있다고 보았던 것 같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예(禮)는 ‘하늘의 이치를 마디지어 놓은 것이요, 이를 따라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의 법칙’이라 하였고, 또 인(仁)은 ‘마음의 덕이요, 사랑의 이치’라 하였다.

그렇다면 추사의 <예산> 시(詩)에 나오는 예산과 인산은 그 빼어난 지기(地氣)로 그 땅의 사람들을 순화하여 하늘의 이치를 따라 살고, 착한 심성과 사랑을 지니고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시어(詩語)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법고창신의 추사체를 만들어 낸 김정희로서는 충분히 더 이상의 예산 찬시를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희는 군더더기의 생각과 설명을 모두 지우고, 그냥 ‘두 손을 맞잡은 듯 의젓하고, 잠자는 듯 조용도 하네’로 축약하고 만다. 예의를 갖춤은 공손하고 의젓해야 하고, 어질고 사랑함은 잠자는 듯 조용히 품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시사를 주는 것 같다. 군더더기를 다 빼내고 자연의 풍광으로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것은 마치 그가 제주 유배갈 때 쓴 대홍사의 편액, 즉 살찌고 기름진 글씨 <무량수각(無量壽閣)>과 6년 후 제주 유배 중에 쓴 화암사의 편액, 즉 가늘고 윤기는 덜하지만 균골이 팽팽한

<무량수각(無量壽閣)>을 대조해 보는 듯한 묘미가 있다.

### 가족에게 보낸 편지와 제문

#### 8세 소년이 생가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올린 편지

굽어 살피지 못하는 한여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옵니다. 소자는 (어른을) 모시고 책 읽기에 한결같이 편안하오니 걱정 마십시오. 백부께서는 이제 곧 행차하시려고 하는데 장마가 아직 그치지 않았고 더위도 이와 같으니 염려되고 또 염려됩니다. 아우 명희와 어린 여동생은 잘 있는지요? 제대로 갖추지를 못합니다.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사립니다. 계축년 (1793년) 유월 초열흘 아들 정희가 아립니다.

伏不審潦炎

氣候若何 伏慕區區 子侍讀

一安伏幸

伯父主行次今方離發 雨意未

已日熱此 伏問伏悶 命弟

幼妹 亦好在不餘不備

下鑑 上白 是

癸丑 流月 初十日 子 正喜 白是

이것은 김정희가 7세 때 백부 김노영의 집으로 양자 나간 후, 8세(1793년, 정조 17)에 본가의 생부 김노경에게 보낸 편지이다. 원문은 세로 8줄, 71자의 짧은 편지이다. 여기서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었을 것이다. 또 ‘책 읽기에 한결같이 편안하다는 말은 걱정하는 부모를 위로 하는 말일 것이다. 그리고 ‘아우 명희와 어린 여동생의 안부를 묻는 것은 형제에 대한 그리움과 혼자 떨어져 있는 자신의 외로움의 마음이 담긴 표현이었을 것이

다. 어린 나이에 양자 나간 8세 소년의 애처로움이 느껴지는 편지글이다.

그러나 글이 간결하면서도 필요한 얘기는 다 하고, 그러면서도 담담하게 느껴지는 글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희의 담백한 성품과 그 일생이 그려지는 글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미의 ‘유월(流月)’이라 쓴 것은 ‘유두(流頭)가 있는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유월을 이르는 말이다. 어린 소년의 박식함의 일단을 보는 듯해서 재미 있다.

### 33세 때, 아내에게 부친 애절함과 사랑의 편지

다음 자료는 33세 때인 1818년(순조 18)에, 추사가 대구 감영에서 경상감사로 부임한 생부 김노경을 모시고 있으면서, 서울 장동 본가에 있는 부인 예안이씨에게 보낸 편지이다. 그가 문과에 급제하기 1년 전의 글이다.

저번 가는 길에 보낸 편지는 보아 계시옵니까? 그 사이에 인편이 있었으나 편지를 못 보오니, 부끄러워 답장을 아니하여 계시옵니까? 나는 마음이 매우 섭섭하옵니다. ‘무인년(1818) 2월 11일, 남편이 올립니다’

편지글의 내용은 지난번 대구 내려오는 길에 보낸 편지는 보았는지, 대구 내려오는 인편이 있었으나 부인 편지를 못 보니 부끄러워서 답장은 안한 것이며 섭섭함을 표현한 것이다. 김정희의 부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엿보이는 한글 편지를 통해 추사의 인간미를 엿볼 수 있다.

김정희는 아내 예안 이씨보다 두 살 연상이었지만, 이 글에서 꼬박꼬박 ‘계시옵니까’ ‘하옵니다’의 존칭어를 쓰고 있어서 주목된다. 그것이 김정희의 훌륭한 인품의 일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되는 때문이다.

18-19세기의 조선 사회는 이른바 종법(宗法)이 정착된 시기로서 남존여비가 심했던 사회로 이해되어 진다. 종법이란 적장자 상속을 핵심으로 하는 친족조직

의 원리를 이르는 말이고, 상속의 우선 대상이 적장자(적실의 장자)이고, 그것은 곧 적실의 장남인 남성을 이르는 말이었으므로 당시의 중자(衆子, 장자가 아닌 나머지 아들들)나 서자, 여성의 차별이 분명히 있었고,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했다. 예컨대 삼종지도(三從之道), 즉 여성은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그런 경향성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봉건적 용어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그만큼 더 열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불평등한 시대적 상황이었음에도 김정희는 아내가 연하임에도 부인에 대해서 깍듯이 존대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것은 그의 따뜻한 인간미와 함께 그의 후덕한 인품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 점에서 김정희의 40편에 달하는 한글 편지에 대한 충분한 독해는 조선시대의 부부의 관계나 혼인사회사를 새롭게 이해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응용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전에서 발견된 조선초기 군관 나신걸(1461-1524)의 <아내에게 부치는 한글 편지>가 주목된다. 이 편지는 현재 남아있는 최고(最古)의 한글편지로 인정되어 지난 3월 9일 <나신걸 한글편지>라는 제목의 보물(2208호)로 지정되었는데, 이 편지에서도 나신걸은 아내에게 존칭을 쓴 것으로 해독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각 시대마다 이러한 부부간의 편지가 발견되고 그 어법이 확인되면 전통시대 남존여비의 사회통념이 모든 언어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이지만, 일단 추사가 아내에게 깍듯한 존대어를 쓰고 있는 것은 추사의 우아한 인품의 일면으로 인식해도 좋을 것 같다.

또 이 편지에서 추사가 아내에게 애듯한 사랑의 투정을 직설적으로 보이고 있는 표현도 인상적이다. 그 또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자 하는 19세기 문학의식을 반영하는 일단이 아닌가 한다.

### 57세 때, 제주 유배지에서 죽은 아내에게 보낸 통곡의 제문

김정희가 제주에 유배 중인 1842년 11월에 부인 예안이씨가 죽었다. 그 해는 그가 제주에 유배온 지 3년째가 되던 해였고, 그의 나이 57세 되던 해였다. 그동안 김정희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묻고 집안사정도 묻고 밀반찬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유배살이의 옷가지와 음식을 챙겨주던 그 아내가 자기가 제주에 유배해 있는 동안 홀로 이승을 떠나 저세상의 사람이 되었다. 김정희는 부인이 이미 죽은지도 모르고 부인의 안부를 묻는 애틋한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이미 하루 전에 부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한 달 후에야 알게 되었다. 이에 추사는 놀라고 울렁거리고 혼이 달아나서 아무리 마음을 불들어 매려해도 길이 없다며 통곡하는 제문을 쓴다.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다. 그는 운명을 주관하는 저승의 관부에 송사라도 내고 싶었다.

다음은 그가 부인 예안 이씨의 부음(訃音)을 듣고 유배소에 부인의 신주(神主)를 설치하고 곡한 뒤 그가 지어 고향으로 보낸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을 담은 제문(祭文)이다.

어이해 월하노인 시켜 저승에 송사하여  
내세엔 부부가 처지 바꿔 태어날꼬  
천 리 바깥에서 나는 죽고 그땐 살아  
내 맘의 이 슬픔 그대에게 알게 하리

추사는 이 제문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전설적인 노인 월하노인(月下老人)을 시켜 저승에 송사하여, 오는 세상에서는 부부가 서로 처지를 바꿔 태어날 것을 빌고자 했다. 그것은 지금처럼 천리 밖에서 서로 입장을 바꿔 ‘나는 죽고 그땐 살아’ ‘내 맘의 이 슬픔 그대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아내가 되고 아내가 그가 되어 먼저 죽은 추사를 천리 밖에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

워하는 그 심정을 아내가 느낄 수 있게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당시 김정희의 그 기막히고 어이없고 애달픈 심정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야 어찌 다 알 수 있을까? 그러나 그의 제문이 망자(亡者)의 마음을 위로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 같으니, 그의 문필력(文筆力)을 또한 가히 평가할 만하다 하겠다.

### 한말 고문학의 대가 이남규

#### 상소문으로 시국을 논하고, <군자금가>로 희망을 엿보다

수당 이남규(1855-1907)는 1906년 홍주의병장 민종식을 숨겨주었다는 죄목으로 1907년 공주옥에 투옥되었다가, 며칠 뒤 온양 평촌 냇가에서 아들 이충구와 함께 왜군에 의해 피살되어 절사한 충의(忠義)의 인물이다. 이남규는 왜군이 집으로 쳐들어와 체포하려 하자 “선비는 죽일 수는 있어도 욕보일 수는 없다(土可殺 不可辱)”며 가마를 타고 잡혀갔고, 가는 길에 그들이 회유하자 왜군을 꾸짖다가 최후를 맞았다. 그는 벼슬이 안동부 관찰사를 거쳐 중추원 의관, 중추원 특진관에 이르렀고, 신채호의 스승이었으며, 학문과 문학이 출중하였다.

이남규는 성재 허전(許傳)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허전은 성호 이익-순암 안정복-하려 황덕길로 이어지는 성호학파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그는 실학적 학풍을 기반으로 예학·성리학·문학에 힘썼는데, 특히 문학은 당대 문호인 영재 이건창(李建昌)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고문의 대가로 평가받았다.

이남규의 문학에 대해서는 매천 황현(黃玹, 1855-1910)의 평가가 있다. 황현은 전남 광양 출신의 생원(성균관 회시 장원)으로 양명학과 실학에 밝았으며, 유교적 입장에서 비판의식을 가지고 쓴 역사 『매천야록(梅泉野錄)』의 저자이다. 1910년 한일합병 소식에 식음을 전폐하여 절사한 충절의 인물이다. 황현은 이남규에 대해서 “그는 문장에 능했는데, 특히 소차(疏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건창이 서거한 이후로 경재(卿宰, 2품 이상 벼슬아치) 가운데 문학과 명망에 있어서는

이남규를 으뜸으로 쳤다”고 평하고, “그의 문장은 비록 많이 접하지 못했으나 ‘갑오년의 상소’는 족히 천고에 남을 것이다. 글 솜씨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 하였다. 이남규가 상소문으로 당대에 이건창과 함께 한말 고문창작의 거벽(巨擘)으로 평가받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위에서 지목된 이남규의 ‘갑오년 상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조선왕조실록』 기사에 의하면 갑오년(1894년) 3월 26일자의 이남규의 상소임이 분명하다. 이해에 그가 올린 상소는 이 한 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황현이 ‘천고(千古)에 남을 것’이라고 까지 후한 평을 하고 있는 이남규의 그 상소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1894년 6월 21일(청일전쟁 2일 전), 일제는 조선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이것을 일제에 의한 경복궁 점령사건, 혹은 갑오변란이라 한다. 이로부터 이를 후인 6월 23일 이남규는 부호군으로서 한통의 상소를 올렸다. 이것이 바로 그의 갑오상소이다. 당일 실록의 표제어는 <재정 낭비, 조세문제, 법 적용의 형평성, 일본군사의 난입 등에 관해 진술하다>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후 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의 일단들이고, 핵심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그 대응방안에 두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후자에 관련된 몇 개 문장만 발췌해서 보기로 한다.

① 이번에 일본(日本)인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도성문으로 들어왔는데 외무관청의 관리가 극력 제지하였으나 듣지 않았으니, 신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으며 그 병력의 명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웃 나라의 환란을 도우려는 것이라면 우리는 구원을 요청한 일이 없으며, 만일 상민(商民)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 그들이 걱정 없도록 우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상을 꾸며대는 것이고, 걱정할 것 없이 보호하는데도 보호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으로 말하면 이것은 의리(義理)가 아니고 뒤의 것으로 말하면 신의(信義)가 아니니, 이렇게 그들을 추궁

한다면 그들이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이웃 나라와 사귀는 도리는 오직 의리와 신의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수립되지 않고서는 우호관계를 보장한다는 것을 신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② 우리나라가 비록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무기 하나가 없어서 천 리의 강토를 가지고도 그들을 두려워하며, 잔뜩 움츠러들어 고개를 떨어뜨리고는 그들이 하라는 대로 내버려 둔 채 감히 뭐라고 한 마디도 못한단 말입니까? 도성 안에 저들이 점포를 열도록 승인한 것도 식견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더구나 그들의 군사가 주둔하는 것을 승인하고 금지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 만일 이치와 의리, 성실과 신의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면 그것은 적이지 이웃이 아닙니다. 적과 이웃이 되어 속으로는 의심을 품은 채 겉으로 괜찮은 척하면서 끝내 무사한 경우는 있은 적이 없습니다.

③ 논의하는 사람들은 필시 신의 말이 시의(時宜)를 고려하지 않고 사세를 헤아리지 않은 채 큰일을 함부로 말하여 이웃 나라의 힐책을 불러온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구차하고 고식적인 말일 뿐입니다. 무릇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는 것은 그 국체(國體, 나라의 체면) 때문입니다. 국체를 존중하지 않는데도 시의에 맞다느니 사세에 합당하느니 하는 말은 신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 단지 구구한 하찮은 의리를 가지고도 나라가 망하는 것이니, 국체를 존중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국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아무리 망하지 않으려고 하여도 될 수 없는 일입니다.

④ 당초에 우리가 중국(中國)에 구원을 청한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지방의 작은 도둑을 수령이나 방백이 제압하지 못하고 점차 큰 도적으로 만들고는 끝내는 초토사(招討使)와 순변사(巡邊使)로 하여금 연이어 군사를 거느리고 가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른바 천 근(千斤)짜리 쇠뇌를 생쥐를 향해 쏜 형국입니다. 이것부터가 벌써 이웃 나라에 알려지

게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또 우리가 도리에 맞게 역적을 치면 누르지 못할 리가 없다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약점을 보이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데 급급하여 접대에 재물을 낭비하고 운반하는 인력을 지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필시 우리를 비겁하다고 여겼을 것이니, 일본 사람들이 이로 인해 우리의 형편을 엿보기 위해 병력을 동원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⑤ 우리는 이미 저들과 화친을 하였으니, 이제 갑자기 힘으로 맞설 수는 없고 마땅히 이치와 의리, 성실과 신의로 깨우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이니, 우리도 응당 무기를 수리하고 군사를 훈련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찌 다른 나라 군사가 도성 안에 있는데 편안히 앉아서 방비하지 않겠습니까?

요컨대 그것은 ①일본이 의리와 신의를 상실했다는 것 ②일본은 적이지 이웃이 아니라는 것 ③만일 이치와 의리, 성실과 신의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면 그것은 적이지 이웃이 아니라는 것 ④당초에 우리가 중국(中國)에 구원을 청한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었다는 것 ⑤나라 군사가 도성 안에 있고, 그들이 우리를 업신여기니, 우리도 응당 무기를 수리하고 군사를 훈련하여 대처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남규의 상소문은 의견제시가 분명하였고, 그것에 대한 해설이 논리정연하였다. 그의 고문학의 출중한 장처이다. 이남규의 상소문은 이 외에도 명성황후의 위호를 복원하고 황후를 죽인 범죄자들을 처벌하여 복수할 것을 주장한 「請復王后位號討賊復歸疏」와 지금의 일본은 서이(西夷)와 한 가지이므로 조선이 일본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주장한 「청절왜소(請絕倭疏)」 등 문장이 출중한 글이 많이 있다. 실제로 이남규의 「비적(匪賊)의 소요와 왜병(倭兵)

의 도성 진입을 논한 상소」에 대해서 고종은 “사리를 논한 것이 조리가 있고 말이 또한 개절(凱切)하니, 매우 감탄스럽고 가상하다”고 반응하고 있다. 그의 고문의 장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입증해 주는 한 가지 대목이다.

또한 이남규는 저신의 출처를 묻는 지인 윤자삼에게 주는 답서(「답윤자삼(答尹子三)」)에서 다른 사람의 사례를 이야기식을 풀어서 전함으로써 자신 주장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문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 또한 그의 문학 기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남규는 시문에서도 출중하였다. 그의 시에는 우국애민 정신이 발현된 작품들이 있다. 예를 들면 「영홍집영십구수(永興雜詠十九首)」의 경우 백성들의 고난한 생활상, 삼정의 문란, 불안정한 경제 등 백성들이 겪는 고난과 적폐를 지적하였다. 또 「삼전도가(三田渡歌)」는 병자호란 때 굴욕을 준 청나라 황제의 공덕비 없애고 우리 군왕의 덕을 새기기를 바라는 심정을 노래하였다. 또 민영환과 조병세의 의로운 자결에 대해서도 시를 통해 슬퍼하며 장하게 여긴 시도 있다.

이남규의 문집인 『수당집』은 모두 10책인데 그중에서 시부는 1책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의 시부는 범상치 않은 시의 경지가 엿보인다. 특히 「군자금가」와 「금강산가」는 다 같이 장편의 걸작으로서 기결하고 웅혼판 품이 금강산의 이미지를 시폭에 옮겨다 놓은 느낌이 들 만큼 출중하다.

여기서는 특히 그의 「군자금가(君子琴歌)」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이 시는 금강산에서도 가장 영기가 집약되었다고 하는 만폭동에서 기암의 꼭대기에 우뚝 홀로 선 오동나무가 벼락을 맞아 죽은 것을 소재로 하여 만든 거문고를 노래한 내용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선보(善甫)라는 사람이 금강산 만폭동의 한 꼭대기서 죽은 오동나무를 가져다가 옥동 이서에게 선물하자 이서가 그것으로 거문고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의 사후 후손이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

간 것을 후손들이 가서 사정하여 다시 구해 와서 전문가에게 수리를 부탁하여 옛 거문고를 복원한 후에 이 사실을 적은 글을 이남규에게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남규는 이를 위해 장문의 시를 썼는데, 그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사물이 이루어지고 허물어지고, 드러나고 묻히고 하는 것이 얼핏 우연인 것 같지만, 그러나 또한 우연하지 않은 것이 거기에 있다. 무엇인가? 당초에 오동나무가 바위틈에서 고생을 하다가 벼락을 맞은 것은 묻히고 허물어진 것인데, 선생이 이를 드러내어서 이루어 주었다. 그런데 뒤에 그것을 잃어버려 남의 손에 들어간 것은 이 또한 묻히고 허물어진 것인데, 숙도(叔度, 이남규에게 글을 부탁한 사람)가 이를 드러내고 기거랑이 이를 이루어 주었으니, 이것이 어찌 우연일 따름이겠는가. 그 또한 우연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이남규는 이 시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고 있다.

원컨대 이 거문고를 가지고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님께 한 번 백성을 위한 곡을 타고저  
그렇지 않다면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 스스로 즐기면서  
옛 소리를 배워 선조 뒤를 계승하소

이남규는 이 군자금(君子琴歌, 거문고)을 대궐로 가져가서 임금님께 한 번 백성을 위한 곡을 타 줄 것을 염원해 본다. 아마도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지고, 다시 그것을 살려내는 이 신묘한 군자금 스토리를 통하여, 나라가 또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싶었을 것이다. 한 시대의 문학을 대표하였던 이남규의 출중한 문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 한말 사대부가의 여성시인 남정일현

남정일현(南貞一軒, 1840-1922)은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약천 남구만(南九萬)의 7세손이며, 남세원(南世元)의 딸이다. 세 살 때 훈민정음을 통달하니 할아버지가 그 재주를 사랑하여 날마다 한자 수십자를 벽에 걸어놓고 가르쳤는데 한번 보면 다 외웠으며 경사(經史)에도 막힘이 없었다고 한다.

16세에 우계 성흔(成渾)의 10세손 성대호(成大鎬, 1839-1859)와 혼인하였는데, 남편이 20세의 나이에 후손도 없이 죽자 그 뒤를 따라 분신하고자 했으나, 시어머니(전의 이씨)가 보고 옛날 효부지사(孝婦之事)를 들어 말리므로 마침내 그 가르침에 감화되어 온전함을 얻었다. 이때부터 집안을 다스리는 여가에 책 읽기를 스스로 즐거워하며 자신의 방에 편액을 ‘정일(貞一)’이라고 하였다. ‘정일’은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말이다. 정부일(貞夫一), 곧 ‘사물의 변동은 무궁하나 마침내 하나의 이치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그가 살던 예산집(예산 간양리 구두물)은 도고산과 덕봉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또 하나의 집이 있었다. 도운각(道雲閣)이다. 도고산 아래에 살아서 그 집을 도운각이라 했다.

정일현에게는 후사가 없어서 집안의 형님인 성진호의 둘째아들 태영(台永)을 양자로 삼았다. 정일현은 젊은 시절에는 서울에서, 만년에는 예산읍으로 내려가서 지냈던 것 같다. 1923년 83세에 죽었다. 묘소는 아산 농은리에 있다. 농은리는 도고산과 경계한 곳이다. 남정일현은 정일(貞一)로 살다가 도운(道雲)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 관습을 따라 양자를 들여 가계를 잊고

조선시대 여성은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접대하며(奉祭祀 接賓客), 바느질하고 옷감을 짜는 것 외에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당연한 임무로 받아들여야 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도는 남아선호사

상을 더욱 고착시켜갔고, 이런 분위기에서 결혼한 여성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칠거지악의 하나라 하여 중죄로 취급을 당하곤 했다.

여성 시인 남정일현도 남편이 일찍 죽어 후손을 보지 못했으므로, 정일현의 나이 31세에 과중 사는 친족 성진호(成縉鎬)의 둘째 아들 태영(台永)을 양자로 들였다. 모자 관계는 지극하여 어머니는 아들을 지극 정성으로 가르쳤고, 아들 또한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다. 아들 태영의 회갑일에 정일현은 직접 누에를 치고 비단옷을 짜서 옷을 만들어 주었고, 아들 태영은 비단옷을 입고 춤추며 기어와 품에 안기니 정일현은 희색이 만면했다고 한다.

### 정일현의 한시(漢詩)

정일현 사후에 아들 태영이 약 60여 편의 시와 제문을 모아 『정일현시집(貞一軒詩集)』을 엮었으며, 고종 사촌인 영재(寧齋) 이건창(李建昌, 1852-1898)이 그 서문을 썼는데, 영재는 한말의 학자로 『당의통략』의 저자이다. 원래 정일현의 시가 많았으나 1894년 동학난 때에 불타서 많이 없어져서 남겨진 시가 많지는 않다.

정일현의 시세계는 극한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운명에 대한 비관보다는 대체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노래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가정이야기, 농사이야기, 신선세계 등 다양하지만,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녀의 양자에 대한 갈망과 태극과 이기에 대한 성리학적 철학 노래, 그리고 그의 일생의 험로를 노래한 행로난(行路難) 등이다.

그는 그의 「행로난(行路難)」에서 힘겨웠던 자신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半世冥行走一遭 반세기 어두운 길 한 걸음에 달려왔으니  
 夏畦齊郭攬滔滔 여름 밭두둑과 제나라 성곽처럼 도도하네  
 傾危到處蜀山路 이르는 곳마다 기울고 위태로워 촉산의 길이고

翻覆當時武峽圖 항상 거꾸러지고 엎어지니 무협도 같네  
 見害方知胸裏棘 해를 당하고 나서야 가슴속의 가시를 아니  
 結歎誰測笑中刀 잘 지낼 때는 누가 웃음속의 칼을 생각이나 했겠나  
 杜門鏟跡猶侵害 문을 닫고 종적을 감추어도 오히려 고통이 몰려오니  
 思入仙源學種桃 신선세계 들어가 복숭아나무 심는 법 배울 것을 생각하네

아픔을 딛고 반백년을 달려오듯 살아온 지난 일이 눈앞에 도도하게 펼쳐진다. 위태로운 일에 거꾸러지고 엎어지며 살아온 순탄치 않은 길과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허필해 하다가 그는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종적을 감추어버렸다. 그래도 몰려오는 삶의 괴로움에 밀려 그는 현세를 떠나 신선세계로 들어가 복숭아나무를 기르며 살고자 한다. 현실의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워 결국 선계를 지향하는 고단한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상이 남정일현의 시세계에 대해 『남정일현시집』 서(序)를 쓴 이건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의 시에는 근친할 것을 생각하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정과 시아버지의 장수를 축원하고 후사의 어짊을 기원하고 양잠과 농사가 잘 이루어졌음을 스스로 서술한 시가 많다. 그리고 때때로 다시 출새(出塞) 강개(慷慨)한 말과 유선(遊仙)의 오묘한 소리, 태극 이기(理氣)의 순수하고 심오한 말을 짓되 차가운 등불과 싸늘한 비에 슬퍼하는 가련한 모습은 절대로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정일현은 궁정과 희망의 호방한 시경을 추구한 시인으로 평가된다. 또 그는 조선 사대부가 여성문인의 마지막 계보를 잇는 시인으로서, 특히 김호연재 임윤지당 강정일당으로 이어지는 조선후기 기호학과 여성성리학자들에 비해 진일보한 철학적 이론을 편 시인이기도 하다. 그는 여성 남성의 문제 너머로 인간과 우주에 대한 이해로 사유가 확장되어 있었다. 더 큰 틀의 우주론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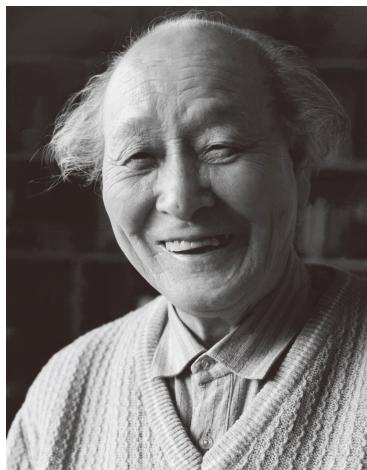
에서 성리철학을 이해하고 사유한 시인이었다. 그는 죽기까지 사서삼경과 역사서, 특히 주역을 죽기까지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내외 친척들로부터 대가라는 평을 들었다. 정일현은 그의 한시 외에도 친필 한글가사 작품으로 남초가 권효가 규원가 노인탄가 등 필본을 남기고 있다. 독서와 창작, 그것이 불우한 자신의 삶과 불안의 시대를 이겨내고 대응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 3. 예산의 근현대 미술과 문학

#### 예산의 근현대 미술인들

##### 고암 이응노

고암(顧庵) 이응노(李應魯, 1904-1989)는 동양의 서화 전통을 통해 현대적 추상화를 창작했던 근현대 미술사의 거목이다. 그는 1958년 프랑스로 간 후로 그만의 스타일을 인정받아 유럽 각지의 유수한 갤러리에서 많은 전시회를 열었다. 파리에서 거주하고 있던 1960년대에 이응노는 당시 유럽에 크게 확산되어 있었던 앵포르멜 미술(Art Informel)을 실험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 미술세계를 만들어 나갔다. 또한 그는 1964년 프랑스 파리에 '파리동양미술학교'를 설립하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서예와 동양화를 가르치며 동양 미술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기도 하였다.



고암 이응노

## 이옹노의 시대별 작품세계

1950년대에 이옹노는 한국 전통의 필묵으로써 서양화의 여러 기법을 활용해 사실주의, 표현주의적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리고 그의 화풍은 프랑스로 건너 가게 되는 즈음에 추상적 경향으로 옮겨 가게 된다.

1962년 파케티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연 이옹노는 파리 화단에서 그만의 독창성을 인정받았고, 앵포르멜 추상에 응답하는 동양적 추상이라는 훌륭한 평가를 받았다. 1967년 ‘동백림 사건’으로 2년여의 옥고를 치렀으나 간장, 된장, 화장지, 밥풀, 종이 등을 재료로 한 옥중화를 약 300점이나 남기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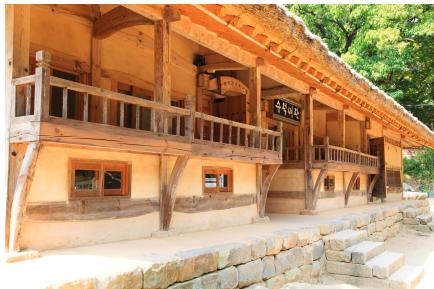
이옹노는 1960년대 중반부터 ‘문자추상’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작품을 발표했는데 1970년대에는 한글과 한자의 추상적인 패턴을 연구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변주하였다. 그는 또한 화면 위에 화면과는 전혀 다른 속성의 재료들을 콜라주 하는 방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하기도 하였다. 서양 미술에서의 콜라주 개념을 수용했지만, 이옹노의 작품에서는 어떠한 대상이든 콜라주 하는 대상이 그 안에서 온전한 조형적 요소로 사용되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그는 판화 작품을 많이 남겼다. 이 판화들은 그저 서양적 판화 기법을 사용한 것이라 볼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 동양적 시각에서 는 동양 전각의 전통과 맞닿아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작품들이 다수 있다.

이옹노의 작품 속 중심에는 늘 인간이 있었다. 군상 작품은 70년대 후반부터 그의 타계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그의 (특히 후기의) 군상 작품에서는 봇으로 서체를 쓴 것 같은 인간 형상이 무수히 나열된 전면 구도의 작품이 많다. 특히 고암의 군상은 한 번의 봇놀림이 곧 한사람이 되는 봇의 움직임이 무한히 반복되어 나타난 것으로, 한지 위에 그려진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상 작품은 고암의 인생관과 예술관이 집약적으로 담겨있는 고암 예술의 ‘대미(大尾)’라 할 수 있다.

## 수덕여관

예산군 덕산면에 위치한 수덕여관은 이옹노가 1944년 구입한 것으로,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초가집 여관이다. 그는 이곳을 한국전쟁 때에는 피난처로, 수덕사 인근의 풍경을 그리던 때에는 작업실로 썼다고 알려져 있다. 여관 앞에는 이옹노가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2년여의 옥고를 치른 뒤 돌아와서 만든 암각화가 있다. 이것은 삼라만상의 성쇠(盛衰)를 문자 추상을 사용해 창작한 작품이다. 수덕여관과 우물, 암각화 일원은 '이옹노선생사적지'란 이름으로 1996년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수덕여관 누마루 \_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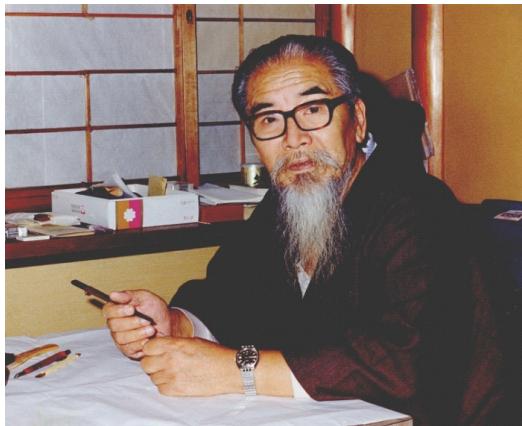
수덕여관 앞 암각화

## 석봉 고봉주

현대 전각을 개척한 석봉(石峯) 고봉주(高鳳柱)는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다. 15세에 예산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고 19세에 일본으로 건너간다. 1925년 도쿄에서 길거리 행상을 하는 등 갖은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니혼대학(日本大學)에 입학했지만 결국 학비가 없어 다니지 못했다.

그는 조선인노동총동맹을 결성하여 비밀리에 노동쟁의를 하고 일본 전 지역을 순회하며 밀서연락책을 맡았다. 그러다 비밀활동이 발각되어 금고형을 선고

받고 1년간 복역하는 고초를 겪었다.



석봉 고봉주

1932년 고봉주는 일본 각지를 방랑하다 일본 현대 서도(書道)의 아버지 히다이 덴라이(比田井天來) 문하에 들어가 고전임서, 금석학, 전각 공부에 매진한다. 덴라이의 문하에 있으면서도 당대 일본최고의 전각가였던 가와이 션로(河井筌廬)로부터 직접 전각을 배우기도 했다. 이때 동문수학하던 관계는 평생 이어졌는데 김돈희, 오세창, 이한복 등과 친교를 맺었다.

석봉의 전각에 대한 열정과 작품은 2만과(顆)가 넘는 유작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전각은 중국의 금석문과 청나라 명가들의 각풍(刻風)을 연구하여 일본과 한국의 전각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1944년 일본에서 귀국한 석봉은 1965년 '고석봉 전각서예전'을 개최했으며, 여러 차례 일본에서 전각서예전을 열어 전각예술을 통한 한일문화교류의 확대에 기여역할을 했던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89년에는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위원장으로 역임하기도 했다.

## 고봉주의 전각예술

석봉의 전각은 진한(秦漢)의 고법을 기초로 하여 금문(金文), 고사(古璽), 봉니(封泥) 등을 연구하여 질박하면서도 중후하고 고아한 아취를 겸비한 세계를 이루었다. 또한 오창석을 비롯한 청대 명가들을 섭렵하여 작품의 품격미를 자아냈으며 질감이 뛰어났다. 그 전각의 선질(線質)은 기운이 생동하면서도 소박함을 껴안고 참됨을 머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석봉 전각의 두드러진 특징은 원방(圓方)의 일체 미학사상으로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둥근 것 같지만 둥글지 않고 모난 것 같지만 모나지 않은 대립적 통일의 묘미를 관찰할 수 있다.

## 설봉 김두환

1913년 예산읍 예산리에서 출생하였다. 1935년 일본 가와바타화학교를 졸업하였고, 도쿄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하였다. 1940년 서울 화신회랑에서의 제1회 개인전을 시작으로 1974년 회갑 기념전, 1978년 정년퇴임 기념 개인전에 이르기까지 총 10여 회 이상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다수의 단체전에도 참가하였다. 김두환이 1930년대 유학을 마치고 화가로서 첫발을 내딛으면서 목표로 삼았던 것은 향토예술이었다. 향토예술이란 우리나라 풍경과 사람들을 소재로 삼아 고유한 정서와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미술이다. 김두환은 다양한 서구 사조를 접하고 다양한 실험적 작품을 통해서 독창적인 양식을 만들어냈다. 1946년부터 예산농업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면서 김두환 회화연구소를 설립하였고 고암 이응노, 나혜석 등 당대의 대표적인 작가들과 교류하며 활동하였다. 당시 김두환의 작품들은 예산 인근의 향토적 서정이 두드러지는 풍경과 민속적인 것을 특유의 두텁고 깊이 있는 색조로 표현하였다.

### 김두환의 작품세계

후기인상주의와 야수주의 경향의 강렬한 색채와 분방한 필치, 주제와 표현방식에서 한곳에 얹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경계를 오간 것을 그의 작품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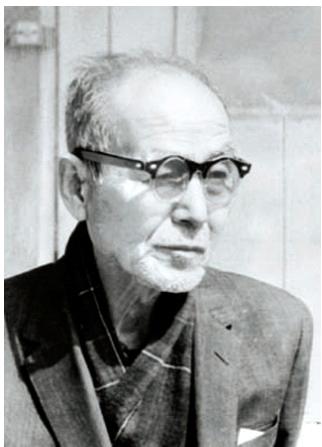


김두환의 자화상

김두환은 어떤 화파를 답습하고 특정인의 기교를 쫓는 것이 아니라 향토적인 태생적 특유의 독자적인 화풍을 지녔다. 그는 또한 전통미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작업에 몰두하였다. 그 중 특히 불교미술에 많은 관심을 보여서 불교조형물을 특징으로 하는 향토성 짙은 작품을 선보였다. 그리고 다른 화가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자화상을 남긴 것 역시 김두환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 예산의 근현대 문학인들

### 방인근



방인근(方仁根)은 신문학기에 활동했던 예산 출신 문인이다. 1899년 예산읍 예산리 사직동에서 태어난 그는 1910년에 온양공립보통학교, 1914년에 공주 영명학교를 졸업하였다. 1917년 서울의 배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야오아마학원 중학부, 주오대학 독문과에서도 공부하였다. 1923년 『신생명』에 시(詩) 「하늘과 바다」를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후에는 소설이나 평론 집필에 매진하였다. 1924년에는 춘원 이광수와 문예지 『조선문단』을 창간하였다. 또, 동아일보에 1932-33년까지 소설 「마도의 항불」을 연재하였고, 평양의 승덕중학과 기독교신보사 등지에서 근무했으며 여러 문예잡지들의 편집장을 역임하였다. 1950년대에는 '춘해프로덕션'을 차리면서 영화제작자로,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동하였다.

### 이해문

이해문(李海文)은 대술면 이티리 안골에서 출생한 예산의 시인이다. 예산보통학교 4학년 과정을 중퇴하고 독학으로 한학과 신교육 중등 과정을 마친 뒤 신암면사무소, 예산군청에 근무하며 시작(詩作) 활동을 이어갔다.

시문학 동인지 『시인춘추』와 『문예광』, 『맥』 등에서 때로는 본명으로, 때로는

고산(孤山)·금오산인(金烏山人)이란 필명으로 동인 활동을 하였다. 그의 유일한 시집인『바다의 묘망』에는 1937년까지의 작품 143편이 실려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때에 마흔의 나이로 인민군에 의해 총살당했다. 그의 또 다른 생거지인 서울 충무로 4가의 집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시집『바다의 묘망』 이후 작품들, 그러니까 1937년 이후의 작품들은 현재 전해지는 것이 없어서 그의 시가 무르익었을 시기의 작품들은 끝내 만나볼 수 없게 되었다. 작품뿐만 아니라 이해문의 생애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도 빈약한 편이나,『호서문학』제13집(1987)에 그에 관한 유의미한 글 2편이 실려 있다.



### 이해문 시인에 대한 평가

이해문 시인은 유달리 대중성과 예술성의 양 갈래에서 극단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편에서는 소시민의 정서를 충실히 대변해주며 누구에게나 널리 읽힐 수 있다는 평을 듣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산문 형식의 시가 산만하며, 예술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완성도가 낮은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이해문의 시는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자연스러움을 포착하여, 특유의 낭만성을 더해 갔다. 더불어 고향에 대한 애수와 자연 특유의 정감을 잘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이해문의 시는 읽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당대의 시인들의 경우, 상당 부분 어려운 상징이나 한자를 주로 사용하였다면, 그는 산문적 시를 통해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간 바 있다. 당시 신문이나 여러 잡지는 그의 작품을 많이싣곤 하였는데, 독자들의 평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적 특징은 한국 문단이 그를 외면하는 이유였으나, 같은 이유로 대중은 그의 작품을 찾아 읽었던 것이다.

작가의 주관주의에 빠지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독자들의 눈을 의식하다 보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잃어버리기 마련이지만, 정말 좋은 작품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아우르는, 다시 말해 예술성과 대중성 모두를 포괄한 작품이다. 좋은 작품은 어렵고 난해한 길이 아니라, 누구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동시에 독자의 마음을 여러 층위에서 올릴 수 있는 넓이와 깊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작품의 예술성과 대중성은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다.

## 박창식

박창식은 예산군 응봉면 송석리 37번지에서 출생했다. 유년시절 한학 수학을 마치고 오가보통학교, 공주영명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잠시 예산제일교회에서 연극 문화 활동을 주도하다가 유학길에 올라 일본대 문예창작과에 입학하여 신지식과 전문성을 배웠다.

졸업 후 일본에서 활동하다 1942년 부친 사망으로 귀국했다가 이듬해 강제징용에 끌려가 해방 후 돌아왔다. 그는 ‘태극좌’라는 극단을 조직하였고 <운봉길연극>이란 창작극을 만들어 충남 일원을 순회 공연했다. 당시 연극 단원이었던 이상호 선생이 현재 예산읍에 거주하고 있다. 연극에 대한 열정과 애국심의 정서가 특징이었던 선생의 명성이 점차 높아지자 1941년 ‘예산공립실과여학교’

로 설립된 현 예산여고에서 연극 강사로 활동했다고 당시 함께 근무했던 윤봉길 의사의 동생 윤남의 선생의 구술이 전해진다.

박창식은 1957년 예산에서 다섯 번째로 발간된 동인지인 『육석(肉石)』이 창간하는 데 주도한 역할을 했다. 동인으로는 한성기 이희철 이상구 서창남 김봉한 김광희 한경구 홍성우 박병하 진인규 최영재 김기학 이재인 박세준 등이 참여했다. 1984년에는 『무한동인회(無限同人會)』 창립에 참여하고 회장 추식을 중심으로 동인지 『무한』을 창간했다.

또한 그는 야당 정치활동을 하면서 1960년 12월 12일 시행한 제3대 도의회의 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듬해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치활동을 해산 중단시키고 탄압하자 항의로 맞선 선생은 경찰에 체포 구금되고 5.16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대전 고등군사법원에서 4년 징역형을 받았다가 1962년 1월 6개월 복역 후 출소했다. 야당 정치활동을 펼치던 선생은 당시 예산경찰서장이 백창현인데 선생과 오가초등학교 동창생 관계여서 갈등과 대립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자유당 말기였다. 8년간 정치활동금지를 겪었던 선생은 재야요시찰인 물이었고 예산의 혁신계 인물인 이계성 신부, 개척교회 한도전 목사 등과 '민주 헌정동지회'를 이끌었고 선생은 초대 예산책임자로 활동하면서 군사독재정권에 맞섰다. 1980년대 후반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고문을 거쳐 1990년 제4대 도의원 선거에 출마, 낙선했지만 민주주의 대의를 잊지 않고 지역정치 발전에 헌신했던 지조와 절의를 지녔던 민주지사이기도 하다.

## 4. 예산 예술정신의 특성

예산 예술정신의 특성은 첫째, 묵향·문향 속에 담긴 인문(人文) 정신의 계승이다. 예산은 묵향의 고장으로, 또 문향의 고장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그 묵향·문향 속에 담긴 인문정신이 예산 예술정신의 근저를 이룬다. 하늘의 변화가 천문(天文)이고 땅의 변화가 지문(地文)이며, 인간의 변화가 인문(人文)이다. 인문은 인류의 문화와 인물, 인륜의 질서, 그리고 그 변화상을 담고 있다. 그것을 예산인의 시각으로 글[文]로 표현하고 그것을 서예[書藝]로써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면서 문학(文學)과 미술(美術)의 예산의 예술세계를 이루어왔다. 예산은 이러한 인문의 역사가 유구하고 관련된 인물들이 출중하다. 그리고 그것은 연속성과 지속성을 보이고 있다. 돋보이는 인물로만 보아도 조선 중종대에 김구로부터 시작된 예산의 서예풍은 옥동 이서를 거쳐 철종대 김정희까지 연면히 이어졌고, 조선 초기 도옹이나 중기의 성흔의 시, 김구와 신계영의 시조, 조극선의 일기문학, 그리고 실학시대의 이용휴의 진경시, 김정희의 편지문학, 한말의 이남규의 고문, 남정일현의 한시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을 보이면서 연면히 이어져왔다. 이 점이 예산 예술정신의 한 가지 특성이다. 요컨대 예산인들은 서예[미술]와 문학으로 인문정신을 연면히 계승해 온 것이었다.

둘째, 학예일치(學藝一致)의 문예정신이다. 조선시대에는 대개 학문의 세계와 재예(才藝, 재능과 기예)의 세계를 나누어 이분화하고, 문은 승상하고 재예는 천시하거나 경시하는 풍조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예산에서는 김구와 김정희 같은 큰 인물들이 서화의 대가로 우뚝 서고, 문학에서도 이들은 물론 성흔 이산 해 이용휴(재야의 대제학) 이남규 같은 인물들이 성가를 올리면서 오히려 학예일치의 문예정신이 돋보이게 되었다. 학예일치(學藝一致)의 문예정신을 확고히 한 인물은 김정희였다.

셋째,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창의정신이다. 법고창신은 옛 것을 모범으로 삼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새 것을 창출해 내는 정신이다. 조선시대 예산에서 꽂고위쳤던 인수체-동국진체-추사체의 출현은 모두 현재의 서법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를 부정한 데에서 출발했다. 그것은 서법의 원류를 찾아서 서첩(書帖)을 넘어 비첩(碑帖)을 찾고, 점차 송대 원대를 넘어 진대와 한·위(漢魏), 서한(西漢)의 비첩(碑帖)의 서법(書法)에까지 소급하여 고증해 가는 중에, 법고창신의 창의적 정신과 자신의 재능과 피나는 노력이 더해져서 얻어낸 값진 결과들이었다. 그들의 피나는 노력은 예컨대 김정희가 “벼루 백 개를 닽아 구멍 냈고, 붓 천 자루를 써서 없앴다”는 고백이 응변적으로 말해준다. 이러한 노력과 재능에 법고창신의 정신이 더해져서 창의적 결과를 얻어낸 것이었다.

넷째,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학정신의 결실이다. 실사구시는 사실에서 진리를 구하는 것이다. 사실은 경전이나 역사의 기록 속에 있고, 그것의 이치를 깨닫고 구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하는 것이다. 특히 18세기 이후의 예산의 예술정신에는 예산세계 여주이씨가의 성호학풍 중 실학적 문학정신이 현저히 들려났고, 19세기 추사 김정희의 예술세계는 실사구시의 고증학적 탐구의 결실이었다. 김정희의 추사체가 그러했고, 또한 그의 대표적 문인화인 세한도 역시 그러했다.

다섯째, 예산의 문학과 근현대 예술에서 보이는 다양성이다. 근대 이전 예산의 문학은 시, 소설, 시조는 물론, 일기문학, 편지문학, 한글편지, 고문학, 여성문학 등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색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희의 한글문학은 아직 그 내용들이 충분히 독해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이 복원되면 조선시대 여성사와 사대부의 생활사는 물론, 국어사적 언어학적 과제의 해명 등에 그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근대 미술과 문학에서는 아직 전통시대와의 연대 측면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면에서 예산 예술을 계승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 화가인 이옹노가 우리의 문인화에서 보이는 사의적 정신성을 국제적인 조형방식인 추상형식과 적극적으로 결합시키려 했던 시도가 주목되고, 고봉주도 서예 및 전각에서 국제적 명성을 얻으며 예산 예술의 맥을 이었다.

또한 문학에서는 최초의 지방문예지인 『문예광』을 창간(1930년)한 성진호, 동인지 『시인춘추』를 발간하고, 또 진한 향토애와 폭넓은 어휘를 담은 시집 『바다의 묘망』에서 개성적인 경지의 개발로 주목 받았던 이해문, 그리고 아동문학가 이희철(필명, 흰모래), 시인이자 연극인 박창식 등이 예산 문학을 다양성 있게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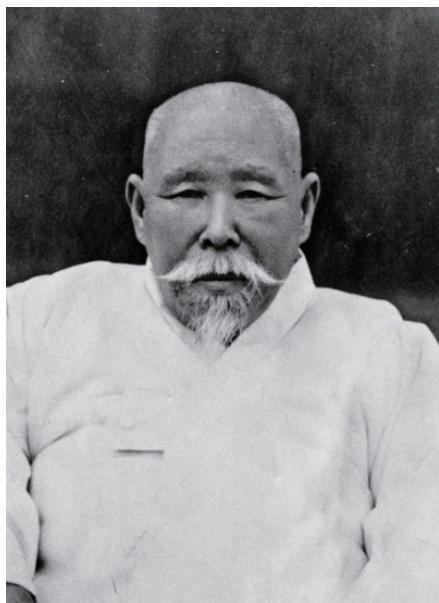
## 5장

# 예산의 개척 開拓 정신

1. 근대적 종교 운동
2. 근대 교육과 근대 과학
3. 근대 상업과 산업
4. 예산 개척정신의 특성

## 1. 근대적 종교운동

### 천도교 4대 교주 박인호



춘암 박인호 선생

### 내포 동학의 지도자 박인호

예산 근대 개척정신의 효시는 내포지역 동학의 최고 지휘자였던 박인호라고 할 수 있다. 반봉건의 민중적 평등성과 반외세의 자주적 가치를 높이 올려 새로 운 시대에 성큼 다가섰기 때문일 것이다. 예산 개척정신의 관점에서 그의 성취는 가히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아야 한다. 박인호(朴寅浩)는 1855년 2월 충청도 덕산군 장촌면 막동리(현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에서 박명구와 온양방씨의 큰

아들로 태어났다. 빈농의 가난한 가정형편으로 인해 그는 11살이 되어서야 한학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한 결과 15세 무렵에는 풍수지리와 한의학 관련 서적을 읽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한다.

박인호가 동학에 입도한 이유는 신분 귀천의 구별 없는 만민평등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동학의 이념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동학에 가담한 이후 10여 년 동안 그는 낮은 물론 밤에도 의관을 풀지 않았고, 어육주초를 금하는 등 수련에 매진했다. 그의 개척정신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특히 박인호는 최시형(동학 2대 교주), 손병희(동학 3대 교주)와 함께 공주 가섭암에서 도를 닦는 중에, 동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뜻을 함께 하는 동지가 많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그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옹기장수 차림으로 충남 일대를 중심으로 독보적인 포덕활동을 펼쳤다. 그로 인해 교인의 수는 크게 증가했다.

박인호는 자신의 일가친척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사실상 그의 집안 전체가 내포 동학의 핵심 세력이 되도록 만들었다. 특히 박인호의 직계는 4대가 모두 교인이었다.

박인호가 동학에서 지도자로 부상한 시기는 1893년 광화문 복합상소 때였다. 복합상소운동은 교인들이 동학의 대신사였던 최제우의 신원(伸冤)과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전개한 운동이다. 이 운동의 총지휘자는 손병희·김연국·손천민 등이었고, 교인 대표로 박석규·임규호 등이 나섰다. 이때 박인호는 손병희·강시원·김연국·손천민 등과 함께 교인들을 거느리고 과거를 보기 위해 상경하는 선비 차림으로 서울로 갔다. 이들은 2월 10일 치성식(致誠式)을 올린 뒤 이튿날 광화문 앞에서 40여 명이 봉소(奉疏)하였다. 소수(疏首)는 박인호의 사촌동생 박광호가 맡았고, 박인호는 봉소(奉疏)를 맡았다. 당시 지도자들은 문책을 피하기 위해 2급 지도자를 소수로 내세웠는데, 박인호도 사촌동생 박광호를 그렇게 앞장 세웠던 것이다.

이들이 작성한 소문(疏文)은 동학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최제우의 죽음이 억울

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소문을 올린 후 교인들은 대궐 앞에 엎드려 사흘 동안 통곡했다. 임금은 이들에게 칙령을 내려 원하는 바를 시행해 주겠다고 했고, 박인호와 교인들은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여 고향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동학소두(東學疏頭)를 수사하여 체포하고 나머지 교인은 효유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사실에 격분한 박인호와 교인들은 그해 3월 초 보은 장내리에 도소(都所)를 마련하였고, 3월 10일부터 대대적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5일경까지 계속된 장내리집회는 약 2만 3천 동학교 도가 모여 척왜양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 전개 이튿날인 3월 11일 최시형은 각 포의 이름을 명명하고 대접주를 임명하였다. 이는 대대적 시위운동에 앞서 질서와 체계를 잡고 또 교인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이때 박인호는 덕의대접주에 임명되었다. 이는 박인호가 동학에서 중요한 위치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박인호의 포교와 활동에 기반이 되는 내포지역의 동학 교세가 강성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박인호는 보은 장내리 시위운동에도 많은 교인을 인솔하여 참여하였고, 이후에는 덕산을 중심으로 충청도 해안지대의 책임자가 되었다. 내포지역은 덕포의 박인호와 예포의 박덕칠을 중심으로 안교선·이창구·김기태·조석현·문장로·문장준 등이 세력권을 형성하였다. 박인호는 덕의대접주라는 직위를 통해 충남 서해안 일대의 신창·덕산·당진·태안·예산·서산·면천·안면도·해미·남포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농민군을 통합하였다.

### 박인호와 동학농민전쟁

이른 바 동학농민전쟁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텁학정치에 반발하여 1894년 1월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 1천여 명이 고부관아를 습격하여 조병갑을 몰아내고 관리를 들을 직접 응징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안핵사 이용태가 모든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면서 주동자 처벌을 강행하자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하여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어서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전주 성 점령 후 이들은 서울로 진격하려 하였으나, 5월 5일 청군이 아산에 도착하고, 다음날 일군이 텐진조약을 빌미로 인천에 도착하자, 동학군은 청과 일본의 군사 주둔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하여 5월 8일 전주 회약을 하였고, 회약의 조건으로 폐정개혁안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추구해 갔으나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청일 양군 사이에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또한 이후 일본군의 내정간섭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었다.

이에 동학 진영에서는 전라도 충청도 동학군이 모여서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제2차 동학농민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2차봉기에서는 박인호가 속한 북접도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손병희가 이끌던 충청도 충의포(忠義包)는 그가 북접의 통령직을 맡으면서 자연스레 박인호에게 인계되었다. 박인호와 북접 동학군은 최시형의 총동원령을 통해 9월 18일에 봉기했다. 이때 집결한 북접의 동학군은 충청도 면천 승전곡에서 첫 전투를 벌였다. 박인호는 출전에 앞서 “내 죽음이 곧 부모, 형제, 처자의 평안을 도모함이요 나아가 국가의 안녕을 기함이라”는 말로 동학군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승전곡은 당진군 면천읍 사기소리에서 서쪽으로 구룡리까지 약 3km 지점의 좁은 계곡으로 동학군은 1894년 11월 21일 오후 4시부터 이곳에서 관군을 향해 공격을 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어서 동학군은 일본군을 쫓아 면천읍으로 들어갔다가 합덕까지 추격하였고, 25일에는 예산군 고덕면의 구만포까지 진출했다. 다음날에는 예산 신례원에서 홍주목사 이승우가 파견한 군대와 전투가 벌어졌다. 결과는 동학군이 1백여 명의 관군을 몰살시키면서 승리했다. 이 여세를 몰아 박인호와 박덕칠이 이끄는 3만 명의 동학군은 10월 27일 덕산현을 점령하였다.

이후 동학군은 홍주의 관군세력을 전멸시킨 후 경성으로 가자고 결정했다. 동학군을 피해 홍주성 안으로 후퇴한 일본군을 잡기 위해 박인호와 동학군은

짚을 성 밑에 깔고 성을 넘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성안에서 놓은 불이 벗짚에 붙어 성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오후 4시 25분경 동학군은 홍주성 남문에서 관군의 사격에 맞섰다. 관군은 7대 분대로 나뉘어 동학군을 방어하였고, 동학군의 공격은 두 갈래로 이어졌다. 전투는 오후 7시 반까지 3시간을 넘겨 계속되었다. 하지만 결국 동학군은 이튿날 오전 6시에 해미방면으로 퇴각하였다. 관군은 사흘 동안 동학군을 쫓았다. 2백여 명의 동학군이 전사했고, 수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홍주성은 서해안의 요충지로서 동학군과 관군에게 모두 중요한 곳이었다. 이 전투를 끝으로 충남 서부지역의 동학농민전쟁은 막을 내렸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북접은 관군에 맞서 활약을 펼쳤다. 이러한 공로는 북접의 탄탄한 조직기반과 더불어 박인호, 박덕칠과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내포지역 동학군의 활동은 일본군과 관군의 병력을 내포로 집중시켜, 공주전투에서 관의 병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천도교 4대 교주 박인호

이후 박인호는 피신에서 돌아와 교인들을 독려하면서 동학재건활동을 시작하였다. 1900년 7월 20일 손병희는 동학 대도주가 되었고, 단일지도체제 확립을 위해 박인호를 경도주(敬道主)로 임명하였다. 이후 박인호는 각지 교인들의 상황을 살피는 등 교단의 조직 점검을 맡았다. 1901년 2월초 박인호는 관서지방을 순회하면서 포교활동을 하였다. 정부의 동학에 대한 탄압이 재개되었지만, 박인호는 끝까지 체포되지 않았다. 이듬해 3월 손병희는 자신이 거주하는 일본으로 박인호를 불러 지하조직을 통한 교세 확장을 당부하였고, ‘보국안민운동’을 계획하였다.

그 일환으로 그해 3월 박인호와 두령들은 협의를 통해 민회(民會)를 조직하였다. 민회의 이름은 진보회'라 명하였고 4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강령은 첫째,

황실을 존중하고 독립기초를 공고히 할 것, 둘째, 정부의 정치를 개선할 것, 셋째, 군정과 재정을 정리할 것, 넷째,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것 등이었다. 강령이 발표된 이후 전국의 교인들은 진보회를 중심으로 10월 8일을 기하여 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박인호는 1905년 12월 1일 동학이 천도교로 개편된 후 교단에서 교장·고문·금융관장·경도사라는 여러 직책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1907년 차도주에 이어 1908년 제4대 교주가 되었다. 최제우-최시형-손병희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예산 개척정신의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교주가 되면서 박인호는 교단의 중앙조직을 개편하였다. 교단 개편은 크게 교당의 이전과 교구의 중설, 직책 임용과 관련한 조직개편 그리고 교단의 각종 규칙과 제도 등과 관련된 규칙개편으로 진행되었다. 조직개편은 1908년부터 1918년까지 10년이라는 기간동안 교단의 중심 기구였던 중앙총부가 자리를 잡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규칙개편은 천도교로 바뀌게 되면서 불안했던 조직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 박인호의 교육문화운동

박인호는 교단의 정비작업뿐 아니라, 천도교의 신앙보급과 교육문화운동에 노력하였다. 특히 박인호가 교주가 되면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교단을 중심으로 한 교육사업의 확대와 발전이었다. 종교조직이라는 명분으로 일제의 탄압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기에 가능했었던 일이었을 것이다. 박인호는 1908년 6월 천도교의 교리를 널리 가르치겠다는 의도로 지방마다 교리강습소를 설치했으며, 약학강습소까지 두어 많은 교역자를 양성하였다. 본과 3년, 특별과 2년, 속성과 3개월 과정을 설치하였으며, 천도교리 외에도 수신, 조선어, 한문, 일본어, 산술, 역사, 이과, 도화, 농업, 창가, 체조 등을 가르쳤다. 나아가 박인호는 지방교육운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범강습소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여, 1909년 1월에 특설 사범강습소를 중앙총부에 개설하여 25세 이상의 우수한 청년 213명을 각 교구에서 뽑아 교육시켰다. 또한 부인전교사와 부인순회교사를 지방마다 선정하여 여성포덕과 여성교화에도 크게 힘썼다.

또한 박인호는 청년 육성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1911년 2월에 중앙총부에 위치한 총인원을 강도실로 만들어 교인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월·수·금 3회에 걸쳐 오후 8시에 수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5월에는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리전문강습소를 시작하였으며, 중앙총부에 한정하지 않고 1912년 7월까지 지방에 358개의 교리 강습소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천도교의 파급효과가 매우 컸다는 사실뿐 아니라 당시 교주였던 박인호의 교육문화운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반증하기도 한다. 박인호의 개척정신은 이렇게 단순히 종교 부문에 머무르지 않고 인접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쳐 1912년 6월 22일에 처음으로 제1회 졸업생 129명(고등과 69명, 수상과 60명)이 배출되었다. 이어 1921년 3월 21일 2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1923년 3월 24일에도 종학원 속성과에서 처음으로 25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이렇듯 1908년부터 1923년까지 끊임 없이 양성된 졸업생들이 천도교 발전의 근간이 되었으며, 나아가 3·1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박인호는 교단 안에서 교육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자각시키게 만들었으며, 종학강습소 운영 규칙 제정 등을 통해 후에 학교를 인수하여 경영할 때에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갔다.

박인호는 교단의 교육사업 확장을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곱 개의 학교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먼저 동덕여학교는 1908년 3월에 사립동덕여자의숙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3월 12일에 개교식을 거행하였으며, 같은 해 8월 26일 사립학교령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았다. 천도교단에서는 1909년부터 동덕여학교에 1909년 11월부터 특별기부금 100원과 아울러 그 학교 재정의 반

이상에 해당하는 10원을 매월 부담하였고, 이후 1910년 12월부터는 매월 70원씩으로 증액 보조하였다. 1914년 12월 27일에는 동덕여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천도교의 교주였던 박인호의 명의로 설립자를 변경하여 천도교에서 경영하게 되었다. 박인호는 설립자로서 1915년 7월 기준의 학교 건물을 부수고, 전체 155평 규모의 양옥 2층짜리 형태의 건물을 공사비 9천 원을 들여 건축하였다. 동덕여학교는 1914년 법률상업학교 졸업생 30여 명과 고등과정 졸업생 28명을 배출시켰다. 평소 여성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박인호에게 동덕여학교는 그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이자 매체가 되었다.

다음으로 박인호는 1911년 1월에 보성학교를 인수하였다. 전동에 있던 보성전문중학교와 보성소학교는 당시 교육계의 효시로 잘 알려진 바 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천도교 측에서 1910년 12월 20일 채무 청산으로 8천 원을 지불하면서, 보성 3교와 보성관, 보성사까지 인수하여 경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주였던 박인호를 설립자로 변경 신청하였고, 1913년 12월 6일 사립보성학교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1914년 7월 5일 옛 건물을 부수고 공사비 1만 7천 원을 들여 150여 평 규모의 2층 양옥 형태의 학교를 준공하였다. 또한 박인호는 1917년 보성학교를 고등보통학교의 자격을 갖춘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교과의 시설을 완비하여 7월 5일에 교명을 사립보성고등보통학교라 개칭하였고, 1921년 4월 17일에는 사립보성법률상업학교의 재단법인 계획이 성립되었다.

이어서 박인호는 1911년 1월에는 대사동에 설립한 사범강습소가 보성중학교와 과정이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보성학교를 인수하는 동시에 이것을 병합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용산에 있는 양덕여자학교와 마포에 있는 삼호보성소학교와 청파에 있는 문창학교를 인수하여 천도교에서 관할하였다. 동덕여학교와 보성학교의 인수에는 당시 교주였던 박인호보다 더욱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손병희의 지시에 의하여 박인호가 학교의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박인호는 학교의 경영 과정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그 이후의 양덕여자학교와 삼호보성소학교, 문창학교에 관한 학교의 인수와 경영은 박인호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다.

### 박인호의 민족운동

이러한 체제정비와 교육문화운동으로 교단이 안정을 되찾게 되자 박인호는 민족운동에 직접 참여하였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개된 3·1운동에 천도교 교주였던 박인호는 그 자금 6만 5천원(현재 약 65억원)을 3회에 걸쳐 제공하였다.

이러한 준비작업이 끝나자, 천도교는 박인호를 포함해 15인의 대표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교주였던 박인호가 3·1운동으로 체포된다면 천도교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여, 3·1운동 바로 직전 박인호를 대표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대신 손병희는 2월 28일 훈유서를 통해 교단의 모든 일을 박인호에게 맡겼다. 박인호는 대표에서는 제외되었지만, 3·1운동의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2월 28일 이종린(천도교월보 편집원)과 윤익선(보성 법률상업 전문학교장)은 『조선독립 신문』의 원고를 작성했다. 원고에는 독립선언의 전말을 기술하였으며, 독립선언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3·1운동이 절대적인 비폭력 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고는 이종린이 천도교가 경영하는 인쇄소(보성사)에서 공장감독 김홍규에게 지시하여 약 1만매를 인쇄하였다. 그리고 3월 1일 오후 2시경 서울 파고다공원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배포되었다.

결국 3·1운동으로 천도교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체포되었고, 교단의 재산도 압수되었다. 교단을 책임져야 하는 박인호는 결국 '강계교구 모금운동'을 지시했다. 박인호는 3월 5일 아침 강계·자성·후창·임강현의 교무를 총괄하는 대교구장 이정화와 강계교구의 교훈 김명준을 불러 조선독립을 위해 프랑스파리강화회의 와 상해에 위원을 파견하려는 계획을 설명하였고, 자금 모금을 지시하였다. 또한 교인들에게 모금한 교당건축비는 기부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동

의를 얻어 독립운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박인호는 독립 운동모금 협의로 3월 10일에 체포되었고, 박인호의 집에 있던 서류와 자금 70만 원도 압수되었다. 그리고 박인호는 1년 8개월의 수감생활을 하였다.

박인호의 민족운동은 1922년 천도교가 신·구파로 분열되어 교주직을 사임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박인호는 박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6·10만세운동에 필요 한 제반 지원을 적극적으로 보조하였으며, 1927년에는 박래홍을 비롯한 많은 교인들을 신간회에 참여시켜 활동하게 하였다. 그는 지병이 악화되어 활동이 자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38년에는 자신의 마지막 민족운동인 ‘멸왜(滅倭) 기도운동’을 전개하였다. 멸왜기도운동은 교인들의 정신적인 결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고문을 아침, 저녁을 먹을 때마다 시행하는 계획, 구파의 국권회복의 기회에 대비하여 활동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특별회사금모집 계획, 일본을 소멸 하여 독립을 기원하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멸왜기도문으로 특별 기도를 실시 하는 세 가지 계획으로 진행되었다. 이 운동은 박인호의 지시에 의해 황해도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된 가장 종교적인 민족운동의 하나로서 매우 높은 정신사적 의의를 갖는다. 그의 예산 개척정신의 정점이 아닌가 한다. 같은 시기 에 천도교 신파가 친일협력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점과 대조되며, 또한 박인호가 참여하였던 동학농민전쟁과 3·1운동의 맥락과 이어지는 구국운동이었다. 박인 호는 평생을 동학과 천도교의 역사와 함께한 인물이었다. 그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동학의 이념에 끌려 동학의 테두리에서 반봉건과 반외세를 위해 투쟁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천도교의 교주라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친일로 방향전환 을 하는 세력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하게 나라와 교단을 위해 끝까지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그야말로 박인호는 예산 개척정신의 표상이었다.

## 천주교, 내포의 사도 이존창

### 이존창과 천주교의 만남

이존창(李存昌)은 1759년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여사울)에서 태어났다. 그의 신분은 사노비였다. 그러나 기존의 계급 질서가 크게 혼들렸던 18세기 상황에서 이존창은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역시 예산인으로서 그의 개척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가 천주교를 수용하게 된 이유 역시 지식인으로 성장하고자 했던 내면의 강렬한 욕구가 작용한 결과였다. 이존창이 태어나 자란 여사울은 바로 성호기학의 여주이씨들의 생활 터전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고, 머지않아 그들과 접촉하며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내포의 사도 이존창 생가 터—여사울 성지

17세기 초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은 18세기 중엽부터 이익·홍대용과 같은 실용적 학자들에 의해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탐구되었다. 서학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 사상적 근거로 등장한 천주교까지도 적극 수용하여 실천하려는 모험적 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익의 호를 따 이름 붙여진 ‘성호학파’ 일각에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권철신·권일신·정약용·정약전·정약종·이가환·이벽·이승훈·이기양 등이 그들이었다. 이들은 기호지방의 남인계 학자들이었다.

1777년 권철신이 주재하는 강학회가 천진암·주어사에서 열렸다. 여기서 참석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천주교를 신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중 무반 출신의 이벽이 가장 열심을 내었다. 그는 서학과 천주교 서적을 읽으면서 깊은 경지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1783년 4월 누이의 1주기를 지내기 위해 마재의 정약용 집에 머물렀다. 정약현의 처가 바로 이벽의 누이였다. 그리고 배를 타고 정약용 형제와 함께 서울로 나오면서 그들은 서학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고, 정약용 형제 역시 이때 서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어서 그해 겨울에 이승훈이 북경에 가게 되었다. 아버지 이동욱이 중국으로 가는 사신 횡인점의 수행원이 되면서 아들 이승훈을 동반하였던 것이다. 이승훈은 북경에 도착하여 서양신부에게 천주교를 배우고 베드로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았다. 돌아온 이승훈은 주교가 되고, 이벽·권일신 등이 신부가 되어 교회 조직을 만들었다. 한국 천주교의 공식적인 탄생이다.

1784년에 창설된 조선천주교회는 1886년 한불조약이 체결되어 사실상 종교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1백년 동안 박해와 수난의 역사를 겪었다. 이같은 박해는 조선천주교회가 창설된 이듬해인 1785년부터 시작되었다. 1785년 봄에 형조의 금리(禁吏)들이 우연히 서울 명례방 김범우의 집을 지나다가 이상한 집회가 열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벽이 중앙에 앉아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고 있었고, 이승훈·정약전·정약종·정약용·권일신·권상학 등이 모여 있었다. 금리들은 처

음에는 노름하는 것으로 알고 들어갔다가 천주교 서적과 그림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압수하여 형조에 갖다 바쳤다. 당시 형조광서 김화진은 명례방의 집주인 이었던 중인 김범우만 체포하고 나머지 양반계층 교인들은 책유하여 내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이것이 바로 ‘을사추조적발사건’(乙巳秋曹摘發事件)이다. 천주교인의 실체가 정부 기관에 의해 최초로 발각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 연루·체포된 김범우는 단양에 유배당한 후 1년 만에 유배지에서 죽음으로 조선천주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다. 비록 중인계층 김범우 한 사람의 희생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이 사건으로 천주교회의 실체가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보수적 유생들로부터 천주교가 배척당하기 시작하였다. 예산인 이존창은 바로 이러한 시대의 격랑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예산에서 이존창에게 본격적으로 학문을 가르쳐 준 사람은 이기양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이기양은 예산의 여주이씨 이병휴의 제자였을 뿐 아니라 이가환의 사돈이기도 했다. 곧 이기양의 아들 이종억은 이가환의 딸과 혼인했던 것이다. 기호 남인 출신의 이기양은 권철신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성호학파의 실학적 전통을 이은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는 대개 1766년 경 예산에 살던 이병휴에게 수학하기 위해 예산으로 이주하였고, 바로 거기에서 이존창을 만났던 것이다. 그 때는 1774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이기양은 이병휴를 통해 성리학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양명학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그의 학문적 영향은 권철신·권일신 형제에게 이어졌고, 다시 이존창에게도 일정한 자극을 주었을 것이다.

그 후 이존창은 예산을 떠나 경기도 양근의 권철신 형제에게 수학하게 된다. 1776년 무렵 권철신은 이기양과 함께 이병휴 문하에서 공부하면서 이존창의 집을 빌려 생활하였다. 이때 이기양이 이존창을 권철신에게 추천하였던 것이다. 이기양은 1774년 진사시에 장원한 이후 관계 진출에 적극적이었으므로, 자신의 과거 공부를 위해 아들 이종억과 함께 이존창을 권철신에게 맡겼을 것으로 짐작

된다. 그런데 이준창은 예산을 떠나 양군에서 수학하는 동안 천주교를 수용하게 되었다. 즉 권철신 문하에서 학문을 익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1776년 경, 그는 이벽의 권유에 의하여 천주교 수용에 적극적이던 권일신을 김범우의 집에서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 전에 권일신은 이미 이벽에게 세례를 받은 바 있었다. 이제 이준창은 권일신으로부터 직접 교리를 배우고 영세를 받게 되었다. 그가 루도비꼬 곤자가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시기는 1784년 말이나 1785년 초였다. 그때부터 이준창은 한국 천주교회의 창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 이준창의 내포 전도

이준창은 1776년 이래 떠나 있던 고향 예산 여사울로 돌아왔다. 1785년 초의 일이다. 초기 한국 천주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복음전파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권일신이, 지방으로의 천주교 확산을 위해 이준창에게 내포 지역을 비롯한 충청도 전교의 사명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비록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뛰어난 재능과 인격을 바탕으로 상민과 천민뿐만 아니라 양반과 중인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전도 활동을 벌였다. 그에게 붙여진 ‘내포의 사도’라는 별칭답게 예산을 비롯한 충청도 중서부 일대를 누비면서 전도하였다.

이준창의 중점 전도 대상은 상민 계층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먼저 이준창이 배교했다가 홍산으로 거처를 옮겨 비밀리에 전도활동을 하던 시기에 만난 황십, 예산 여사울의 면장 출신으로 50세에 이준창을 만나 입교한 후 60세인 1801년 신유박해 때 모진 고문 끝에 처형당한 김광옥, 이준창이 1791년 이후 은거하던 홍산과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공주의 고운득과 김홍칠 일가, 이준창이 천안에서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전도한 최거두와 그 아들 천명·억명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최천명은 이준창으로부터 천주교를 배운 뒤 서울로 이주하여 활동하다가 1798년(무오)-1799년(기미)의 ‘호서치사’(湖西治邪) 때에 청주 감영에 붙

잡혔던 인물이다. 그런데 이 2년간의 ‘치사’(治邪)는 충청도의 천주교인들을 다스리기 위한 탄압으로써, 이때 청주감영에 잡혀 형을 받은 사람이 100여 명에 달했다. 이는 당시 충청도의 천주교 신자들이 그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이존창은 금정 역졸 출신으로 천민이었던 김유산에게 전도하였다. 그는 이존창이 후에 전라도 고산으로 이주한 후에도 같이 가서 이존창의 심부름을 맡아 했다. 그는 서울의 정약종과 전주 유항겸의 집을 왕래하면서 이존창의 편지를 전달했고, 또 두 차례나 중국에 들어가 북경의 주교에게 조선천주교회의 밀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이존창의 전도 활동은 신분적으로는 양반층에서 천민층까지, 지역적으로는 내포지역을 중심으로 한 충남의 서북부 지역에서 남부지역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앞서 살핀 대로 충청도의 천주교 전도 책임자였던 이존창의 활발한 전도 활동은 충청도의 천주교인들의 양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1861년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신부 4명이 입국한 것을 계기로 획정한 천주교 조선교구의 구역 배분에서 잘 드러난다. 즉 이때 베르노(Berneux)주교는 조선 교구 전체를 모두 8개의 본당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그중 5개 구역이 충청도에 있었고, 내포지역은 다시 2개 구역으로 구분되었던 것이다. 또 병인박해와 1868년의 무진박해 때까지 전국의 순교자수를 가장 풍부하게 수록한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의 내용에서는 충청도 남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415명으로 약 37%에 이르며, 그 중에서도 내포지역의 신자가 약 45%인 187명에 달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천주교회의 형성 과정에서 충청도의 신자들이 차지하는 위상을 알게 된다. 그리고 신유(1801), 기해(1839), 병오(1846)년간의 혹독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내포지역은 여전히 조선천주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존창은 1795년 봄 전라도 고산으로 이주하였다. 비밀리에 입국하여 활동하고 있던 중국인 신부 주문모를 돌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주문모 신부가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정부는 이존창을 찾아내어 공주감영에 가두었다. 그 시기

는 1795년 말이었다. 그리고 공주에서 심문을 받은 이준창은 다시 풀려 나와 천안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는 이곳에서 매를 때리는 형리(刑吏)의 일과 장교 직을 맡으면서, 2년 동안 오랫동안 연금과 감금의 생활을 되풀이하였다. 그 사이 내포에서는 계속해서 천주교 박해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준창은 이 기간 동안 고향인 예산 여사울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사박해로 말미암아 1798년과 1799년 옥중 생활을 하였고, 1799년 8월 감옥에서 풀려나왔다가 정조 사후인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다시 체포되어 마침내 공주 형장에서 순교하였다.

### 이준창과 내포 신앙공동체

이준창이 주도한 내포 신앙공동체의 특징은 먼저 집단적인 입교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선 이준창 개인의 재능과 열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고 한다. 또 하나는 내포 지역 주민들의 강한 일체감이 주목된다. 즉 이준창에게 영세를 받은 유권명은 자신의 모든 수입을 가난한 이와 불행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내포의 천주교인들은 너그러운 접대를 통해 서로의 것들을 나누었다.

내포지역은 양반이 주축이었던 충주와는 달리 일반 평민 신자들이 중심이 된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것은 미천한 집안 출신이었던 이준창의 신분적 특성에서 우선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내포의 공동체는 일반 평민과 천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는 이준창이 바로 이 계층을 전도의 주요 타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이준창은 평민 이하의 신분들이 쉽게 천주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된 천주교 서적의 보급에 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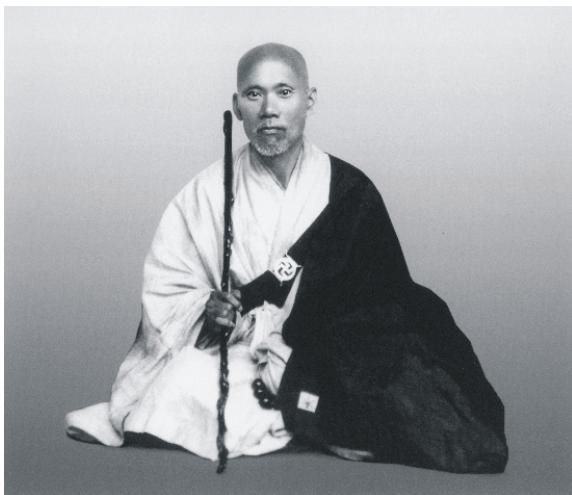
그리고 또 한 가지 충청도 천주교 신자들의 특이한 행습의 하나는 그들이 충청도에서 천주교를 처음 접한 이후 다시 서울로 이주하여 더욱 열심히 천주교를 신봉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즉 황십(충청도 연산→서울 쌍림동), 황일광(충청도 홍산→서울 정약용의 집), 보령과 금정의 김한빈, 김유산 그리고 저 유명

한 강완숙과 홍필주, 김홍철 일가 등이 그들인데, 서울로 올라온 이들은 천주교의 주요 지도층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한국 천주교회의 확장에 기여하게 된다. 이준창은 전통시대에 서양학문과 종교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었던 진정한 시대의 개척자였다. 더구나 사노비의 신분으로 이룬 그의 성취는 예산 개척정신의 최고봉이 아닌가 한다.

## 한국선불교의 재건, 경허와 만공

한국불교사에서 근대는 국가적·사회적 격변으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불교에 큰 충격을 주었던 시기였다. 또한 조선 개국 이후 장기간 지속된 승유억불정책으로 불교 내부적으로는 활기를 잃어가고 있던 시기였으며, 특히 깨달음을 얻기 위한 불교의 수행전통은 매우 미약해진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허는 홀로 간화선 수행법을 통하여 깨달음을 이루었으며, 이후 자신의 체험을 기반으로 참선법을 확산시키고 정법을 유지하기 위하여 승속을 구분 없이 동참시킨 결사운동을 전개하였다. 그의 영향으로 영호남의 여러 사찰에서 참선을 위한 결사운동이 진행되었다. 경허의 법을 이은 만공은 제자들에 대한 참선지도 외에도 선학원운동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에서도 한국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경허와 만공은 참선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는 일만이 정법의 전통을 지키는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이들을 통해서 힘을 잃었던 간화선 수행법이 다시 복구되고 널리 확산되었으며, 이후 한국불교에서는 이들의 제자들이 다수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예산 수덕사는 경허와 만공이 주도한 한국 선불교 재건의 중심지였다. 수덕사의 경허와 만공은 선불교 운동을 통해 예산 개척정신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 경허 스님



경허 스님

경허(鏡虛)는 9세에 출가하였으며 23세부터 동학사의 강사(講師)로서 후학들에게 교학을 지도하였다. 그러나가 전염병이 도는 마을 방문을 계기로 하여 교학으로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수행에 돌입하였다. 3개월 동안 화두를 들고 용맹정진하여 큰 깨달음을 이룬 다음 다시 장소를 바꾸어 6개월 동안의 보립(保任)을 위한 수행 끝에 자신의 깨달음을 확인하고 경허는 수행을 마쳤다. 그가 첫 깨달음을 얻은 때는 1879년으로 그의 나이 34세 때였다.

경허가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은 화두를 탐구하는 간화선(看話禪)으로써, 중국에서 전해진 간화선은 고려시대의 보조지눌 이후 우리나라 선종의 대표적인 수행법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 초부터 시행된 불교중단의 통폐합으로 단일 종파로서의 선종이 이어져 올 수가 없었으므로, 조선 후기에는 화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전통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으며 이를 지도하거나 인가해 줄 스승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경허는 깨달음 직후 지은 시에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신의 깨달음을 인가하고 의발을 전수해 줄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그는 깨달음 이후 20년 동안 예산 수덕사를 중심으로 호서지방에서 생활하였다. 예산은 당시 그의 활동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54세 되던 1899년 경허는 해인사로 거처를 옮겼다. 그의 눈에 들어온 당시의 불교 분위기는 “정법 보기를 훑는 어리같이 하며 혜명을 계승하기를 아이들 장난처럼 여길” 정도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데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 그리고 간혹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발심한 이가 있다고 해도 수행법을 올바로 배우지 못해 혼침과 망상으로 세월을 보내거나, 아니면 깨달음에 대한 조사나 종사의 말을 들으면 그것은 성인들의 높은 경계라고 아예 포기하고 염불이나 독경, 또는 불사 등 눈에 보이는 공덕을 쌓는 신행에만 치중하고 있었다.

경허는 이런 상황에서 불교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전통이 살아나야 한다고 보았다. 경허 개척정신의 발로였다. 그런데 그 수행 전통의 회복은 수행자들이 선지식(善知識)의 지도하에 한 자리에 모여서 정진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자연히 이러한 여건의 확보가 문제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즉 수행공동체인 결사가 필요한 것이었다. 불교에서 결사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최초의 결사는 중국 동진시대 여산혜원(廬山慧遠, 334-416)이 주도 한 백련결사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불교의 신앙결사가 있어왔으나,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고려시대에 전개된 보조지눌의 정혜결사와 원묘요세(圓妙了世)의 백련결사이다.

이런 결사의 역사를 알고 있던 경허는 해인사 선원에서 결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즉시 자신이 맹주가 됨을 허락하였다. 이 결사의 이름은 “함께 정혜를 닦아 도솔천에 나며 성불하기 위한 결사” 즉 “結同修定慧同生兜率同成佛果禊社”(결동수정혜동생도솔동성불과계사)라고 하였다. 그는 결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선원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청규를 제정하고 남녀와 승속을 구별하지

않고 동참시켰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경허의 결사운동은 정법을 갈구하던 많은 불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어 통도사·범어사·화엄사·송광사 등 영호남의 여러 사찰에서 선원이 새로 건립되거나 기존 선원이 복구되기 시작했다. 침체되었던 조선불교에 경허가 출현하여 화두를 통해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선풍을 부흥시킨 것이다.

경허는 1904년 홀연히 종적을 감추기 전까지 약 4년 동안 활발하게 선풍을 펼쳤다. 이렇게 경허가 선풍을 펼치자 그의 가르침을 듣고 발심하여 수행하는 제자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후일 한국불교계의 주요 지도자가 된 만공을 비롯하여 혜월·한암·수월 등이 모두 그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현재 한국불교의 최대 종단으로서 선종을 표방하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경허를 “근대불교의 중흥 조”로 평가하고 있다.

### 만공 스님의 선풍 진작 운동



만공 스님

경허의 뒤를 이어 그의 선봉을 이어나간 사람은 제자 만공월면(滿空月面) 선사이다. 만공은 전북 태인 출생으로 14세(1884)에 출가하여 경허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강원에서 경을 공부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았으며, 25세(1895)에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歸何處)”라는 화두를 참구하여 첫 깨달음을 얻었고 이후 경허의 지도하에 수행을 계속하여 31세(1901)에 다시 큰 깨달음을 얻었다. 34세인 1904년 7월 스승 경허는 만공에게 깨달음을 인가하는 전법계와 만공이라는 법호를 내리면서 불법을 후세에 잘 전하라고 당부하였다. 만공은 다음해부터 예산의 덕승산 금선대에서 보림을 하였으며 이후 수덕사, 정혜사 등을 중창하고 40년간 선봉을 크게 떨쳤다. 만공과 예산은 이렇게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었다. 만공 선불교의 개척정신은 예산에서 집중적으로 구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만공은 참선을 통해서 불법의 핵심을 체득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제자들에게 수시로 선법(禪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중생을 제도할 것을 당부하였다. 동시에 그는 참선이란 “나를 찾는 법”이라고 정의하면서 불교의 의의와 참선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제자들이 좀 더 쉽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다. 만공은 평생 동안 경허의 법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스승인 경허를 존경하였다. 경허의 유지를 받들어 참선법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한 만공의 이러한 활동을 일반적으로 ‘선풍진작 운동’(禪風振作運動)이라고 칭한다.

일제강점기에 만공은 선풍진작의 일환으로 선학원운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 합방 이후 일제는 불교계의 저항과 독립운동을 사전에 봉쇄하고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에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를 식민지통치에 활용하고자 1911년 6월과 7월에 사찰령 및 사찰령 시행규칙을 반포하고 국내의 모든 사찰에 대한 통제를 시작하였다. 사찰령이 실시되자 한국불교에는 전에 없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부작용을 거론한다면 첫째, 전통적으로 산중공의제도(山中公議制度)에 의해 모든 대중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결정되던 사찰의 운영방식이 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주지가 전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소위 ‘주지전횡시대’가 됨으로써, 사찰 내에서 주지와 일반 대중들과의 불화와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둘째, 일제는 불교에 대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임명 받은 주지들에게 상당한 대우를 해주면서 또한 주지들의 속화(俗化)와 타락에 대해서는 방관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친일주지의 양성과 주지의 친일화가 가속화됨과 동시에 주지들의 타락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사찰령을 중심으로 한 일제의 불교정책은 한국불교의 타락과 분열을 초래한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당시 불교계는 그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나 사찰령의 시행이 10년 정도 지나면서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3·1운동을 겪으면서 일제의 의도가 점차 간파되기 시작하자 불교계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바로 선학원(禪學院)이다.

선학원은 사찰령의 폐해를 극복하고 불조(佛祖)의 정맥을 계승해야 한다는 자각으로 만공을 포함한 뜻있는 선사들이 1921년 11월 안국동에 설립한 선승들의 모임이었다. 선학원의 기풍은 처음부터 일제의 정책에 반대하여 일어난 사찰이었다는 특징을 갖는데, 기존의 사찰명칭 대신에 선학원이라는 일종의 위장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 준다. 당시 이 운동을 주도한 최초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만공이었는데, 그는 이후 선학원의 주요직책을 맡으면서 조선불교의 전통이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 만공은 초창기 이후에는 예산 수덕사에 거주하면서 간접적으로 선학원에 지원을 하다가 1935년 제3차 수좌대회에서 조선불교선종이 창립되어 종정으로 선출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선종의 창립은 사찰령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좌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명칭에 선종(禪宗)이라고 명시한 것도 기존 사찰령 체제하의 선교양종이라는 명칭을 부정하면서 조선불교의 독자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만공은 경허에게서 이어받은 선법을 펼치고 전수하기 위해서 자신이 주석 하던 예산 수덕사를 비롯한 여러 선원에서 수행자를 지도했을 뿐만 아니라 선학 원의 운영과 유지 및 선종창립에도 많은 힘을 쏟았다. 만공의 이러한 활동은 조선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을 후대에 계승시키려는 사명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만공 스님의 소신과 기개

일제의 불교정책은 1937년부터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 주된 동인은 1937년부터 일제의 본격적인 중일전쟁 도발이었다. 전쟁의 발발에 즈음하여 일제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예컨대 총동원 체제, 전쟁에 필요한 물자 확보, 전쟁에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등이었다. 이런 구도에서 불교계를 포함한 종교도 효율적인 통제를 시도하였다. 그래서 불교계에게는 연락기관(종단) 설립을 유도하였다. 이런 지침은 1935년부터 관철시키려고 하였지만, 불교 내부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가동은 되지 못하였다. 불교계는 1929년 승려대회를 통하여 종헌체제를 가동하고 종단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였지만, 1934년경에는 종단이 말소되었다. 그러자 일본불교가 한국불교를 통제, 장악하고자 하였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한국불교의 일부 승려들은 이번 기회에 종단건설운동 즉 총본산 건설을 성사시키려고 하였다. 요컨대 1937년은 일제의 불교 장악과 자주적인 종단 건설 운동이 교차되고, 대응되던 시점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1937년 2월 말, 31본산 주지회의가 총독부 주관하에서 최초로 소집되었다. 그런데 당시 만공은 마곡사 주지였다. 대선사, 도인이며 자신이 주도하여 만든 조선불교 선종의 종정으로서 본산 주지를 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지만, 만공은 내분 해소를 요청하는 마곡사 승려들의 간곡한 호소에 의해 1935년 5월 마곡사 주지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만공의 강력 거부로 지연되다가 그해 8월경에 수속이 진행되어 1935년 11월 22일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그래서

만공도 31본산주지회의에 참가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주지회의는 1937년 2월 25일 교무원 청사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총본산 건설을 가결하는 동시에 기초위원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월 26일, 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주지 회동이 있었는데, 이때 총본산 건설 기초위원회도 열렸다. 그리고 2월 27일 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주지회의가 속개되었다. 조선총독은 26일과 27일 회의에 잇달아 참석하였다. 일제가 의도하는 종단을 만들어 일제의 입맛에 맞게 운용될 것인가, 아니면 자주적인 종단으로 운영될 것인가의 문제가 기로에 놓여 있었다. 자율과 타율, 자립과 어용이 대응되는 시점에서 31본산 주지회의가 열렸던 것이다. 이런 회의에 총독이 참석함은 일제 불교정책의 관철의 여부, 이행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일제 학무국이 주최하고, 총독이 참여하는 최초의 회의였다.

27일의 회의 주제는 조선불교 진흥책 중에서 재단법인 교무원 및 중앙불전의 개선에 대한 문제였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나온 대부분의 발언은 통제기관 설립은 당연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당국의 많은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불교 입장에서의 자주·자립의 종단 노선을 피력한 주지는 없었다. 바로 이런 발언이 대세였을 때 만공이 자신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만공은 입을 열어 한국불교의 모순(승풍문란, 계율파괴, 대처 식육 풍조, 주지 전횡 등)은 일제 식민지 불교정책에서 기인하였음을 힘주어 강조하였다. 이런 전제에서 만공은 불교 운용의 자주·자립을 하겠다는 기개를 보여 주었다. “조선 불교는 조선의 승려가 책임진다”고 일갈한 것이다. 일제가 한국불교를 장악하려는 찰나에 그 출발 선상에서 만공은 일제의 불교통치책을 뛰뚫고 이러한 선언을 한 것이다. 26일의 총독과 학무국장의 훈시, 지시사항의 내용을 고려하면 만공의 발언은 우연이 아니라 전날의 회의 분위기를 파악한 후에, 27일 회의에서는 기필코 자신의 소신, 일제 불교정책에 대한 비판·반발·대응을 분명히 개진하겠다는 결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사건은 근대불교의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참선 수행을 철저히 한 승려로서의 소신과 기개를 보인 것이다. 그날 오후 이 소식을 들은 만해(한용운)는 심우장(성북동)을 떠나 선학원(안국동)에서 만공을 기다렸다. 만공이 선학원으로 돌아오자 만해를 비롯한 대중들은 선학원에서 만공을 지극한 마음으로 환대하였다.

만공이 살았던 생애는 격변의 시대였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자신의 위치를 잊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특히 일본불교의 유입에 의한 계행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끊임없는 정진없이 올바른 수행풍토를 유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때 만공이 보여준 철저한 수행관은 흐트러짐 없는 구도자의 모습이었다. 특히 깨달음을 이룬 후의 노력은 깨달음을 얻기 전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이것을 기반으로 만공은 많은 스님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암을 중창하여 선풍을 진작시킬 수 있었다. 만공은 말년에 한 칸 집을 지어 달과 더불어 지내다가 1946년 10월 20일 입적하였다. 이때 세수 75세였다. 만공은 한국 선불교의 프런티어였다.

## 2. 근대 교육과 근대 과학

### 숙명여대 초대총장 임숙재



임숙재

임숙재는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의 독실한 기독교계 가정에서 1891년 7월 임명호와 김명은의 사이에서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부친 임명호는 19세기 중엽에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지금의 삽교읍 방아리) 임참봉공의 차남이다. 임숙재는 어려서부터 학구열이 남달리 강하여 일찍이 신구학문을 접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7세에 집안 어른들의 중매로 아산군 신창면 득산리 239번지 윤참판 댁으로 출가했으나, 조선시대 의관(議官)을 지낸 윤석영의 자제인 남편 윤돈이 성균관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득병하여 별세함으로서 결혼한 지 1년도 못되어 혼자가

되었다. 임숙재는 이 슬픔을 기독교의 깊은 신앙심으로 극복하고 1894년 갑오개혁 이후 물밀듯이 밀려드는 서구문물과 전통사회의 붕괴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신학문에 대한 탐구에 몰입하였다.

18세에 서울 명신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초등교육을 받고 한국 여성교육의 요람이었던 숙명여학교에 입학, 그곳에서 국어학의 대가이신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당대의 훌륭한 스승들의 지도를 받아 본격적으로 신학문을 섭렵하였다. 또 당시 여성계의 선구자들이었던 김활란, 임영신, 이숙종 등과 교분을 갖고 여성 교육과 여성의 지위향상 및 선교 사업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장래 여성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착실하게 갖추어 나갔다.

숙명여학교를 졸업한 임숙재는 약 3년간 공주공립보통학교에 훈도로 재직하면서 남다른 교육애와 천직의식으로 제자양성에 힘써 향토교육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때는 대부분의 지역민들이 무지하여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료로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해 준다고 해도 자녀들을 취학시키지 않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학생들을 모집하여 손을 꼭 잡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려운 고비를 수 없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제2세 교육이야 말로 천직임을 깊이 깨닫고 훌륭한 제자 양성에 더욱 정열을 쏟았으며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말을 타고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순회강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계몽에 진력하였다. 이후 사범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심하고 이왕가의 장학생으로 추천되어 동경부립여자사범학교 제2부 1년 과정을 수료하고, 곧 바로 동경 여자고등사범학교 가사과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귀국하였다.

임숙재는 모교인 숙명여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 후 대구고등보통학교 교유, 경북사범학교 강사 등을 역임하면서 국내 지역교육의 발전과 가정경제의 합리화에 기여하였다. 또 일제가 민족사학을 탄압하고 어용학자를 동원, 식민사관을 강요하고 있을 때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항거하여 늘 학생들에게 진달래와 무궁화의 이념을 고취시켰다. 그는 또 틈틈이 고향에서 방아리 등대감리교

회의 수제자 이수산과 함께 예산군청과 오가면, 삽교면을 순회하면서 지역의 뜻있는 여성들을 모아 놓고 여성의복과 부엌 개량, 육아 등에 대해 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그의 부친 임명호도 임숙재와 함께 야학을 통해 인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글을 가르치며 자주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임숙재는 또 방아리에 수리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의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공헌을 하였다.

1939년 4월에 숙명여전이 창립되자, 임숙재는 조교수로 취임했고, 해방이 됐을 때는 사재를 열어 재단법인 광명원을 설립하고 학교재정을 확충하였다. 이어서 4년제 대학의 설립 요건인 대지 20만평을 확보, 대학의 기반을 공고히 해 숙명여전을 4년제 숙명여대로 승격시킬 수 있었다. 임숙재는 초대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숙대 재임 19년간 심혈과 정열을 기울여 종합대로 발전시키면서 참다운 여성, 견실한 여성, 애국애족, 학행일치를 교훈으로 하여 한국의 여성 교육에 이바지하였다.

이상과 같이 임숙재는 독실한 신앙심으로 한국의 신여성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숙명여대의 산파역으로 선교사업과 여성 계몽활동 및 구빈사업에 힘써 지역은 물론 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한 한국 여성계의 큰 별이었다. 그의 묘는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다.

## 예산에 근대 학교를 세운 사람들

### 윤희두

1896년 3월 22일 부친 윤종렬과 박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본적은 오가면 양막리이며, 당진 송악에서 태어나 어려서 양막리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1946년 이춘심의 딸 이장화와 결혼했다. 3.1운동 당시 마을 이장을 보며 도랑뎅이산에서 4월 초에 마을 주민 전체와 인근지역민이 참여한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여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고 일경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과 태형을 받고 나왔다. 일제강점기 국권을 상실해 강압과 착취는 심하고 농민들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 받고 있을 때 좌방리 임명호 선생이 설립한 ‘등대교회’에서 민족의 구원과 피압박에서 벗어날 새로운 희망과 역할을 터득하고 동네사람들과 협의하여 1928년 3월 28일 양막리에 양막교회를 설립하였다.

민족독립을 위해선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했던 그는 우선 지역에 학교나 교육 시설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1930년 예배당에 강습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교육사업을 펼쳤다. 1947년 예산읍 외 지역 최초로 양막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해 중등교육기관으로 교육의 문호를 확대 개방하였다. 배움의 기회와 열기가 고조되면서 몰려드는 학생을 수용하기 힘들게 되자 1949년에 일본인 적산의 분천리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마을 내 빈 창고를 뜯어다가 교실5칸을 지어 배움의 터전을 마련했다. 이는 현재 임성중학교의 모태가 되었다.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며 발품을 팔아 훌륭한 교사 초빙을 위해 노력했다는 윤희두는 예산 지역사회 학교 교육의 주목 받는 선구자였다.

### 백창현

백창현은 1917년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에서 백영기와 오계순의 사이에서 4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958년 11월 고등고시에 합격했고 예산경찰서장, 내무부 치안국 과장, 예산농금협동조합장,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했다. 백창현은 학교법인 예덕학원(1967년 예산고·1978년 예산동중)을 설립해 지역 사회의 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며 평생을 심혈을 기울이면서 육영사업에 전념했다. 지난 1974년 향토발전과 지역의 교육 사업에 이바지한 공로로 사학육성 특별공로상과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여 받기도 했다.

## 예산에 근대 병원을 세운 사람들

### 조성행

예산지역에 최초로 근대병원을 개원한 조성행은 1902년 삽교읍 가리에서 출생하였다. 서울 보성고등보통학교를 나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들어갔다. 세브란스의전은 당시 기독교 선교사 애비슨이 1900년 미국의 기업가인 세브란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에 세브란스병원을 세우고, 동 병원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운 의료교육기관이었다. 해방 후 1947년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되었고, 1957년 연희대학교와 합쳐져 연세대학교가 되었다. 조성행은 1933년 세브란스 졸업 후, 3년여를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과 고향인 예산지역이 근대식 의료기관이 없음을 알고, 1936년 1월 5일 예산읍 예산리에 중앙병원이란 이름으로 개원하였다. 그 당시 예산지역은 의료기관이 없어 수술은 엄두도 못 내던 시절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병원은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성가를 높이게 되었다. 그는 오직 사회활동보다 의료행위에만 전념하였으며 경제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무료진료 혜택을 주어 인술을 베풀었다.

중앙의원은 그 후 그의 아들 성근에 이어 장손 돈희가 그의 유업을 계승하여 3대 의업을 잇게 되었다. 아들 성근에 의해 1997년 9월 29일 예산읍 관작리로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이 되었다. 1988년 영면하였고, 묘지는 홍성에 있다.

### 오도영

1899년 아산군 도고면에서 출생하여 1990년 9월 8일 예산군 예산읍에서 별세했다. 1916년 아산 신창학교를 거쳐, 1922년 경성제일고보(현 경기고등학교)와

1926년 경성의전(현 서울대 의대)을 졸업한 후 그해 5월 7일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에서 해동병원(海東病院)을 개원하였으며 1970년에 은퇴할 때까지 같은 장소에서 예산지방민을 위하여 인술을 베풀었다. 특히 그의 안과 의술은 예산지역을 넘어 장항선 일대에 칭송이 자자했다고 한다. 그가 예산군 예산읍에서 병원을 개업한 것은 봉산면에 위치한 처가의 권유가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은퇴하면서 해동병원은 그의 아들 성근 씨에 의해 같은 예산읍에서 자리를 옮겨 앉으면서 해동안과라는 이름으로 계승되었다.

### **박외과 의원 설립자 박병선**

1925년 12월 25일 예산에서 태어나 예산보통학교(24회)를 졸업하였다. 서울 중동중학교를 거쳐 일본에서 의대를 다니다가 광복 후 돌아와 1948년 서울대 의대(3회)를 졸업하였고, 이어 서울대 부속병원에서 외과 수련의 과정을 마쳤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의료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는 1951년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수많은 전상자를 치료하였으며 거기에서 닦은 의술은 개업의로서 훗날 큰 경험이 되었다. 1957년 6년여를 복무하던 군에서 중령으로 예편한 후 예산에서 박외과 의원을 열어 지역민의 질병치료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기난한 지역민에게 무료진료도 베풀고 무의촌 순회봉사와 공중보건의를 맡아 군민의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 그는 향토문화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1955년 예산문화원 창립 당시 많은 후원을 하였다. 이어서 박외과 개원 후 1961년 3대 예산문화원장에 선임되어 향토문화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는 1967년 7대 국회의원에 공화당 공천으로 출마하여 인술로 닦은 기반과 조직에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당선되었다.

국회의원 재직 시 보사분과의원으로서 1967년에 경제개발에 따른 공해의 심각성을 강화하고 공해방지법을 개정 발의하여 공해방지 및 환경보전정책의 기

틀을 마련하였으며 그 법에 따라 한국공해방지협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에 취임하였다. 14대 국회에서도 국민건강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입법활동을 하였다. 1992년 낙선 후 조용히 여생을 보내던 그는 1995년 2월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묘는 당진군 면천면에 있으며 박외과 의원은 아들 호규가 대를 이어 운영하였다.

## 한국 최초의 화학박사 이태규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 최초의 화학박사가 되어 일본 교토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또 미국 프린스턴대학에 가서는 ‘리-아이링 이론(Ree-Eyring Theory)’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다. 그는 노벨상 후보 추천위원이 됐고, 후에는 그 자신이 후보 물망에도 올랐다. 이태규는 식민지배라는 국가적인 불행을 극복하고, 끊임없는 호기심과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학문의 길을 갈고 닦아 화학계의 세계적인 이론학자로 발전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상에 도전했던 멘토 과학자이다.

## ‘영재(英才)’ 소년 이태규, 세계적인 화학자의 꿈을 키우다

이태규는 1902년 1월 26일 예산군 예산읍에서 태어났다. 이태규의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아버지는 한학자 중능(中能) 이용균(李庸均)이며,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지낸 이회창(李會昌)의 속부가 된다.

이태규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똑똑하기까지 했던 이른 바 ‘영재’ 소년이었다. 남달리 뛰어나 이른 나이에 학교에 입학했으나, 월반(越班)을 거듭 하여 4년 만에 경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또한 졸업 후에는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당시 최고 명문이던 경성보고에 입학했다. 이태규의 어릴 적 꿈은 소학교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경성보고에서 만난 화학 선생, 호리 선생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화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

### **한국인 최초의 화학 박사로, 교토대학 정교수가 되다**

1920년에는 관비(官費) 유학생으로 일본에 유학하여 1922년에 일본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 과정을 마치고, 교토대학교에 장학금까지 받으며 입학하였다. 그리고 당시 일본의 최고 화학자인 호리바 신기찌 교수 밑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1927년 일본 교토제국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였고, 이 대학의 대학원에서 1931년 「환원 니켈을 이용한 일산화탄소의 분해」라는 논문으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화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37년 교토제국대학 화학과 조교수가 되었고, 1938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프린스턴대학(Princeton University)의 초청과학자로서 테일러(H. Taylor)-아이링(H. Eyring) 등 양자화학의 선구자들과 함께 쌍극자능률을 연구해 하전 분포를 처음으로 계산해 냈다. 그들이 1940년 발표한 '쌍극자 능률계산에 관한 논문은 화학 분야에 양자역학을 도입한 최초의 연구로 평가받는다. 1941년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교토제국대학에서 일본 최초로 양자화학을 강의하였고 1943년 정교수가 되었다. 식민지 출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가 일본 교토제국대학의 정교수가 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그것은 오직 그의 피나는 노력과 그의 탄탄한 실력의 결실이었다.

### **서울대학교 문과대학 초대학장을 지내고, 노벨상 후보 추천위원이 되다**

해방 직후 조국으로 돌아온 그는 서울대 문리과대학 초대학장을 맡아 일본에서 가르쳤던 후배들을 불러들였다.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로 교수진을 정비하여 서울대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 또, 조선화학회(오늘날 대한화학회)를 설립했다. 대한화학회는 우리나라 과학계에서 가장 먼저 창립된 학회로 기록된다. 그러나 이규태는 서울대 설립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1948년

다시 미국으로 건너 가 유타대학에서 아이링 교수와 연구를 계속했다.

그런데 그가 이론을 한창 연구하던 바로 그때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그는 오히려 더 연구에 전념했다. 훗날 그는 그때의 연구 성과가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을 잊기 위해 몰두한 결과였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1955년 두 사람 성을 따서 발표된 ‘리-아이링 이론(Ree-Eyring Theory)’은 점성(粘性) 물체의 흐름 성질을 연구하는 분자점성학의 기초가 됐다. 그는 이 이론으로 일약 세계적 과학자 반열에 올랐고 1965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상 추천위원이 됐다. 그리고 1969년에는 그 연구가 노벨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1948년 이후 25년 동안 유타대학교(The University of Utah) 교수로 있으면서 이태규는 액체 이론·분자 점성학·표면 화학·반응 속도론 등에 관한 논문 90여 편을 발표하였다. 1960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였고, 1964년 대한화학회와 동아일보사의 초청으로 귀국해 전국을 순회하며 강의하였다.

1965년 그는 노벨상 수상자 후보 추천위원,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문에 추대되었으며, 1969년 이태규는 유타대학교에 있으면서 발표한 「이-아이링 이론(Ree-Eyring theory)」으로 노벨화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하였다. 1971년 미국 유타주립대학교 객원교수가 되었다.

1973년 이태규는 70이 넘은 나이에 그는 해외 과학두뇌 유치 대상자로 선정되어 한국과학원(現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석좌교수로 초빙되었고, 고국에서 후학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50년의 긴 세월을 해외에서 보낸 그는 한국 연구 환경의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여생을 바쳤다. 한국 화학 분야가 타 과학 분야보다 앞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에는 그의 기여가 있었다. 이후 이태규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되었으며, 이후 20년 동안 연구를 계속 해 오다가 1992년 10월 26일 사망하였다.

## KAIST에서 후학을 양성하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다

이태규는 90 평생 중 50여 년을 외국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는 일제 강점기에 는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오랜 미국 생활에서도 국적을 버리지 않은 채 조국에 봉사할 염원을 잊지 않고 살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1973년 한국과학원 교수로 부임하여 1992년 작고할 때까지 KAIST 종신 석좌교수를 역임하면서 죽는 날까지 조국을 위하여 과학자로서 할 일을 찾았던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KAIST의 우수한 젊은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을 큰 보람으로 여겼다. 이러한 애국심과 뛰어난 과학적 성과로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업적이 인정되어 이태규 박사는 과학자로는 유일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현재 이태규의 묘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사당2동 산41-2) 국립서 울현충원에 있다. 과학자로서는 처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국립현충원 정문에서 오른쪽 길로 쭉 들어가면 임정묘역 맞은 편으로 국가유공자 제2묘역이 나온다. 그 가운데 묘비번호 12를 찾으면 ‘국가유 공 이태규의 묘’라고 적힌 묘비를 찾을 수 있다.

이태규는 미국화학회의 표창을 받았으며, 대한민국학술원상(1960) · 국민훈장 무궁화장(1976) · 서울특별시문화상(1976) 등을 받았다. 2003년 과학기술인 명예 의 전당 초대 현정 대상자에 선정되었다.

한편 이 박사가 마지막으로 재직하였던 한국과학기술원의 과학도서관 입구에는 이태규 박사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또 도서관 전시장에는 이 박사의 앨범 과 학위증, 기증도서 등이 보관되어 있다. 고향인 충남 예산의 예산초등학교에도 이 박사의 동상이 있다.

그리고 이 박사가 작고한 후 선생의 이름을 기리기 위한 병안으로 1994년 이태규선생기념사업회가 법인 형태로 설립되었다.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념사업회에서는 매년 대한화학회를 통해 이태규학 술상을 시상하고 화학 분야의 박사 과정에 재학하는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

금을 지급해 왔는데, 지난 IMF 이후 급격한 재정 감소로 현재는 이태규학술상만을 시상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한국을 빛낸 명예로운 과학기술인을 소재로 발행한 ‘한국의 과학 기념우표에는 장영실, 허준과 함께 이태규 교수가 소개됐다.

이태규 박사의 고향인 예산의 예산초등학교에도 이 박사의 동상이 서 있다. 예산에 <이태규 화학박사 꿈나무상> 같은 것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다.

### 3. 근대 상업과 산업

#### 호서은행의 설립 · 경영과 예산의 지주들

예산은 한국 근대기업 성립사에서 볼 때 특히 주목되는 두 개의 기업이 설립된 곳이다. 하나는 1913년의 호서은행이고, 또 하나는 1926년에 설립된 생사(生絲) 제조 기업 충남제사(주)였다. 이들은 예산 경제분야 개척정신의 투톱이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업의 성립과 운영에는 예산의 자본가 기계유씨와 창녕성씨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기계유씨 유진상은 원래 청양의 토호로서 그의 10대조 유대기 아래 청양에 토착하였는데, 이들과 예산과의 직접적인 인연은 유진상이 예산에 이주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호서은행의 설립에 관련된 예산의 창녕성씨는 원래 아산의 향반으로서, 개항을 전후하여 신창(지금의 아산)으로 이주하여 미국수출로 경제력이 크게 신장해 있었다. 사실상 호서은행의 설립과 충남제사(주)의 설립에는 이들 두 성씨가 모두 주역으로 참여하였다.



호서은행(2015)

## 호서은행의 설립 배경

호서은행은 일제강점기인 1913년 예산(禮山)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지방은행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지방의 소도시인 예산에 은행의 본점이 들어섰다는 것도 의아하고, 그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이른 시기에 세워졌다는 점도 또한 의아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설립 배경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호서은행 발기인 및 초기 경영진들의 이력을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입지 조건에 대한 검토이다.

먼저 호서은행 설립자들 및 초기 경영진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이들은 대개 한말애국계몽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또 그와 관련된 일에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다. 애국계몽운동은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 전개된 개화자 강파의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운동을 총칭하는 말이다. 그것은 을사늑약 이후 사립학교를 창설하고 학회를 조직하고 종교단체를 창립하여 신학문을 교수하고 정치사상을 선전하고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전 민족을 세력화해서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고자 한 운동이었다. 이후 그것은 그 영역을 산업진흥운동으로까지 확산시켜갔다. 예산의 호서은행의 설립자 및 경영자들은 호서은행을 설립하기 이전에 이미 이러한 애국계몽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식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즉 1908년 4월, 사립 배영학교가 설립되었고, 1909년에는 동일연성야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이들 학교 설립에는 유진상 성창영 이명호 등 이 지역의 유지들이 참여하였고, 이어서 1910년 배영학교의 교장 교감을 맡은 것은 예산의 창녕성씨 일가의 성낙규 성낙순이었다. 따라서 1913년 예산에 세워진 호서은행은 애국계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된 산업진흥운동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당시 예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입지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조선시대의 예산은 충남지역에서 상업 활동의 중심지였다. 조선후기 예산장은 충남에

서 가장 큰 시장이었는데, 그것은 예산이 평야지대여서 물산이 풍부하였을 뿐 아니라 아산만과 삽교천에 발달한 중소형 포구 마을 때문에 원격지 유통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쉬웠기 때문이었다. 당시 인천과 서울로 가는 해로의 출발점인 아산의 선장(仙掌) 포구는 농산물의 집산지였는데, 그것은 삽교천을 통해 예산과 바로 연결되어 있었다. 당시 포구는 상품유통의 한 통로였고, 지역 간 정보의 소통로였다.

그리하여 철도부설 이전에는 예산이 주변농산지에서 생산된 미곡을 모아 선장을 거쳐 인천, 서울, 군산 등으로 운반시키는 미곡수송 및 거래의 중간지점이었다. 따라서 예산은 자연스럽게 상업과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되었고 농촌지주와 보부상과 같은 거상들이 형성되었다. 특히 이곳의 중국인 상인은 대부분 청일전쟁의 전역 도피자들이었는데, 이들의 세력이 성장하면서 그중 일부는 수십 만원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일본인 거주자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다. 내포지방에 외국인의 유입과 그들과의 교류 확대로 말미암아 합리적 시장 운영을 위한 은행 중심 화폐경제제제로의 전환이 필요했던 것이다.

호서은행의 설립자들은 이상과 같은 시대의식과 지역 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당시 충남 서북부 지역의 산업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예산인들의 경제적 개척정신이 발동한 것이었다.

### **호서은행의 설립과 유진상의 은행장 취임**

호서은행은 1913년 5월 예산에서 설립되었다. 이 은행은 예산지역 지주인 유진상(俞鎮相) · 성낙규(成樂奎) · 유진태(俞鎮泰) · 성낙현(成樂憲) · 이기승(李基升) · 최규석(崔圭錫)과 서울의 김진섭(金鎮燮) · 함태영(咸台永) 등이 자본금 30만 원으로 설립한 은행이다. 호서은행은 조선에서 9번째 설립된 은행이었으며, 조선인이 설립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하면 5번째 설립된 민족계 은행이었다. 호서은행

은 일제의 금융 침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족자본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당시 은행은 대개 귀족이나 관료계 인사와 대상인들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그러나 예산에 세워진 호서은행은 예산을 중심으로 한 내포지역의 지주들로 순수한 지방의 지주들의 자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그런 점에서 호서은행은 민족자본에 의해 설립된 은행, 즉 민족계 은행이라 할 수 있다. 호서은행의 설립자구성도 예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한인 토착지주로서, 예산에 거주지를 둔 상공업지주인 유진상(俞鎮相)과 유진태(俞鎮泰), 성낙규(成樂奎, 후에 충남제사 공장운영)과 성낙현(成樂憲) 형제와 최규석(崔圭錫), 태안(泰安)의 이기승(李基升), 미곡거상인 김진섭 등이 참여했다.

호서은행의 설립과정에서 먼저 초대 은행장을 맡은 인물은 유진상이었다. 그는 청양의 토호 집안의 후예로서, 재지사족적인 전통을 이어 1895년 진사가 되었으며, 후에 예산에 이주하여 예산의 자본가로 활동하였다. 그는 1908년에 배영학교를 설립하였고, 또 1913년에는 예산에 호서은행을 설립하여 초대 호서은행장을 맡는 등 근대교육과 민족자본의 확충에 이바지하였다. 한편, 유진태는 유진상과 함께 호서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처음부터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원래 당진에 세거해온 양반가 출신으로서 당진 합덕의 대지주인데, 역시 당대에 예산에 이주하였다.

### **호서은행의 경영에 참여한 예산의 지주들**

호서은행의 경영에는 예산의 지주들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처음 은행설립의 발기인 중 유진상은 은행장이 되고, 성낙현은 전무이사, 성낙규는 이사, 이기승과 최규석은 감사, 김진섭은 이사(1922년 이후 은행장)가 되어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설립 당시 주주 79명(총 6천주) 중 200주 이상을 소유한 11명의 소유 주식 누계가 3,640주(전체의 60.7%)였다. 주주 가운데 성씨 가운데 2명(성낙규,

성낙현), 유씨 가문 2명(유진상, 유진태), 김씨 가문 2명(김진섭, 김성권)이 최대 주주 반열에 올랐다. 1925년을 기준으로 주주들을 거주지 별로 분류해 보면 예산이 59.4%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경성으로 15.3%였다.

또 호서은행의 지점이 설치되는 홍성, 보령, 천안, 안성, 이천의 주주들과 호서은행의 주요 영업지역인 서산, 당진, 아산의 주주들도 상당히 많았다. 인천 지역의 주주들도 있었는데, 이것은 내포의 물자들이 선장포구를 통해 인천으로 해상 운송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서은행은 내포지역의 금융공백상태를 파고들어 예산을 비롯하여 그 영업 영역을 대천, 홍성, 당진, 아산, 천안, 안성, 이천 등으로 확대하였고, 그 결과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영업성적 역시 다른 은행 들에 비해 순조로웠다. 또 호서은행은 내포의 유일한 은행으로서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1926년 예산에 설립된 충남제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당시로서는 경성방직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산업자본이었던 이 회사의 설립과 그 운영 지원은 호서은행이라고 하는 지역 금융기관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다. 또 충남상업, 백제상사, 홍성상사, 대성무역 등의 상업회사들도 호서은행의 지원 가운데 활발하게 영업할 수 있었다.

유진상은 호서은행의 창립 이후 1922년까지 은행장을 역임하였고 1924년까지는 이사를 맡았다. 그러나 유씨 일가는 1922년 은행장을 예산의 대지주인 성씨가에게 양도하고 1924년경 호서은행과 예산지방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호서은행의 설립을 주도했던 유씨기는 1923년경이 되면 빠져나가게 된다. 유진상은 설립 당시 최대 주주로서 1922년까지 은행장을 역임하였고 1924년까지 이사와 감시를 역임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사진 명단에서도 사라지고 주주명부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충남서북부지역의 경제에서 호서은행의 역할과 기여는 상당했다. 당시 홍

주목권에서 가장 큰 기업은 충남제사와 충남상업이었다. 이들은 모두 호서은행의 적극적인 뒷받침 하에 설립되고 운영된 회사였다. 1926년의 충남제사는 전국의 한국인 제조업체 중 6위에 해당하는 규모였고, 납입자본금의 측면에서는 4위, 종업원 수로 보면 2위의 기업이었다.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한국인 산업자본으로 알려진 경성방직과 비견되는 정도의 기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큰 규모의 기업이 예산에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호서은행의 금융지원 덕분이었다.

호서은행의 주주 명단을 검토해 보면, 호서은행이 존립했던 1929년까지 대성 무역, 면천주견주양조사, 백제상사, 천안운수창고, 홍성상사 등 홍주목권에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영진들은 한결같이 호서은행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예산에 호서은행이 설립되고 그것이 충남 북부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에 지점을 설치해 나가게 되면, 이곳의 한국인 기업은 자금조달 창구로서 호서은행으로부터 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호서은행은 1930년 11월 총독부의 민족계 은행 통합정책으로 한일은행과 대등한 조건으로 합병된 뒤 동일은행을 신설했으므로 해산되었다. 물론 통합된 이후에도, 호서은행의 지점들은 계승되었지만, 지역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던 은행이 소멸되고 전국적 은행의 한 지점으로 되어 벼름에 따라 지역사업에 대한 금융적 지원도 상당히 약화되었다. 예컨대 충남제사가 호서은행의 소멸 이후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미쓰이상사의 자금을 끌어들이게 되고 결국은 경영권마저 미쓰이에게 상실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즉 1920년대 말까지만 해도 충남의 한국인회사의 납입자본금은 두 권역별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호서은행의 소멸 이후 공주목권은 약진하는 데 비해 홍주목권은 정체됨으로써 두 권역 간의 격차가 확대되었던 것이다. 호서은행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예산 개척정신의 경제적 징표가 바로 호서은행이었다.

## 충남제사(주)의 설립 · 경영과 예산의 성낙규 성낙현 형제

충남제사(주)는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한국인 기업의 하나였다. 이로써 예산은 이미 설립된 호서은행과 함께 제사회사를 더 갖춤으로써 근대 한국인 금융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 경성(京城)과 아울러 가장 선진적인 지역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예산의 경제적 개척사업의 문을 연 산업이 충남제사(주)였고, 그 초대회장을 예산의 자본가 창녕성씨 성낙현(成樂憲)이 맡았다.

### 예산의 재력가, 창녕 성씨가의 유래와 애국계몽운동

원래 창녕성씨가는 조선중엽에 경기도 파주를 근거로 하여 성수침(1493-1564), 성흔(1535-1598), 성문준(1559-1626) 3대에 걸쳐 성리학자를 배출하면서 명문 선비가로 부상한 양반가였다. 그런데 이후 창녕성씨의 일부가 온양에 이거하여 대를 이어 관직에 오름으로써 이 지역의 세력가로 성장하였으나, 18세기 후반 이후 소론계열의 성씨가는 봉건권력에서 배제되어 향반화 되어갔다. 그러다가 성익호(1831-1927)대에 이르러 전주이씨가와의 혼맥을 계기로 돈녕부도정에 까지 오르게 되면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들은 개항을 전후로 한 시기에 신창(아산)으로 이주한 후 미곡수출로 크게 부를 이루었다.

이후 성익호의 세 아들, 성낙규 성낙순 성낙현 형제가 예산으로 이주하면서 대지주로 성장하였는데, 이들은 근대적인 이념을 받아들여 일찍부터 애국계몽 운동에 종사하였다. 즉 성낙규는 1910년 2월 배영학교(1908년 예산의 지주 유진상 등이 설립)의 교장을, 그의 아우 성낙순은 교감을 맡아 신교육에 앞장섰다. 그리고 성낙현은 서울의 양정의숙에서 근대적 경제학을 공부하며 애국계몽운동 자가과 함께 ‘한융사’라는 기업을 운영하며, 계몽운동단체인 기호홍학회가 창립

되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이들 성씨가는 이와 같은 애국계몽운동과 그 경제적 실천으로서의 근대적 회사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일제하에 본격적인 자본전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일제의 미곡상이 예산의 곡물경제를 잠식하고 일제당국의 은행령이 공포되면서 성낙규·성낙순·성낙현과 서울의 애국계몽운동기들은 조선인들의 경제활동을 위해 예산에 호서은행을 설립할 것을 기획하게 된다.

### **애국계몽운동의 영향으로 민족산업을 일으키다**

예산에는 충남제사(주)가 설립되기 전에 먼저 민족은행인 호서은행이 설립되었다. 충남제사(주)의 사장 성낙현과 성낙규는 사실상 그 호서은행 설립의 주축 멤버였다. 호서은행은 1913년 5월 예산에 호서은행이 출범할 때, 예산의 지주이던 성낙현·성낙규형제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 예산 지주 및 자본가들은 애국계몽운동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한말의 애국계몽운동은 단지 교육·계몽운동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즉 성낙현을 포함하여 당시의 애국계몽운동가들은 근대적인 산업을 발전시켜 국력을 배양함으로서 반식민지 상태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계(契)’적인 금융방식이 주식회사형태로 근대화되면서 금융공황이후의 상황에 대응하게 된다.

한편 1920년대의 예산의 물류 운송 환경의 변화도 주목되는 변수일 수 있다. 조선후기 예산은 보부상의 중심거점이었다. 따라서 예산은 내포를 경유해서 내륙으로 농산물과 생필품을 나르던 보부상과 도산매 상인들의 집결지가 되어 왔다. 그런데 1922년 6월 철도가 부설되어 인천으로부터 직접 운송이 가능해지면서 물길을 통한 기존의 물품 운반로는 쇠퇴했다. 철도를 통해서 다량의 물류수송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경남철도는 1922년 천안에서 신례원을 시작으로 1924-25년에는 광진과 보령까지, 1931년에는 군산까지 완전 개통되었다. 예산은 철도가 놓인 후 상대적으로 거주 인구가 오히려 늘어났다. 그 수는 2만 8천여

명에 달했다. 일본인도 360명 증가하였다. 철도를 부설할 때 예산의 지식인들과 지주들은 읍내와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역사를 건설하도록 청원했다. 예산민들은 기성회(회장 성낙현)를 조직하고 1만여 평의 정거장 부지를 기부하여 이를 성사시켰다. 또한 철도 개통 후에도 예산역을 잇는 기존 도로를 2등 도로로 확장시키는 일에 일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예산의 철도 개통은 기존의 전통 장시가 점차 상설시장화 되면서 유통 및 시장구조에 변화를 주었고, 이는 지역 상인들과 지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 호서은행의 영업 범위도 크게 확장되었음은 물론이다. 경남철도의 예산역 설치에는 창녕성씨 성낙현 등 예산지주들의 공이 컸다.

이 무렵 설립 이후 줄곧 호서은행장을 맡고 있던 유진상은 경영권을 창녕성씨 가에 넘기고, 1923년경에는 은행에서 손을 떼었고, 예산에서도 자취를 감추게 된다.

### **충남제사(주)의 설립 – 경영과 경영진**

1626년 예산에는 충남제사(주)가 설립되었다. 이때 예산에 충남제사(주)가 설립된 배경으로는 위의 애국계몽운동의 영향과 물류수송 수단 환경의 변화가 주목된다. 그러나 또 더 근원적으로는 예산은 이 산업이 육성될 만한 기초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즉 충남은 역사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양잠업이 발달된 지방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내포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었다.

1926년 충남제사의 설립에는 내포지역의 대지주와 상공인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 창립총회에서는 12명의 이사와 5명의 감사가 선출되었는데, 발기인 대표는 예산의 성낙현(成樂憲)이었다. 물론 회사 설립에는 그 밖에도 내포지역의 대지주 및 상공인들이 다수 가담하였다.

## 충남제사 초대 중역진의 출신배경(표 제목)

중역명	중역으로 활동했던 다른 기업체명	직책	거주지	경지규모
성낙규	호서은행	사장	예산	109 (정보)
백중현		상무	예산	
김세호	호서은행 충남정미소	상무	청양	
강두영		이사	아산	
김종흡	유항사 충남저포(충남흥산으로 개편)	이사	부여	21
류기영	중선상사 류기영정미소	이사	아산	
박경래		이사	당진	110
성낙현	호서은행 동일은행 중선중앙일보 조선피복공업	이사	예산	129
윤승구		이사	예산	
이찬세		이사	홍성	
이필은	대성무역	이사	서산	
윤석구	호서은행 충청정미 예산양조 충남상업	이사	예산	213
정봉화		이사	예산	
김성권	호서은행 동일은행 충남상업	감사	예산	210
박성호	부여국자제조 충남저포	감사	부여	
백남복	태안흥업 동일은행	감사	서산	350
인근식		감사	당진	200
이경세		감사	보령	

이로써 보면 특히 지주들의 경영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8/18), 강두영, 박경래, 백중현, 윤승구, 이경세, 이찬세, 인근식, 정봉화 등과 같이 충남제사의

경영에만 관여한 경우(8/18) 보다는 다른 기업의 경영에도 참여한 경우(10/18)가 더 많았다. 내포지역의 기업가들은 토지 자산을 배경으로, 서로 횡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이 지역의 기업설립과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충남제사의 경영진을 기준으로 그 시기를 구분해 보면, 1926년부터 1941년까지는 내포지역의 초기 멤버들이 운영을 주도하였다. 창녕성씨 형제가 그 중핵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충남제사의 경영진은 처음부터 근대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상당한 식견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 **미쓰이 자본의 개입으로 충남제사(주)의 경영권을 상실하다**

그러나 1942-1946년은 김동경이, 1947년 이후는 원진희 및 최태섭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졌다. 즉 충남제사는 1942년 이후 기업의 색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김동경은 1935년 지배인으로 취임한 이래 1937년 100주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이사에 취임하였고, 그 후 충남제사 경영권 획득을 위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 이전 회사의 주식은 골고루 잘 분산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동경의 행동에 불안을 느낀 성씨 일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 매집에 나섰다. 그리하여 1941년에는 김동경 1,533주, 성원경 1,670주로 팽팽히 맞서게 되었다. 그런데 1,360주를 보유한 김세호 포함 대주주들이 성원경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성씨가는 일단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1942년을 기점으로 김동경 소유의 주식이 과반을 넘어서면서 이제 충남제사는 김동경 개인 소유의 기업이 되었다. 1947년 김동경은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원진희에게 처분하여 충남제사에서 손을 뗐고, 1955년에는 다시 한국유리 설립자이기도 한 최태섭에게 경영권이 넘겨졌다. 그 후 충남제사는 동아연직에 흡수되었다가, 대한모방이 이를 인수하였지만 IMF 이후 청산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충남제사의 초기 경영진은 제사공업 전체가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었을 때 품질개선과 자기자본 충실 그리고 고등잡사 출신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이를

극복하였다. 그리하여 1933년부터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1934년에는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1942년 김동경의 충남제사 인수는 초기 임원진의 경영 실패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충남제사는 이미 1934년부터 흑자로 돌아선 상태였고, 누적 적자도 축소되고 있었으며, 1940년부터는 적립금이 모아지고 있었다. 안정적인 경영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동경은 1935년 지배인으로 취임한 이래 1937년 100주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이사에 취임하였고, 그후 충남제사 경영권 획득을 위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김동경을 대리인으로 하는 미쓰이물산의 충남제사 인수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엿보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알짜 기업을 흡수하려는 미쓰이물산 측과 초기 경영진 사이에는 당연히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충남제사는 한국인 기업으로는 드물게 주식 분산이 잘 이루어진 회사였지만, 미쓰이물산이 김동경을 내세워 주식 매집을 시작하자 내포지역 경영진에서도 경영권 방어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1941년의 주주총회에서는 양자의 세력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내포지역의 다른 대주주들이 성씨가를 지지함으로써 미쓰이물산의 경영권 장악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미쓰이물산은 결국 1년 뒤 주식 과반수 매집을 통해 충남제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내포지역 임원진의 경영권 상실은 그들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대자본에 의한 중소자본의 M&A의 한 사례였던 것이다.

내포지역의 충남제사 경영자들은 여타의 다른 한국인 기업가들에 비해 상당히 뛰어난 경영 능력을 발휘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충남제사는 예산 근대 산업 분야의 개척의 상징이었다.

## 4. 예산 개척정신의 특성

첫째, 예산지역 종교계의 혁신 및 화장운동과 독립운동이 자주적이고 개척적으로 전개되었다. 예산인 박인호는 동학(천도교)의 4대 교주로 동학적 개혁운동의 리더였고, 이준창은 천주교전파로 평등이념을 추구한 내포의 사도였으며, 예산의 승려 경허와 만공은 조선 선불교 중흥의 기수였다. 이들은 개척적 마인드로 종교의 내적 개혁(또는 확산)운동에 적극 나섰으며, 대외적으로 시대적 과제였던 독립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지방의 한 지역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교적 개혁운동과 독립운동이 겪들어진 사례는 드물다. 역사적 제도적 모순에 도전하며 새로운 세계를 추구한 예산인들의 개혁적 자주적 개척정신의 결과였다 할 것이다.

둘째, 근대 교육과 근대 의학의 보급 노력과 그 발전을 위한 현신적 노력이 돋보이고, 또한 근대과학의 발전을 추구한 창의적 정신이 돋보인다. 내적으로 예산에는 근대학교의 건립과 근대 병원의 설립이 다수 있었다. 또한 외적으로도 예산인 임숙재는 서울에 숙명여대를 설립하여 초대총장을 지냈고, 한국인 최초의 의학박사인 이태규는 일본과 미국을 넘나들며 창의적 연구 성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그는 노벨상 추천위원이 되었고, 자신도 노벨상 후보 물망에 올랐으며, 서울대학으로 돌아와서 후진을 양성하는데도 진력하였다. 근대 예산인들의 현신적이고도 창의적인 개척정신이 돋보인다.

셋째, 지역의 경제자립을 추구한 협동적 개척정신이다. 근대 예산의 지주들은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구심체로 예산에 민족자본의 호서은행을 설립(1913년)하고, 이어서 민족기업 충남제사(주)를 설립하여 근대상업과 근대산업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것은 예산뿐만 아니라 충남 서북부지역의 경제적 발전의 상징이었다. 특히 그 중심체가 되었던 예산의 창녕성씨(성낙현 성낙규 형제)와 기계유씨(유진상과 유진태) 등은 일찍이 애국계몽운동의 영향을 받아 근대학교 설립과 경영

에도 큰 역할을 하였음은 특기할 일이다. 애국계몽운동 근대교육운동에 이어 경제자립운동으로 시대적 고난을 이겨냈던 예산인들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노력은 그들의 높은 개척정신의 귀결이라 할 것이다.

예산인들은 근대 이행기에 신종교의 탄생과 민족운동, 서양종교의 유입과 확산, 전통 불교의 개혁, 근대교육과 근대의학의 지역적 전개, 근대식 기업과 은행의 출현과 운영을 통해 그 개척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 맺음말 – 예산정신의 현대적 시사점과 비전

지난 2016년 지역학으로서의 예산학이 출범한 이후, 우선 과제로 제기되었던 주제가 곧 ‘예산의 정체성 정립’이었다. 아직 예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목에서 볼 때, ‘예산의 예산다움’은 무엇이며, ‘예산인의 예산인다움’은 무엇일까? 이 주제는 둘인 듯하면서도 사실은 하나의 주제, 즉 ‘예산의 정체성 찾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내적 상관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이번에는 특히 후자에 방점을 두고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간의 예산에 관련된 여러 연구 성과를 참고하면서, 예산의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그 다양한 삶의 궤적과 거기에 담긴 정신을 응축하여, 예산의 5대 정신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인물로 본 예산의 정신>이란 이름의 한 권의 책자로 정리해 보았다.

**예산의 5대 정신** 이 책에 제시된 예산 정신은 충의정신, 효제정신, 실학정신, 예술정신, 개척정신의 5대 정신이다. 역사적으로 예산인들은 전통적인 충효정신의 기본 틀 위에서 특히 의리와 절개를 중시하고 또 우애의 모범을 보여, 충효를 더 풍성하고 알차게 만들어 왔다. 그것이 곧 예산의 충의(忠義) 정신이고 효제(孝悌) 정신이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 도덕의 사회적 기반 위에서 실사구시의 실학 풍과 법고창신적 예술의 꽃을 피우고, 또 근대적 종교 교육 의학(과학) 산업 상업의 각 부면에서의 새로운 개척의 길을 열어왔다. 그것이 곧 예산의 실학(實學) 정신이고, 예술(藝術) 정신이며, 개척(開拓) 정신이다.

이 책에서 설정한 <예산의 5대 정신>의 구체적 내용은 앞의 본문에서 살펴보와 같다. 특히 그 요지와 특성은 각 장의 말미에 요약 정리하였으나, 그것을 더 축약하여 5대 정신의 주제와 그 한 줄 개요를 정리해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충의忠義 정신**

자기 |의 최선을 다하며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절개를 지키는 정신

**효제孝悌 정신**

공경으로 부모를 섬기고, 사랑으로 형제를 배려하는 정신

**실학實學 정신**

형식과 명분보다는 실용과 실질, 실사구시의 실증에 힘쓰는 정신

**예술藝術 정신**

서예 그림 문학 등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정신

**개척開拓 정신**

새로운 분야나 단계에 처음으로 도전하여 새 길을 열고 닦는 정신

## 예산정신의 현대적 시사점

그러면 이러한 예산의 5대 정신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 시사점은 무엇일까? 이것을 5대 정신의 각 주제별로 정리해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충의정신**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 중 러 일의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그나마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다. 최근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이 다 되도록 그칠 기미가 없다. 또 일본의 재무장론이 대두하고, 북한은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단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쏘아대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일찍이 예산 집성사(集成祠)에 배향되었던 우암 송시열(1607-1689)은 “우리는 나라가 작고 힘이 약하여 ‘아픔을 참고 원통함을 품고서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인통함원박부득이](忍痛含冤迫不得已)’는 이 여덟 글자를 가슴속에 새겨, 뜻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그 생각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유언으로 당부한 바 있다. 세상이 바뀌고 이제는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송시열이 지적한 위기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안보 불안 속에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인 충의(忠義) 실천과 그 정신을 적극적으로 발굴·체득하여 유비무환의 정신적 무장을 함양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특히 한말과 일제강점기에 각각 치열한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예산의 애국투사들의 충의실천과 그 정신은 오늘날 국가적 충의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정의(正義) 구현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오늘의 시대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바르게 판단하고, 나아가서 그 의리(義理)와 절개(節概)를 중시하고 실천하는 정신이 또한 절실히, 이 또한 충심과 직언과 충언으로 의리를 따르고자 했던 예산인들의 그 충의정신은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의 투쟁적 충의 실천이고, 후자는 의리와 직언과 충언의 도덕적 충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예산의 충의정신은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모두 충분히 모범적인 정신적 멘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효제정신** 오늘의 우리 사회는 가족과 가족문화의 전통이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전통시대의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그 수직적 경직성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 그 제도의 뿌리가 되는 가족(家族)마저 힘없이 해체되어 가는 ‘가족 존립의 위기 시대’로 치닫고 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핵가족에서 무자녀 가족으로 변해가고, 또 이혼 별거 졸혼 등으로 반쪽 가족이 갈수록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건강가족기본법을 고쳐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기만 하면 모두 가족으로 인정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또 빈번한 재산상속 문제 등으로 비인간적이고 남보다 못한 가족 관계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다. 전통의 가치인 ‘효제(孝悌)’가 무색하기만

하다. 또 가족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부모에 대한 효도의 연장인 제사(祭祀)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4대 제사의 전통은 사라진 지 오래고, 조부모까지 제사범위가 내려오더니 이제는 부모까지만 제사하자 하고, 급기야는 아예 제사를 없애 자고 하면서 ‘내 제사 안 받기 운동’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효(孝)에 바탕한 우리의 전통, 가족문화, 제사문화는 과연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그런데 가족의 해체는 결국 오륜(五倫)의 해체를 가져올 것이다. 가족은 혼인으로 시작되고, 혼인은 오륜의 기초가 된다. 부부가 있고서야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고서야 효도할 부모가 있고, 나라에 충성할 백성이 있게 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할 젊은이들의 상당수는 여러 이유로 혼인 자체를 기피하고 출산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려고만 한다. 그러다 보니 최근의 우리나라의 출산율(한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0.78명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꼴지가 된 지 오래다. ‘자식을 두어 대를 잇는 것이 효(孝)’라는 전통이 무너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력의 기초[인구]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지방도 예외가 아니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지방소멸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랑스런 전통문화를 간직한 예산(禮山)도 안심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것이 21세기 우리 한국의 가족문화의 현주소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할 대안은 없는가? 그 방안의 하나는 우리 전통의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육성해 가는 것이다. 효제(孝悌)의 현대적 회복과 보급은 그 하나의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적 회복이란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접맥을 통해서 시의성을 고려하면서 전통을 적절하게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먼저 효제의 인식상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즉 부모에 대한 자식의 순수한 효심은 마땅히 장려해가면서도,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수직적 효의 인식을 상호호혜적 효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효(孝)의 개념이 ‘자식의 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라 ‘부모의 자식 사랑과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성’이라는 상호호혜적인 것으로 재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그것이 어느 한 편의 사랑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의 비례적 사랑을 하려는 말은 아니다.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심에서 우러난 상호적인 사랑과 진정한 배려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변혁적 사고의 단서는 사실은 440여 년 전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율곡은 이 책에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문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 학문이란 높고 심원한 그 무엇이 아니고, 다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오륜을 포함한 7가지)를 제시함)를 실천하는 것이라 하고, 그 첫 번째 덕목으로 ‘자효(慈孝)’를 제시하였다. 자효가 무엇인가? 그것은 “어버이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어버이에게 효도하라”는 뜻이다. 이것이 진정한 상호호혜적인 부자간의 사랑이다. 또한 윤곡은 그 학문의 덕목 중에 ‘형제당우(兄弟當友)’도 강조하였다. ‘형제가 되어서는 마땅히 우애(友愛)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제간의 우애일까?

이제 예산의 효제(孝悌) 정신이 담할 차례이다. 예산의 조의과 조극성의 효행이나 형제효자 부자효자 등의 효행들도 출중하다. 그러나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세종대의 이성만 이순 형제의 효제이다. 『세종실록』의 이들의 효행 기사와 <의 좋은 형제> 스토리는 진정한 효가 무엇이며, 진정한 형제애가 무엇인지를 감동적으로 전해준다. 이들은 살아계실 때 부모를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고, 매년 부모의 친지들을 초빙하여 맛있는 음식과 연회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렸다. 또 형제간에도 조석으로 서로 방문하면서 맛있는 음식은 반드시 나누어 먹었으며, 형제가 사랑으로 서로를 먼저 배려하는 <의 좋은 형제>의 볏단 나르기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형제효제비도 전국 유일의 사례로서 효제의 모델로 삼을 만하다.

우리가 가족문화에서 시급히 회복해야 하고, 리모델링해야 하는 중심적 사고는 곧 ‘진정한 상호 호혜적 사랑과 배려’이다. 문제가 잘 안 풀리고 난국에 처했을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라(Back to the basic)’는 말이 정답이다. 인구감소를 초래하는 혼인율 저하나 출산율의 저하 문제도 ‘부모 기쁘게 해드리기 운동’과 연계해서 풀어가 보자.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의 해결도 ‘건전한 가정, 사랑하며 배려하기 운동’과 연계해서 극복해 보자.

예산의 <의 좋은 형제> 이야기는 시급히 다시 각급학교 교재에 보다 소상하고 심도 있게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의 대홍, 그 효제 이야기의 현장을 국민적인 효제의 체험장으로 육성하고, 현장 답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을 위한 제반 여건도 예산군과 충남도, 나아가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학정신** 조선후기 예산에서 꽂피워진 실학은 예산세가 여주이씨가의 실학으로서의 경학과 예학, 문학, 그리고 박물학 등이 성했고, 또 추사 김정희의 북한산 진홍왕순수비의 고증으로 대표되는 고증학적 실학이 크게 빛을 발했다. 양자는 형식과 내용의 면에서는 다툼이 있지만, 그 기본성격과 추구하는 바는 하나로 집약될 수 있다. 즉 그 요점은 추사가 그의 「실사구시론」에서 제시한 결론, 즉 ‘실제에서 진리를 찾으라는 정신, 바로 그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산의 실학정신의 키워드는 곧 실사구시(實事求是)이다. 그것은 학문에서는 물론 모든 분야의 모든 일에서, 그리고 오늘날은 물론 미래에 있어서도 철저히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값지고 귀한 정신이 아닐 수 없다. 추사가 특히 강조한 것은 학문에서의 실사구시 정신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멋있고 아름다운 예술로 꽂피워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에 덧붙여 또 하나 주목되는 실사구시적 사고가 있다. 그것은 곧 구시적(求是的) 도덕 정신이다. 그것은 이 책의 서설에서 소개한 권득기의 구시정신이 참조될 수 있다. 권득기는 광해군대의 문과 장원으로 산림 박지계와 격물치지를 논쟁하다가 그 판결적 대답을 예산인 조익에게 물었다. 사실 만회(권득기)

의 구시정신도 추사(김정희)의 실사구시도, ‘구시(求是)의 시(是)’는 상통하는 것인데, 다만 전자는 도덕 정신에 방점을 둔 것이고, 후자는 학문 정신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는 각각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요청에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오늘에 있어서 우리는 이 양자를 모두 충족하는 구시(求是)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실사구시적 실학정신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는 데에 필요한 정신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우리는 이른바 ‘카더라’가 난무하고 보이스 피싱 등 통신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혼란된 세상에 살고 있다. 따라서 학문과 과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팩트(fact) 검증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불신을 극복하는 기본 태도 역시, 고증적 실사구시의 태도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실사구시적 실학정신의 현대적 가용성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실학 연구는 근대 지향에서 근대 성찰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실학의 개념사 및 지식사는 최근의 추세로서 여전히 미래학이다. 그런데 조선 후기 예산에서 이러한 다양한 실학이 꽂피워졌다라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실학정신이 귀하고 값진 정신이며, 그 실학이 다양하게 꽂피워진 곳이 예산이었음을 잘 알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추사의 실사구시 정신을 연구하고 현창하는 문화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예산 세거 여주이씨들의 세거지와 초장지에 관련사실을 적은 표석이라도 하나 세워서 그 역사를 보존하고, 또 문화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실학정신의 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예술정신** 최근 첨단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등장한 ‘AI 예술’이 전통적 예술의 가치와 위상을 대신할 것이라는 예술 위기론이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질적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AI

예술은 빌랄된 도구와 기술로서만 작동할 뿐, 예술의 본질적 접근과 가치 창출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예산 예술을 창출해 낸 법고창신의 정신이 다시 요청된다. 옛 것을 모범으로 삼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새 것을 창출해 내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조선시대 예산에서 꽂파워졌던 인수체—동국진체—추사체의 출현은 모두 현재의 서법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를 부정하고, 서법의 원류를 찾아서 서첩(書帖)을 넘어 비첩(碑帖)을 찾고, 점차 송대 원대를 넘어 진대와 한위(漢魏)의 서법에까지 소급하여 고증해 가는 중에, 자신의 피나는 노력과 재능이 더해져서 얻어낸 값진 결과들이었다. 추사의 저명한 추사체와 세한도, 불이선란도 등도 천재적 재능을 갖추었지만 그런 그가 벼루 백 개를 닳아 구멍 내고 붓 천 자루를 써서 없애고서야 얻어낸 값진 결과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예산의 예술정신은 특히 조선후기 실학기 아래 더욱 성하게 이어져 왔다. 그것은 특히 글씨와 그림과 문학의 면에서 출중했다. 그리고 그것은 광복 이전의 근대 예산인들의 예술적 노력에도 부분적으로 투영된 바가 없지 않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산의 예술 문화전통을 계승한 전승의 자취는 그리 선명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예산 예술의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1세기는 K-한류가 전성하고 있고, 그 핵심은 K-컬쳐인데, 있어야 할 법한 K-서예와 같은 말은 아직 잘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추사의 경우, 당시 조선 서화(書畫)의 수준은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 만큼 가히 동아시아적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K-서예, K-서화, K-문학에 대한 예산의 역할이 기대된다. 지역의 기관과 예술계는 물론, 나아가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 발전 진흥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척정신** 예산인들은 전통시대를 지나 근대로 가는 이른바 근대이행기에 민족

종교의 성장, 기독교의 유입과 확산, 전통 불교의 개혁, 근대교육과 근대의학의 지역적 전개, 근대 기업과 은행 설립 등을 통해 그 개척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민족종교로서의 동학의 성장이나 기독교의 확산으로 인권이 개선되고 평등 의식이 크게 고무되었고, 일제의 불교 간섭을 극복하고 간화선을 중심으로 한 선불교가 재정립되었다. 예산인들은 근대학교의 창설과 육성에 앞장섰고, 근대 의학을 배워 체득하고는 고향으로 돌아와 근대의술을 두루 베풀었으며, 첨단 과학을 익혀 근대과학으로 후학을 길러냈다. 그리고 예산인들은 계몽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자본을 모아 근대 산업과 근대 상업을 일으켰다. 호서은행의 설립(1913년)과 충남제사(주)의 설립(1926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개척사업들은 선구적이고 시의성이 있고, 창의적이고 개척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보인다. 그것은 당시 예산사회의 발달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근대 예산의 개척정신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 한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 있다. 이전 우리가 개발도상국 일 때는 선진국이 이루어 놓은 길을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새로운 길을 개발하고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척정신이 절실하게 요청될 것이다. 개척정신에는 확실한 시의성과 높은 창의성이 요청된다. 지금 우리는 첨단과학 기술이 국가의 장래와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4차산업 시대에 살고 있다. 창의적 개척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것이 어찌 국가에만 요청되는 사항이겠는가? 개척의 필요성과 그 의지와 방향성은 지방정부나 기업이나 단체도 개인도 다 마찬가지 일 것이다.

앞에서 살핀 다섯 가지 예산정신은 분류상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설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정신사적 맥락은 사실 하나의 정신으로 관통될 수 있다. 그것의 요체는 현 상황에서 자족하여 멈추지 말고 더 나은 정신세계의

정립을 위하여 부단히 개선하고 개척해 나아가는 것이다. 즉 법고창신(法古創新)적 개척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온고지신(溫故知新)에 그치지 말고 창안에 방점을 둔 법고창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산정신의 핵심은 실사구시적 법고창신이다.

## 예산정신의 비전

비전(vision)은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곧 전망이나 미래상을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비전은 가능성, 포부, 희망의 의미로 응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예산정신의 비전은 무엇인가?’

첫째, 예산정신은 예산의 정체성(正體性)을 대변하는 하나의 틀로서, 예산의 예산다움과 예산인의 예산인다움을 이해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예산정신은 예산의 정신문화를 대변하는 문화적 정체성으로서, 예산인들에게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향토애를 자극하여, 지역발전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예산정신은 오늘의 예산인들에게 인간의 가치와 도리를 바로 알고, 실사구시적 실학정신과 법고창신적 예술정신, 그리고 창의적 개척정신을 추체험적으로 체득하고 키워 갈 수 있게 하는 정신적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산정신은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 공익을 우선하고, 기능보다는 본질을 택하고, 작은 기능보다는 신뢰를 택하고, 전술적이기보다는 전략적이고, 잔챙이가 되기보다는 큰 사람으로 살았던 예산정신의 주역들의 삶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자성하고 분발하고 성장하는 데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예산정신은 예산의 정신문화적 자산의 결과물로서, 그 구성 내용들은 예산과 예산인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천적 자료를 담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예산의 문화산업의 기획과 전개에 하나의 지표가 되고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에서 기술한 바 ‘예산정신의 현대적 시사점’은 현재적 당면 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것인 바, 예산정신을 가꾸고 키워갈 확실한 주관치를 두어 그것을 실천과제로 수행하면, 예산정신의 현대적 가용성과 시의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예산정신은 예산학(예산의 지역학)이 추구하는 최종의 목표, 즉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를 통한 지역민의 행복 추구’에 함께 기능하고 기여할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자신이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오직 높은 문화(文化)의 힘’이라 했고, ‘그것은 문화가 우리를 행복(幸福)하게 하고, 또 남을 행복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다. 예산정신은 수준 높은 예산정신문화의 정수이다. 따라서 그것은 예산인을 행복하게 하고, 또 예산을 아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깊은 샘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그것은 또한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발전하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인물로 본 예산의 정신

발행일 2022년 12월 일

지은이	한기범
펴낸이	김종옥
펴낸곳	예산문화원
기획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90번길 3(대회리) 박세진
편집위원	김종옥, 김태영, 양명석, 윤용혁, 이강열
행정지원	이충환, 이수영, 장혜민
제작	누마루

### \* 비매품

